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학위논문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난민의식 연구

- 염상섭, 박경리, 이호철을 중심으로 -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나 보 령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난민의식 연구
- 염상섭, 박경리, 이호철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방 민 호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나 보 령

나보령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위 원 장 김 종 욱 (인)

부위원장 손 유 경 (인)

위 원 차미령 (인)

위 원 정 주 아 (인)

위 원 방 민 호 (인)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전쟁 기간의 피난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의 작가들이 처해있던 난민 상황과 난민의식의 특성을 구명하고, 그와 교섭하는 과정 및 그로부터 초월하려 시도했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문학적 실천이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양상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이라는 두 번의 전쟁과 탈식민 신생 국민국가 만들기 과정을 거치며 한반도 안팎에서 발생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난민 상황을 국제법상의 난민의 정의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맥락에서 구분되는 '한국적 유형의 난민'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전쟁 기간의 피난 과정에서 출현한 난민에 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때 중점을 두었던 측면은 '누가' 난민인가에 관한 문제보다 난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역사에서 주변화된 존재들을 포착하고, 그들의 문학적 재현 및 활동을 재평가하도록 이끌며, 궁극적으로 한국문학사를 근대적인 국민국가와 문학 만들기가 아닌 다른 서사로 기술하게 해주는가의 문제였다. 또한 그들을 박해받고 추방당한 존재로서만 접근하기보다 전쟁의 폭력, 체제의 억압, 이념 갈등을 넘어 그동안 암흑기로 말해져 왔던 전시와 전후에 문학의 가치, 자율성, 자유와 평화에 대한 지향을 추구하고 수호해나간 전위적인 주체로 재발견하는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이 논문은 선행연구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먼저, '뿌리 뽑힘'이라는 범박한 개념으로 포괄되어왔던 난민 체험들을 미시적으로 재구하고, 그로부터 형성된 난민의식을 '낙인찍힌 자로서의 난민의식,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의식'이라는 정교한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뿌리에서 경로로 논점을 전환하였다. 난민을 양산한 구조의 강제와 폭력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행위자의 수행성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낙인찍힌 자로서의 난민의식을 살피는 한편, '난민의 낙인'의 현현과 그것을 은폐하려는 커버링의 전략이 경합하는 장으로 텍스트를 접근하였다. 둘째,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을 살피는 한편, 장소를 되찾고, 창출하고, 또는 탈주하려 시도했던 장소적 실천의 장으로 텍스트를 접근하였다. 셋째,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의식을 살피는 한편, 벌거벗은

생명을 탄생시킨 국민국가와는 다른 정치 공동체를 모색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장으로 텍스트를 접근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시기를 전시나 전쟁 직후에 한정하지 않고, 1960년대 중반 무렵까지 확장시켰다. 물론 논의의 핵심에는 한국전쟁기 피난 체험이 자리하지만, 그에 따른 난민의식을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지속적인 현상으로 접근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삶과 의식, 문학에 끼친 심층적인 영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구체적으로 선정한 연구 대상은 염상섭, 박경리, 이호철이다. 이들은 전쟁 난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난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무엇보다 난민의식과 특별한 교섭 양상을 보여주는 문학적 실천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언급한 세 가지 난민의식은 대개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이들이 처한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그 교집합의 배합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2장에서는 전쟁 이전부터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낙인과 함께 사회적 입지가 제한되었던 염상섭이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피난하지 않은 이른바 '반역문화인'으로 또 한 번 낙인찍히며 군문에 자원하게 된 사정에 주목하였다. 그의 해군 장교로의 극적인 변신을 난민의 낙인을 은폐하고 국민의 징표를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으로 접근하면서, 이 논문은 그 이면에서 지속되는－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이후 만주에서 귀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어져온－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염상섭의 난민의식을 부각하였다. 국가를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되면서까지 국민이라는 경계 안으로 소속되려 애쓴 노력과, 그럼에도 여전히 호명되지 않는 잉여가 공존하는 염상섭의 모순적인 상태를 이 논문은 '(비)국민 되기'로 표현해보았다.

그 같은 상황에서 창작된 염상섭 문학은 국민과 난민을 양산하는 냉전의 경계선이 무화되는, 즉 아군/적군, 국민/비국민, 반공/빨갱이 등과 같은 경계짓기가 불명확해지는 '냉전의 회색지대'로서 일상이라는 친밀성의 영역을 전면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논문은 염상섭이 친밀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쟁'의 양상을 재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냉전이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시금 이 영역을 제시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나아가 친밀성이라는 기제가 반공주의의 '적'이라든지, 인도주의적 구원 신화의 '우리' 같은 이데올로기의 호명으로부터 개인들을 이탈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탐색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전후 염상섭 문학을 그의 해방기 문학에서부터 이어져온 탈냉전의 상상력의 지속으로 의미부

여 하였다.

3장에서는 '전쟁부역자 미망인'으로서 박경리가 처해있던 이중의 난민 상황에 주목하였다. 국가보안법과 연좌제가 상존해온 반공 사회, 그리고 '정상가족' 바깥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 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는 전쟁부역자의 유가족이라는 국가의 외부, 그리고 미망인이자 재혼과 이혼의 이력이 있는 여성이라는 가족 제도의 외부로 봉쇄되었다. 염상섭 문학이 전쟁으로부터 개인들을 수호해주는 요새로서 발견했던 친밀성의 영역조차 박경리에게는 또 하나의 봉쇄에 지나지 않았다. 국경 안에서도,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내부의 외부로 봉쇄되는 난민 여성의 존재를 박경리의 사례는 일깨워준다. 그로부터 기인한 낙인찍힌 자로서의 박경리의 난민의식과 현실을 이 논문은 '이중봉쇄된 난민 여성'이라는 말로 표현해보았다.

그 같은 상황에서 창작된 박경리 문학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양쪽에서 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다양한 난민 상황을 재현하면서도, 다시 그 여성이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양상을 사랑의 서사를 통해 제시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박경리 문학 특유의 이 사랑의 문법을 이 논문은 '사랑의 수행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비슷하게 박경리는 겉으로는 위태롭고 수동적으로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난민 여성의 이동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지적 표류'로 전환하고자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피난, 월남, 밀항과 같은 여성의 난민 상황을 초래하는 불가항력적인 이동은 페미니즘 문학에서의 유구한 '탈가'의 계보를 잇는 방식으로 거듭난다. 이 논문은 이를 여성의 '난민 되기'라는 해방과 탈주의 의미를 부여 받는 수행으로 접근해보았다. 그럼으로써 가장 봉쇄되고 고립된 자였지만,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표류하는 가장 전위적인 문제의식을 박경리의 문학으로부터 이끌어냈다.

4장에서는 월남민이자, '북한군 포로' 출신이라는 낙인을 숨겨야 했던 이호철의 난민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 때 낙인찍힌 자로서 못지않게 전시에는 포로 적에 등록되지 못했던 포로, 전후에는 위조국적을 지닌 월남민이라는 '무적자'로서 남한사회에서 이호철이 처해있던 특수한 상황을 부각하였다. 즉, 일반적인 월남작가들과 달리 이호철은 단지 월남의 결과 난민이 된 것만이 아니라, 월남 이전인 포로 시절부터 적 없는 난민의 처지에 있었고, 그것이 월남 이후로도 지속되고 심화되었던 측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하게 된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에 대해 논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어떤 의미 있는 장소도 갖지 못한 무적자 난민의 삶을 살아갔던 이호철은,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가장

다원적이고 급진적인 공동체의 상상력과 장소 만들기의 실천을 전개해나가 흥미롭다. 이 점은 정착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탈주하고 표류하려는 지향성을 보여주었던 박경리 문학과 대조를 이룬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은 이호철 문학의 특성이 한편으로는 월남작가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월남문학의 상상의 공동체' 개념에 근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적자 난민의 상태에 있었기에 꿈꿀 수 있었던 국민국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친족 공동체마저 초월하는 '난민의 공동체'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불온한 공동체' 개념을 빌려 설명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공동체의 상상력이 '경제개발총력전시대'로 말해지는 전후 서울의 상경 이주민들에게까지 관철되는 양상 및 이들의 정착의 꿈,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복수의 장소들을 소중하게 의미부여하려 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은 난민의식 못지않게 전시와 전후에 문학의 가치, 자율성, 자유와 평화에 대한 지향이 어떤 방식으로 추구되고 수호되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자 했다. 그와 같은 문학적 사유를 재조명하고, 현재화하는 작업이야말로 휴전 체제와 분단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는 오늘날 전후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작가들을 그와 같은 창조적인 행위자로 재발견하고, 가장 위태로운 난민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가장 전위적인 문제의식을 탐구해나간 존재였으며, 전후 한국문학이야말로 풍요로운 예술의 장이었음을 말하였다.

핵심어: 한국전쟁, 피난, 냉전, 난민문학, 전후문학, 전쟁부역자, 전쟁미망인, 포로, 반공주의, 난민 여성, 해방, 귀환, 월남, 이주, 이주자, 상경, 피난수도 부산, 국민국가.

학 번: 2013-30841

- 목 차 -

1. 서론 ····· 1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 1
1.2. 연구의 시각 ····· 9

2. (비)국민 되기와 냉전의 회색지대 - 염상섭 ····· 22
2.1. 반역문화인의 낙인과 군인 되기라는 위장의 이면 ····· 22
2.2. 일상 속의 작은 전쟁과 요새로서의 친밀성 ····· 42
2.3. 난도(亂都) 부산과 인도주의적 구원 신화의 간극 ····· 58

3. 이중봉쇄된 난민 여성의 의지적 표류 - 박경리 ····· 77
3.1. 전쟁부역자 미망인의 낙인과 사랑의 수행성 ····· 77
3.2. 탈가(脫家)의 계보를 잇는 여성의 난민 되기 ····· 97

4. 무적자 난민이 상상하는 불온한 공동체 - 이호철 ····· 120
4.1. 북한군 포로의 낙인과 무적자로서의 월남 전후 ····· 120
4.2. 월남문학의 상상의 공동체와 난민의 공동체 ····· 137
4.3. 경제개발총력전시대 이주민의 정착의 꿈과 복수의 장소들 ·· 156

5. 결론 ····· 171

참고문헌 ····· 175

Abstract ····· 188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사 검토

한국전쟁 기간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 위에 섰다. 그로부터 시작된 여정은 문서상의 휴전 협정과는 무관하게 오래 지속되어 나갔다. 이 여정은 문학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전시 창작된 소설들 가운데 피난살이를 다룬 작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니와,[1] 전쟁이 끝나고 등장한 이른바 전후세대 작가들은 피난지야말로 자신들 문학의 본적지임을 자처하는 강렬한 피난민 의식을 표방하였고,[2] 일상의 표면에서 전쟁의 흔적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조차 몇몇 작품들은, 최인훈(1970)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하수도 같은 그 시간"[3]인 지난 피난의 기억을 불현듯이 그리고 끈질기게 재소환해 생생하게 되살리곤 했다.

그렇다면 피난은 어떤 점에서 그토록 특별한 체험이었나. 그것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바로 '난민'이 되는 공포와 난민의 삶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일깨워준 체험인 까닭이었다. 한국전쟁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벌어진 국제전이자 대리전으로, 당시 사람들은 전장을 피해, 생존의 극심한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기존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피난해야 했으며, 국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에 따라 한국전쟁기 피난민들은 1949년 유엔 제네바 회의에서 수립된 전시 난민을 포함한 민간인 보호의 인도주의적 기준, 그리고 한국전쟁의 와중인 1951년 유엔 제네바 회의에서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법적 이상을 처음 시험받았던 존재들이기도 했다.[4]

이와 함께 한국전쟁이 탈식민 신생 국민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촉발된 잔인한 내전이었다는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는 지구상의 모든

---

1) 곽종원, 「6.25동란 이후의 작단 개관」, 『신천지』, 1953.5, 186쪽.
2) 대표적으로 이어령, 「측면으로 본 신문학 60년(29): 전후문단」, 동아일보, 1968.10.26; 김승옥, 「서울 1960년의 외로운 방랑자」, 이호철 외, 『33인의 자서전: 오늘의 한국문학 33인선 별권』, 양우당, 1987, 73쪽.
3) 최인훈, 『하늘의 다리/두만강(최인훈 전집7)』, 문학과지성사, 2009, 70쪽.
4) 강성현, 「한국전쟁기 한국정부와 유엔군의 피난민 인식과 정책」, 『전장과 사람들: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 선인, 2010 125쪽; 김학재, 『판문점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362쪽.

신생 국민국가에는 난민이 저주처럼 들러붙어 있다고 했다.[5] 그 저주는 한국도 예외일리 없었다. 심지어 한국의 근대적인 국민국가 수립 과정은 권헌익(2013)이 지적하였듯, 서구에서 오랜 평화로 말해지는 냉전과 달리 탈식민과 냉전이 맞물리며 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매우 혼란스럽고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고,[6]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국민에 앞서 난민이 되는 삶을 체감하도록 만들었다.

실상 국민이라는 법적, 제도적 소속의 경계 바깥으로 추방되거나, 그 경계선 사이에서 위태롭게 배회하며 체감해야 했던 공포, 분노, 무력감, 슬픔 등은 두 차례의 전후로 말해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종전과 한국전쟁에 걸친 시기 한반도 안팎에서 지속되어온 귀환, 월남, 월북 등의 거시적인 이동 행렬 속에서 줄곧 되풀이되어왔던 것으로, 한국전쟁기 피난은 이를 훨씬 극대화시켰던 계기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이 논문은 이처럼 한국전쟁 시기의 피난을 전후해 지속적으로 난민 상황에 처해있었던 한국의 작가들이 지니게 된 난민의식의 특성을 구명하고, 그와 교섭하는 과정 및 그로부터 초월하려 시도했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문학적 실천이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양상을 탐색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난민이라는 개념은 한국문학 연구에서 비교적 최근 들어 중요하게 거론되기 시작하였지만, 꼭 그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선행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핵심은 난민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인데, 그 점에서 먼저 김윤식(1988)의 연구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김윤식은 해방에서 한국전쟁에 걸친 이른바 '민족적 엑소더스'라 이를 만한 이동 체험과 결부된 한국인들의 의식구조를 밝히는 작업이 해방 이후 문학사의 핵심 과제라는 문제의식에서 해방공간의 귀환과 월북, 월남, 그리고 한국전쟁기의 피난에 주목했으며, 그중 문학에 가장 심층적인 영향을 끼친 이동으로 피난을 꼽았다. 이 때 피난의 본질을 '뿌리 뽑힘'이라고 규정했으며, 이 뿌리 뽑힘이란 매우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이었던 까닭에 문학적으로 장기간 의식화 과정이 요구된다고 보았다.[7] 피난이 한국인들의

---

5) 한나 아렌트, 「국민국가의 몰락과 인권의 종말」, 『전체주의의 기원』, 이진우, 박미애 역, 한길사, 2017, 523쪽.

6) 권헌익,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이한중 역, 민음사, 2013, 38쪽.

7) 김윤식, 「6·25 전쟁문학」, 『한국현대문학사론』, 한샘, 1988, 78쪽.

삶과 문학에 끼친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뿌리 뽑힘이라는 개념으로 난민의식의 본질을 포착하려 했던 시도로 이해해볼 수 있다.

비슷한 관점에서 전후소설에 재현된 실향, 집 없음, 대단위적인 이주 등의 현상을 논의한 연구들은 개별 작품론, 작가론의 영역에서 상당수 축적되었다. 이 부류의 연구들은 주로 고향을 떠나 낯선 피난지에 불시착한 상황에서 피난민들이 느낀 불안과 상실감, 나아가 전쟁 통에 전통적인 윤리나 가치관, 삶의 방식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전락한 상태를 뿌리 뽑힘, 고향상실, 장소상실 등의 개념으로 설명했다.[8)]

그중에서도 서로 적대하는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이동을 감행했던 이들이자, 전쟁이 끝나고도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안정한 소속으로 살아갔던 월남민은 뿌리 뽑힘과 상실의 상태를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다고 여겨진 존재들이다. 그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는 난민이라는 범주 아래 주로 월남작가를 다룬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언급된 대상은 단연 최인훈이다. 한국전쟁 때 월남 피난한 최인훈은 월남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난민으로서의 자의식을 표방하며 피난을 오랜 문학의 화두로 삼았던 작가인 만큼 난민이라는 키워드로 최인훈 문학을 분석한 시도들은 꽤 이루어진 편이다. 대표적으로 차미령(2010)은 최인훈 문학에서 두드러지는 남과 북 양쪽 체제로부터 모두 버림받고 내몰린 자로서의 난민의식을 살피는 한편, 그것이 지배체제와 비판적인 거리를 취하는 자발적 망명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 및 그 가운데서 시도된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의 독특한 문학적 갱신 작업들을 분석하였다.[9)]

이 부류를 한국전쟁과 피난이 촉발시킨 보편적인 난민의식의 문학적 재현에 대한 연구로 포괄할 수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 한국의 작가들이 일종의 정치적 난민으로서 처해있던 좀 더 특수한 사회적, 제도적 조건

---

8) 유학영, 「1950년대 한국소설 연구: 전쟁체험과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87; 이재선, 「1950년대 소설」,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379쪽; 김문수, 「한국전쟁기 소설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논문, 1997; 남상권, 「전후 피난지 체험소설 연구」, 『상허학보』8, 상허학회, 2002; 서세림, 「월남작가 소설 연구: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6 외 다수.

9) 차미령,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정치성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0, 156~178쪽. 이외에도 김남석,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난민의식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김윤식, 「토착화의 문학과 망명화의 문학: 이호철과 최인훈」, 『문학사의 라이벌 의식』3, 그린비, 2017; 장문석, 「최인훈 문학과 '아시아'라는 사상」,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8; 김민지, 「최인훈 소설의 대화 형식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9 외 다수.

들, 문학 환경에 주목한 경우를 또 하나의 부류로 설정해볼 수 있다. 이는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래 한국전쟁 연구가 과거에는 다루기 어려웠던 전시 반공주의 이념과 그와 결부된 국가폭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작업들을 전개해오는 가운데 활성화된 경향이다.

문학 분야에서는 한수영(1993), 서동수(2012), 이봉범(2019) 등에 의해 개전 초기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서의 피난 문제를 두고 불거진 도강파/잔류파 작가들 간의 대립 및 부역문화인 수사 문제라든지, 이 과정에서 생산된 피난 및 잔류 체험 수기 등과 같은 관제 글쓰기의 수사학, 여기에 개입된 검열권력,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태로운 정치적 입지와 일종의 인정투쟁 가운데 쓰였던 월남작가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광범위한 반공주의 이념의 수용과 재생산 문제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10] 초기 연구들이 주로 국가에 의해 박해 받는 난민 상황에서 생산된 텍스트들에서 나타나는 반공주의 이념의 억압과 그 내면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 연구들은 반공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우회하는 텍스트상의 균열이라든지 공모 등과 같은 복합적인 양상을 좀 더 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연구로 정주아(2015; 2016)를 들 수 있다. 월남작가의 수기와 증언이라는 특별한 글쓰기 양식을 논하면서, 먼저 월남작가를 일반적인 전쟁난민과 구분되는 정치적 난민으로 분명하게 재규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이 연구는 이들이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을 인정받았으되, 사실상 정착이 보류되고 언제든 축출될 수 있는 난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기존에는 그와 같은 불안정한 입지를 반공주의라는 불가피한 생존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해왔다면, 반공주의가 월남작가들의 정치적 난민 상태를 종식시킬

10) 한수영, 「월남작가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반공이데올로기와 1950년대 현실인식」, 『역사비평』21, 역사비평사, 1993; 이은자, 「월남작가 작품에 나타난 반공이데올로기 수용과 비판양상」, 『현대소설연구』1, 한국현대소설학회, 1994; 유임하,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공포」, 『현대소설연구』2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신형기, 「6.25와 이야기 경험: 전쟁 수기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31, 상허학회, 2011;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안서현, 「작가들의 전쟁 체험 수기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28, 한국근대문학회, 2013; Jerôme de Wit, “Writing under wartime conditions: North and South Korean writers during the Korean war(1950-1953),” PhD dissertation, Leiden University, 2015; 유승환, 「잔류파와 도강파의 논리, 그리고 고백의 문제」, 『제1차 전국학술발표대회 ‘해방 70주년, 해방 후 8년을 재조명한다’』(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2.12.; 이봉범, 「냉전 금제와 프로파간다: 반란, 전향, 부역 의제의 제도화와 내부냉전」, 『대동문화연구』10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외 다수.

수 있는 궁극적인 자기 구제의 방편으로 인식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자신들의 문학을 관제문학의 장에 기입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의지의 발화가 무기력하게 소거되어야 했다는 점, 하지만 또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문학장의 자리와 그물을 찢고 초월하려 했던 그들의 주체적인 글쓰기의 흔적을 읽어내려 시도했다.[11]

이상의 연구들은 난민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썼든 안 썼든, 난민이라는 범주로 포괄하려 했던 대상이 같든 다르든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한국의 작가들이 처해있던 난민적인 상황과 그로부터 형성된 난민의식, 그리고 그것들과 교섭하는 가운데 탄생한 결과물로서의 문학이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인다.

사실 '누가' 난민이냐에 대한 엄밀한 논의는 난민의 지위 문제와 직결된 국제법의 차원이나, 월경구역 내지 난민수용소에서는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될지 몰라도, 문학의 차원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난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역사에서 내몰리고 주변화된 존재들을 포착하고, 그들의 문학적 재현 및 활동을 재평가하도록 이끌며, 궁극적으로 한국문학사를 근대적인 국민국가와 문학 만들기가 아닌 다른 서사로 기술하게끔 해주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봤을 때 이상의 선행연구들로부터 재고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의식의 바탕이 되는, 뿌리 뽑힘이라는 진단 아래 그러모아진 구체적인 난민 체험의 상이성을 훨씬 미시적으로 재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뿌리 뽑힘이었을지라도 피난 시기, 경로, 형태, 신분, 세대, 젠더, 교육정도, 생활수준 등에 따라 저마다의 체험과 의식, 자기 정체성의 형성 과정 및 문학적 재현에 차이가 발생함은 당연하다.[12] 오늘날 한국전쟁 연구는 박명림(2011)이 지적하였듯,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로 다가온 역사적 사태로서의 한국전쟁의 사실화이며 정밀화"[13]를 그려내는 수준으로까지 한없이 세밀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

11) 정주아, 「'정치적 난민'의 공간 감각: 월남작가와 월경의 체험」, 『한국근대문학연구』31, 2015; 「난민의 언어적 조건과 '증인'의 시선: 월남작가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48, 2016.

12) 한국전쟁기의 부산 피난민들의 정착 과정에 대한 한 연구는 그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 피난민 저마다의 피난 체험과 이후 정착지에 대해 형성하는 장소성 및 자기 정체성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시켜준 바 있다. 차철욱, 「한국전쟁기 임시(피란)수도 부산의 재현과 의미」, 『항도부산』35, 부선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135~136쪽.

13) 박명림,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나남, 2011, 272쪽.

와 같은 인접 분야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문학연구만의 방법론을 갱신시켜야 한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문학연구들이 개전 초기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잔류파/도강파의 텍스트를 비교하거나, 김동춘(2006)의 구분에 따라 전쟁 발발 직후의 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1차 피난과 1.4후퇴를 전후한 시기의 생존을 위한 대규모의 2차 피난을 구분해 논의하거나,[14] 월남민의 경우만을 따로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인훈(1980)이 언급한 "피난민이란 이름으로 묶이는 보편성"[15]을 의식하는 한편, Malkki(1996)가 지적한 보편적인 난민의 이미지에서 소거된 개별성과 역사성[16]을 복원함으로써, 그로부터 비롯하는 작가들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난민의식을 촉발시킨 피난을 전쟁 기간에 국한되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전사와 후사를 수반하는 장기지속적인 체험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요청된다. 2000년대 이래 전후문학 연구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는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을 아우르는 관전사(貫戰史)의 관점의 획득이라 할만하다. 대표적으로 전후세대 작가의 전쟁 체험을 두 차례의 연쇄된 전후를 염두에 두며 논의하는 방식이다.[17] 그런데 '연속되고 중첩된'[18] 전쟁이 촉발시킨 이동 체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다. 이는 방민호(2018)가 지적한 해방공간과 전시 문학연구가 양분된 채 사적인 연속성과 인과성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19]

두 차례의 전쟁이 초래한 피난의 제 양상에 해당하는 이동들을 연결해 다룰 수 있는 토대는 이미 마련되었다고 보인다. 예컨대, 김윤식(1983)이 해방기의 귀환을 한국전쟁기의 피난과 달리 뿌리 찾기와 귀소본능에서 추동된

---

14) 김동춘, 『전쟁과 사회』(개정판), 돌베개, 2006, 160~173쪽.

15) 최인훈, 「성숙과 소속」, 『유토피아의 꿈(최인훈 전집11)』, 문학과지성사, 2010, 434쪽.

16) Liisa H. Malkki, "Speechless Emissaries: Refugees, Humanitarianism, and Dehistoricization," *Cultural Anthropology*, vol.11, no.3, August, 1996, p.378.

17) 대표적으로 방민호, 『한국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외 다수.

18)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 연구의 방법」, 『춘원연구학보』, 춘원연구학회, 2017, 177쪽.

19) 방민호, 「해방 후 8년 문학사에 관하여」,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 예옥, 2018, 154쪽.

이동으로 보고, 해방기의 귀환 서사로부터 탈식민 신생 국민국가의 일원이 되는 정신적, 상징적 귀환 과정을 읽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20] 이후의 연구들은 줄곧 국가의 외부나 접경지대로 시선을 돌려 국민국가의 상상력과 재현을 넘어서는 해방기 이동에 내재한 다양한 갈등과 차이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국제적인 난민 됨을 피해 조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결과적으로 국경 안의 난민으로 치환되었을 뿐인 상황을 국가의 '배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김예림(2010)의 논의를 들 수 있다.[21]

한국전쟁기 피난은 김예림이 말한 해방기 국가의 배반이 한층 더 비틀어져 '역설'에 이른 상황에 가깝다. 국민이 되기 위해, 국민이라는 소속과 경계 바깥으로 뿌리 뽑히지 않기 위해 오히려 난민이 되어야 했던 역설이 그것이다. 기실, 두 차례의 전후에 발생한 이동들에는 모두 이 배반 내지 역설이 작동하고 있다. 국민국가에 소속되기 위해 또는 소속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들을 피해 이동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소속 박탈에 처하는 역설, 국민과 난민, 뿌리 찾기와 뿌리 뽑힘, 소속과 배제가 이 이동들에 착종되어 있다.

Aline Lo(2017)는 현실에서는 난민들이 지금 당장 얼마나 긴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는가, 즉 단기적인 도움과 구호라는 관점에서만 규정되고 취급될 따름이지만, 문학에서 난민의 재현과 정체성은 개개인의 훨씬 더 긴 역사 및 복합적인 서사와 연동된 채 구축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22] 그 점에서 전쟁 이전 못지않게, 이를테면 여지연(2005)의 연구가 확인시켜주듯, 표면적으로는 즉각적인 전쟁의 위험에서 비롯되는 피난과 무관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의 서사는 여전히 전쟁과 긴밀하게 연결된 전후의 여러 이주 유형으로까지 연구의 시야를 확장시켜볼 수 있다.[23] 독일의 전후

---

20)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1945~1980』(증보판), 일지사, 1983, 45쪽.

21)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29, 상허학회, 2010, 339쪽. 이외에도 김종욱, 「식민지 체험과 식민주의 의식의 극복: 허준의 「잔등」 연구」, 『현대소설연구』22, 현대소설학회, 2004; 이종호,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한국문학연구』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임미진, 「해방직후 귀환 서사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젠더」, 『현대소설연구』69, 2018; 오태영, 「패전과 해방, 미귀환자의 반이동의 정치성」, 『현대소설연구』72, 현대소설학회, 2018 외 다수.

22) Aline Lo, "Fanciful Flights: Reimagining Refugee Narratives of Escape in Kao Kalia Yang's *The Latehomecomer: A Hmong Family Memoir*," *Auto/Biography Studies*, vol.32, no.3, August 2017, p.643.

작가 제발트의 문학은 한 번 뿌리 뽑힌 사람들은 계속 흔들림을 보여준다.[24] 피난을 삼 년 간의 전쟁과 휴전에 그치지 않는 사건으로 인식하는 한편, 한국인들의 삶과 의식, 문학에 끼친 영향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되물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 속에서 행위자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의미부여 해주어야 한다. 뿌리가 뽑혔다면 그 이후 다시 어떻게 움직였는가, 즉 '뿌리(roots)에서 경로(routes)로'[25] 문제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아직까지 피난으로 인해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뿌리 뽑힌 상태에서 오는 상실감을 전면화한다든지, 사회적, 법적 테두리 바깥으로 배제되는 공포와 체제의 억압에 결박당할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의 형상으로 한국의 작가들과 문학을 조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탈구조주의 이후의 행위자 개념을 고려한다면, 난민을 양산하는 구조 속에서 그 구조의 질서를 내면화하고 재생산하는 양상 못지않게, 그것을 교란시키고 초월하는 행위자의 수행성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서동수(2012)의 연구를 예로 들자면, 한국전쟁기 문학 텍스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반공주의 담론의 영향력을 설득력 있게 분석했지만, 반공주의가 문학 텍스트에 투영되고 기존의 담론을 강화한다는 일방향적인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그 논리에 가장 잘 들어맞는 텍스트들을 위주로 분석하다보니 정작 동시대에 존재했던 훨씬 다양하고 자유로운 문학적 사유를 전개해나간 문제작들이 연구의 시야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피난과 난민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선행연구 가운데 전후세대 작가론의 가장 정교한 논의라 할 만한 한수영(2015)의 연구에서 상정되는 주체도 비슷하게 소극적인 인상을 준다. 전후세대 문학에 대한 김현으로 대변되는 과거의 비평적 관점에 거리를 두고, 그 풍요로움을 읽어내고자 시도했던 한수영의 연구는 결과적으로 이중언어, 국민 되기의 문제로부터 곤혹을 느끼는 주체의 증상을 부각시키며, 그들의 증상과 질환의 기록으로 전후소설을 읽는 독법을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시도이지만, 온전한

---

23) Ji-Yeon Yuh, "Moved by War: Migration, Diaspora, and the Korean War,"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vol.8, no.3,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ctober 2005, p.281.
24) 빈프리트 게오르크 제발트, 『이민자들』, 이재영 역, 창비, 2019.
25) 제임스 프록터, 『지금 스튜어트 홀』, 손유경 역, 앨피, 2006, 244쪽.

구조로도, 주체로도 환원되지 않는 행위자의 수행성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볼 수 없을까 의문이 든다.

난민이라는 주제로 돌아와 말하자면, 문학에 반영된 난민 체험과 난민의식의 세목들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것 못지않게 그와 같은 난민의 자리를 넘어서려 했던 행위자들의 문제의식과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조명하는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그러한 시도를 보여주는 참조할 만한 연구들이 몇몇 있다. 대표적으로, 방민호(2015)는 실향민 문학, 반공주의 문학으로 범박하게 논의되어온 월남문학을 고향상실이라는 원체험에 대한 월남작가들의 문학적 대응과 실천으로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을 표본으로 삼아 각각 고향 회귀, 현지 적응, 제3의 고향 찾기라는 월남문학의 세 유형을 도출해내는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26]

앞서 정주아가 보여준 "(무)소속의 삶이라는 정치적 난민으로서의 존재방식이 현실 개입시의 무력함이나 피동성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27]는 통찰 역시 다시 한 번 음미할 만하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그는 수기와 증언이라는 양식의 글쓰기를 노예의 언어처럼 도구적, 제한적인 발화만이 허용되는 제도적 글쓰기의 강요와, 다른 한편으로 끊임없이 그로부터 탈출하고 증언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팽팽히 길항하는 역동적인 장으로서 재조명하였다.

한편, 박완서의 전쟁과 피난 체험이 반영된 자전적 소설들로부터 피난을 가지 못한 '벌거벗은 생명'의 공포와 국민/비국민을 판가름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일방적으로 조명하는 대신, 그에 맞서 피난을 가장(假裝)하고 신원을 연출함으로써 살아남고 증언하게 된 행위자의 전략에 주목한 차미령(2018)의 흥미로운 논의도 있다.[28] 이러한 시각의 연구들이 작가론, 작품론에서 개별적으로나마 시도되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이 문제는 나아가 전후 한국문학을 어떻게 다시 논의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도 연결된다.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이며, 불모적인지를 밝히는 작업도 중요하고, 문학 텍스트를 증상과 상흔의 기록으로 읽는 작업도 의미가 있지만, 전쟁의 폭력, 이념과 체제의 억압, 이념 갈등을 넘어서려 했던 문학적

---

26)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7-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27) 정주아, 앞의 글, 2015, 47쪽.

28) 차미령, 「한국 전쟁과 신원 증명 장치의 기원: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주권의 문제」, 『구보학보』18, 구보학회, 2018.

사유들을 충분히 조명해주고, 현재화하는 작업이야말로 휴전 체제와 분단 상황이 여전히 지속하는 오늘날 한국에서 전후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한다.

지난 이십 년 동안의 활발했던 탈식민주의 문학연구 성과에 힘입어 이른바 일제 말기를 암흑기로 바라보았던 문학사의 오랜 통념이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의 암흑기로 말해지는 전시와 전후에 문학의 가치, 자율성, 자유와 평화에 대한 지향이 어떤 방식으로 추구되고 수호되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아직도 한국의 문학연구는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작가들을 그와 같은 창조적인 행위자로 재발견하고, 가장 위태로운 난민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가장 전위적인 문제의식을 탐구해나간 측면을 입증해 보이려는 시도이다.

1.2. 연구의 시각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적용될 몇몇 개념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주된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논의의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난민'에 대한 정의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강제이주민이 발생했던 20세기 중반 무렵은 제국의 붕괴, 제한적 시민권을 가진 국민국가의 출현, 내부의 적을 사냥하는 극단적인 이념의 확산 사태 등이 맞물리며 근대적인 난민이 출현했던 시기로 말해진다.[29] 그에 따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30]이 처음 시도된 이래 난민의 정의를 확장하려는

29) Peter Gatrell, *The Making of the Modern Refuge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2.

30) 그에 따르면 난민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혹은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번역문은 신지원, 송영훈, 박가영, 신예진,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2012-02)』, IOM이민정책연구원, 2012, 6쪽 참조. 원문은 UN General Assembly,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8 July 1951,'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189, 1954, p.152 참조.

노력들—시공간적 제약을 없애고, 난민을 만들어내는 위기 상황을 확대하는 한편, 거주가 불안정하고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내외의 이주자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등—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일례로, 신지원 외(2012)는 "광의로 난민은 자국의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자"[31]라고 보면서, 협약상 정의, 지역별 정의, 그리고 기타 정의로 구분해 특정 정의를 우선시하기보다는 맥락에 따라 난민이 달리 규정될 수 있다는 탄력적인 시각과 필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

그와 같은 논의의 바탕 위에서 난민 연구 또한 훨씬 다양해질 수 있었다.[32] 그중에서도 이 논문이 주목한 경향은 난민을 단순히 외국으로 피난한 불안정한 법적 지위의 외국인 이민자로 보는 대신, 한국사회 내부의 구성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존재로 적극적으로 재인식하는 논의들이다.[33] 대표적으로 김아람(2017a)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종전 이래 탈식민, 분단, 냉전,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국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거주지가 불안정하고 생존이 위태로웠던 상황에 처해 있던 이주민들—구체적으로 해방기 귀환민, 월남민에서부터 제주 4.3사건이나 여순사건 같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강제 이주민, 그리고 한국전쟁기의 피난민—을 모두 한국에서 출현한 근대적인 난민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이 국가의 정책과 갈등하며 정착하는 과정을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34]

이 대상들은 기존에는 귀환민, 전재민, 월남민, 피난민 등으로 달리 취급되어왔고,[35] 넓은 의미에서는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으로

---

31) 신지원, 송영훈, 박가영, 신예진, 위의 책, 5쪽.

32) 국내 학계의 난민문제에 관한 선행연구사는 박상희, 「난민과 탈북민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 시민권의 변용과 학장」,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9, 32~33쪽 참조.

33) 신지영은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겪어온 한국인들에게 난민이 되는 공포가 컸던 만큼 난민을 '우리'의 외부로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난민 상태의 종식과 해방을 국가건설, 경제발전의 신화로 쉽게 환원시키는 경향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신지영, 「'난민'과 '인민' 사이: 梁七星・ 梁川七星・ Komarudin・ 史尼育唔・ 中村輝夫・ 李光輝」, 『상허학보』48, 상허학회, 2016, 90쪽.

34) 김아람, 「한국의 난민 발생과 농촌 정착사업(1945~1960년대)」,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7a, 3쪽.

35) 각 용어들은 의미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시기에 따라 좀 더 빈번하게 쓰였거나, 원래의 의미와 다른 방식으로 쓰였던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전재민은 해방기에는 통상 귀환민과 월남민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나, 한국전쟁 시기에 이르면 전재민에서 귀환의 의미는 사라지고 전쟁의 피해를 입어 구호가 필요한 사람이라

포괄되었던 존재들이다. 김아람(2017b)은 “국가의 경계 내에 존재하고 국민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는 난민과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 있더라도 국민과 동등한 상태로 안전이 보장되거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36]는 점을 들어 이들을 ‘국내 난민’이라는 개념으로 재규정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근대적인 국민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전개된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무력충돌,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 속에서 국가에 의해 보호나 권익을 제공받지 못한 채 국내외를 넘나드는 이동을 감행했던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을 포괄해 난민으로 호명할 경우 기존에는 주로 해방기나 전시에 국한된 현상으로 인식되어왔던 국가와 국민의 경계 바깥으로 축출되고 배제되었던 존재들의 지속하는 위태로운 실존 문제와 정착이라는 공통의 과제가 훨씬 첨예하게 대두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국내 실향민(IDP) 개념을 국내 난민이라는 말로 단순히 대체하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내 실향민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호대상자로 난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실질적으로는 난민과 같은 처지”[37]이며, 전체 강제 이주민 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가장 광범위한 집단이지만,[38] 이들을 난민이라는 개념으로 재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난민 개념과 공유하면서도 구분되는 ‘한국적 유형의 난민(Korean refugees)’이라는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맥락이 상술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에 맞는 난민의 개념을 정립하려 시도한 ‘1969년 아프리카 지역 난민 문제의 특정 양상에 관한 협약’에서처럼 말이다.

이를 이 논문의 주된 대상인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피난민에 한정해 시도

는 의미로 돌아오게 된다. 전시 비슷한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인 것은 피난민이다. 전쟁으로 살던 곳을 떠나 피난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흔하게 전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임하(2009)에 따르면, 양자를 따로 구분해 쓴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유엔민간원조사령부 문서에서는 전쟁의 피해를 입되 원 거주지 근처에 있으면 전재민, 장거리로 이주한 사람들은 피난민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이임하,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의 인구조사와 통제」, 『사림』33, 수선사학회, 2009, 50~51쪽.

36) 김아람, 「한국전쟁기 난민정착사업의 실시와 구호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9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b, 246쪽.

37) 정인섭, 「한국에서의 난민 수용 실행」, 『서울국제법연구』16-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9, 197쪽.

38) 손주희, 「한국 체류 난민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박사논문, 2018, 11쪽.

해 보자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해석의 관건이 된다. 이는 신지원 외(2012)에서 협약 및 의정서 상의 난민 개념을 충족시키는 기본 요건으로 꼽아진 것들이기도 하다.[39]

첫째는 국적국 혹은 상주국 밖에 있는 자라는 요건이다. 난민과 국내 실향민의 결정적 차이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을 넘는 피난을 감행했는지, 국적국의 영토 내에 체류하는지의 여부이다. 한국전쟁기의 피난민은 소수를 제외한다면, 대개가 한반도 내에서 이동한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이자 내부 국경으로서의 삼팔선의 특수한 성격은 이를 월경하는 행위를 국내/외로 정의하기 어렵게 만들뿐더러, 톱질전쟁이라는 말이 생겼을 만큼 전선이 수시로 변화했던 전시에는 훨씬 더 경계를 규정하기 곤란했던 측면이 있다. 단적으로, 전선의 오르내림에 따라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국적국 바깥에 있는 것과 같은 '시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군 점령기의 서울에 잔류했던 사람들이 해방기 월북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었던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전시 한반도 내에서의 경계의 불확정성 및 이동의 특수한 성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자라는 요건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 난민이 매우 취약한 법적 소속과 지위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전쟁기 피난민들은 어땠을까. 잘 알려져 있듯, 9.28 서울 수복 이후 한국정부는 만 14세 이상의 전시 잔류한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상 조사의 결과에 따라 시민증을 교부하였다.[40] 피난민들은 기존의 국적이나 호적, 실거주지와는 무관하게 이 신원증명장치를 통해서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소속을 증명 받고 보호 받을 수 있었으며, 피난길의 검문소와 같은 월경구역을 통과할 수 있었다. 국적국의 영토 내에 체류하고 있었음에도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법적인 소속 박탈의 난민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뜻이다. 또한 정주아(2015)의 논의에서 확인되듯, 월남민들은 전쟁이 끝나고 가호적에 취적했다지만, 언제든 법의 외부가 될 수 있는 (무)소속의 상태에 있었다.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예외적 존재들로서 피난민의 난민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박해를 받을 우려와 두려움을 촉발시키는 상황(인종, 종교, 민족,

39) 신지원, 송영훈, 박가영, 신예진, 위의 책, 6쪽.
40) 김영미, 「일제시기~한국전쟁기 주민 동원·통제 연구: 서울지역 정(町)·동회 조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89쪽.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이는 난민을 경제적, 개인적 동기의 이주민들과도, 광범위한 전재민들과도 구분 짓는 요건에 해당하다.[41] 한국전쟁기 피난민은 일차적으로는 전재민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단순히 전재민으로만 볼 수 없는, 특수한 박해의 사유를 지녔던 이들도 존재했다. 월남민을 위시해 국민보도연맹원, 전쟁부역자 및 그 가족, 포로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전시 다양한 정치적 난민의 존재는 그들이 처해있던 정치적 조건과 신분 유형에 대한 훨씬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연식(2016)이 지적했듯, 이들이 직면한 박해의 우려와 공포가 얼마나 크고 긴급했는가의 문제보다는 "그러한 박해의 가능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 그것이 왜 특정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42]을 구명하는 작업이다.

앞서 인용한 넓은 의미의 난민의 정의에 따른다면,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피난민은 물론 난민에 포함된다. 동시에 위와 같은 난민의 기본 요건들을 둘러싼 탄력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들을 좁은 의미에서도 국내 실향민뿐만 아니라 난민으로서 재규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적 유형의 난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해보는 것 역시 가능하다.

그렇다면 '난민의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앞서와 달리, 문학에서 난민이 어떻게 재현되고 서사화 되어왔는지 살피는 작업이 요구된다. Hadji Bakara(2020)에 따르면, 난민에 의해 쓰이고, 난민에 관해 쓴 글은 20세기 이래 유럽에서 광범위한 현상으로 지속되었으나, 그동안 국가 중심의 문학적 전통 안에 가려져 잘 인식되지 않았다.[43] 최근 서구에서 난민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조명하는 시도는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Lyndsey Stonebridge(2018)처럼 프란츠 카프카, W.H. 오든, 사무엘 베케트, 조지 오웰 등 기존에 이미 잘 알려진 작가들, 즉 망명,[44] 디아스

---

41)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오고 있다. 박해의 결과라고 보기 힘든 환경난민이나, 내전 등의 분쟁으로 발생한 대량의 난민들을 포괄시킬 수 없다는 점에 더하여 신지원(2015)이 지적하였듯, 현실에서 이주의 원인은 대개 복합적이며, 경제적인 동기와 정치적인 동기를 구분하기가 힘든 까닭이다. 신지원, 「'이주-비호의 연계성' 담론과 난민보호 위기에 관한 정책적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15-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432쪽.

42)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 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론」, 『역사문제연구』 35, 역사문제연구소, 2016, 136쪽.

43) Hadji Bakara, "Introduction: Refugee Literatures," *Journal of Narrative Theory*, vol.50, no.3, Fall 2020, p.290.

포라[45] 등의 개념으로 논의되어왔던 작가들을 넓은 의미의 난민이라는 범주로 재발견하고, 근대적인 난민의 조건에 응답하는 작가군으로 새롭게 계보화하는 작업이다.[46] 다른 하나는 Aline Lo(2013)처럼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즉 유럽이나 미국 내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쓰이고 문학 활동을 했지만, 해당 국가의 문학사와 정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실제 난민의 지위에 있던 존재들의 문학을 발견하고, 그들에 의해 서사화된 난민 체험과 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부여해 주는 작업이다.[47]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미시적으로는 외상적인 사건과 피난이라는 서사구조,[48]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시민권 박탈, 피난, 수용소, 정착'[49] 등의 요소와 관련된 난민 체험의 재현이 중요하지만, 난민 신청 절차가 요구하는 외상적인 사건의 재현에만 얽매이지 않으면서, 기존의 사회 제도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는 자로서 겪는 광범위한 공포, 상실, 불안, 부조리 등의 주제 역시 난민문학과 공명한다.[50] 이렇게 본다면 난민이라는 실체 못지않게 핵심은, 국민국가로부터 주변화되고 이탈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존재들과 그

---

44) 문학예술 분야에서 난민보다 더 익숙한 개념은 주로 1차 대전 이후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추방된 유대인 작가들의 이동을 의미했던 망명(exile)으로, 망명 지식인, 망명 예술가, 망명 정치인 등의 쓰임에서 드러나듯 난민과는 어감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망명이 주로 단독적이고, 훨씬 엘리트적이고 정신적인 이동의 이미지를 지니는 데 반해, 난민은 대량 이주와 즉각적이고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서 표상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Aline Lo, op. cit., p.25.

45) 같은 민족적인 기원을 지닌 사람들의 "국제 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출판부, 2003, 5쪽)인 디아스포라(Diaspora) 안에는 난민이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디아스포라가 난민인 것은 아니다. 이민이 난민과 구분되듯,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모두 난민처럼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국경을 넘거나, 이동한 뒤에도 불안정한 거주 상황과 조건에 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가 난민보다 더 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46) Lyndsey Stonebridge, *Placeless People: Writings, Rights, and Refuge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47) Aline Lo, "Manifested Destinies: Refugee Narratives in Contemporary American Literatur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13.

48) Eleni Coundouriotis, "In Flight: The Refugee Experience and Human Rights Narrative," *The Routledge Companion to Literature and Human Rights*, edited by Sophia A. McClennen and Alexandra Schultheis Moore, Routledge, 2015, pp.78~85.

49) Aline Lo, op. cit. p.2.

50) Hadji Bakara, op. cit., p.291.

사유를 포착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문학에서 난민은 일종의 은유이자, 의식의 차원으로 재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그중에서도 한국전쟁기 피난한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존의 뿌리 뽑힘 의식을 대체하는 좀 더 정교한 개념으로 '낙인찍힌 자로서의 난민의식,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의식'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도출해 보았다. 각각은 고프먼, 아렌트, 아감벤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먼저, '낙인찍힌 자'로서의 난민의식이다. 고프먼에 따르면, 낙인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스티그마'는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 상징적 결함을 포괄하는, 일종의 사람 자격에 가해진 손상을 말한다.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결함이 눈에 띄지 않도록, 결함을 지닌 존재로서 스스로를 눈에 띄지 않도록 애쓴다.[51] 이 스티그마 개념은 난민이 처해있는 박해의 위기와 두려움, 특히 한국전쟁기 극단적이었던 아군/적군, 국민/비국민, 반공/빨갱이의 구분 짓기와 낙인찍기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

일례로, 김동춘(2006)은 전시 북한군이 점령한 공간으로부터 피난하는 행위가 애국적이고 명예로운 "국민의 징표"[52]로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그 말은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 등지에 남았던 이른바 잔류파들, 더 나아가 부역에 동원된 사람들, 적국 출신인 사람들 등은 국민의 징표가 훼손되거나, 부재하는 자들로 취급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논문은 이를 국민의 징표와 대비되는 '난민의 낙인(스티그마)'으로 인식한다. 이는 연좌제라는 친족과 유대관계에 근거한 집단처벌체계[53]와 맞물리며 가계 전체를 오염시키는 일종의 '종족 낙인(tribal stigma)'[54]처럼 작동하기도 했다.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 짓는 폭력적인 이분법이 횡행하고, 그것이 인권의 박탈 및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생명정치로까지 번져갔던 당시 한국사회에서 낙인찍힌 자로서 난민들은 현실에서는 최대한 자신이 지닌 낙인을 은폐하거나, 스스로를 비가시화하는 '커버링(covering)'[55]의 방편을 택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그러한 은폐 내지 위장으로 해소되지 않는 난민의식이 드러나

---

51) 어빙 고프먼, 『스티그마』, 윤선길, 정기현 역, 한신대학교출판부, 2009, 13, 15, 113~115쪽.
52) 김동춘, 『전쟁과 사회』, 119쪽.
53) 전후 한국사회에서 연좌제에 관해서는 권헌익,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144~148쪽 참조.
54) 어빙 고프먼, 위의 책, 17쪽.
55) 어빙 고프먼, 157쪽.

주목된다. 이 논문은 바로 그와 같은 난민의 낙인의 현현과 커버링의 전략이 경합하는 장으로 전후 한국문학을 조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이다. 아렌트는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권을 비롯한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난민들을 장소 잃은 사람들로 표현하였다. 이는 집과 고향, 출생국가로부터 내몰리고, 망명국가를 찾을 수 없다는 장소상실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견해를 의미있는 견해로, 행위를 효과적 행위로 만드는 장소의 박탈"[56]이라는 정체성과 인간관계의 내밀한 차원과 관련된 상실로도 설명된다. 그 점에서 아렌트가 말한 난민을 반드시 국경 외부에 위치하는 존재들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대개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피난은, 초국가적인 이동 과정으로 점철되거나, 난민수용소가 아닌 그 어떤 장소에도 머물 수 없는 일반적인 난민들의 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의 피난민들이 체감했던 것 역시 자신을 이루는 모든 관계의 상실이자, 정체성이 불확실해지는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이었으며, 특히 앞서 언급한 낙인찍힌 자들의 경우 그 강도는 더 심했다. 이들은 김현경(2015)이 말한 사회 내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권리들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장소와 환대[57]를 누리지 못한 자들로, 물리적으로는 국가와 사회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없고, 말하더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장소가 없는 난민이었다.

이 문제는 전후 한국문학에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만큼 선행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오히려 장소 없는 난민의 상황에 처해있었던 작가들이 그 속에서 다시 어떻게 장소를 되찾고, 창출하고, 또는 탈주하려 했는지 그 장소적 실천의 기록으로 텍스트를 읽고자 한다.[58] 이와 관련해 난민문학 연구가 Malkki(1996)가 지적한 '말없는 희생자', '인도주의적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존재'로서의 난민의 전형[59]으로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되찾아주고, '역사적인 행위자'[60]로서 그들을 상상하고, 궁극적으로

56) 한나 아렌트, 위의 글, 532쪽.
57)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193쪽.
58) 비슷한 맥락에서 김동리의 전후소설에 나타나는 장소의 정치와 투쟁을 살핀 논의로 졸고, 「피난지 문단을 호명하는 한 가지 방식: 김동리의 「밀다원시대」에 나타난 장소의 정치」, 『한국현대문학연구』54, 한국현대문학회, 2018.
59) Liisa H. Malkki, op. cit, p.378.
60) Aline Lo, op. cit., August 2017, p.644.

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문학의 장소를 자리매김하는 시도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이 논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의식이다. 앞서 아렌트가 어떤 권리도, 소속도 갖지 못한 무권리자이자 무국적자인 난민을 인권·국민주권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정치적 공동체인 국민국가의 '몰락'을 의미하는 존재라고 보았다면, 아감벤은 이들을 오히려 인간과 시민, 출생과 국적 간의 연속성을 깨트리고 양자의 간극을 드러냄으로써 근대 정치의 숨겨진 '전제'이자 '출발점'으로서의 '벌거벗은 생명'을 체현하는 존재라고 보았다.[61] 아감벤의 관점에서는 난민들이 체류하는 수용소도 비단 수용소라고 이름 붙은 구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출생(벌거벗은 생명)과 국민국가가 점점 더 분리되는 것이 우리 시대 정치의 새로운 사실"이며, 이 간극이 나타나는 곳, 즉 국민국가의 법질서가 효력을 잃고 법적 폭력이 난무하는 예외상태가 지속되는 곳은 어디든 수용소라는 의미이다. 아감벤은 그러한 공간들이 국민국가 안에 버젓이 포함되어있고, 모든 생명과 규칙들은 잠재적으로 그 속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았다.[62]

이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의식은 한국전쟁기 피난민을 설명할 때도 적절하다. 김학재(2011)가 지적하였듯, 전시 한국정부는 계엄령으로 예외상태를 선포함으로써 외부의 적과의 전쟁 못지않게 시민사회와 내전을 치르는데 몰두했는데,[63] 그 과정에서 부역자 처벌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시민들로부터 국가를 성립케 하는 근거인 주권과 인권을 박탈하였고, 흡사 '호모 사케르'와 같이 이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리'를 휘둘렀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전쟁 전까지만 해도 자명하게 여겨왔던 자신의 인권과 주권이 불분명해지고,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벌거벗은 생명의 불안과 공포를 체감하였다. 또한 시민증과 같은 신원증명장치가 다른 무엇에 앞서 자신들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해주는 대상으로 물신화되었고,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호전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식의 또 하나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러한 양상이 극단적으로 펼쳐졌던 공간은 물론 포로수용소이지만,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의식은 수용소 바깥에서도, 전쟁이 끝난 뒤

---

61)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2008, 256쪽.
62) 조르조 아감벤, 위의 책, 330쪽.
63) 김학재, 「한국전쟁기 대통령 긴급명령과 예외상태의 법제화: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의 형성과 적용」, 『사회와 역사』91, 한국사회사학회, 2011, 241~248쪽.

에도 지속되었고, 그 점에서 실상 철조망 바깥의 사회 역시 거대한 수용소이자 난민촌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감벤은 동시에 이 벌거벗은 생명인 난민들이 “국민국가의 기초적인 범주들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하며, 또한 이를 통해 벌거벗은 생명이 국가 질서 내에서든 아니면 인권의 형태로든 더 이상 격리되고 예외화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범주들의 재생을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어떤 한계 개념”[64]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논문 역시 아감벤처럼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의식과 국민국가로의 소속을 향한 열망을 넘어서는, 다른 정치 공동체를 모색하고 실험한 정치적 상상력의 재현물로서 전후 한국문학을 읽는 독법을 택한다. 이는 한 번 난민은 영원한 난민이며, 난민은 어떤 공동체를 상상할 권리도 거부된 사람[65]이라고 본 바우만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낙인찍힌 자는 장소를 잃게 되고 벌거벗은 생명이 되는 것처럼 세 가지 난민의식은 대개 뒤섞인 채 나타나지만,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그 교집합의 배합은 조금씩 달라진다. 그 점을 고려하며 이 논문이 선정한 대상은 염상섭(1897~1963), 박경리(1926~2008), 이호철(1932~2016)이다. 세 작가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신분으로, 전쟁을 겪었는지의 문제가 세대, 출신, 젠더 등과 결부되어 다채로운 차이를 보이면서도, 한국전쟁기 피난을 전후해 난민의 상황에 처해있던 작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위태로운 입지에 놓여 있었으며, 그로부터 비롯하는 난민의식과의 특별한 문학적 교섭 양상을 드러내는 실천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이들은 각각 국민보도연맹원이자 반역문화인(염상섭), 전쟁부역자 미망인(박경리), 북한군 포로이자 월남민(이호철)이라는 중층적인 난민 상황에서 전쟁과 피난을 치렀으며, 그 점에서 국가보안법과 연좌제가 존속하는 한국사회에서 언제든지 초법적으로 법의 외부가 될 수 있는 호모 사케르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실에서 이들은 군인이 된다든지(염상섭), 결혼으로 새로운 가부장을 얻는다든지(박경리), 병역을 기피하고 국적을 위조한다든지(이호철)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새겨진 난민의 낙인을 필사적으로 은폐하려 시도했으나, 그 시도는 현실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매끄럽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저마다의 난민의식은 상이한 방식으로 그들의 텍스트에

64) 조르조 아감벤, 위의 책, 260쪽.
65) 지그문트, 바우만, 『모두스 비벤디: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한상석 역, 후마니타스, 2010, 78쪽.

흔적을 남기고 있다.

북한군 점령기 서울에서의 피난 여부에 따른 도강파/잔류파 구분법을 적용했을 때 염상섭, 박경리는 잔류파로 묶이지만 그들의 체험은 결코 같지 않았고, 이는 같은 시기 북한군으로 참전했던 이호철의 체험과도 물론 달랐다. 또한 세 작가는 1.4후퇴를 전후한 시기 모두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했다는 점에서 한 데 묶이지만, 피난 동기, 과정, 그리고 환도 후의 삶은 저마다 달랐다. 이 논문이 기존의 익숙한 분류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이들의 상이하고 중층적인 난민 체험과 그로부터 형성된 난민의식에 밀착하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이 논문은 작가라는 인간과 문학 텍스트를 자료로 활용하는 인류학, 사회학 분야의 케이스 스터디는 아니다. 그 점으로 말하자면, 이들의 생애는 어떤 전형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구와 진실을 넘나드는 기록으로서 이들의 텍스트는 불완전하고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이 좀 더 관심을 갖는 측면은 그와 같은 난민 체험과 난민의식이 세 작가의 문학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못지않게, 다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 그 문학적인 사유와 실천 행위로서의 텍스트 읽기 쪽이다. 이 점에서 세 작가는 흥미로운 차이를 드러내며, 이어지는 본론의 장에서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2장에서는 전쟁 이전부터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낙인과 함께 사회적 입지가 제한되었던 염상섭이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피난하지 않고 잔류한, 이른바 '반역문화인'으로 또 한 번 낙인찍히며 군문에 (비)자발적으로 자원하게 된 사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반역문화인에서 해군 장교로의 그의 극적인 변신을 난민의 낙인을 은폐하고 국민의 징표를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으로 접근하면서, 이 장에서는 그 이면에서 지속되는—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이후 만주에서 귀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어져온—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의식에 집중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되면서까지 국민이라는 경계 안으로 소속되려 애쓴 노력과, 그럼에도 여전히 호명되지 않는 잉여가 공존하는 염상섭의 모순적인 상태를 이 논문은 '(비)국민 되기'라는 개념을 통해 살필 것이다.

나아가 그 같은 상황에서 창작된 염상섭 문학이 국민과 난민을 양산하는 냉전의 경계선이 무화되는, 즉 아군/적군, 국민/비국민, 반공/빨갱이 등과 같은 경계 짓기가 불명확해지는 '냉전의 회색지대'로서 일상이라는 '친밀성'의 영역을 전면화하는 데 주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염상섭이 친밀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쟁'의 양상을 재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냉전이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시금 이 영역을 제시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필 것이다. 즉, 친밀성이라는 기제가 반공주의에서의 '적'이라든지, '인도주의적 구원 신화'에서의 '우방', '동맹'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호명으로부터 개인들을 이탈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탐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후 염상섭 문학을 그의 해방기 문학에서부터 이어져온 탈냉전의 상상력의 지속으로 의미부여 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전쟁부역자 미망인'으로서 박경리가 처해있던 이중의 난민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 반공주의 사회, 그리고 '정상가족' 바깥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 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는 물리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사실상 전쟁부역자의 유가족이라는 국가의 외부, 그리고 미망인이자 재혼과 이혼의 이력이 있는 여성이라는 가족 제도의 외부에 존재하였다. 이 장에서는 그처럼 국경 안에서도,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내부의 외부로 봉쇄되었던 박경리의 현실을 '이중봉쇄된 난민 여성'이라는 개념 아래 조명하는 한편, 공적/사적 영역 양쪽에서 낙인찍힌 자로서 박경리가 지니게 된 난민의식에 집중할 것이다.

나아가 그 같은 상황에서 창작된 박경리 문학이 여성들이 처한 다양한 난민 상황을 재현하면서도, 다시 그 여성들이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양상을 사랑의 서사를 매개로 제시하고 있음에 착안해 이를 '사랑의 수행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박경리 문학이 겉으로는 위태롭고 수동적으로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난민 여성의 이동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지적 표류'로 전환하는 양상 또한 살필 것이다. 즉, 피난, 월남, 밀항과 같은 여성의 난민 상황을 초래하는 불가항력적인 이동이 박경리 문학 속에서 페미니즘 문학에서의 유구한 '탈가(脫家)'의 계보를 잇는 방식으로 거듭나는 양상을 이 장에서는 여성의 '난민 되기'라는 해방과 탈주의 의미를 부여 받는 수행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가장 봉쇄되고 고립된 자였지만,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표류하는 가장 전위적인 문제의식을 박경리의 문학으로부터 이끌어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월남민이자, '북한군 포로' 출신이라는 낙인을 지닌 이호철의 난민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때 전시에는 포로 적에 등록되지 않은 포로, 전후에는 위조국적을 지닌 월남민이라는 '무적자(無籍者)'로서 남한사회에서 이호철이 처해있던 특수한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즉, 일반적인 월남작가들과 달리 이호철은 단지 월남의 결과 난민이 된 것만이 아니

라, 월남 이전인 포로 시절부터 적 없는 난민의 처지에 있었고, 그것이 월남 이후로도 지속되고 심화되는 무적자로서의 '월남 전후'와 그 과정에서 형성하게 된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에 집중할 것이다.

나아가 그 같은 상황에서 창작된 이호철 문학이 다원적이고 급진적인 공동체의 상상력과 장소 만들기의 실천을 전개해나간 측면을 부각하고자 한다. 이를 한편으로는 월남작가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월남문학의 상상의 공동체' 개념에 근거해, 다른 한편으로는 무적자 난민의 상태에 있었기에 꿈꿀 수 있었던 국민국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친족 공동체마저 초월하는 '난민의 공동체'로서 의미부여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권헌익(2020)이 재해석한 퇴니에스의 '불온한 공동체(bad Gemeinschaft)' 개념을 중요하게 도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공동체의 상상력이 '경제개발총력전시대'로 말해지는 전후 서울의 상경 이주민들에게까지 관철되는 양상을 살피고, 이들의 정착의 꿈,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복수의 장소들(multiple places)'을 중요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전시와 전쟁 직후뿐만 아니라 그 전사와 후사를 염두에 두는 가운데 방민호(2017)가 말한 제1차 전후[66]의 파동이 사그라지는 1960년대 중후반 무렵까지의 시기를 장기적인 시야에서 조망한다. 여기서 다루는 모든 소설에 전쟁과 피난 체험이 전면화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난민의식은 배음처럼 그 작품들의 기저에서 계속 울리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라타니 고진(2013)은 이동함으로써만 쓸 수 있는 글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망명자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동해 『자본』을 완성한 것처럼 말 그대로의 이동일 수도 있고, 칸트의 초월론적인 비판처럼 횡단적이고 전위적인 담론 상의 이동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동과 그 결과로서의 강한 시차에 눈뜨는 일이다.[67] 이 논문은 한국의 작가들이 피난이라는 이동과 그로부터 비롯하는 난민의식을 매개로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었고, 그것을 저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원화해 나갔는지의 물음에 대답해 나갈 것이며, 그럼으로써 전후 한국문학이야말로 풍요로운 예술의 장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

66)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 연구의 방법」, 『춘원연구학보』, 춘원연구학회, 2017, 몇 쪽.

67)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맑스』, 이신철 역, 도서출판b, 2013, 23~24쪽.

2. (비)국민 되기와 냉전의 회색지대 - 염상섭

2.1. 반역문화인의 낙인과 군인 되기라는 위장의 이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염상섭의 이름이 가장 먼저 확인되는 지면은 9.28 서울 수복 직후 유포된 「반역문화인명부」다. 명부가 실린 『전선문학』(중앙문화협회, 1950.10)은 북한군 점령기의 서울에서 피난한 도강파 작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문총구국대'가 피난수도 부산에서 발간한 『문학』의 전시판으로, 여기에 가담한 조영암은 이 잡지를 가리켜 "전란 삼개월의 「문총」구국대의 전 사업을 집약하야 표현한 핵심"이자, "그중에서도 잡지에 실린 부역자 군상의 사정(査定) 게재는 한층더 의의가 있는 일"[68]이었다고 자부한 바 있다.

총 138명의 이름이 기재된 이 명부는 1950년 8월 10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문총) 최고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반역문화인에게 보내는 경고문」과 함께 게재되었다. 명부에는 한설야, 이태준, 이기영, 홍명희, 김남천, 임화 등 해방기의 월북작가, 북한군 점령기 서울에 있었던 염상섭을 위시한 대다수의 잔류파 작가, 그리고 이 명부가 배포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서울에 부재하였던 김기림, 정지용 등의 납북작가가 모두 한 데 적혀 있다. 전시 서울에서의 잔류가 월북과 다름없는 행위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단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자료이다. 부역자 처벌 열풍이 서울을 거세게 휩쓸었던 당시 이 명부가 문화예술계 전반에 끼친 파장, 여기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이 겪었을 박해와 공포를 짐작해볼 수 있다.

반역문화인명부

지난 8월 10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는 조국을 배반하고 민족의 정기를 더럽히는 반역문화인 조사를 위하여 최고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중 심의한 결과 위선 제1차로 결정을 본 다음과 같은 반역문화인 명부를 발표하였다

한설야 이태준 이기영 이찬 박세영 안함광 이원조 홍명희 홍기문 김남천 임

68) 조영암, 「「문총」구국대의 저항운동」, 『현대공론』, 1954.6, 123쪽.

화 한효 한식 민병균 박영교 함세덕 남궁만 최승희 안막 안회남 김조규 박종식 김광섭 황민 최인준 이북명 석인해 김사량 송영 조기천 문예봉 임선규 김북원 안용제 박찬모 염홍운 심영 황철 주인규 길진섭 김주경 이무영 김용호 이병철 전홍준 곽하신 박계주 임호권 정비석 김영수 여상연 이협 윤석중 조풍연 이용악 김용준 임서하 백철 박태원 현덕 최영해 송돈식 현재덕 임학수 조동필 김일출 유덕호 양주동 이병기 이은상 김병귀 김병욱 박거영 김용환 정현웅 박래현 이응규 신봉조 최금동 엄흥섭 피천득 진우촌 양운한 양미림 배호 조경희 배정국 김웅초 정인택 이봉구 박노아 염상섭 황순원 문철민 최요안 이성균 조용만 김만형 박노경 장만영 박화성 이선구 계용묵 노천명 손소희 박영준 송지영 김기림 김광균 김상훈 박정환 김경린 박은용 채정근 설의식 설정식 김동석 정지용 정종여 김기창 최영수 최한진 전석담 이쾌대 최재덕 서강헌 기웅 윤효중 이팔찬 유진명 선우담 최연해 문학수 김하건 정관철 정보영 조규봉 김정수 정종여[69]

명부에 실린 잔류파 작가에 대한 수사와 검거는 1950년 10월 4일 부역자 문제를 전담하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기 이전부터 빠른 속도로 개시되어 나갔다. 일례로, 조경희의 경우 서울이 수복된 지 사흘 만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10월 말 노천명과 함께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아 부산 형무소로 이감되었다.[70] 손소희의 경우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한 당일로 소환되었는데, 이곳에서 노천명, 김용호, 박영준, 박계주를 보았다고 한다. 잡혀온 지 나흘 째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졌고, 이후로도 계속 수사가 이어졌으나, 문총구국대원들이 서명 날인한 진정서의 효력으로 10월 13일 풀려나올 수 있었다.[71]

합동수사본부가 작가들을 직접 소환해 수사하기도 했지만, 문총에서 자체적인 '문단부역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 검거 대상자를 가려내기도 했다. 조연현의 회고에 의하면 합동수사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69) 「반역문화인명부」, 『전선문학』, 1950.10, 51~52쪽. 원문 자체에 오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총 139명의 이름이 올라있지만, 화가 정종여는 두 차례 기재되어 사실상 138명이며, 화가 선우담은 한자가 선우섬으로 잘못 표기되었고, 김광섭은 이 잡지의 발행인이므로 동명이인이거나 오식으로 추정된다.

70) 「중앙고등군법회의, 노천명과 조경희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 『경향신문』, 1950.10.29; 조경희, 『언제나 새길을 밝고 힘차게: 조경희 자서전』, 정음사, 1975, 76쪽.

71) 손소희, 『한국문단인간사』, 행림출판사, 1980, 155~156쪽, 167~168쪽.

하는데,[72] 사사로운 부역자 심사와 사형(私刑)이 전 사회로 들불처럼 번져나가던 시기인 만큼 정확한 선후관계는 알 수 없다. 훗날 회고록에서는 「반역문화인명부」가 실린 『전선문학』의 배포를 즉각 중지, 회수시키고 문인들에 대한 관용주의를 내세웠다고 한 조연현조차 당시에는 이 잡지를 "수도정복시의 선물"[73]이라고 추켜세웠던 이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문총 특조위는 도강파 및 서울에 잔류하되 일체 부역 행위가 없는 작가들로 편성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십여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잔류파 작가들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74] 심사에서 제외된 작가들은 앞선 「반역문화인명부」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이들이자, 「전쟁 중 생존한 문인 현황」이라는, 서울 수복 직후 가장 먼저 보도된 문인 현황 기사에서 '재경(在京) 문인'으로 소개되었던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북한군 점령기에 지하에 철저히 은신했거나, 일체의 부역 혐의가 없었기에 피난했던 '남하 문인'과 나란히 명단이 제시될 수 있었을 것이다.[75]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가들이 특조위의 심사 대상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0여명은 무조건 재판(A급), 20여명은 보류(B급), 나머지 20여명은 일단 수사기관에 출두(C급)로 분류될 뻔 했다[76]는 언급을 미루어 최소 60여

---

72)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문단측면 회고록』, 현대문학사, 1968, 90쪽. 이 회고록은 도강파, 잔류파 논란이 문단에 끼친 파장이나, 부역 작가 수사 및 처벌 과정과 관련한 디테일을 전하는 까닭에 선행연구자들이 전적으로 의존해온 자료이고, 이 논문에서도 몇 군데 중요하게 인용하였지만,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당대의 입장과 회고록에서의 사후적 입장이 상충하거나, 사실 관계가 왜곡되고 은폐되는 부분들이 더러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문협 정통파 비평가로서 조연현이 전후 문학사 기술과 재현의 권력을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73) 조연현, 「한국해방문단10년사」, 『문학과예술』, 1954.6, 145쪽. 서동수의 지적처럼 전시 조연현이 불가피하게 혹은 형식적으로 부역했던 문화인들에 대한 처벌 문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168~172쪽). 다만 조연현이 남긴 여러 텍스트들 간의 간극과 충돌의 양상, 그리고 서동수가 주목했던 지하잠적파로서의 조심성 못지않게, 역으로 잔류파의 협소한 발언권이나, 도강파의 죄책감, 비겁함에 대한 자의식 모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독특한 입지에 대한 고려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74)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90쪽.

75) "박종화 김동리 최태응 유동준 곽철문 임옥인 윤금숙 방기환 오종식 유치진 모윤숙 조연현 이상로 이서구(이상은 재경 문인) 김광섭 조영암 조흔파 이헌구 조지훈 박연희 구상 서정태 박목월 이정진 서정주 김송(이상은 남하 문인)" 「전쟁 중 생존한 문인 현황」, 『서울신문』, 1950.10.6.

명이 조사 대상자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총에서 합동수사본부로 넘긴 최종 명단에 몇 명이 어떤 등급으로 올랐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77] 이와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문예』 전시판(1950.12)에 「문단은 다시 움직인다」라는 제목 아래 정리된 문인들의 소식란이다. 총 89명의 이름이 실린 이 명단은 『전선문학』에 실린 명부의 오류를 바로 잡고, 합동수사본부에 송부할 명단을 위한 문총의 자체 심사가 일단락된 뒤의 결과로 보인다.

◎ 괴뢰군에게 피살된 문인
이해문(시인)

◎ 괴뢰군에게 납치된 문인
김진섭(수필가) 홍구범(소설가) 이광수(소설가) 정지용(시인) 김기림(평론가) 김을윤(시인) 공중인(시인) 최영수(유머작가) 김동환(시인) 박영희(평론가) 김억(시인) 이종산(시인) 김성림(시인) 조진흠(수필가)

◎ 전상(戰傷) 사망자
김영랑(시인)

◎ 괴뢰군과 함께 자진 북행한 자
박태원 이병철 이용악 설정식 김상훈 정인택 채정근 임서하 김병욱 송완순 이시우 박은용

◎ 괴뢰군과 함께 수도를 침범했던 자
이태준 이원조 안회남 김동석 김사량 이동규 임화 김남천 오장환 배호

◎ 북행했다가 귀환한 자
박계주 박영준 김용호

---

76)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90~91쪽.
77) 이임하에 따르면, 군검경합동수사본부가 생산한 자료나 부역자에 대한 판결문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대개의 연구자들은 신문화 회고록, 국회속기록, 그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부역혐의자 학살 보고서 등의 소수의 자료에 의존할 수 있을 뿐이다. 이임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사림』36, 수선사학회, 2010, 102~103쪽.

◎ 부역 피의로 수감 중에 있는 자
홍효민 전홍준 노천명(유죄판결) 이인수(유죄판결)

◎ 괴뢰군 치하에 완전히 지하잠복했던 문인
박종화(소설가) 모윤숙(시인) 오종식(평론가) 유치진(극작가) 이하윤(시인) 장만영(시인) 김동리(소설가) 조연현(평론가) 최인욱(소설가) 유동준(평론가) 김광주(수필가) 최태응(소설가) 박두진(시인) 강신재(소설가) 방기환(아동문학가) 설창수(시인) 임옥인(소설가) 한무숙(소설가)

◎ 괴뢰군 침공 시 남하했던 문인
김광섭(시인) 이헌구(평론가) 오상순(시인) 서정주(시인) 조지훈(시인) 박목월(시인) 구상(시인) 이한직(시인) 조영암(시인) 김윤성(시인) 김송(소설가) 서정태(시인) 임긍재(평론가) 이원섭(시인) 박용구(소설가) 김말봉(소설가)

◎ 최근의 문단배치도
김광섭 – 대통령 비서실
이헌구 – 공보처
박종화 오종식 김동리 김송 이선구 김윤성 – 서울신문
김광주 이봉구 – 경향신문
구상 박두진 방기환 곽하신 – 승리일보
모윤숙 조연현 박용구 – 문예사
조지훈 최태응 박용덕 – 평양문총
박목월 최인욱 유동준 – 문총구국대
곽종원 – 해군정훈감실
설창수 – 문교부
이한직 – 종군
염상섭 이무영 – 해군입대
김상용 – 코리아타임스
손소희 –『혜성』재간 준비
허윤석 –『부인』재간 준비

‘괴뢰군과 함께 수도를 침범했던 자’나 ‘자진 북행한 자’는 서울에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했을 테고, ‘북행했다가 귀환한 자’[78], ‘부역 피의로 수감

중에 있는 자'[79]가 특조위의 심사 결과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였을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염상섭의 이름은 '해군입대'라는 소속과 함께 다시 확인된다. 서울 수복 이후 잔류파 작가들을 둘러싸고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수사 과정을 잠시 경유한 까닭은 이 시기 '반역문화인'에서 '해군'으로의 염상섭의 극적인 변신을 문면 그대로 "삼팔선이 뚫린 김에 군의 뒤를 따라 올라가서 문화공작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론 끝에 어쩐둥 해서"[80]라는 충동적인 선택이나, 애국심의 발로로만 볼 수 없음을 방증하기 위함에서다.

> 「어쩌다가 웨 이런데를 와서 이런 꼴이 되었누?」
> 턱없는 공상이나 깊은 꿈에서 깨어난 듯이 자기가 놓인 위치를 생각하여 보는 것이었다.[81]

김윤식(1987)은 염상섭의 해군 입대를 북진하는 군대에 종군해 북한에서 신문사를 인수해 경영하려는 열망 내지 만주에서 귀환하는 과정에서 사리원에 놓고 온 피난 짐에 대한 미련, 무관 가문 출신이라는 핏줄의 끌림 등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려 했고,[82] 김승환(1994)은 "애국심 운운하거나 누구의 권유에 못 이겨서 입대했다는 식의 허언을 믿을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83]고 예리하게 지적했지만, 대신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현실적인 방편이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그러나 염상섭이 몇 달 간의 해군사관학교 훈련을 끝내고 임관하기 전까

---

78) 박계주, 박영준, 김용호는 모두 북한 강계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다가 탈출한 경우로(박영준, 「종군작가시절」, 강진호 편,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99, 441쪽), 그중 박영준은 9.28 수복 후 수감되었다가 문인들의 서명 탄원에 의해 1.4 후퇴 전에 석방되었다(김송, 「자전적 문예반세기⑦ 환도직후의 문단 이모저모」, 『신동아』, 1980.6, 371쪽).

79) 만주 이주민 출신 작가 전홍준은 이감 도중 탈주하다가 총살당했고(손소희, 위의 책, 152쪽), 해방 뒤 등단한 평론가이자 영문학도였던 이인수 역시 북한군이 점령한 방송국에서 포로 통역을 한 혐의로 총살되었다(백철, 『속 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6, 439~440쪽).

80) 염상섭, 「나의 군인생활: 군인이 된 두 가지 실감」, 『신천지』, 1951.12, 101쪽.

81) 염상섭, 「하치 않은 회억」, 『예술원보』, 1960.12, 152쪽.

82)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848, 857, 864쪽.

83) 김승환, 「염상섭론: 상승하는 부르주아와 육이오」, 『한국학보』74, 일지사, 1994, 10쪽.

지 가족들의 피난 여부는커녕 생사조차 확실히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의 입대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함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 50대의 나이에, 한창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가족들을 전지에 속수무책으로 남겨두고 감행한 입대라는 결심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염상섭이 전쟁 전부터 표면상으로는 남한 문단의 이념적 단일화와 포용성을 상징하는 원로작가로 대우받았으나, 실상 그 문단적 입지가 매우 위태로웠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윤식의 지적처럼 해방기는 염상섭이 일제 말기의 오랜 침묵을 깨고 작가로서의 생산 불능의 주박(呪縛)에서 풀려나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였지만,[84] 이종호(2019)의 지적처럼 또 한 번 치명적으로 거세당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염상섭은 신민일보 필화사건으로 인해 군정재판에서 징역 5년형과 벌금 80만원을 언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뒤,[85] 신민일보를 끝으로 다시는 작가 외의 제2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었던 저널리스트가 될 수 없었으며,[86] 김재용(1996)이 밝혔듯, 이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어 문단 안팎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87] 그러한 경험이 있는 염상섭에게 전시 반역문화인 혐의로 또 한 번 군재에 회부되어 수모를 겪을지 모르는 상황은 강력한 위기감과 현실감각을 발동시켰을 것이다.

비슷한 처지에 있던 최정희의 경우를 떠올려보자. 과거 『문예』 창간호에 염상섭과 나란히 소설이 실려 용공적 편집이라는 일각의 비판[88]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또 한 명의 잔류파 작가 최정희의 이름은 『문예』 전시판의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인용한 『문예』의 명단에서 정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처럼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작가들이다. 최정희, 백철, 양주

84) 김윤식, 위의 책, 686쪽.
85) 「『독립』 등 삼 신문사 간부에 군재서 오년징역을 언도」, 『경향신문』, 1948.5.3.
86) 이종호, 「해방기 염상섭과 『경향신문』」, 『구보학보』21, 구보학회, 2019, 413쪽.
87) 김재용, 「정부수립 직후 극우반공주의가 남긴 상처, 냉전적 반공주의와 남한 문학인의 고뇌」, 『역사비평』37, 역사비평사, 1996, 16쪽,
88) 대표적으로 임긍재, 「칠월소설평① 허구와 진실」, 『조선일보』, 1949.8.13. 이 글은 『문예』 창간호에 실린 원로작가 염상섭, 최정희, 황순원의 소설을 “염상섭씨의 사상적 회피와 최정희씨의 생둥한 가면적 민족의식의 선무와 결여된 지성에 나온 애정문제의 자가류의 변설 그러고 한때 문학가동맹의 전위적 역할을 다하는가 싶던 황순원씨의 다만 투고의 성의만을 표시한 것 같은 구고” 등과 같은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다.

동 등으로, 이들은 북한군 점령기 부역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군사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받거나, 총살 등에 처했던 '부역 피의로 수감 중에 있는 자' 들과 달리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였을 것이며, 추정컨대 특조위에서 제출한 최종 명단에는 이들이 B급 부역자로 분류되었을 테고,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문예』 편집진은 이들에 대해 언급 자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된 한 신문 기사에 실린 '부역행위 자수자 문화인' 명단에서 발견된다.[89] 여기서 말하는 자수가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백철은 혐의가 있는 작가들이 합동수사본부에 자수를 했다고 했지만,[90] 최정희의 기록을 보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해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문화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해방기 국민보도연맹 가입 작가들처럼 대외적인 차원에서만 자수자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최정희 소설에 재현된 합동수사본부에서의 신문 과정은 남편 김동환이 북한군의 정치보위부로 끌려간 뒤 생사가 불분명해졌음은 물론, 문학가동맹 활동 역시 작가의 회고를 따를 경우 은신해있던 김동리를 찾아가 면피용으로라도 최소한의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본 끝에 불가피하게 감행한 것이라는 납득할 만한 사연이 있음에도 순탄치 않다. 수감은 되지 않았지만 최정희는 1.4 후퇴 직전까지 이곳에 출두하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조금 길지만 당시 분위기를 잘 보여주므로 충분히 인용해본다.

> **거리에 나가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찾는다는 말을 일러주는 친구가 있었다. 숨으라고 일러주는 친구도 있었다**. 숨기가 싫었다. 사변중에 동맹에서 내어 준 판푸렐들과 당사(黨史)같은 책들도 두었던 그 자리에 내버려두었다. 어느날 C여사가 와 보고 당신이 참 괴짜구려, **이 살어름같은 판국에** 이것들을 왜 여기다 두느냐고 걱정해준 일도 있으나 나는 그것들을 불이낳게 치워버릴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다. 허둥지둥하는 내 모습을 보기가 싫은까닭도

89) 「부역행위 자수자 증가」, 『서울신문』, 1950.12.11. 이 기사에는 부역행위 자수자 문화인 35명으로서 '백철 양주동 최정희 김용호 박헌봉 박계주 강병하 양백명 김익수 김동주 유승이 김용위 이우○(원문 판독 불가) 이창식 방삼성 김영배 김동현 정동헌 이석재 이재학 김의환 안수산 이창국 박창수 외 10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90) 백철, 『속 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6, 441쪽.

있지만 그럴 경황이 나지 않았다.

문총(文總)에선 도강(渡江)했던 문인과 지하에 숨었던 문인들이 모여 부역한 문인을 처단한다고 했다. A급, B급, C급. 급수를 매긴다고 했다. 나는 B급이라고 들었다. C급으로 매기자는 사람과 A급으로 매기자는 사람과의 격투(?)까지 있는 뒤에 B급으로 낙착되었다는 소문－B급이 아니라 B급의 몇 배이상의급이더라도 그것으로해서 내 마음이 부닫기지 않을 것이다. 항상 남의 재단보다 나 스스로의 재단이 무서운 것이 아닐까?

잡으러 온다온다 하던 합동 수사본부에서 군복 입은 사람과 사복 입은 사람이 어느날 아침 참 일찌기 왔었다. (중략)

수사본부엔 나 만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취조를 받고 있었다. 나를 데리고 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없어졌다.

“문학가동맹에서 뭘 했어?”

“삐라두 부치구 벽보두 부치구 노래두 부르구 했어요”

“무슨 직책을 가졌느냐 말이야?”

직책이란 말에 우숨이 나와서 나는 입에 손을 대고

“내가 무슨 직책을 가져요?”

“문화부장을 했다는데 거짓말 말어, 부서가 우리 수중에 다 들어와 있어”

취조하던 사람이 종이 말이를 두루루 펴서 도해(圖解)를 내 앞에 보여 주었다.

“이래두 속일 테야?”

나는 어이가 없어서 또 웃어버렸다. 내 곁에 앉아 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시선이 마주치는 일 조차 꺼려하던 석달동안의 생활이 눈 앞에 횡하니 떠 올랐던 것이다.

“왜 이렇게 까불어? 웃으면 누가 넘어갈줄 알어?”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나는 악이 치받쳤던것이다.[91]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염상섭이 북한군 점령기에 최정희처럼 다시 문맹에 나갔는지, 그러지 않았다면 남하한 과거의 동료 작가들의 협력 요청 내지 압박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는지, 김종균(1974)의 지적처럼 정말 너무 빈한했던 까닭에 ‘납치’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92]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91) 최정희, 「속 수난의 장」, 『새벽』, 1955.1, 133~134쪽.

염상섭의 전쟁 발발 이후 서울에서의 삼 개월은 “머리를 짓눌르는 납덩이 같은 우울과, 가슴속에 뿌듯이 서린채로 김을 뺄 구멍을 찾지 못하던 저기압”[93], “6.25후로 서울이라는 큼직한 울안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끝이다”, “석달동안 부대끼느라고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이 서울을 하루 바삐 빠져 나가는것만 수다”[94] 등과 같은 서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될 뿐, 다른 어떤 작가의 기록보다 불투명한 까닭이다. 이 시간에 대해 침묵하는 대신 그는 입대를 택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염상섭과 같은 국민보도연맹원이 군문에 지원하는 사태가 속출했던 사실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성현(2004)에 따르면, “남북 양쪽에서 버림받은 비국민이자 난민”[95]이었던 국민보도연맹원이 전쟁 중인 국민임을 증명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라를 위해 싸워 죽는 군인이 되는 길이었다. 이를 두고 강성현은 “죽음으로의 동원”[96]이라고 표현하였다.[97]

그 점에서 착안해 이 시기 염상섭의 해군 입대 역시 국민보도연맹원이자 반역문화인이라는 ‘난민의 낙인’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camouflage)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전시에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보다 강력한 ‘국민의 징표’는 없다. 군인이 되지 않았다면 염상섭은 『문예』의 문인 명단에 해군이라는 당당한 소속과 함께 이름이 오르는 대신, 최정희와 백철, 양주동 등과 마찬가지로 부역행위 자수자 문화인으로 호명되고 『적화삼삭구인집』(국제보도연맹[98], 1951.4)과 같은 관제 글쓰기와 반공 선전 행사에 끊임없이 동원되는,

---

92) 김종균, 『염상섭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40쪽.
93) 염상섭, 「나의 군인생활: 군인이 된 두 가지 실감」, 『신천지』, 1951.12, 101쪽.
94) 염상섭, 「하치 않은 회억」, 『예술원보』, 1960.12, 149, 151쪽.
95) 강성현, 「전향에서 감시, 동원, 그리고 학살로: 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중심으로」, 『역사연구』14, 역사학연구소, 2004, 141쪽.
96) 강성현, 위의 글, 175~176쪽.
97) 전시 보도연맹원이 처해있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호철의 『소시민』(세대, 1964.7~1965.8)에 등장하는 강 영감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좌익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강 영감(염상섭과 같은 세대이다)은 보도연맹에 가입된 뒤로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리고 백치처럼 변해버렸으며,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피난지 부산의 한 제면소로 흘러들어가 기식하다 자살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98) 몇몇 선행연구들이 국제보도연맹(國際報道聯盟, International Publicity League of Korea)을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과 혼동하곤 하는데, 둘은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듯 다른 기관이다. 국제보도연맹은 해방기부터 『국제보도』와 같은 사진

문자 그대로 “보도연맹의 재판(再版)”[99]을 또 한 번 경험했어야 했을지 모른다.

이 때 그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된 핵심적인 계기로 해방기의 난민 체험 또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난민의 상황은 식민지 시기 만주 이주민이었으며, 일본 제국의 패전과 함께 귀환(피난)하였던 염상섭에게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실제 해방 이후 염상섭이 첫 번째로 출간한 소설집 『삼팔선』(금룡도서, 1948.1)에 실린 두 편의 소설은 모두 해방기의 난민 체험에 관한 것인데, 「모략」은 해방 이후 만주라는 국외에서 조선인들이 처한 혼란과 위기 상황을, 「삼팔선」은 국경을 넘어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추방당한 약소민족보다도 더 기구한 국내 난민이 된 상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모략」에서 제시되는 해방 이후 만주는 말 그대로 “완전히 무정부 상태”(94)인 공간이다. 패전국 일본이 아직 무장해제 되기 전이요, 중화민국의 공안국이 일본을 대신해 행정의 일선에 나선 한편, 승전국인 소련군의 입성까지 예정된 상황으로, 이 속에서 제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이들이 조선인들이다. 패전국민인 일본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길이 막혔으니 앞길이 캄캄하다”(99)고 하지만, 조선인들은 해방과 함께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 자체가 부재하는 상황이 된 까닭이다. 이들은 김종욱(2015)이 말한 “국제법적으로 국민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없는 미결정의 상태”[100]에 처해있었다.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는 만주국이라는 다민족 국가를 지탱해오던 오족협화 논리에 근거한 제국주의 질서가 붕괴되자 개개인의 소속과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충돌하게 된 상황이다. 그에 따라 임시적으로 의복, 국기, 완장, 흉장 등의 즉물적인 표식이나 이름, 주소 따위가 신원증명장치의 역할을 하지만, 언제든 복제되거나 위장될 수 있는 그 장치들이야말로 혼란의 시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략」의 서사는 긴장감 있게 펼쳐낸다.

관련 간행물을 많이 펴냈던 곳으로, 아마도 이곳에서 종이 원조를 받아 『적화삼삭구인집』을 출판한 것으로 추정된다.

99) 조영암, 「잔류한 부역문학인에게: 보도연맹의 재판(再版)을 경고한다」, 『문예』, 1950.12.

100) 김종욱,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 『외국문학연구』5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105쪽.

「그런데 이상한일이 있세요. 일본놈이 조선옷을－고의 적삼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 도는데 그것이 보신책(保身策)으로 그러느냐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만일 조선사람이 저의보다 유리한 처지라고 생각한다면 급한경우에 양복에다가 태극기만 그려붙여도 될거 아닙니까. ……」

「그렇지. 그러기에 일인은 일복을 입으라고—각민족은 양복아니면 제민족의 복색을 하라고 치안유지회에서 포고(布告)가 있었지 않었나? 하여간 수상한놈은 보는대로 잡어들어야지!」[101]

그와 같은 위장의 서사는 해방 이전부터 염상섭 소설에서 중요하게 활용되어왔다. 김희경(2016)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 염상섭 소설은 조선인의 가면을 쓰는 일본인, 일본인의 가면을 쓰는 조선인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에서의 의식적인 '가면 쓰기' 양상을 서사화했다. 김희경은 가면 뒤에 존재하는 "온전히 해소될 수 없는 정체성의 차이"[102]와 가면을 탈착하는 주체의 능동성에 주목해 제국과 식민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위반하는 탈식민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흥미롭게 분석한 바 있다.

이 때 가면 뒤의 조선인이라는 자명해 보이는 민족적 정체성 역시 또 하나의 가면의 효과는 아닐까라는 질문을 제기해볼 만하다. 그 이유는 해방 이후 염상섭 소설은 이번에는 바로 그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가면마저 벗겨진 상황을 문제 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제국과 식민지를 구분 지어왔던 공고해 보였던 질서와 제도들이 정지되고 무화된 상황 속에서 전면화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닌, 말 그대로 '벌거벗은 생명'이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뿐이다. 이제 이들은 제국의 지배질서를 교란하고 그에 저항하기에 앞서, 무정부 상태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조선인이라는 신원을 식별해주고 증명해줄 수 있는 표식들을 강박적으로 몸에 걸치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끊임없이 위장으로 오인 당하고 진정성을 추궁 당한다. 이 과정에서 부상하는 것은 식별되지 않고 귀속되지 않는,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의 신체이다.

김윤식(1987)의 해석처럼 「모략」이 조선인으로 위장해 혼란을 불러일으

101) 염상섭, 「모략」, 『삼팔선』, 금룡도서, 1948, 100쪽.
102) 김희경,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가면 쓰기'의 서사 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6, 27~30쪽.

킨 일본인 노사끼의 계교가 조선인들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그를 응징하는 결말을 통해 현실의 혼란을 시정하는 한편, '진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욕망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103] 그러나 그와 같은 소설적 욕망이야말로 기실 소설 내내 전면화 되는, 김예림(2010)이 말한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하는가를 증명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104]인 난민이 직면하는 곤혹, 불안, 공포의 가장 직접적인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이 과연 만주라는 다민족이 잡거하는 국외의 혼종지대에 국한된 특수한 문제였을까. 구 만주국 이주민 가족이 해방을 맞아 조국으로 귀환하는 여정이자, 삼팔선을 넘어 월남하는 여정을 담은 「삼팔선」은 만주를 배경으로 첨예하게 대두하였던 정체성과 소속의 문제가 국내에서도 지속될 뿐더러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을 보여준다.

소설 속에서 이 가족의 여정은 시종 "피난민 구제회에서 발행한 피난민 증명서"를 지니고, "피난민의 주제꼴"을 한 채 "피난민 루-트"를 따라 이동하고, 피난민 구제소와 감시소를 거치는 피난길로 말해진다. 그리고 이 피난길은 정체와 소속을 심사받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한없이 우회되고 지연된다.

「모략」에서 제시되었던 의복, 흉장, 완장, 국기 등의 표식이 조선인회나 피난민구제회에서 발행한 피난민증명서, 방역증명서 따위로 대체되었을 뿐 여기서도 나의 가족은 조선인으로 위장해 몰래 중국 국경을 넘으려는 일본인이나, 삼팔선을 왕래하며 유통이 금지된 물품들과 화폐를 밀거래하는 잠상군 내지 반체제적인 사상을 지닌 불온한 인물 등으로 의심 받는다. 반복되는 증명서 확인, 인원조사, 소지품 검사, 사상취조로 점철된 과정 속에서 나는 강박적으로 가족들의 피난민증명서, 호열자 예방주사증명서, 승차권 따위의 문서들을 챙기고, 그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음에도 어떤 트집이라도 잡히고 오해를 받지나 않을까 내내 겁에 질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끄내준 피난민증을 한참 들여다 보더니

---

103) 김윤식, 『염상섭연구』, 709~711쪽.
104)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29, 상허학회, 2010, 346쪽.

「도장을 이렇게 야단스럽게 찍고하였어야 이거 믿을수 있어야죠. 요전에 여기서 이런 도장을 색여간일이 있어서 붙들랴다가 놓진일두 있었지요. ……」

좀 무뚝뚝해 보이나 활동객으로 생긴 이 청년의 입에서 의외의소리를 들으니, **이 피난민중이 위조든지 가짜라고 무슨 트집이나 나오지 않을까싶어**,[105]

보안대원이 일일이 묻는 것은 하여간에 동행인 K군을 붙들고 **우리내외가 일본사람 아니냐고 붇더라는 것은 요절을 할노릇이었다.**[106]

소설 초반에는 나의 가족이 사리원 피난민구제소를 찾아가는 길에 여자와 아이들로 된 일본인 피난민 무리와 마주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갈 바를 몰라 실심한 낯빛으로 자신들을 쳐다보는 모습에서 그들이 마치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 같다고 여기며, 새삼스럽게 이곳이 "내나라 내땅"이라는 고마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여정은 실상 '그들'이나 '우리'나 국가로부터 어떤 안전이나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위태롭게 쫓겨 다니는 같은 처지임을 자각해나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소설 속에서 나와 아내가 보안대원들에 의해 몇 번이나 일본인 피난민으로 오인 당하기도 했던 장면들 또한 그 점을 잘 보여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 분노는 "시민권과 권리의 차이들이 조명되고 수행되는 월경구역"[107]이 된 삼팔선에 이르러 극대화 된다. 감시병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가족들을 인솔해 험난한 산길을 돌아 삼팔선을 넘는 나는 국외로 "추방당한 약소민족의 이동"도 아니요, "아무리 약소민족이기로 손바닥만한 제땅 속에서 왔다 갔다하는데 이렇듯 들볶이는" 자신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기구하고 절통한 처지라는 생각이 든다. 「삼팔선」의 서술자가 자신을 조국에 돌아온 귀환민이 아니라, 시종 피난민으로 인식하는 이유이다.

행진이 시작되는것을 보니, 저절로 비장한 마음이 든다. **추방당한 약소민**

105) 염상섭, 「삼팔선」, 『삼팔선』, 금룡도서, 1948, 15쪽.
106) 염상섭, 「삼팔선」, 16쪽.
107) 피터 애디, 『모빌리티 이론』, 최일만 역, 앨피, 2019, 218쪽.

족의 이동(移動)과는 달으다. 아무리 약소민족이기로 손바닥만한 제땅 속에서 왔다 갔다하는데 이렇듯 들볶이는 것을 생각하면 절통하다. 배주고 뱃속 빌어먹기에 이골이 나고 예사로 알게쯤 된 이 민족이기로 이꼴이 되다니, 총부리가 올테면 오라고 악에 바치는 생각도 든다.[108]

맨발의 흙투성이가 된 고아, 알몸뚱이의 부부, 징용에서 돌아오는 헐벗은 청년 등 「삼팔선」의 곳곳에는 소속과 정체가 불분명한, 피난민으로 통칭되는 존재들이 출몰한다. 배하은(2012)은 「삼팔선」을 구성하는 이 다양한 피난민의 몽타주야말로 "통일되고 균질화된 민족적 주체"[109]의 허구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여기에 더해 「삼팔선」은 그 자체로는 "허황하고 허무한 것"인 국경이라든지, 국민과 같은 '실체'가 어떤 방식을 통해 생산되고 구성되는지 역시 잘 보여준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그놈의 삼팔선인지 삼팔수건인지 눈에 뵈기나 하나!" 75), 복잡한 증명서의 확인과 검문 과정을 통해 비로소 가시화되는("자아, 삼팔선 넘어섰다! 74) 삼팔선이라는 "소위 '국내의 국경'"[110]처럼 조선인이라는 정체성 역시 이중, 삼중으로 요구되는 적법한 표식들과 증명서들에 대한 검사와 취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승인되는 것이다.

그 대척점에는 그것들을 구비하지 못한, 비식별 역의 난민의 신체가 위치한다. 피난민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뇌막염에 걸려 죽은 뒤 가족에게 부고를 전하지도 못한 채 출처를 알 수 없는 광목에 싸여 일본식 상여에 실려서 만주 안동의 깊은 산 속에서 화장될 따름인, "주인 없는 송장"으로 말해지는 「혼란」(민성, 1949.2) 속 봉천 출신 피난민 여성의 시체는 난민의 신체의 가장 노골적인 표상이다.

이 논문은 해방 이후 염상섭의 문학에서 강렬하게 드러나는 이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 체험이 한국전쟁기 피난에 실패하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또 한 번 위태로워진 염상섭으로 하여금 군복이라는 강력한 징표로써

108) 염상섭, 「삼팔선」, 70쪽.
109) 배하은,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적 현실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2, 38쪽.
110) 염상섭, 「해방 후의 나의 작품 메모」, 『삼천리』, 1948.7; 한기형, 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3, 소명출판, 2014, 95쪽.

위장하도록 만들었다고 본다.

1950년 11월 말 인천에서 FS여주호를 타고 진해로 이동해 해군사관학교 특별교육대에 입대한 뒤, 1951년 3월 해군 소령으로 임관해 부산의 해군 정훈감실에서 복무하고, 1954년 제대하기까지 염상섭의 군 생활 및 창작 활동은 신영덕(1992)에 의해 상세하게 재구되었다.[111] 그로부터 이 논문이 새롭게 주목한 측면은 군인 되기라는 위장을 통해 외적인 신분 문제는 해결되었다지만, 대신 그 이면에서 내적인 정체성의 위기와 갈등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국가를 위해 몸 바쳐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호명된 외면과 무관하게 위장된 틈새로 비어져 나오는 것은 여전히 지속되는 난민 의식이다.

물론 전시에는 그에 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수필 「군인이 된 두 가지 실감」(신천지, 1951.12)에서만 해도 염상섭은 노병으로서의 체력 문제 정도를 말할 뿐 "현역군인이라는 실감"(102) 편을 훨씬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뒤인 말년에 이르면, 그 시절에는 미처 말할 수 없던 이야기가 박 교관(「동기」), 안 교관(「노염 뒤」), 조 교관(「공습」)이라는 소설 속 페르소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이 텍스트들은 그간 신영덕 외에는 언급한 연구자들이 없는 만큼 상세히 살펴볼만 하다.

먼저, 단편 「동기」(해군, 1958.3)이다.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의 훈련생활을 마친 뒤 부산에서의 수습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박 교관이라는 영어를 전공한 50대의 남성을 내세우지만, 정황상 자전적 체험을 짙게 반영한 사소설로 읽힌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소설의 화두는 과연 자신이 군인이 된 '동기'가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골똘한 자문이다.

여기서 박 교관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설움을 겪는데, 그중에서도 난처한 문제가 기본적인 숙소와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다. 사관학교 시절 신입 생도들과 퀀셋에서 단체 생활을 할 때와 달리, 피난지 부산에서 견습생이라는 애매한 신분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게 된 박 교관에게는 둘 다 버겁기만 한 문제이다. 요행히 군에서 징발한 요릿집의 방 한 칸을 얻게 되었지만, 이후로도 안팎에서 눈칫밥을 먹는 생활은 계속된다. 요릿집 노파는 물론, 함께 근무하는 젊은 직업군인들도 그를 은근히 업신여기고 뒷공론을

111) 신영덕, 「전쟁기 염상섭의 해군 체험과 문학활동」, 『한국학보』18-2, 일지사, 1992.

해대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군식구라는 자각이 줄기차게 그를 따라다닌다.

> **그러지 않아도 난리통에 갈데가 없어서 밥을 얻어 먹으러 군대에 들어왔다는 조소를 받는가 싶어서 기가 죽는데다가** 밤중쯤 되면 난로불이 꺼지는 숙직실에서 새우잠을 자고 나서는 어두커니 사병식당으로 으르를 떨며 가서 젊은아이들 틈에 끼워 열을 지어 섰다가 퍼 주는 국밥 양재기를 좌우 손에 들고 한구석에 숨어 앉아서 퍼 넣고는 똥줄이 빠져 나오는 **그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자존심에 침을 놓은것처럼 마음이 쓰릴때도 있었다.** (중략)
>
> (갈데가 없어 밥 얻어 먹으러 군대에 들어 왔다고 하기로 고깝게 들을 건 뭐야. 사실이 아닌가!)
>
> 박 교관은 **군대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엄두나마 낸 동기(動機)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고 혼자 변명은 하면서도 결과로 보면 사실이 그렇게 된 것을 어쩌느냐고** 속으로 코웃음을 치는 것이었다.[112]

애초의 군인이 된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남들의 멸시와 조롱처럼 집과 밥을 구걸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자조가 그의 자존심을 쓰라리게 한다. “계급장 없는 군복을 몸에 아울리지도 않게 입은 구지레한 자기의 꼴”(181)을 돌아보는 데서 오는 냉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북스러운 감정들이, 꼭 집어 말해지지는 않는 군인이 된 동기에 대한 자문과 함께 소설 내내 반복된다.

비슷한 상황은 후속작 「노염(老炎) 뒤」(한국평론, 1958.5)에서도 지속된다. 이번에는 수습기간을 끝내고 소령이 된 안 교관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가 처음 받은 명령은 부산에서 수송선을 타고 인천 기지사령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북 지역에 출동 중인 함정이 기항 투묘하는 대로 탑승해서 함상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인천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랍게도 피난을 가지 못한 가족들이 인천 사령부로 연락을 취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서울에 들러 가족들과 극적으로 상봉하게 된다. 피난을 하려다 실패하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오던 가족들 앞에 군복을 입고 나타난 그의 모습은 새로운 의지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것이었다.

---

112) 염상섭, 「동기」, 『해군』, 1958.3, 184~185쪽.

자즈러져 들어가는 기름 접시의 심지가 깜박 깜박하고 넘어가는 줄로만 알았더니, 반짝하고 마지막 불꽃이 환히 비췰 때 눈이 번쩍 뜨이고 새 정신이 드는싶이, 안교관의 군복 입은 몸매에서 품기는 생신한 분위기가, 침울하던 집안 공기를 금시로 맑게 개이게하고, 까부러져 들어갈듯하던 어린 마음 속에 **막연하나마 새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고 몸에 배지 않은 군복이, 어린애들에게라도 군돈스럽다거나 눈 서툴러 보이기는 커녕, 그대로 늙어버릴 아버지가 또한번 젊어져 왔다고 좋아하는 눈치를 보니, 안 교관은 홧김에 앞 뒤를 재어볼 겨를도 없이 덮어놓고 나섰던 것을 좀 경솔하였었다는 뉘우침도 없지 않고, 군문에 들어가기는 갔지마는 그러면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을하고 무슨 보탬이 될것이냐는 점을, 차차 식은머리로 곰곰 생각하여 보기 시작한 이즈막이기도 하지마는 **자기의 군복이 우선 가족에게 이렇게라도 생색이 나는가 싶어 적이 위로도 되는 것이었다.**[113]

과연 소령이라는 군인의 신분이었기에 안 교관(그리고 현실의 염상섭)은 통행이 엄금되고 “반 폐허가 된 그 살풍경한 속”(179)의 서울에서 군인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가족들을 군용 선편에 실어 부산으로 피난시킬 작정을 할 수 있었다. 참고로 현실에서 군복의 위력에 대해서는 피난지 대구에서 공군 종군작가단원으로 활동했던 최정희 역시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일반인이 군복을 입거나 유통시켰을 경우 엄벌에 처했던 당시 종군작가들은 군복을 입고 수월하게 기차를 탈 수 있었으며, 도강이 금지된 서울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이 체험으로 최정희는 “군복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114]고 했다. 종군작가단원이 아니라 정식으로 계급장을 받은 소령으로서 염상섭이 누리게 된 상징권력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장면은 「노염 뒤」의 상황이 만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피난할 때 명색뿐인 조선인 피난민 단체의 부단장을 맡았던 「삼팔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모략」에서의 태극기 흉장이라든지, 사적 단체인 조선인회의 완장, 「삼팔선」에서의 피난민증명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국민의 징표가 「노염 뒤」에서의 안 교관이 걸친 군복과 계급장이다. 그것이 안 교관의 화려한 ‘노염(老炎)’이었다면, 그러나 핵심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그 불

113) 염상섭, 「노염 뒤」, 『한국평론』, 1958.5, 177쪽.
114) 최정희, 「피난대구문단」,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104쪽.

꽃의 생신한 열기가 사그라진 뒤에 오는 서늘한 자각이다.

군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시에 개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가족들을 한 번에 다 실을 수 있는 차편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피난 짐을 반출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인천과 서울을 몇 번씩이나 오가며, 끊임없이 온갖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대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반복된다. 해방기의 「삼팔선」을 읽은 독자라면, 당시 가족들이 피난 짐 때문에 사리원과 신막 역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고생하던 일화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115]

겨우 어느 부잣집의 가산을 운반하는 트럭에 가족들을 태우고 서울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임관한 정식 군인으로서 처음 한 업무라는 것이 피아노와 금침 같은 남의 사치스러운 가산을 불법적으로 반출하고 압령하는, 흡사 해방기의 잠상군 따위나 다름없는 일이었으며, 그 틈바구니에 끼워서야 간신히 가족들을 피난시킬 수 있었다는 부끄러움이 고개를 든다.

이와 관련해 가족들을 피난시키는 북새통에 지나치듯이 언급되는 일화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조할머니의 문집인 「종송기사(種松記事)」를 잃어버린 일도 무심히 넘길 수 없다. “근래의 우리집 문장(文章)”이자, 오늘날로 치면 “여류작가”나 다름없던 할머니가 남기신 글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은 정신없는 피난길에서 벌어진 작은 해프닝처럼 제시되지만, 작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심각한 위기의 은유라고도 읽을 수 있다. “세전지가보”의 문집 대신 안 교관의 손에 “무슨 자기의 일생의 운명이나 결정되는듯 싶이”(186) 귀중하게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온갖 증명서들이었다.

결과적으로도 가족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오긴 했지만, 인천에서 부산으로 출발한다는 밤배를 놓쳤으니 다시 언제 가족들이 부산으로 내려가게 될지 모르는 노릇이다. 만약 자신이 먼저 함정에 올라 훈련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은 또 여관에서 기약 없는 날들을 기다려야 한다. 그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은 채로 소설은 끝나버린다.

그러나 저러나, 군무(軍務)를 제쳐놓고— 광직(曠職)을 하여 가면서, 남의

115) 이 장면은 전쟁 발발 직후 봉쇄된 서울을 벗어나기 위해 자동차로 쳇바퀴 돌듯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 『취우』의 인상적인 첫 장면에서도 되풀이된다.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에 걸쳐 염상섭은 개인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국가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일이거나 내 일이거나 보러 다닌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군복을 입는 첫 서슬로 한다는 노릇이 이것이었건가? 고 생각하면, 어디에 대해서인지 막연히 미안하고 **자기의 지금 놓인 위치가 거북하기만 하였다.**[116]

「노염 뒤」의 마지막 문장이다.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거북스러움과 자조가 읽힌다. 후속작 「공습」(사조, 1958.6)을 보면, 다행히 가족들은 무사히 다음날의 새벽 배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다지만, 부산에 가봤자 안정적인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방 한 칸, 쌀 한 가마니가 없어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부산에서 지냈는지는 전작 「동기」에도 상세히 서술된 바 있다. 함상훈련을 받고, 심지어 적기의 공습까지 받게 되는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던 「공습」에서도 군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거리두기라는 일관된 논조는 유지된다.

더구나 하루 이틀 지내보아야 무슨 소임을 맡은 것도 아니요, 맡긴대야 맡을 재주도 없으니, 무료하기도 하거니와 **식객처럼** 멀거니 매달려서, 하루 세 때 식당 출입이오 하는 **신세가 우수광스럽기도 하다.**[117]

이는 다른 종군작가들의 종군기와 함께 놓고 볼 경우 훨씬 대조적이다. 전선 시찰의 종군에 지나지 않음에도 시종 비장한 사명감과 애국심을 표방하는 글들에서와 다르게 염상섭은 정식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고 공식적인 군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소속이 불분명하고 갈 곳 없는 “군식구”, “식객” 등으로 자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와 같은 염상섭의 위화감은 당시에도 꽤 뚜렷했었는지 김동리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그의 사후에 염상섭이 과거 군인이 된 일을 몹시 거북해 했다는 공통적인 회고를 남기기도 했다.[118]

이렇게 본다면, 군인으로서의 확실한 외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염상섭의 내면에서는 정체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해방기의 「모략」이나 「삼팔선」에서 나타났던 염상섭의 난민의식은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지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실에서 염상섭의 입대라는 선택이 국민 되기의 갈망에서

116) 염상섭, 「노염 뒤」, 187쪽.
117) 염상섭, 「공습」, 『사조』, 1958.6, 260쪽.
118) 대표적으로 김동리, 「횡보선생의 이면」, 『현대문학』, 1963.5, 50쪽.

비롯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염상섭의 문학은 다른 한편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호명되지도, 설명되지도 않는 잉여를 남겨두고 있다. 이 논문은 그 상반된 지향성을 '(비)국민 되기'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공습」에서도 나오듯이 함상 훈련을 받고 공습을 당할 때조차 염상섭이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다만 글 쓰는 일이었다. 현실에서는 스스로가 어색하고 우스꽝스럽고 군더더기 같고 거북스럽기 짝이 없게 여겨지는 자리에 있었지만, 바로 그와 같은 간극이 염상섭으로 하여금 어떤 문학적인 가능성과 실험을 가능하게 했는지 살펴볼 차례다.

2.2. 일상 속의 작은 전쟁과 요새로서의 친밀성

김윤식(1987)은 만주로부터의 피난길에서 시작된 염상섭의 피난민 의식이 한국전쟁과 환도 후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적 밀도의 짙고 옅음은 있었겠지만 무려 십 년 간에" 걸쳐 지속되었다고 보았다. 중요한 지적이다. 그런데 김윤식은 따라서 염상섭에게 "6.25로 인한 적치 석 달이라든가, 1.4후퇴로 말미암은 피난행각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며, "염상섭 문학에서 피난민 의식은 유별난 것일 수 없다. 다만 서민들의 애환을 엿보는 수준에 멈추었던 것이다."[119]라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이 논문은 염상섭의 피난민 의식, 곧 난민의식은 김윤식의 지적처럼 무려 십 년 간에 걸쳐 지속되었던 까닭에 훨씬 심층적인 문제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이 시기 염상섭의 작품들은 국가를 위해 전쟁에 동원되는 군인이 되면서까지 국민의 경계 안으로 편입되려 애썼던 표면의 노력들과 그 이면의 난민의식이 공존하는 (비)국민 되기 과정에서 쓰였다는 점에서 좀 더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전시 염상섭 소설이 난민을 양산하는 냉전의 논리와 그 경계선이 불분명해지는, 일상적이고 사적인 친밀성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시 가장 먼저 발표된 「해방의 아침」(신천지, 1951.1)으로부터 논의를

119) 김윤식, 『염상섭연구』, 862~863쪽.

시작해보자. 1950년 11월 24일 진해 향발(向發) 전야(前夜), 즉 입대하기 전날 밤에 탈고했다는 부기가 적힌 이 소설은 격렬한 시가전을 치르고 국군이 서울에 다시 입성한 아침 날로부터 시작된다. 해방의 감격도 잠시, 치안대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던 첫날부터 북한군 점령기 피복 공장에서 여맹위원장으로 일했던 원숙어머니가 붙들려가고, 이튿날로 성실이네와 인임이네가 모두 총을 멘 청년단원들에게 붙잡혀가며 동네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돈다. 죄인즉슨 원숙어머니가 공장관리위원장과 작당해 동네사람들의 배급 물자를 빼돌린 뒤, 성실이네를 시켜 인임이네 문간방에 은닉했다는 것이다.

치안대로 붙잡혀온 이들은 벌써부터 '빨갱이', '준빨갱이'로 취급되며 심문받는다. "빨갱이를 잡는판이요 사람의 목숨이왔다 갔다하는 험악하고 삼엄한판"(104)에 취조관이라는 노인이 원숙어머니에게 속아 자기 부모가 죄를 뒤집어쓸지 모른다는 생각에 내년이면 중학교를 나올 나이에 불과한 인임이는 당돌하게 공장관리위원장과 여맹위원장이었던 원숙어머니를 고발하고, 그 덕으로 부모는 풀려나올 수 있었다. 북한군 점령 기간 위원장을 지냈다면 이 판국에 총살이라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인임이가 나서서 그들을 고발했던 것은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이 대신 빨갱이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 이렇게 해서 인임네 네식구가 당장으로 풀려나오게된것이지마는, 나오는길에서 인임이부친은 그래도 이웃간에 살던 원숙이 모녀가 가엽어서
>
> 「얘, 지금판에 위원장총살일텐데, 싸줄것까지는 없지마는, 그네들 위원장이었다는말을 한 것은 네입으루 사형선고를한거나 다름없지 않으냐?」
>
> 하고 딸을 타일으니까, 인임이는 눈을 커닦게 뜨고 부친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마디하는것이었다.
>
> 「온 별걱정을 다하십니다. 그럼 저의들 살려주구, 우리가 대신 죽어두 좋을까요!」[120]

「해방의 아침」의 마지막 문장이다. 수복된 서울에서의 부역자 처벌 풍경을 다룬 이 소설이 '해방'이 되었다지만 어느새 더 살벌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즉 "서울의 한 동네는 전방의 연장선"[121]이며, 친밀한 이웃들

120) 염상섭, 「해방의 아침」, 『신천지』, 1951.1, 107쪽.
121) 조남현, 「한국전시소설 연구」,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42쪽.

간에도 우리/저희, 국민/비국민, 반공/빨갱이를 가르고, 삶과 죽음으로 직결되는 잔인한 냉전의 경계선이 작동하는 현실을 전면화하고 있음은 조남현(1993)을 위시한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결말에서 인임이의 당돌한 목소리 뒤로 주춤 물러난 인임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 시사되듯, 현실에는 그와 같은 냉전의 논리와 경계선으로 구획될 수 없는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북한군 점령기에는 쌀말이라도 떨어질까 자식들 몰래 여맹위원장인 원숙이네에게 방을 빌려주었고, 원숙이네가 잡혀간 뒤에는 애써 변호해줄 것까지야 없지만 굳이 이웃 간에 나서서 사지로 보낼 것도 없다고 보았던 이들이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판국에 어수룩하고 의뭉스럽게 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사리판단이 재빠른 인임이나 청년단체에서 일하는 인임이 오빠보다 취조관 노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실상 인임이 부모의 솔직한 변명("네그저 쌀되나 얻어 걸릴까하구 쌀에 눈이 뒤집혀서 그랬죠." 106)이었단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이 회색지대의 존재들은 분명한 존재감으로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해방의 아침」에 조심스럽게 기입된 인임이 부모의 머뭇거림, 작은 목소리의 타이름, 인임이의 대꾸 뒤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침묵과 같은 그 '냉전의 회색지대'에 주목했을 때 전시 염상섭의 소설들은 좀 더 흥미로운 측면들을 펼쳐 보인다.

이 시기 염상섭 소설은 획일적인 이념 논리로 재단될 수 없으며, 그러한 구분 짓기로부터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속성을 지니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일상에 대한 일관된 관심을 고수한다. 이 점은 대개의 소설들이 한정된 서사적 공간 안에서 미시적인 관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해방의 아침」에서 인임이네, 성실이네, 원숙이네는 모두 한 동네의 이웃 간이며, 「탐내는 하꼬방」(신조, 1952.1)[122]에서 등장하는 필준이네, 반장 여편네 역시 벽 하나를 격한 이웃 사이이고, 「짹나이프」(국제신보, 1951.11.20~28)[123]에서 범일선생과 최인순, 의순 자매는 여학교 시절의 사제관계이자 현재는 하숙집 주인과 하숙생 사이이며, 「자전거」(협동, 1952.9)[124]에서 병훈과 삼룡은 종형제 간이자, 상기와 차득은 그 종질들이다.

---

122) 기존에 서지 정보가 잘못 밝혀져 있었던 것을 바로 잡았다.
123) 기존에 서지 정보가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았던 것을 새로 찾았다.
124) 기존에 서지 정보가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았던 것을 새로 찾았다.

그리고 여기서 빨갱이로 말해지는 인물들은, 신영덕(1992)이 지적하였듯, 배급 물품, 하꼬방 우동가게, 땅마지기 같은 물질적 이권이나, 반장 행세, 원님 행세 같은 세속적인 권력욕을 채우려는 자들일 뿐 실제로는 모두 이념과는 상관없다.[125] 북한군 점령기를 가리켜 관용적으로 '적치하'라고 말하곤 하지만, 이 시공간을 다룬 염상섭의 소설에서는 정작 뚜렷하게 적이라 할 만한 타자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익숙하고 친밀한 관계들이 뒤얽힌 일상의 국면들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쟁'이 문제시된다.

이른바 '작은 전쟁'은 최근 십 년 간의 한국전쟁 연구에서 활발하게 주목받아온 영역이다. 대표적으로 박찬승(2010)은 한국전쟁의 냉전적 기원이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친족, 씨족, 신분제, 종교 등의 기존의 인간적, 사회적 관계에 잠재해오던 갈등과 사소한 충돌의 씨앗들이 전쟁의 와중에서 이념과 국가의 논리와 맞물리며 극단적으로 치달아 전쟁의 성격 자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뒤바꾸어놓는 양상 및 그것들이 마을과 같은 소규모의 전통적 공동체에 초래한 상흔을 작은 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126]

김영미(2011)가 지적하였듯, 전쟁은 기획자의 의도를 타고 넘어 수많은 연쇄적인 사건을 발생시키며, 그러한 총합이 곧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한국전쟁은 남한(국군)과 북한(인민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지역공동체나 생활공간에서 불거진 특수한 갈등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국민국가, 민족국가 단위의 냉전 연구가 보여주지 못하는 전쟁의 사회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127]

전시 염상섭 문학은 한편으로, 김종욱(1992)이 지적한 "평소의 사사로운 감정대립이 이념 대립의 형태를 띠고"[128] 나타나는 전형적인 일상 속 작은 전쟁에 대한 재현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냉전의 경계 짓고 적대하는 논리

---

125) 신영덕, 위의 글, 44쪽.
126)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돌베개, 2010.
127) 김영미, 「한국전쟁과 마을 연구」, 『중앙사론』33, 한국중앙사학회, 2011, 326~327쪽.
128) 김종욱, 「염상섭의 『취우』에 나타나는 일상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151쪽.

가 완전히 재편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끈끈하게 뒤엉켜있는 친밀성의 영역으로 다시금 일상을 문제시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즉, 전쟁이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 속으로 파고들어 뒤틀림과 갈등을 촉발시키는 양상을 살피면서도, 다시 그 친밀성이 전쟁으로부터 개인들을 수호하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소설이 염상섭이 부산의 해군정훈감실에서 소령으로 복무하며 발표한 「자전거」(협동[129], 1952.9)이다.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지만 당대에는 꽤 주목 받았던 작품으로, 특별히 1952년도의 창작을 결산하는 평문에서 김동리가 "지금까지 써온 씨의 작품전체중에서도 우수한 것의 하나"[130]라고 고평해 눈길을 끈다.

이 소설은 드물게도 적치하의 서울도, 피난수도 부산도 아닌, 서울 인근 어느 농촌의 백여 호 정도 되는 "손바닥만한" 동리를 배경으로 삼는다. 작은 마을이라 아직 북한군의 통치세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은 상태로, 전쟁이 터졌다지만 마을 사람들은 전투는커녕 북한군이나 당원 같은 외부인을 본 적조차 없다. 어쨌거나 서울은 북한군 점령 아래 동네마다 인민위원회가 들어섰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마을사람들도 대응책을 내놓는다. 생판 낯선 "진짜 빨갱이"가 들어와서 마을을 휘둘러놓기 전에, 또 언젠가 마을에 나타날 그들 앞에 변명거리라도 내놓기 위해 자체적으로 명색뿐인 인민위원회를 급조하게 된 것이다.

---

129) 『협동』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서 발행한 농민잡지이지만, 문예물의 비중이 꽤 컸다. 전시임에도 신인작가 추천이 이루어졌고, 『농민소설선집』(1952.12)과 같은 기획물을 발행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여기서 염상섭이 활발하게 활동해 주목된다. 「자전거」가 북한군 점령기 서울 근처의 농촌을 배경으로 전쟁이 어떻게 작은 마을 공동체 안에 파고드는지의 문제를 살폈다면, 또 다른 소설 「새설계」(농민소설선집, 1952.12)는 피난지 부산, 대구 근처의 농촌을 배경으로 전쟁의 상처를 입은 공동체가 다시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서는지의 문제를 상이군인이 되어 돌아온 지주 집안의 자식과 소작농 집안의 자식들 간의 계급의식을 뛰어 넘는 협력과 유대를 통해 서사화해 흥미롭다. 같은 시기 대구를 중심으로 한 "종군작가단 활동의 매체적 거점"(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전반기(1952.8~1956.3)의 매체전략과 문학의 관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8쪽)으로서 부산 소재 문인들 역시 활발하게 참여했던 잡지 『신태양』에 염상섭이 일체 활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농민잡지 『협동』을 중심으로 한 염상섭의 활동은 눈길을 끈다. 신인추천에도 관여하였던 만큼 농민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었는지, 어떤 경위의 활동이었는지는 추후 더 자세히 다루어볼 만하다.

130) 김동리, 「임진문화결산: 부진무실의 일 년(문학)」, 『전선문학』2, 1952.12, 69쪽.

그에 따라 대동아전쟁 때 경방단장이었고 해방기에는 대한청년단 감찰위원을 지낸 바 있는 구장 이종민이 직함만 인민위원장으로 바꾸고, 서울에서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군청 농림계장으로 있다가 귀향한 마을의 지식 청년 전상기가 지도부장을 맡게 된다. “구세력을 그대로 두고 간판만 갈아부쳐놓아서 캄푸라지를하여 잠간동안 급한고비를 넘기자는”(126) 말 그대로의 위장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이 마을 출신으로 서울의 인쇄소에서 직공으로 일하던 차득이 지도원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별안간 귀향하며 마을의 분위기는 급변한다. 그는 담총한 청년들이 감시하는 ‘진짜’ 인민위원회를 열어 이종민과 전상기를 밀어내고, 이종민을 비롯한 전 임원들에 대해 “반역자 숙청”을 벌이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마을을 “생지옥”으로 몰아넣는다.

차득의 귀환과 그 부친 삼룡이 인민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마을을 장악하게 된 사건은 상기네 집에 특히 곤욕스러운 일이었다. 상기의 부친인 병훈과 차득의 부친인 삼룡은 종형제 간이지만, 두 집안은 전대(前代)부터 지속되어온 불화로 인해 실상 남만 못한 사이인 까닭이다. 단적으로 토지개혁 때 병훈은 땅마지기를 장만해 “다 늙게 인제야 두다리를 뻗고 밥이나 굶지 않게 되나 보다하고 한참 살림에 신이 나는 판”(124~125)이 되었지만, 삼룡은 여전히 자작농이 되지 못해 잔뜩 심사가 뒤틀려 지내오던 터이다. 여기에 더해 전쟁 직전 구장 집 딸 이완희와 상기 사이에 혼담까지 오고가자 삼룡 내외는 병훈 네와 자신들의 지체가 훌쩍 벌어진 것 같아 배가 아프고, 남몰래 완희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차득 또한 질투심에 바짝 몸이 단 상황이었다.

> 차득이는 이번통에 저와 좋지 않은새, 저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는동무는 모조리 볼기 한대씩이라도 따려서 내 보내겠다는 작정으로 제동무를 앞장세우고 헛거비 빈총대를 짊어 지어가지고 제 고향에를 들어선것이지마는 **그중에도 농업학교 졸업한 상기－그 앞에서는 아무래도 눌리는 상기－저의 집보다는 잘사는 상기－아니 그보다도 구장의딸 완희와 혼담이 벌어지고 얼르는 상기는 뼈를 못추리게하고 싶었던 것이다.**[131]

131) 염상섭, 「자전거」, 『협동』, 1952.9, 136~137쪽.

과연 반역자 숙청을 운운하는 차득은 가산을 챙겨 일찌감치 서울로 피난한 이종민 대신, 상기부터 잡아들여 가둔 뒤 감찰부장인 순보를 시켜 그를 죽도록 팼다. 또한 이종민의 식구들과 상기 집안을 "소위 반동분자"로 지목해 식량을 몰수하였다. 차득이 전쟁 전부터 좌익 단체인 "출로(出勞) 계통"의 빨갱이였다거나, '숙청'과 같은 마을사람들로서는 낯선 말을 운운하며 상기 집안을 괴롭히고 마을을 주름 잡는다지만, 그것은 이처럼 이념대립이나 계급의식의 문제와는 별반 상관이 없는 일로 제시된다.

실제 소설은 이른바 빨갱이로 말해지는 차득의 사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가 북한군이나 공산당과는 무관한 인물이라는 것은 항상 매고 다니는 총이 총알 없는 "헛거비 빈총대"라는 은유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데올로그로서 차득의 유일한 활동은 마을에 붙어있으려니 심심해 하릴없이 서울에 갔다가 선전 벽보 따위나 챙겨오는 일 정도이다.

그런데 그 점은 차득에 의해 반동분자로 지목된 상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기가 명색뿐인 인민위원회의 지도부장을 맡게 된 것은 실은 인민위원장이 된 이종민의 딸 완희에 대한 호감 때문이었다. 물론 농촌의 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일찍이 마을로 귀농한 그는 인민위원회 지도부장이 된 김에 자경단을 조직해 비상시국의 마을 치안을 지키고, 근로대를 조직해 전쟁으로 심난해 하는 농민들이 다시 농사일에 전념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썼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이고, 누구의 통치를 받든지 간에 농사일이야말로 자기 집안일이자, 마을 일이고, 나라 일("그 일은 자기집일이요 동시에 이마을일이 나라의일이 아니요!" 127)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설사 "숙청을 당한다면 요담 수복된 뒤에 대한민국정부에 숙청을 당할지는 몰라도 차득이 편에서야 「동무」라고 부를것이 아닌가"(133) 라고 생각할 만큼 별다른 정치색은 없다.

대신 둘 사이의 작은 전쟁을 추동하는 것은 대대로 지속되어온 일상적이며 미묘한 감정의 깊은 골이다. 일상생활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딪치는 가운데 쌓여온 열등감이나 질투심 따위의 사적인 감정들이 전쟁을 계기로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 빨갱이 천지에는 인정두 친척두 없나?"(135), "어쩌면 제일가붙이 아닌가"(137)라고 비난한다지만, 기실 상기를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고, 칠십 먹은 할아버지까지 삼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인 상기 집안의 식량을 모조리 쓸어가는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바로

그와 같이 추상적인 계급의식이나 이념갈등을 통해 상상된 적대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쌓은 구체적인 감정들에 기반을 두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친밀성이라는 기제는 일상 속의 작은 전쟁의 불길을 지피는 땔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쟁이 재편하고 공략할 수 없는 요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소설에 매우 인상적으로 기입된 상기와 완희 사이의 이제 막 시작되려 하는 사랑의 풍경이다.

차득이 계급의식이나 이념의 차이가 아닌, 완희와 상기 사이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에 휩싸여있듯, 상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도 완희와의 사랑, 그리고 이전부터 자신들의 결혼을 반대해왔던 완희 모친의 마음을 얻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설은 전쟁이 어떻게 상기와 완희의 사이를 자신들도 놀랄 만큼 부쩍 끈끈하게 굳혀놓았는지, 상기 집안에서는 과분하지만 완희 집안에서는 탐탁지 않아 무효로 돌아갈 것처럼 보였던 둘의 결혼이 전쟁과 함께 어떻게 다시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부상하게 되는지를 꽤 공들여 서사화하고 있다.[132]

이와 관련해 상기와 완희가 한밤중에 자전거로 피난하는 장면은 특히 눈길을 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자전거에 함께 탄 둘은 전쟁 전이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가까워진 상태이다. 완희는 대담하게도 상기더러 함께 피난을 가자고 재촉하고, 상기는 이를 마치 감미로운 밀회의 제안처럼 받아들인다. 목숨과 재산이 오락가락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외부세계의 전쟁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들의 감정, 사적인 욕망이 아름다운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은 상기와 완희의 자전거 야행 장면에 농축되어 있다. 염상섭의 다른 소설의 제목이기 한, 말 그대로 “싸우면서도 사랑은”(사상계, 1959.1)이다.

> (아무놈이구 오너라!)
> 상기는 가슴을 떡 뻐기며 속으로 외쳤다. 난리고 빨갱이고 숙청이고 무서

---

132) 이는 같은 시기 『취우』에서도 전면화 되는 주제여서 주목된다. 서울 인근의 한 농촌으로 설정된 「자전거」의 무대는 같은 시기 연재된 『취우』에서 강순제와 신영식이 식량을 구하러 박석고개와 연서 일대의 선산이 있는 시골로 가는 장면에서 제시되는 마을 풍경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두 작품은 같은 시기에 발표된 만큼 공유하는 부분들이 꽤 있다.

운것이 없었다.

「나두 내정신 같지 않아요. 난 인젠 조금두 무서울건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대루 아버지 따라 어서 여길 떠났으면 좀 좋을까!……」

어린애가 조르듯이 한숨 섞인소리로 남자의 결심을 재촉하는듯한 그말소리가 상기의귀에는 귀엽고 애처럽고 감미하게 들렸다. 그것은 아버지를 따라 가자거나 **피난을 가자기보다도 둘이 멀리멀리 안온한곳으로 가서 숨자는 애정에 겨운 귓속같이 들리는것이었다.**[133]

앞서 이 소설을 고평한 김동리는 "「자전거」란 제목이 주제와 너무 동뜬 듯한 감"[134]이 있다는 점을 유일한 아쉬움으로 꼽았고, 그 때문인지 나중에 염상섭도 제목을 「생지옥」, 「가위에 눌린 사람들」로 거듭 개제했지만, 적치하의 공포와 압박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경된 제목보다 오히려 작품 전반의 문제의식을 더 잘 담아내는 것은 '자전거'라는 원제이다.

이 소설에서 자전거는 상기의 "한 첼량으로 애지중지하는"(138) 귀중한 소유물이다. 또한 이종민의 피난을 돕거나, 상기와 완희가 오붓한 밀회를 즐기는 매개가 되기도 하며, 북한군의 쌀 공출이 극심해져 자기 논의 벼를 손대는 것조차 불법이 되었을 때는 밤새 몰래 빼돌린 벼를 타곡하는 "六 ·二五 타곡기(打穀機)"로 행세하기도 한다. 차득이가 샘을 내고 뺏어갔다지만, 소문대로 국군이 인천상륙을 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기의 수중에 들어올 터이다.

그 점에서 자전거는 전쟁이 초래한 곤욕을 치르면서도 결코 외부세계로 온전히 환원될 수 없는 저마다의 개인이 소유한 사적인 내면과 욕망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종민의 사유재산을 안전하게 은닉하는 데 사용되고, 차득이의 서울 출장에도 쓰이는 정반대의 효용처럼 이념과 냉전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회색지대로서의 일상의 국면들을 대변하는 오브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염상섭의 전시 소설들은 이처럼 전쟁의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사적인 욕망들, 그들이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들, 그리고 그것들이 뒤얽혀 만들어낸 모호하고 불분명한 영역으로서의 일상의 풍경들을 향한 일관된 관심을 고수한다. 염상섭은 이를 '얼럭진 일상'이라는 개념으로

133) 염상섭, 「자전거」, 131쪽.
134) 김동리, 위의 글, 1952.12, 69쪽.

인식했던 것 같다. '얼럭'은 염상섭의 전시 대표작 『취우』(조선일보, 1952.7.18~1953.2.10)의 「작가의 말」에서 쓰인 표현인데, 김윤식(1991) 이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것을 줄곧 '얼룩'으로 취급하며, 전쟁이란 일상을 잠시 물들였던 얼룩에 지나지 않을 뿐 그것이 얼룩에 불과한 이상 삶에 본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자국은 쉽사리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일상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은유로 해석해왔다.[135]

> 나는 이번난리를 겪어오면서 문득문득 머리에 떠오르는것은 쏠물같이밀려나가는 피난민의떼를 담배를피우며 손주새끼와 태연무심히바라보고 앉았는 그노인의얼굴과 강아지의 오두커니 섰는꼴이다. 길 이편에서는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마주뵈는 건너편에는 햇발이 쨍히비취는것을 눈이부시게 바라보는 듯한그런느낌이다. 생각하면 **이러한 큰화란을 만난뒤에 우리의생활과생각과감정에는 이와같이 너무나 왕청뛰게 얼럭이 진것이 사실이다.**
>
> **나는 그 얼럭을 그려보려는 것이다**. "소나기삼형제"를써볼까한다.[136]

그러나 염상섭의 삶에 전쟁은 근본적인 위기와 변화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반기 문학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무엇보다 얼럭과 얼룩은 의미가 다르다. 요새는 얼룩으로 통합되어 사어가 되었지만, 본래 '여러 빛깔의 점이나 줄 따위가 섞인 모양'을 뜻하는 얼럭에는 '액체 따위가 스며들어 더러워진 자국'을 뜻하는 얼룩의 의미는 없다.[137]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애초에 염상섭이 얼럭이라는 은유를 사용한 맥락도, 김윤식이 착안한 얼룩의 일시성이 아니라, 전쟁을 겪은 사람들 저마다의 "생활", "생각", "감정" 등의 차이와 다양성에 주목하겠다는 것이었으며, 그것들이 빚어내는 미묘한 색채와 무늬를 소설로써 표현해보겠다는 의미였다. 얼럭이라는 개념을 통해 염상섭의 전시 소설에 접근할 때 방점은 일상의 연속성보다는 '복합성' 쪽에 새로 찍힌다. 전쟁이 만들어낸 이 얼럭진 일상의

---

135) 김윤식, 「우리 근대문학사의 연속성에 대하여: 『취우』와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1, 한국현대문학회, 1991, 17~21쪽.
136) 「연재장편소설 『취우』 작가의 말」, 『조선일보』, 1952.7.11.
137)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풍경들은, 「해방의 아침」, 「자전거」에서 살펴보았듯, 획일적이고 단순한 경계선으로 재단할 수 없을 만큼 뒤얽혀 있는 한편, 그러한 구분 짓기로부터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속성을 지닌다.

『취우』는 그 같은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텍스트이다. 『취우』의 첫 장면은 전쟁과 함께 다시 시작된 피난 여정, 즉 피난민이 되어서 봉쇄된 서울을 뱅뱅 도는 풍경을 보여준다. 해방기 창작된 일련의 소설들이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만주에서 서울로 피난해오는 여정을 담았다면, 이제는 시가전이 벌어지고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이야말로 벗어나야 하는 곳이자, 피난의 주된 무대가 됐다는 차이가 있을 뿐 해방기나, 한국전쟁기나 피난민들은 국가의 보호에서 방치된 난민의 처지이긴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취우』에서 한강다리를 끊고 서울시민의 피난을 가로막은 정부는 피난민들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으로까지 간주한다.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국가의 보호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외딴 섬에 갇힌 것 같은 서울시민은 난리 통에 부모를 잃은 천애의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다.

서울을 벗어난 이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도 없다. 1.4후퇴 무렵의 염상섭 가족의 실제 피난 체험을 반영한 「산도깨비」(미상, 1951.7; 『얼룩진 시대풍경』[138], 정음사, 1972)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성들과 아이들만의 피난길을 보여준다. 먼저 이동한 군인 아버지와 떨어진 채 군인가족이라는 화를 입을까 과부 행세, 고아 행세를 했던 것처럼 이들에겐 국가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피난길에 마주친 곳곳의 송장 무더기들, 산도깨비처럼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북한군과 중공군을 피해 마음을 졸이며 치안의 공백 지대를 통과하는 이들이 의지하는 것이라고는 간밤에 꾼 아버지의 꿈이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미신뿐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마냥 무력한 모습으로만 재현되는 것은 아니다. 피난길에서 막내가 기지를 발휘해 자신들을 산으로 끌고 가려 했던 빨치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산도깨비」의 결말처럼 이들은 총탄과 공습,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존과 안전, 이익을 도모한다.

---

138) 표제작의 초판본은 「얼럭진 시대풍경」(예술원보, 1961.7)이지만, 염상섭 사후 단행본으로 간행될 때 제목이 '얼룩진'으로 바뀌었다.

이종호(2009)는 해방기 염상섭 소설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존재들에게서 개인적인 안전과 안위를 추구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139] 이는 해방기의 이동을 국가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 나아가 염상섭 소설 속 난민의 재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한 난민들의 실천은 한국전쟁기 소설들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데, 후자의 경우 피난을 반공과 국민의 징표로 내세웠던 당시 만연했던 반공주의 담론을 고려했을 때 중요하다.

『취우』가 연재되던 시기는 앞서 살펴보았듯, 문단 안팎에서 피난 여부로 도강파와 잔류파를 가르고, 잔류파를 반역자, 비국민시 하고 도강파를 애국자인양 하는 분위기 속에서 강력한 반공주의에 기반을 둔 관제 피난기나 잔류 수기 등이 전략적으로 생산되던 때이다. 그러나 『취우』를 비롯한 염상섭 소설에서는 가장이 부산이나 대구에 있더라도, 당장 피난길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로 되돌아갈 도리밖에 없는 「산도깨비」처럼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동시대의 반공주의 피난 담론을 비껴간다.

한강을 건너려 시도하는 『취우』의 첫 장면은 그 점에서 새삼 눈길을 끈다. 이 장면은 이민영(2015)의 지적처럼 한강 다리가 끊어지고 통행로가 봉쇄되면서 도강에 실패하고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염상섭의 잔류파로서의 변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140] 다른 소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피난과 잔류를 둘러싼 개인들 제각각의 충돌하는 욕망과 내면을 드러내면서 도강파/잔류파 담론 자체를 무화시키는 대목으로도 읽혀 흥미롭다.

여기서 한미무역회사 사장인 김학수는 어떻게 해서든 전 재산이 든 보스턴백만 한강 이남으로 넘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무엇보다도 보스턴백을 피난시켜야 하겠다." 17) 마찬가지로 강순제는 공들여 마련한 집과 세간살이를 팽개쳐두고 피난 간다는 게 못마땅해 정반대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도로 집으로 돌아가자고 권한다. 신영식은 수원 정거장에서 만나기로 한 정명신과의 약속과 집에 남겨두고 온 어머니와 여동생 걱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영식이의 마음은 또 다시 올지 갈지였다" 21), 운전수는 얼른 이들을 피난시켜놓고 돌아와 서울에서 자동차를 맘대로 끌고 다니며 한 몫 단단히 벌

139) 이종호,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350쪽.
140) 이민영, 「1945~1953년 한국소설과 민족담론의 탈식민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5, 187쪽.

겠다는 심사로 들떠있다.

> 한미무역회사의 김사장은 목숨과 옆의 가방이 무사하기 위하여 이 밤이 새기 전에 한강을 건너야 하겠다고 몸이 달았지마는 운전수는 제 목숨보다도, 이 차에 탄 다섯 목숨보다도 자동차 하나만 고스란히 넘겨놓았으면 그만이라는 욕기에 이해가 일치되었다.[141]

> 금시로 서울이 두려빠지는 것이 아니요 불바다가 될 것도 아닌데, 자기야 여자 한 몸뚱이 아무러면 어떨라구, 시급히 서울을 빠져 나가야만 될 것도 아닌 것을, 괜히 끌어내서 고생만 짓시켰다고 듣기 싫은 소리가 하고 싶었다. (중략) 인제야 자리가 잡힌 살림을 버리고 따라 나서기는 정말 싫었던 것이다.[142]

김송의 「서울의 비극」(전쟁과 소설, 계몽사, 1951.5)에는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적군에게 굴복할 바에야 죽는 것이 낫다며 목숨을 끊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탁류 속에서』(신조사, 1951.11)에는 국가의 장래를 도모하며 가족들을 두고 피난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처럼 서울을 사수한다느니, 북한군의 통치를 받을 바에야 죽는 게 낫다느니, 국가를 위해 피난한다느니 하는 식의 사고를 보여주는 '국민'[143]은 『취우』에는 없다. 애국은 시시껄렁한 농담조로 말해질 뿐이다.("만일 이대루 공산 천하가 된다면 아마 난 애국에 목매달아 죽어야 할까 봐." 92) 이들에게 피난이나 잔류는 다만 자신의 생존과 안위, 이익을 위한 본능적, 계산적인 선택이며, 따라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감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과제는 아니다.

염상섭은 「자전거」에서도 그러하였듯, 반공주의 담론으로 포착되지 않는 전시 개인들의 사적인 움직임에 훨씬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이동의 궤적을 좇는다. 들여다보면 『취우』의 서사는 북한군 점령기의 서울 안에서 김학수, 강

---

141) 염상섭, 『취우』, 『취우, 새울림, 지평선』, 글누림, 2018, 15쪽. 이 논문에서는 『취우』, 『새울림』, 「지평선」 연작의 경우 연재본 대신 새로 간행된 글누림 판본을 참고하였다.

142) 염상섭, 『취우』, 42쪽.

143) 이민영은 국가와 운명을 함께하는 피난을 통해 개인들이 국민으로 거듭나는 반공 서사 및 피난한 자들의 죄책감과 비겁함의 심리를 통해 그와 같은 반공주의 피난 담론의 허구성과 균열을 보여주는 서사에 주목하였다. 이민영, 「전시의 서울과 피난의 (불)가능성」, 『현대소설연구』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순제, 신영식이 끊임없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은신처를 옮기며 피난하는 이야기이다. 돈 가방을 지키려는 김학수의 피난, 의용군 징집을 피한 신영식의 피난, 그리고 신영식과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강순제의 피난이라는, 돈, 안전, 사랑을 위한 개인들 제각각의 욕망이 추동하는[144] 이동의 제 양상인 것이다.

한편, 애국적인 국민이 없는 것처럼 비국민, 반역자, 적, 빨갱이라고 할 만한 이들도 없다. 피난이나 잔류가 지극히 본능적이며 개인적인 안위와 이익을 기준으로 선택되었듯, 이념의 선택도 마찬가지이다. 앞서도 지적하였듯, 전시 염상섭 소설에서 북한군 점령기의 빨갱이 노릇은 돈이나 권력 등의 개인적인 이권을 얻고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자 변신일 따름이다. 이는 흡사 해방기를 배경으로 한 「해방의 아들」에서 혼혈인 마쓰노 조준식이 식민지 시기 배급을 생각해 외가의 일본 민적에 입적하고, 『효풍』에서 조선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가네코가 해방이 되자 유창한 조선말에 한복을 차려 입고 조선 기생 흉내를 내며 요릿집 영업에 나선 것과도 같다.

『취우』에서 김학수가 숨어있는 신영식 집이나 강순제 집을 들쑤시고 회사 사람들을 선동하는 임일석, 김한 패는 빨갱이인 척 하며 한몫 챙기려드는 기회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빨갱이”로 말해지는, 해방기에 월북했다가 전쟁 때 서울로 남하한 강순제의 전 남편 장진은 단 한 번 등장하고 일선으로 사라지는 데서 알 수 있듯 서사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있다.

오히려 『취우』에서 작가의 관심은 개인들의 사적인 욕망이나, 친밀하고 익숙한 관계의 점성으로 인해 이데올로기의 호명이 실패하고 멈추는 순간들을 겨냥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하자 한미무역회사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전선동을 해보려 했던 임일석은 그들을 향해 야심차게 “동무들”이라고 호명해보지만, 당장 그 말을 꺼낸 자신부터 어설픈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남한에서의 타락한 생활을 “단연히 청산을 하구, 자기비판을 하구 압질러 나서”기를 권하는 공산주의자 전 남편 앞에서 강순제는 “살림하는 아내”의 여성성을 내세우며 능청스럽게 회피한다. 서울이 수복된 뒤 담총한 국군에게 끌려가는 북한군들의 행렬을 보고는 석 달 전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던 국군과 경찰관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심난해하는 강순제나,

---

144) 김양선, 「염상섭의 『취우』론: 욕망의 한시성과 텍스트의 탈이념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강어문』14-1, 서강어문학회, 1998, 140쪽.

얼마 안 있음 저들이 죽겠거니 하는 생각에 흥미도 적개심도 줄어든 군중들의 김빠진 표정을 제시한다.

> 맨 앞에는 머리 위로 총대를 가로 들고 걷는 놈도 있고 모두 맨발들이다. 전후좌우로는 국군이 총을 겨누고 간다. 어디선지 박수 소리가 난다.
>
> "죽여야지!"
>
> "아무렴! 죽여야지!"
>
> 중늙은이들의 핏대 오른 목소리였다. **손뼉 소리는 흐지부지하였다. 저것들이 끌려가며는 당장 쓰러지려니 하는 공포에 그 마음들이 어떨구? 하는 생각을 하면 손뼉을 칠 흥미도 적개심도 줄어진 모양이다.**
>
> 순제의 머리에는 석 달 전에 대학병원 중턱, 창살문 앞에 쓰러져 썩어가던 붕대를 하얗게 동인 국군들의 퉁퉁 부어터진 얼굴이 머리에 떠올랐다.
>
> (그걸 생각하면……)
>
> 그러나 저 젊은애들이 같은 핏줄에 얽혀 맺는 것보다도 마지못해 끌려나온 것들이라면—아니 그보다도, 바로 엊그제 끌려 나간 애들이 그 틈에 끼어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하고는 순제는 마음이 흐려졌다.[145]

이 대목을 두고 배하은(2015)은 "과연 반공주의가 규정하고 있는 '적'이 진실로 '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반공주의의 모순과 허상"을 폭로한다고 보았다.[146] 같은 맥락에서 테오도르 휴즈(2018)는 『취우』가 적군과 국군의 단순한 대립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대신 개인들의 일상을 친친하게 감싸는 "친밀성의 거미줄"[147]과 그 그물망을 타고 흐르는 내밀한 감정과 욕망을 전면화한다고 보았다.

이 논문 역시 바로 그 점에서 『취우』가 전쟁이 삶에 끼친 영향을 미미하게 파악하고 '현상적 층위(일상적 욕망)'를 기술하는 데 그치는 역사인식의 미달을 보인다거나,[148]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공포로 인해 통속적인 세태소설

---

145) 염상섭, 『취우』, 336~337쪽.

146) 배하은, 「전시의 서사, 전후의 윤리」, 『한국현대문학연구』45, 한국현대문학회, 2015, 205쪽.

147) 테오도르 휴즈, 「염상섭의 적산 문학」, 『취우, 새울림, 지평선』, 글누림, 2018, 600쪽.

148) 김종욱, 위의 글, 1992, 155쪽; 김양선, 위의 글, 1998, 149쪽; 이봉일, 『1950년대 분단소설 연구』, 월인, 2001, 68쪽; 배경렬, 「한국전쟁 이후 염상섭 소설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32,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245쪽.

로 전락했다는 분석[149]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잔류파와 도강파가 관계를 회복해 새롭게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150]고 본 해석과도 다르다. 염상섭은 의식적으로 잔류파, 도강파 같은 구분 짓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용해지는 차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우』가 능숙하면서도 주의 깊게 기술해나가는 일상은, 그간 주목된 일상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국가의 경계 짓고 배제하는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파고들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끈끈하게 뒤엉켜있는 친밀성의 영역으로 재현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이 때의 친밀성은 이타성이나 도덕적 선함으로 직결될 수 없고, 염상섭도 그것을 말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151] 이 친밀한 관계들로 이루어진 일상의 풍경들을 전면화함으로써 『취우』는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논리, 나아가 냉전 이데올로기를 우회하고 그에 맞서는 전략에 성공했다고 읽힌다.

---

149) 유임하,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공포」, 『현대소설연구』25, 현대소설학회, 2005, 69쪽.

150) 김영경, 「적치하 '서울'의 소설적 형상화: 염상섭의 『취우』 연구」, 『어문연구』 4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312쪽.

151) 이철호(2013)는 『취우』의 강순제가 전시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과 맺는 '이타적' '윤리적' 인간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여성인물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가 오히려 강순제를 납작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볼 만하다. "영식을 하염없이 기다릴 줄 아는 여인"(112) "영식이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을 다시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도 안다"(113) 같은 서술들도 그러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강순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며, 삶과 죽음, 인간과 비인간의 문턱으로 내몰린다(117)는 해석은 소설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애초에 이철호가 강순제의 '선량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전시 서울에서의 자본주의의 정지(114)라는 전제도 동의하기 힘들다. 이 소설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보스톤 백'이야말로 건재하는 자본주의 증명에 다름 아닌 까닭이다. 가방의 주인의 납북과는 상관없이 계속 가방이 열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들이 순환되고 부산까지 무사하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애초의 이철호의 목적처럼 강순제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려 했다면, 강순제가 선량하고 윤리적으로 변했다는 관점보다는 더 이상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측면, 즉 신영식과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모조리 활용하고, 포틀래치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증여함으로써 누구도 가능할 것 같다고 여기지 않았던 이혼한 여성이자 김학수의 첩이었던 강순제가 미혼인 신영식과의 결합을 현실화시킨다는 허윤(2015) 식의 설명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철호, 「반복과 예외, 혹은 불가능한 공동체: 『취우』(1953)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8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112~117쪽; 허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5, 89~90쪽.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의 피난수도 부산의 정훈감실에서 해군 소령이라는 군인의 신분으로 쓰였던 『취우』는 냉전을 우회하고 적대와 폭력이 완전히 관철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일상의 얼럭진 풍경들, 개인의 욕망들, 친밀한 관계들, 그로부터 추동되는 피난이라는 움직임을 전략적으로 부조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또한 『취우』에서 서울의 난민들, 그리고 그들의 은신처로서의 안방, 건넌방, 안채, 바깥채와 같은 장소는 해방기 창작된 「이합」, 「재회」, 『효풍』에서 염상섭이 끈질기게 추구하였던 '삼팔선 위'로 대변되는, 삼팔선을 아슬아슬하게 배회하는 존재들이 유랑을 끝내고 정주할 수 있는 탈냉전의 장소에 대한 상상력을 이어받는 은유로 접근해볼 수 있다. 그 점에서 1950년대 염상섭 소설을 "모두가 안방 건너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한" "안방 이야기"[152]라고 치부하는 방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2.3. 난도(亂都) 부산과 인도주의적 구원 신화의 간극

전시 염상섭 소설의 또 다른 한 축은 피난살이에 대한 재현이다. 피난민들의 삶이나, 그 배경으로 제시되는 피난수도 부산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분석하지 않은 만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일상 속의 작은 전쟁을 다룬 계열의 소설들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전자에서는 냉전의 경계 짓기 논리로부터 개인들을 수호해주었던 요새이자 대안적 가치로서 제시되었던 친밀성의 영역이 오히려 전장과 멀리 떨어진 피난지에서는 모조리 헤식고 파편화된 모습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즉,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 후방 부산에 이르면, 이념의 장력과 전쟁의 폭력성은 약해진 대신 개인들의 욕망은 친밀성을 잠식해버릴 만큼 기승스럽게 분출하고 난무하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표출된다.

제목부터 상징적인 「욕(慾)」(신생공론, 1951.11)[153]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이 소설은 피난지의 삶이 어떻게 가장 친밀한 가족들의 관계마저 뿔뿔이 갈라놓는지를 잘 보여준다. 부산에서 피난생활 중인 철은 코앞으로

152) 이어령, 「1957년의 작가들」, 『사상계』, 1958.1, 38쪽.
153) 기존에 서지 정보가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았던 것을 새로 찾았다.

다가온 부친의 기제사로 인해 골머리를 썩는 중이다. “피난민 주제”에, 다섯 식구가 복작거리는 “피난군이 됫박만한 방구석”에서 값비싼 제수거리를 장만해 제사를 치르는 일이 부두노동자로 간신히 먹고사는 철에게는 부담스럽기만 한 까닭이다. 그러나 전쟁 전에는 일 년에도 몇 번씩 조상들의 제사를 치러왔던 생활에 익숙한 모친은 과거 풍족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 배곯는 피난살이 가운데 제삿날만이라도 푸짐하게 잘 먹고 싶은 욕망, 무엇보다 훗날 자식들이 혹여 자신의 제사를 거르지 않도록 확실히 다짐을 받고 싶은 속셈에서 철에게 제사를 강행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한다.

어쩔 수 없이 철은 마지막 남은 귀중품인 시계를 팔아 간신히 제사 준비를 마쳤다. 소원대로 제사를 지내게 된 일은 다행이지만, 모친은 이제 힘들게 장만한 알량한 제사 음식에 식객이 꼬일까 걱정하기 시작한다. 때마침 시집간 큰 딸이 부친의 제사를 잊지 않고 나타나는데, 제주 한 병 사들고 오지 않은 빈손에다, 더구나 이 집안의 핏줄도 아닌 개가한 남편의 전 자식까지 군식구로 달고 오자 평소부터 딸이 못마땅했던 모친은 화를 참지 못한다.

딸이 전 남편의 삼년상을 마치기도 전인 피난생활 중에 개가했다는 사실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모친은 떡국집 드난살이를 하게 된 딸이 그동안 친정에 떡 한가락 들고 오는 법 없이 새 남편만 챙길 것이라고 여기며 얄미워하는 것이요, 철의 경우에는 누이가 개가한 뒤로 과거 시학관 사모님 시절의 품위나 체면은 잊은 듯이 바깥 남자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는 태도가 꼴 보기 싫은 것이다. 모친의 날선 비난과 철의 술주정을 빙자한 모욕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난 딸은 결국 제사에 참석하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남은 가족들은 별로 서운한 줄도 모른 채로 제사를 치른다.

> 「옳은 말씀입니다 제사란 원체 산사람의 잔치 아닙니까 도라간이를 사모하고 기념삼아 모여서 명복을 빌면서 음복을하며 하룻밤을 질겁게 노는것을 영혼이 계셔서 굽어보신다면 퍽 좋아하실겁니다 그것도 도라간어른의 음덕아닙니까」[154]

인용한 철의 대사처럼 본래 제사란 가족들끼리 다 함께 모여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정성껏 차린 음식을 음복하는 산 사람들의 잔치라지만, 피난지

154) 염상섭, 「욕」, 『신생공론』, 1951.11, 110~111쪽.

에서 지내는 철의 가족의 제사 풍경에서는 부친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 식구들끼리 화목하고 즐겁게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딸을 내쫓은 것도 모자라 모친은 손주들에게조차 간만에 상에 오른 귀한 숭어적을 양보하려 들지 않고, 철 역시 바깥채에서 나란히 피난살이하는 아랫방 김 선생이 얼쩡거리자 거지 취급 하며 외면해버린다.

제주 한 잔 얻어먹지 못한 김 선생이 홧김에 시비 거는 소리처럼 지나치듯 제시되지만, 소설은 "세서천역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망극(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으로 이어지는 축문의 법도에서 철이 술김에 실수로 '추원감시'를 빠트렸다는 일견 사소해 보이는 사실을 살짝 지적한다. 말 그대로 먼 옛날 일을 추억하고 감사할 여유가 없는 피난민들의 삶을 반영한 대목이다. 전통, 인정, 우호, 유대는 형해화되고, 천박하고 악착스러운 욕구들만 비대해진 피난지의 현실을 이 가족의 제사 풍경은 냉소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거품」(신천지, 1952.3)은 오랜 기간 마음속에 간직해오던 과거의 순수하고 애틋했던 추억들이 피난살이 가운데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스러져버리는 과정을 포착한다. 소설은 피난길에 헤어진 처자식을 찾느라 정신없는 이종구 앞으로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옛 동료 김혜랑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과거 이종구와 같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교사였고,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있었던 김혜랑은 이혼한 뒤 홀로 부산으로 피난해 살 길이 막막해지자 이십년 전 첫사랑에게라도 취업을 부탁하고자 염치불고하고 무작정 찾아 나섰다.

그러나 김혜랑이 이종구에게 걸었던 일말의 기대는 해후와 동시에 산산조각 나고 만다. 지난 시절의 "감정의 따뜻한 온기"에 의지해보려던 작전이었으나, 그러기에는 김혜랑이 전쟁과 피난을 치르며 이종구가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형편없이 영락해버린 것이며, 이종구는 그런 김혜랑이 가엽긴 하지만, 그 역시 누군가를 도와줄 감정적, 현실적 여유는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아름다운 옛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순수한 감정들 이전에 서로 간에 이해타산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피난지의 삶이 쓸쓸하게 제시된다.

> 그때광경이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으로서 종구의 기억의 한구퉁에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일생의 일절(一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흘러간 「때」의 흐름이 거

꾸로되돌아오지는 못하니, 노랑저고리 분홍치마는 기억속에만 남아있고 꾀죄죄한 회색외투의 뒷모양이 또다시 「때」와함께 시야(視野)에서 떠나려가는 것이었다.
(중략) 두남녀의 그심정은 아무 잡틔없이 담담한 다만 아름다운풍정이었다. **그러나 그심정을 인제는 다시는 찾아볼 수 없고, 다시는 어찌하는도리가 없는 물거품이 아닌가,** 종구의 마음도 혜랑이의 뒷모양같이 후주군하고 쓸쓸하여졌다.[155]

「해지는 보금자리 풍경」(문화세계, 1953.7)에서는 인간관계의 셈속이 한층 더 신랄하게 부각된다. 별거 중인 남편 필준을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정원에게 당장 든 생각은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급한 겨울 외투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에게 필준은 전 남편이었다거나, 아이의 아버지라는 생각은커녕 요즈음 댄스홀에서 교제하는 "한때 손님"인 물주들이나 다름없이 여겨질 뿐이다. 애초에 애정 없이 한 결혼이요, 애매한 오해로 갈라선데다, 곤궁한 피난살이가 정원으로 하여금 체면을 따질 것 없이 한층 더 세속적, 계산적으로 전 남편을 대하게 만든 것이다. 실상 필준이라고 다를 것도 없다. 그 역시 정원이 혹할 만한 값진 외투를 "교환조건"으로 내세우며 피난길에 불구가 된 자기 수발을 해주고, 아이를 돌보아줄 "식모 하나" 쯤을 얻을 심산으로 정원의 비위를 맞추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부부간에도 그렇기야 하지마는 역시 <거래>이었다.[156]

여기에 왕년에는 사모님 소리를 들어왔으나, 이제는 남편이 죽고 가겟방 여자에게 도둑년 소리를 들을 만큼 전락해버린, 동생의 재혼을 빌미로 술장사라도 차려 한몫 보려는 "기생어미 같은 속배포"를 숨긴 언니 순원까지 가세한다. 정원, 순원, 필준 모두가 서로를 수단으로 대하고 거래로만 취급한다. 소설의 결말은 이들이 다함께 청요리를 나누어 먹는, 겉으로는 더없이 다정하고 친밀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분주한 셈속으로 골똘한 동상이몽의 해지는 보금자리 풍경을 보여준다.

이처럼 염상섭 소설에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송두리째 바

155) 염상섭, 「거품」, 『신천지』, 1952.3, 148쪽.
156) 염상섭, 「해지는 보금자리 풍경」, 『문화세계』, 1953.7, 118쪽.

꾸어놓은 것은 포탄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전장이나, 무시무시한 적치하가 아니라, 다름 아닌 피난지에서의 먹고 사는 평범한 일상이다. 염상섭은 앞 절에서 전시의 일상을 전면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존전쟁으로 대변되는 피난살이의 일상의 위력에 주목하는 것처럼 보인다.

피난수도 부산은 그 속성이 가장 극대화된 공간으로 모든 관계들은 이곳에 이르러 속절없이 파탄 나고 붕괴되어 버린다.[157] 더 나아가 부산은 말 그대로 매일 같이 싸움이 벌어지고 폭력이 횡행하는 무법천지의 공간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정부가 엄연히 자리 잡고 있는 피난수도임에도, 정부가 부재했던 북한군 점령기의 서울보다 훨씬 혼란스러운 무정부 상태로 제시되는 것이다. 『취우』의 마지막 장에서도 서울 수복 후 부산에서 돌아온 정달영의 입을 빌려 부산이 흡사 "해방 직후"와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지기도 했지만, 앞서 「모략」이나 「혼란」에서 살펴보았던 해방기 만주를 연상시키는 혼란상이 피난수도 부산을 무대로 다시금 펼쳐진다.

'난도(亂都) 부산'[158]이라는 말이 대변하듯, 피난수도 부산을 혼란과 타락의 도가니로 표상하는 것은 당시 언론과 문학의 클리셰였다. 부산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159] 물가가 치솟았으며,[160] 주택난이 극심해 거처를 구하는 문제부터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다.[161] 황순원의 「곡예사」(문예, 1952.1)가 보여주듯,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일상을 꾸려나가는 일 자체가 힘겨운 곡예나 다름없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자연히 크

157) 물론 다른 한편에는 「순정」(희망, 1951.12~1952.1), 「감격의 개가」(희망, 1953.5)처럼 부산에서 새로 관계가 맺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도 있다. 근데 그러한 결합이 예외와 일탈처럼 제시되는 측면 역시 주목된다. 아내가 죽고 미혼여성과 새로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창식 아버지가 늙은 미망인 준석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순정」), 충분히 더 좋은 조건의 결혼을 할 수 있는 정원이 굳이 상이군인이 된 과거의 정혼자 준구와 결혼해 신의를 지키려 하는 것(「감격의 개가」) 등은 일종의 예외와 환상, 기적처럼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망인』(한국일보, 1954.6.16~12.6)도 접근해볼 수 있다. 여기서 전쟁미망인 명신과 총각인 홍규의 사랑이 시작된 곳은 부산이지만, 둘의 결혼에는 일탈적 속성이 강하고, 그 일탈은 언제고 방종과 퇴폐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제시된다. 실제 후속작 「화관」(삼천리, 1956.9~1957.9)에서 둘의 사랑이 파탄 나고 홍규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 역시 부산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58) 김광주, 『지구의 비극: 부산으로 가는 길』, 수도문화사, 1951, 23쪽.

159) 「부산인구 100만 넘어」, 『부산일보』, 1951.1.15.

160) 「아이고! 못살겟다, 내릴 줄 모르는 부산물가」, 『동아일보』, 1951.2.20.

161) 오신, 「하꼬방의 세계: 그의 필연성을 해부함」, 『주간국제』4, 1952.3.1.

고 작은 범죄도 만연했다.

염상섭 소설에서도 부산 피난민들의 무허가 '하꼬방(箱子房)' 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에서 그와 같은 난도 부산 표상이 특히 두드러진다. 예컨대, 「혈투」(미상, 1953.3.22)에서는 오래 지속되는 피난살이 가운데 누구나 심신이 지치고, 가슴 속에 서리게 된 울분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끔찍한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피난민들의 슬럼으로 하꼬방 촌이 제시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위 오열의 후방 교란책"이라고 선전할 뿐 주민들의 치안을 위한 어떤 현실적인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관한다.

비슷한 사정은 「가두점묘」(신천지, 1953.9)에서도 반복된다. 소설의 첫 장면에서는 뒷산을 빼곡히 덮은 피난민들의 지저분하고 복잡한 하꼬방 촌의 풍경이 눈에 보일 듯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무허가 주택지대인 이곳은 존재 자체가 불법일 뿐더러 곳곳에서 밀주나 밀매음 등의 온갖 불법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법의 효력 자체가 멈춘 것 같은 예외상태의 공간이다. 일상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설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국가로부터도 어떤 보호도 제공받지 못한 채 각자도생해야 하는 난민들의 삶이 그곳에 존재한다. 평범한 동네에서의 여인들의 흔한 빨래터 자리싸움 같은 "그런 여유있는 감정의 문제로가 아니라", 이 동네 여인들은 당장 먹고 마실 물이 없어 피 터지는 백병전을 벌인다.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싸움이다.

> 빨래터에를 가면 말씨만 듣고도 피난민과의 충돌이 허고헌날 벌어지지마는 **여기는 그런 여유있는 감정의 문제로가 아니라, 이 오뉴월 염천에 물가난에 헐떠기는 백병전이니 입이 찢여지고 머리통이 깨어질만치 싸울만도하다.** 삼거리 길모통이에 단 하나 백힌 물고둥 앞에는 사람과 물통이 전차 전류장만큼 늘어 서서 받는것인데, 이 가물에 사흘에 한번 닷새에 한번씩 나오는거나마 훅딱하고 가버리니, 행여나 새치기가 들어올까봐 눈을 까뒤집고 한통이라도 더 받겠다고 앙탈이니 쌈지거리가 일수다.
>
> 머릿채를 맞꺼들고 길바닥에 나딩굴며 엎치락 뒤치락 맴을 돌며, 남정네는 귀를 막을 욕설을 「만사이」의 경연(競演) 이나하듯이 주고 받는 그런 장관이야 아무리 이 거리로 날마다야 보랴마는, **코를 맞대고 사는 이웃간끼리도 툭하면 이년 저년하고 싯퍼래서 나서고, 하루에도 몇차례씩 동리를 발깍 뒤집어놓기가 일수니 나중에는 싸움구경하기에 지칠 지경이다. 웃음을 잊은지 오래인 이 족속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찾을날이 언제일**

지? 전쟁이 끝 나는 날이라고 장담할수도 없을 것이다.[162]

주목할 점은 그와 같은 공권력과 법의 사각지대인 부산에서의 최종 심급이 다름 아닌 미군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혈투」에서는 미군부대에 다니는 보초들이 이유 없이 피난민촌의 청년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벌임에도 동네 사람들은 여기에 항의조차 할 수 없으며, 미군 엠피가 나타나서야 겨우 혼란이 종식되는 상황이 제시된다. 「가두점묘」에서도 동네의 불량청년이 '양갈보'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그의 애인인 미군이 청년의 가족들을 몰살시킬 거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돌며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건이 중심에 놓인다. 출동한 한국인 경관조차 미군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적당히 빠져나갈 눈치만 볼 뿐이다.

물론 「혈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미군에 취직한 한국인 보초들이고, 「가두점묘」에서도 미군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미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공포는 극대화되어 있다. 국외인 만주나, 삼팔선과 같은 외국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월경구역이 배경인 해방기 소설들에서처럼 자신들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주는 국가가 없다는, "여기만은 치외법권 지구다."(「가두점묘」, 244)라는 인식이 뚜렷이 드러난다. 정부가 시민들을 팽개쳐버린 북한군 점령기의 서울은 물론 피난수도인 부산에서조차 피난민들은 사실상 국외의 난민이나 다름없는 처지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런 억울할데가 어디 있어요 경찰두 없구 법도 없으니까 미군에만 들어가 들어 있으면 사람을 죽여두 좋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줄 누가 알았습니까……」[163]

염상섭 소설 속의 미국은 자유세계의 수호자, 인도주의적 원조자 등과 같은 미국 표상과 거리가 멀다. 미국은 다만 무소불위의 권력과 법적 폭력을 독점한 존재일 뿐이다. 바로 이 미국의 상징적인 힘을 전면화한 소설이 『취우』의 후속작이자, 작가가 말한 "소나기 삼형제"의 나머지 두 편에 해당

162) 염상섭, 「가두점묘」, 『신천지』, 1953.9, 242쪽.
163) 염상섭, 「혈투」, 미상, 1953.3.22.

하는 『새울림』(국제신보, 1953.12.15~1954.2.26), 「지평선」(현대문학, 1955.1~1955.6) 연작이다.[164] 전작 『취우』가 북한군 점령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택했다면, 이 후속작들은 1.4후퇴 이후의 미군 점령지라 이를만한 부산으로 소설의 무대를 이동한다.

여기서는 앞서 살폈던 단편들과 달리 피난민들 중에서도 특히 상류층의 자본가와 그 주변의 엘리트 청년들의 일상이 다루어진다. 미국의 재건 사업에 가담해 이권을 따내려는 신흥 자본가들 및 친미 성향의 사교계 인사들, 유창한 영어 실력을 지닌 해군의 영문 타이피스트, 피난지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등이 중심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외국인들과 화려한 연회가 벌어지는 송도의 고급 별장지대, 미 공보원과 대사관저, 광복동 중심가의 다방과 호텔, 그릴 등을 주로 보여준다.

물론 그 역시 피난수도 부산의 한 단면이었다. 미국과 유엔에서 보내온 군수물자와 원조물자를 실은 배들과 일본을 오가는 밀수선들이 정박했던 부산은 전쟁이 무색할 만큼 분주하고 화려한 도시기도 했다. 송도 등지에서는 고급 별장 지대를 중심으로 밤마다 정부 고관들과 외국인들의 연회가 열렸는가 하면,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하꼬방 술집들의 불빛과 유행가 가락이 끊일 줄 몰랐다.[165] 일례로, 당시 서울대학교의 전시 부산 캠퍼스를 다녔던 한말숙은 할리우드 영화, 신극, 사교댄스, 맥주, 커피, 담배 연기를 추억하며 "부산은 전쟁이 아니야"[166]라는 말로 피난 시절을 갈음하기도 했다.

염상섭의 이 연작들에서도 부산은 전시임에도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공간으로 제시된다. 전쟁의 상흔은 『새울림』의 첫 장면에서 단 한 번 노모를 떼놓고 부산으로 피난 온 어느 월남민 남성의 울음 섞인 자조와, 부친이 납북된 뒤 서울에 남겨두고 온 외조모와 모친의 장례소식만 듣고 분상(奔喪)도 못했다는 김종식의 말을 통해 상기될 뿐이다. 정필호 영감은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김종식의 비윤리적인 피난을 나무라며 개탄하

164) 이하 내용은 졸고,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과 아메리카니즘」, 『인문논총』74-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165) 「전쟁을 망각한 부산?」, 『동아일보』, 1951.1.11; 「세기말적 향락의 축도」, 『동아일보』, 1951.3.28.; 「제2의 송도: 소위 별천지 가는 길」, 『주간국제』7, 1952.5.8, 30쪽.

166) 한말숙, 「6.25 전쟁 체험과 문단 데뷔 시절」(구술채록 제2차),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2005.10.6.

지만, 소설은 그 사연들에 더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다.

오히려 넘어가는 석양 햇발을 쬐고 있던 정 영감이 퇴장한 뒤로, 곧이어 미 공보원 주최의 댄스파티에 참석한다는 그의 딸 정명신이 짙은 화장과 최신 유행의 눈부신 차림새로 등장하고, 초저녁의 어둑한 다방 안에도 마침 전깃불이 반짝 들어오는 장면 쪽이 훨씬 인상적으로 제시된다. 같은 맥락에서 첫 장면의 무대가 '부흥다방'(Tearoom Reconstruction)이라는 점 또한 상징적이다. 이 다방의 마담 강순제의 입을 빌려 이곳은 "부흥 정신의 실천장"이라고 말해지기도 한다.

과연 이 소설에서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임에도,[167] 부산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UNKRA[168], CAC[169] 등의 국제기구를 주축으로 한 재건(부흥) 및 원조 활동, 그와 맞물려 출현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 그리고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미국의 역할에 비상한 관심이 쏠려있으며, 그것이 피난지에서 일상을 회복해나가려 하는 인물들의 서사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쟁 당시 UNCACK를 비롯한 미군이 후방에서 수행한 역할에 주목한 김학재(2010)의 논의는 참고할 대목이 많다. 그에 따르면, 전장의 배후에서 원조와 재건과 같은 사후적 수습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역설이야말로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의 전쟁의 양상이자, 전쟁이 정당화되는 방식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유엔, 이승만 정권은 무차별적인 학살과 진압을 전개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원조와 재건, 위생처리, 정치적 재

---

167) 서사 내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집필 시점은 이미 전쟁이 끝난 시점으로 전후 사회의 재건 열기가 작품 창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168) 1950년 12월 1일 제5차 유엔 총회는 한국의 경제를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부흥시킬 것을 결의하고 유엔한국재건단(UNKRA)을 설치해 재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시 UNKRA의 활동은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를 도와 긴급 구호사업을 전개하는 수준에 그쳤고, 본격적인 활동은 휴전 이후에 개시되었다. 김학재,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 해제」,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294쪽.

169)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는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산하에 본부와 전국 지역 팀을 거느린 별도의 군부대로, 원조물자의 배분뿐만 아니라, 군사점령과 군정, 민간인과 피난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업무 등 전쟁의 승리와 정당성을 위해 폭넓은 민사 업무 기능을 담당하였던 군 조직이었다. 김학재, 「'인도주의적 구원'의 신화: 주한유엔민간조사령부(UNCACK)의 창설 과정과 성격」, 위의 책, 17쪽.

교육이라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즉, 원조는 파괴로서의 전쟁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순수하고 중립적인 좁은 영역에 국한되지도 않았다.[170] 그것은 전후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 및 국내 정치의 이해관계와 깊숙이 얽혀 있는 것이자,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그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장기적 전환으로서의 재건의 첫 단계였다.[171]

『새울림』, 「지평선」 연작에서 염상섭 역시 정확히 이 문제를 겨냥한다. 여기서 서사의 무대로 채택된 부산은 전쟁의 상흔 위로 신속하게 재건을 도모하는 공간인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짙게 드리운 공간이다. 이 때 파괴와 학살의 주체인 '폭력으로서의 미국'이 서사에서는 소거된 전방에 집중된 대신, 상대적으로 후방 부산에서는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과 한국인들의 선망, 인도주의적 원조 활동, 한미연맹, 민간외교와 교류가 전경화 된다.[172] 소설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USAID 관련 인사들과의 연회나, 드라이브, 댄스 등의 교류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 점에서 이 연작들은 전작 『취우』 외에도, 『효풍』 속 미군정기의 서울과 닮아있다. 두 작품은 직접적인 연작 관계는 아니지만 공유하는 요소들이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 주인공으로 설정된 김혜란과 정명신의 유사성과 그들이 공유하는 딜레마를 들 수 있다. 『효풍』에서 아름다운 외모와 영어 능력을 겸비한 혜란은 과거의 제국(일본)이 수집하고 소비한 식민지 조선의 골동품들을 새로운 제국(미국)을 향해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요각'[173]에서 그

170) 김학재, 위의 글, 22~23쪽.

171) 김학재, 위의 글, 30쪽.

172) 장세진이 소개한 요시미 순야(『新米と反米: 後日本の政治的無意識』, 岩波書店, 2007)의 논의에 따르면, 전후 일본의 정치적 무의식 속 미국 표상은 폭력과 선망으로서의 양면성을 지니는데, '폭력으로서의 미국'이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국한된 까닭에 '본토'에서는 그 같은 측면이 덜 가시화되고,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차원에서의 선망의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점은 한국전쟁기 후방 부산에서의 미국의 재현 문제에도 참조할 만하다. 물론 장세진의 지적과 같이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해방군인 동시에 점령군이라는 모순적인 위상을 지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 푸른역사, 2012, 398~399쪽.

173) 김민수는 약소국에서 외교를 위해 강대국에 바치는 선물이라는 의미의 '경요(瓊瑤)'로부터 과거 일본제국과의 연장이나 다름없는 해방 이후 조선과 미국의 관계를 읽어낸 바 있다. 김민수, 「제국을 넘나든 새벽바람, 『효풍』의 미학과 주체의 포이에시스」, 『상허학보』59, 상허학회, 2020, 330쪽.

가 취급하는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오리엔탈리스트 베커를 향해 전시되고 상품화되며 그것을 매우 잘 인식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174] 이는 피난지 부산에서 미국인들이 참석하는 연회마다 한복을 입고 통역 겸 “화초분”의 역할을 하는『새울림』연작의 명신의 상황과 동일하다.

비단 혜란과 명신 외에도 두 작품에는 짝패라 할 만한 인물들이 여럿 등장한다.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효풍』이 민족주의자 김관식, 중간파 박병직, 공산주의자 화순 등 다양한 이념의 스펙트럼 속에서 미군정과 기회주의적인 친미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공유하는 인물들의 다성적인 발화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배하은(2015)의 지적처럼 미국의 신식민주의적 통치나, 분단 상황 등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새울림」,「지평선」에 이르면 그러한 비판적인 색채는 모두 소거된다는 것이다.[175]

일례로, 한국 재건 사업의 기본 조사를 위해 부산을 찾은 UNCRA 관계자들과의 연회 장면에서 재건단 단장 마틴 박사는 한국인들을 향해 재건 사업과 관련해 “고언(苦言)을 배청”한다며, “흉금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요청하지만, 그에 화답한 신영식의 연설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만 재건단에 대한 사의(謝儀)와 균형 잡힌 재건 사업에 대한 부탁, 그리고 그에 호응하는 박수소리 정도이다.

『새울림』,「지평선」연작에서 작가는『효풍』을 의식하는 듯한 유사한 장면들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일종의 다시 쓰기를 시도하면서 전혀 다른 효과를 의도하는데, 그중에서도「지평선」의 마지막 장에서 제시되는 윌슨, 명신, 영식의 주말 나들이 대목은 주목을 요한다. 염상섭의 소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읽을 줄 아는 독자라면, 이 장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효풍』에서 베커가 혜란의 사진을 찍는 장면이라든지, 베커, 혜란, 병직, 화순, 가네코로 구성된 이른바 ‘스왈로 회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특히 후자가 문제적인데, 당시 댄스홀 스왈로에서의 대화 장면에서 가네코는 애초부터 거의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지평선」에 이르러 표 나게 사라진 인물은 바로 월북한 신문기자 화순이라고 할 수 있다.

---

174) 테오도르 휴즈,『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자유의 경계선』,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3, 153쪽.
175) 배하은, 위의 글, 211쪽,

화순은 가장 신랄하게 미군정 하의 미국의 원조를 빙자한 조선의 상품시장화를 지적하는가 하면, 식민지 시기보다 더 심하게 좌우익을 분열시키고 극소수의 친미 언론의 여론에만 귀 기울이는 남한에서의 미군정의 실패를 꼬집었던 인물이다. 「지평선」에서는 바로 그 화순의 자리가 부재하는데, 그로 인해 인물들 간의 대화는 훨씬 화기애애하고 친밀해지지만, 대신 스왈로 회담에서의 팽팽한 긴장감과 냉소적이고 지적인 은유와 같은 고도의 수사법은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된다.

"이번에 난 일개월 예정하구 동남아 방면을 한 바퀴 돌구 오자죠."

윌슨도 구미가 당기는 듯이 맥주를 쭉 마시고 나서 새판으로 말을 꺼낸다.

"그거 좋군요. 차차 세계의 시청(視聽)이 한국에서 그리로 옮겨 가니까……"

하고 영식이는 부러운 듯이 대꾸를 하였다. 사실 영식이는 동란 전부터 이 방면에 착안을 하여 정치 경제…… 여러 방면으로 유의도 해 왔지마는 기회만 있으면 시찰을 해 보겠다는 야심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동란이 종식되면 공산세력의 중압(重壓)이 자연 이 방면으로 집중될 것은 물론이지마는 예서제서 연기가 풀썩풀썩할 화산지대라는 인상을 주지 않아요? 두 세계의 경계선에서 가장 복잡한 화근 덩어리겠지요."

윌슨은 우선 대만으로 날아가서 거기를 기점으로 한 달 동안 여행의 스케줄을 즐겁게 설명을 하고 나서

"두 분두 따라나서 보지 않으시려우? 풍성풍성한 동아상사에서 이 방면에 산업 시찰쯤 보내두 좋을 거 아녜요."

하고 낄낄 웃는다.

"그래 그 의논하자구 부르셨군요?"

명신이가 생글하고 대꾸를 하니까, 윌슨은 하하하, 하고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리더니

"가끔 그런 꿈을 꾸죠. 가을 하늘이 쾌청한 남국의 하늘을 우리 셋이 여객기 속에 나란히 앉어서 날아가는……"

하며 실없는 속에도 어딘지 진정이 사무친 낯빛이었다.

"고맙습니다. 윌슨 씨의 꿈속에서라도, 덕택에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왔으니……하하."

하고 영식이도 다정스레 대거리를 하였다.[176]

허윤(2015)은 이 대목에서 미군 공보장교 윌슨의 말에 화답하는 영식의 모습을 두고 동남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반공 정책과 헤게모니를 적극적으로 승인하는 공모적 태도라고까지 해석하였다.[177] 그러한 분석은 다소 비약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영식이 동아시아 지역의 탈식민과 냉전 문제에 관해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일 뿐 그 시각이나 노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178]

물론 소설 속에서 미국을 대하는 영식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짚고 넘어갈 만하다. 그는 미국과의 강력한 우호를 표상하는 친미파 사교계의 거두 김의경 여사 앞에서 당시 한국사회에 만연한 아메리카주의를 신랄한 어조로 비판한 적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으며, 미국문화를 받아들이는 한국인들, 그중에서도 젊은 여성들을 향한 것이었다. 뒤이은 명신의 목소리는 그런 영식의 논리를 거침없이 냉소할 따름이다.

> “복고주의나 국수주의도 안 되겠지마는 너무나 내용 없는 아메리카주의에도 위확장(胃擴張)이 되어서 신트림이 나고 군침이 흐르는 것은 사실이죠. 구찌베니하구 깡통문화하구 상거(相距)가 얼마나 되겠기에요.”
>
> “호호호 난 마침 구찌베니를 안 바르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 망신당할 뻔했구먼! 요컨대 요새 젊은 여성은 천박하고 양풍에 젖어 가는 것이 싫단 말씀인데 말씀은 지당하지만 유행이나 풍조를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179]

> “흥 선생님이 되더니 도학자연한 소리를 곧잘 하는군!”
>
> 하고 손가방에서 콤팩트를 꺼내서 차를 먹고 난 입술에 연지 칠을 다시하

---

176) 염상섭, 「지평선」, 『취우, 새울림, 지평선』, 글누림, 2018, 576~577쪽.

177) 허윤, 위의 글, 92쪽.

178) 간접적으로 유추해볼만한 단서들을 소설 속에서 좀 더 찾아볼 수도 있는데, 일례로 김영경은 신영식이 관여하는 운크라의 성격이 놀랜드로 대변되는 CAC보다 좀 더 자립경제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 착안해 허윤의 관점과는 달리 일반적인 미국의 원조와 추수열과 조금 구분지어 논의하기도 했다. 김영경, 「염상섭 후기소설 연구: 해방 이후 민족공동체의 서사적 상상」,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19, 103~104쪽.

179) 염상섭, 『새울림』, 526쪽.

며 깔깔 대는 것이었다.[180]

한국사회에 만연한 아메리카주의니 아메리칸 드림을 짐짓 비판하는 체하지만, 신영식은 UNKRA에서 마틴 박사의 일을 도우며 영어공부에 열중하는 한편, 윌슨과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은밀하게 미국 유학을 욕망한다. 『취우』에서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영식이 부재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한미무역회사의 자본가 김학수를 극진하게 보필했다면, 이제 전쟁과 함께 납북된 김학수를 대신해 그는, 동아상사의 승계자인 김종식이 아닌, 미국이라는 더 강력하고 새로운 아버지를 따르려는 것처럼도 보인다.

이는 영식에 대응되는 『효풍』 속 병직의 관심이 시종 북한과 남북통일을 향해 있었고, 결말에 이르러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닌, 삼팔선 위에 암자를 짓고 조선학을 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김관식 앞에서 혜란과의 결혼의 허락을 구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병직과 달리 영식의 관심은 더 이상 북한이나 삼팔선, 조선학이 아닌, 미국과 경제학, 미국의 냉전정책이 확장되어나가는 동남아시아 방면을 향한다. 명신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완곡하게 거절을 표한다.

그와 같은 변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사정을 꼽는 것은 어렵지 않다. 주지하듯, 『효풍』에서 병직이 연구하겠다고 했던, 대포소리가 나지 않게 삼팔선이 터질 방도라는 탈냉전[181]의 비전이 보기 좋게 좌절되었으며, 지하 남북협상과 같은 길도 차단되었다. 「새울림」, 「지평선」에서 삼팔선 이북은 미군의 통역장교로 일선에 나가있는 정달영의 편지나, 납북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김학수 사장의 부재로써 환기될 뿐 서사의 공간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182] 무엇보다 전쟁을 치르는 한반도에 미국은 『효풍』이 창작된 미군정기보다 훨씬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지평선」은 정전 협상이 본격화되자 미국의 냉전 정책이 한반도에서 점차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가는 추세를 시사한다.

---

180) 염상섭, 『새울림』, 527쪽.

181) 탈냉전의 상상과 중간파의 위치에 착안해 해방기 염상섭의 대표작 『효풍』을 흥미롭게 분석한 논의로 장세진, 「사라진 중도 자유주의의 상상력」, 『숨겨진 미래: 탈냉전 상상의 계보 1945~1972), 푸른역사, 2018, 20~58쪽.

182) 서사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 공간들은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해 소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108~162쪽.

그럼에도 이 시기 염상섭의 문학이 단순히 미국 추수적인 재건 담론에 흡수되었다고 보거나, 한미군사연맹과 세계체제론적 상상력을 소설화[183] 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효풍』의 화순이나 병직, 김관식과 같은 인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추수와 공모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다. 그 점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소설 안팎에서 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테오도르 휴즈(2018)는 훨씬 섬세한 관점을 취하는데, 그는 이 소설들에서 "염상섭이 추적하는 것은 정책 진술 또는 전쟁, 경제 복구, 한미동맹에 대한 일반적 진술보다도, 눈길, 춤추기, 그리고 우정과 친밀성에 대한 제안으로 특징지어지는 개인적인 대면"[184]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지적처럼 앞서 인용한 문제의 대화 장면에서 윌슨을 위시한 인물들은 산업 시찰, 미국유학, 두 세계의 경계선 등과 같은 기표들을 발화하고는 있지만, 그 기의에는 훨씬 사적인 감정들이 깃들어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적인 감정들을 에둘러 표출하기 위해 그와 같은 기표들이 동원되고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윌슨이 꿈꾸는 세 남녀의 비행을, 허윤(2015)은 한미군사연맹의 공모와 한국의 종속화로 해석하였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작가는 "빈말로라도 셋이서 재미있게 여행하는 꿈을 꾼다는 것은 묻지 않아도 명신이를 두고 한 말이요, 명신이를 데리고 여행한다는 꿈을 꾼다는 말"이라고 후술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시 읽어볼 수 있는 장면들은 더 있다. 소설의 전반부에서 제시되는 한미 문화교류 간담회 장면에서 윌슨은 댄스 파트너였던 명신에게 파티가 끝난 뒤 미공보원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지만, 여기서 공보원의 선전영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님은 말할 나위 없다. "윌슨도 선전영화 같은 신통치도 않은 것을 보고 싶지도 않"(442)았다.

유엔재건단을 위한 환영회 장면도 마찬가지이다. "관계 관청의 국장급과 금융계 중견층과 피난수도에서도 무역상으로 굵직하고 드날리는 축들이 와짝 몰린"(476) 자리로 제시되지만, 이곳에 부나방처럼 몰려든 사람들은 이른바 유엔의 한국 부흥사업이란 것에 뜻밖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이들이기도

183) 배하은, 위의 글, 2015, 213쪽; 허윤, 위의 글, 93쪽.
184) 테오도르 휴즈, 「염상섭의 적산 문학」, 604쪽.

했다. 작가의 시선 역시 음악, 댄스, 양주, 양식, 성적인 뉘앙스, 그리고 떡고물을 향한 개인들의 욕망에 더 밀착해있다. 유엔재건단 측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전쟁 중인 한국의 산업을 시찰하겠는 목적에서 피난수도 부산에 파견되었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 만큼은 그들의 관심은 재건이나 냉전이 아닌 아름답고 지성적인 여성들과 이국적인 분위기를 향락하는 데 더 집중되어있다. 그 점에서 한국인들과 재건단의 파티는 묘하게 서로 손뼉이 맞은 채로 성공적이라 할 만하게 흘러간다.

> 답사가 끝나자 주악이 곧 뒤달아 시작되었다. 맥주통을 연방 기울이고, 양주 먹는 사람은 양주를 땋고……여기에 모인 한인 측은, 얼굴에 기름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건마는, 오래간만에 보는 양식이요 한참 출출한 때라 그런지 연해 마시고 쩌금거리며 자기네끼리 숙설거리기에 누구하나 마틴 씨의 요청대로 이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
> "그래두 누가 일어나 말하는 사람이라두 있어야지. 주린 귀신들만 모였더란 말인가. 신 선생이나 한마디 하시구려."
>
> (중략)
>
> 음악은 끝났다. 그러나 아무도 일어서는 사람은 없이 좌석은 차차 질번질번하여갔다.[185]

이 파티에서 공보장교 윌슨은 명신과 춤을 추며 "전보 한 장에 언제 어디루 이동 될지 모르지만"(483) "내일이라도 군복만 벗으면 자유로운 시민"(484)이 될 수 있다며, 명신을 향한 자신의 호감, 미국유학이나 시찰 제의 등이 온전히 개인적인 감정의 발로임을 강조한다. 진정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강순제를 향해 놀랜드와 마틴 박사가 서로 나서서 자신들이 속한 CAC나 UNCRA 일을 돕고 협력해달라는 명목을 빌어 관심을 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능구렁이" 대 "이무기"라는 비유에서 드러나듯, 강순제의 부홍다방에 매일 같이 드나드는 장인영 같은 축들과 다를 바 없고, 강순제 역시 그들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은 자신을 "중매가 다녀간 뒤에 가슴이 들먹거리는 노처녀"(495) 같다고 여긴다.

여기에 이르러 다시 한 번 친밀성이라는 기제와 회색지대가 서사의 주된 원리로 부상한다. 물론 이때의 친밀성은 다소 비판적으로 접근될 여지가 있

185) 염상섭, 『새울림』, 480~481쪽,

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미국의 냉전 오리엔탈리즘이 정확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냉전을 치르면서 인도주의적 구원의 사명을 강조하고, 동양에 대한 이해와 알아가기, 사랑 같은 친밀성의 수사를 동원하였던 방식[186]과 「새울림」, 「지평선」에서의 미군 장교 윌슨의 담화는 꽤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목표로 한다고 여겨지는 "인도주의적 구원의 신화"[187]로만 환원되지 않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연 이 소설에서 진정으로 인도주의적 구원 신화에 호명 당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자유세계의 일원이며 국민으로 재건되는 존재, 미국 발(發) 냉전의 논리와 정당성을 승인하게 된 존재가 있는가.

장세진(2012)은 전쟁을 치르는 한국에 미국의 강력한 부는 대한민국 공보부처의 어떤 프로파간다보다 위력적이었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추상적 이념이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현실에 뚜렷이 각인되는 계기로 기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국가의 정체성을 새롭게 상상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상징적 자원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188] 남한이야말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진영의 마지막 보루라는 의식과 표상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구성원들로부터 국민국가성을 온전히 인준 받지 못한 남한사회의 결정적인 구심점[189]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지적이지만, 그럼에도 염상섭 소설 속의 '적치하'의 많은 '기회주의자 빨갱이'가 그러하였듯, 미군치하라 이를 만한 피난수도 부산의 피난민들, 무엇보다 열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난도 부산에서 살아가는 이 난민들은 겉으로만 미국에 적당히 호응하고, 선전된 척 할 뿐 실제 그들의 사명이나 이념에는 별반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유엔재건단이 내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웬 떡이냐 생각하는 김종식이나, 재건사업 일을 봐달라는 말을 듣고 즉시 양복감 밀수 장사를 벌여 지폐더미 위에 앉을 궁리를 하는

---

186) 동양에 대한 이해와 친밀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었던 냉전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논의로 Christina Klein, *Cold War Orientalism: 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1945-196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187) 김학재, 위의 글, 2009, 5쪽.
188)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 130~131쪽.
189) 장세진, 위의 글, 34쪽.

강순제처럼 말이다. 미군이나 유엔 측 인사들이 참석한 파티에 나가면 나일론 양말 한 짝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으니 그들의 통역 일을 돕는 정명신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소설 내내 미국을 '양키', '양공주', '양갈보', '유엔마담' 같은 이미지와 결부 지으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도 간과할 수 없다.

> "누가 바래다주었니? 양키 차냐?"
>
> 대문 들어서면 바루 거기 붙은 방이라 영어로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모친은 묻는 것이었다.
>
> "아뇨. 대사관의 장교가 가는 길에 태워 주었에요"
>
> 전등불도 없이 흐릿한 남포불 밑에 자리를 깐 이불 속에 다리를 파묻고 멀거니 앉았던 부친의 낯빛은 약간 덜 좋은 기색으로 뒤틀리는 듯하였다.
>
> 명신이는 부친이 왜 그러는 것을 짐작하고 김의경 선생에게 주의 받은 것이 이때껏 불쾌한 끝이라 방으로 홱 건너가 버렸다.[190]

> 의경이 같은 나쎄로도 외국 사람과 작반이 되면, 모르는 사람은 첫대에 '양공주'하고 코웃음을 칠까 보아 여러 사람이 들으라고 변명부터 앞을 섰다. 순제 역시 이런 귀빈들이 찾아준 것은 황감하고 여러 손님들 앞에 자랑도 되지마는, '부흥'의 마담이 유엔마담이더라는 소문이 났다가는 영업에 관계나 없을까 애도 키우고,[191]

요컨대, 인도주의적 구원 신화를 표방하는 미국 발 냉전 정책과 담론이 이 소설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소설은 거기에 호명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각자의 맥락에서 전유하면서 그로부터 이탈하고 미끄러지는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들, 욕망들, 관계의 뒤틀림을 보여주는 데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는 끊임없이 서사의 샛길로 빠져나가면서 이 냉전의 회색지대를 최대한 확장시켜 제시한다.

그와 같은 횡보(橫步)의 서사가 결국은 이 작품들을 완결 짓지 못하는 악무한에 빠지게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균열의 가능성을 적극

---

190) 염상섭, 『새울림』, 443~444쪽.
191) 염상섭, 『새울림』, 487쪽.

적으로 재고해볼 수도 있다. 『취우』가 친밀성이라는 일상의 영역에 주목함으로써 전쟁을 정당화하는 반공주의에 의문을 제시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새울림」, 「지평선」도 같은 방식으로 인도주의의 호명이 실패하고 그로부터 비껴가는 친밀성의 영역을 부조한다고 말이다. 『취우』를 위시한 전장의 일상을 담은 소설들이 전쟁을 치르는 적이 진정으로 적인가를 물었다면, 「새울림」, 「지평선」을 위시한 후방 부산의 난민들의 일상을 다룬 소설들은 우방은 진정으로 우방인가를 질문하는 식으로 냉전의 인도주의적 구원 신화에 의문을 표하고, 그리로 수렴되지 않는 간극을 기입해둔다. 그것은 멀리서 보면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맞닿지 않는 '지평선'의 간극과도 닮았다.

3. 이중봉쇄된 난민 여성의 의지적 표류 - 박경리

3.1. 전쟁부역자 미망인의 낙인과 사랑의 수행성

해방기 만주에서 북조선을 거쳐 귀환했던 염상섭이나, 한국전쟁기 삼팔선을 월남했던 이호철과 달리, 박경리는 한 번도 물리적인 월경을 감행했던 적이 없다. 폭격이 쏟아지는 서울에서는 지하실에서 웅크린 채 게오르그 브라네스의 『망명문학』을 읽었으며,[192] 이후의 피난살이도 낯선 피난지가 아닌 고향 통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국가 없음'의 난민 상황이 비단 국경 바깥으로 추방된 좁은 의미의 난민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즉 국가의 내부—때로 가장 익숙한 고향—에 머물면서도 "내부의 외부"로 "봉쇄"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버틀러의 통찰[193]을 박경리의 사례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드물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봉쇄란 박경리에게는 국가라는 공적영역은 물론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에도 해당하는 이중의 개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경리의 전쟁 체험과 문학에는 세대적 전형성을 따르면서도, 이 '이중봉쇄'된 난민여성의 처지에서 기인하는, 보편적인 세대론으로 수렴되지 않는 특성들이 공존한다.

박경리와 같은 1920년대 출생 작가였던 강신재는 이른바 '전중파(戰中派) 세대'로 불리는 자기 세대 여성들을 가리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연달아 겪으며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젊은 미망인이 생기고만 세대"[194]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박경리도 그들 중 한명이었다. 1945년 해방을 몇 달 앞두고 진주고등여학교를 졸업한 그는 전시 총동원 체제 하에서의 정신대 동원을 피해 서둘러 결혼했다.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던 남편은 학병으로 징집되는 대신 인천의 나트륨 공장에 배치되었고, 박경리는 그곳에서 해방을 맞았다.[195]

---

192) 박경리, 「(내가 영향 받은 작가) 많은 작가와 작품 속에서」, 『현대문학』, 1967.10, 247쪽.

193) 주디스 버틀러, 가야트리 스피박,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주해연 역, 웅진, 2008, 24~26쪽.

194) 강신재, 「30대의 여성들」, 『사랑의 아픔과 진실』(수필집), 육민사, 1966, 51쪽.

195) 황호택, 「국민문학 '토지' 작가 박경리, 행복했다면 문학을 껴안지 않았다」(인터뷰), 『신동아』, 2005.1, 235쪽. 기존의 작가 연보에는 1946년 1월 30일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편 김행도의 직장인 인천의 일본인 공장 관사에서 해방을 맞았던 당시 정경을 생생하게 회고하는 박경리의 인터뷰를 미루어 이 날짜는 서

태평양전쟁에서 살아남았던 그의 남편은, 그러나 한국전쟁 때는 무사하지 못했다. 주목할 점은 그가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잔류해 부역한 죄로 남한 정부에 의해 처형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박경리에 관한 그간의 선행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전쟁이 발발하자 박경리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접경지대인 황해도 연안에서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피난하였다.[196] 이후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 잔류하며 겪었던 일들이나, 서울 수복 후 서대문 형무소에 남편이 수감되고 학살된 일 등에 대해 박경리는 4.19 이전까지 철저히 함구하였다. 『시장과 전장』(현암사, 1964.12)을 통해 간접적으로, 직접 말하게 된 것은 1990년대부터다.

> **『시장과 전장』은 실화예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남편이 죽고, (중략) **이데올로기 문제는 전쟁에서부터** 지하가 출옥할 때까지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197]

> **자유당 때는 겁이 나서 전쟁 때 흑석동에 살았다는 얘기도 못했어요.** (중략)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꾀부릴 줄 몰라 죽은 거죠. 박정희 시대도 무서웠지만 난 자유당 시절이 더 무서웠어요. 파출소의 빨간 등만 봐도 겁이 났습니다. **입 꽉 다물고 살았어요.** 내 스스로 벽을 쌓고 또 쌓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198]

> **전쟁으로 박살이 난 내 인생은 사방이 벽으로 꽉 막혀,** 절망의 밑바닥에서 시 같은 것을 끄적거린다는 자체가 사치였다. (중략) **전란을 겪으면서 남편을 잃었고 그것도 좌익이니 부역이니, 그 같은 꼬리표 달린 가족인지라 자유당 시절 그 멍에가 얼마나 가혹했는가**. 지금은 내 자신조차 실감할 수 없을 지경이니,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살고 싶었으며**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던 것이다.[199]

류상의 혼인 신고일로 추정된다.

196) 전쟁 발발 직후 황해도 연안에서 군경가족들 틈에 섞여 배를 타고 서울로 피난한 실제 체험과 관해서는 박경리, 「고마운 그 분」, 『기다리는 불안』, 현암사, 1966, 230~239쪽 참조.

197) 송호근, 「삶에의 연민, 한의 미학」(인터뷰), 『작가세계』6-3, 1994.8, 48~49쪽.

198) 황호택, 위의 글, 245~246쪽.

199) 박경리, 「(김동리 10주기 추모 특집) 선생님에 대한 추억」, 『현대문학』, 2005.6, 260쪽.

이임하(2004)에 따르면, 전시 좌익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미망인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고, 그 규모나 체험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200] 박경리가 바로 그 전쟁부역자 미망인이다. 그가 실화라고 밝힌 『시장과 전장』에서 남지영의 남편 하기석은 북한군 점령기에 지인의 강권에 못 이겨 공산당에 입당원서를 낸 것이 화근이 되어 서울 수복 이후 형무소에서 처형당한다. 남편이 부역자로 죽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한 몇몇의 인터뷰들에서조차 현실에서 그의 부역 활동이나, 처형 경위는 정확히 이야기된 적 없다. 다만 박경리는 남편이 본래 공산주의 사상에 관심이 있었고, 해방기 인천의 전매국에 근무했던 시절 좌익 계열의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자신도 결혼 후 마르크스와 바쿠닌 등 남편의 사상 서적을 함께 읽었다는 정도를 언급하였다.[201]

박경리는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젊은 미망인을 낳은 전중파 세대의 여성들 가운데 한 명이면서도, 언제든지 국민의 경계 바깥으로 배제되고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전쟁부역자 미망인이라는 난민의 낙인을 부여 받은 존재였던 까닭에, 자신의 사연에 대해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따라서 박완서의 소설에서 좌익 오빠의 죽음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듯, 박경리 역시 남편의 죽음을 소설을 통해 여러 번 서사화 했다. 「불신시대」(현대문학, 1957.8)에서는 서울 수복 전야에 폭사한 것으로, 『표류도』(현대문학, 1959.2~11)에서는 후퇴하는 좌익 동료에게 총살당한 것으로, 「슬점」(여성계, 1957.1), 「재혼의 조건」(여상, 1962.11~1963.6), 『시장과 전장』에서는 서울 수복 이후 전쟁부역자로 처형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작품마다 허구의 정도와 양상은 다르지만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체험은 반복된다.

한편, 피난한 고향 통영에서의 재혼과 이혼 또한 그에게는 못지않은 낙인으로 작용하였다.[202] 박경리에게 재혼은 태평양전쟁 기간 불가피하게 치러야 했던 첫 번째 중매결혼과는 다른 연애결혼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자와 마찬가지로 급박한 전쟁 상황과 전쟁부역자 미망인으로서의 생존 문제 앞에서 택해야 했던, 이를테면 보도연맹원이자 반역문화인 혐의를 받았던

---

200)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28, 30쪽.

201) 송호근, 위의 글, 55쪽.

202) 박경리는 “피난 간 고향에서 K를 만났고 불행한 연애”를 했다고 했는데(「나의 문학수업」, 『현대문학』, 1960.1, 187쪽), 박경리 사후 지인인 홍봉연의 회고에 의하면 사실상 재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故 박경리 선생 단짝 통영 할머니의 이야기」, 『한산신문』, 2008.5.9.

잔류파 작가 염상섭의 해군 입대와 같은 위장이기도 했다. 염상섭처럼 군인이 되는 길이 없는 여성에게 유일한 선택지는 새로운 가부장의 보호 안에 편입되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박경리는 안착하지 못했다.

김종욱(2004)은 전쟁미망인의 재혼을 다룬 염상섭의 『미망인』(한국일보, 1954.6.16~12.6)을 통해 전후사회에서 전쟁미망인에게 가해졌던 보호와 감시의 이중적인 시선을 지적한 바 있다.[203] 통영에서 자식이 있는 전쟁미망인으로 미혼 남성과 재혼한 박경리의 처지는 『미망인』 속 명신과 꼭 같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가혹했다. 재혼 자체만으로도 작은 통영바닥이 소란스러웠는데, 얼마 안 되어 갈라서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는 나고 자란 통영과 가족들을 등진 채 홀로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이어가다 환도 직후 상경하였다.[204] 이후 그는 몇 십년 간 통영을 찾지 않았다.

> 이곳 풍토에 있어선 과부란 인권 유린의 대상으로 예각과도 같은 존재다. 나는 어머니처럼 지혜롭게 타협하지 못하여, 또 어머니에게는 예사로운 언사도 내게는 모두 피멍이 되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였다. (중략) 가로질러 온 내 발자취에서 어떤 궁핍보다 잊지 못하는 것은 내 존엄이 침해당한 일이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피멍 같은 것, 인간의 존엄과 소외, 이것이 아마도 내 문학의 기저가 아니었나 싶어진다.[205]

이는 흔히 고향을 상실했다고 말해지는 월남작가의 경우와도 다르다. 박경리에게 (비)자발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고향은 친밀하고 그리운 장소로만 표상되지는 않는다. 과부였던 어머니, 그리고 대를 물려 자신을 향하게 된 모욕과 유린을 대변하는 공간이 고향이었다. 이 점은 『김약국의 딸들』(을유문화사, 1962)이나 『파시』(동아일보, 1964.7.13~1965.5.31)에서 통영이 낭만이 깃든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동시에, 김양선(2017)이 지적하였듯 "광기와 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야만적이고 전근대적인"[206] 섬으로서의 양가적인 공간

---

203) 김종욱, 「한국전쟁과 여성의 존재 양상: 염상섭의 『미망인』과 「화관」 연작」, 『한국근대문학연구』9, 한국근대문학회, 2004, 229~252쪽.

204) 그 때문인지 통영에서의 피난 시절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피난지 부산 시절만을 언급한 인터뷰도 있다. 「글 쓴다는 것은 고통과 마주서는 일: 대하소설 『토지』 3부까지 끝낸 박경리 씨」, 『동아일보』, 1979.11.22.

205) 박경리, 「나의 문학적 자전」, 『원주통신』, 지식산업사, 1985, 96~97쪽.

206) 김양선, 「향토 멜로드라마와 여성의 위치성: 박경리의 『파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77쪽.

성을 부여 받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국가보안법과 연좌제가 상존해온 반공주의 사회, 그리고 '정상가족' 바깥의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배척이 당연시 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전쟁부역자 미망인이자 재혼과 이혼이라는 겹겹의 낙인이 찍힌 여성으로서 박경리는 일반적인 전쟁미망인들과 달리, 국가와 가족 양쪽에서 어떤 보호도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이중의 난민 상황에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전시에는 물론 전후에도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단적으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전후 교육계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207] 피난 간 통영에서는 수예점을 했고, 환도 후 서울에서는 은행에서 사보를 편집하는 일을 했으며, 은행을 그만둔 뒤에는 구멍가게를 차렸다.[208]

김치수(1982)는 박경리의 문학을 "한 전쟁미망인의 자전적 기록"[209]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히 말해 '한 전쟁부역자 미망인이라는 난민 여성의 자전적 기록'은 박경리의 문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권명아(2000)가 박경리 소설로부터 읽어낸 친밀한 인간관계들이 바스러지고, 최소한의 사회적 제도들조차 형해화된 무사회의 고립자[210]란 실상 난민의 다른 이름이다.

그 기저에 깔린 난민의식은 「하루」(사상계, 1965.11)에서 확인되듯, 전쟁의 흔적이 일상에서 표면에서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무렵까지도 오래 지속된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화려하게 재건된 전후 한국사회의 밑바닥을 여전히 흐르고 있는 전쟁의 시간과 그 속에서 짓밟히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쓰고 싸워야 하는 변함없는 피난민으로서의 슬픈 자의식을

---

207) 박경리의 초기 소설을 유의해 보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이 투영된 것으로 읽히는 일화가 꽤 많다. 전쟁부역자의 유가족이라는 스티그마는 직접적으로 언급되기 어려웠던 까닭에 사생활이 걸림돌이 되었던 일이 전면에 나섰다. 정숙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고 학교에 취업이 거절된 전쟁미망인의 이야기를 다룬 「흑흑백백」이라든지,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은행에 취업을 했다가 사정이 밝혀져 일을 그만두게 된 여성의 비참한 말로를 다룬 「전도」,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 여성임에도 사생아를 낳은 미혼모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축출되어 낡은 다방의 마담 일이나, 무명의 번역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표류도』 등이 대표적이다.

208) 다행히 작가로 등단한 뒤에는 평화신문사, 서울신문사에서 문화부 기자로 근무할 수 있었다. 최일남, 「『토지』의 박경리 씨, 한을 알 때 인간은 눈을 뜬다」(인터뷰), 『신동아』, 1982.10, 282쪽.

209) 김치수, 「불행한 여인상: 초기의 단편」,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14쪽.

210) 권명아, 「한국전쟁과 주체성의 서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26쪽.

명동에서 보낸 하루를 통해 보여준다.

애독자를 가장하고 원조를 부탁하는 소녀, 장마로 무너진 자기 집 석축을 두 집 사이의 담이라고 우기며 함께 수리비를 낼 것을 강요하는 윗집 주인,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는 절대 나서지 않는 일꾼들, 신경질을 부리고 깐깐하게 굴지 않으면 옷을 제때 만들지 않는 양재사, 고객을 얕잡아보는 은행 직원, 친밀감의 표시로 건넨 농담을 모욕적인 언사로 되갚는 약방 주인, 딸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한 택시잡이 소년까지 소설 속 K여사 모녀의 명동 나들이는 조금치의 여유나 친밀함, 선의를 기대할 수 없는 체험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들이 살아가는 서울은 겉으로만 화려하고 풍요로울 뿐 실제로는 "모든 타인을 적으로"[211] 만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다름없다. 영화를 보러 나선 명동거리에서 이들 모녀가 목도한 것은 이 도시의 영화(榮華)가 얼마나 공허하고 천박한 토대 위에 축조되어 있으며, 전쟁을 치른 사람들의 내면은 또한 얼마나 병들고 분노에 차있는 지이다.

> 명동거리에는 황혼이 짙어서 네온싸인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오륙년 전의 그, 다분히 낭만적이던 분위기는 찾아 볼 수 없고 사람들의 물결이 마치 싸움터의 행진처럼. (중략)
>
> 물결치듯 내려가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무리, 어깨와 어깨가 부딪치는 밤거리, K여사는 갑자기 그 많은 군중들이 악마구리떼처럼 소리를 지르며 자기에게 마구 달려오는 듯한 무서움을 느낀다.[212]

김동춘(2006)은 한국전쟁 기간 생존만을 최우선시 했던 한국인들의 경험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만성화 되어 한국사회를 '피난사회'로 만들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피난사회에서는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고, 피난지에서 만난 사람처럼 서로를 대하며, 권력자와 민중 모두 당장의 이익 추구와 목숨 보존에 여념이 없다."[213] 「하루」에서는 피난사회 속에서도 최약자인 여성—"백주대로에서 개처럼 맞아도" "인권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라고는 없는 "법 밖에" 있는 존재가 택시잡이 소년이라면, 그 소년에게조차 상소리를 듣고 폭행을 당하는 존재—으로서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극도로 긴장한 채 맞서야 한다는, 전후에도 지속하는 난민의식에서 오는 피로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

211) 김치수, 위의 글, 11쪽.
212) 박경리, 「하루」, 『사상계』, 1965.11, 343~344쪽,
213)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121쪽.

「하루」를 통해 조금 앞질러 살펴보았지만, 박경리 문학에는 일반적인 전쟁미망인의 처지로만 설명되지 않는 훨씬 짙은 난민의식이 스며있다. 이 때 고려할 점은 그와 같은 난민 상황을 초래한 직접적인 계기인 전시 서울에서의 잔류나, 남편의 학살 같은 사건들은 발설될 수 없는 난민의 낙인이었던 까닭에 간접화된 채 제시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몇 가지 서사적 전략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말할 수 없음'이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박경리의 초기 소설은 자폐적이거나 미성숙한, 성격적 '결함'을 지닌 인물들이 처하게 되는 비극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당시 현실에서 작가에게 부여된 낙인을 고려한다면, 반대로 그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고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게끔 입이 틀어 막히는 상황 쪽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214]

이 점은 등단작에서부터 중요하게 암시된다. 모르는 이에게 받은 작은 호의를 되돌려주려 했을 뿐이었으나 암표장수 취급을 받고, 친구 편에 전달하려 한 돈마저 소매치기 당하는 「계산」(현대문학, 1955.8)이라든지, 친구에 대한 마음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부러 외투를 바꾸었으나, 터무니없는 오해를 입고 간절하게 바란 취업이 좌절되는 「흑흑백백」(현대문학, 1956.8)에서는 공통적으로 의도한 바(호의에 대한 보답, 약혼자에 대한 마음, 어머니의 병원비, 취업의 의지 등)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끔 가로막히는 상황, 무성한 소문이나 오해 앞에서 해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 내지 해명하기를 단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시된다.

「지나간 일은 괴로웠다. 참말이지…… 그 이상한 말이 떠돌때 정아야 난 고스란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 네가 이렇게 오기 전까지도 나는 그렇

214) 강지윤은 1950년대 여성작가들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이들에 의해 여성인물의 내면의 재현이 두드러지는 현상에 착안해 강신재와 박경리 소설을 대상으로 그 특유의 재현 방식을 '속으로 말하기', 발설되지 않는 '갇힌 목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바 있다(「원한과 내면: 탈식민 주체와 젠더 역학의 불안들」, 『상허학보』 50, 상허학회, 2017, 13, 28쪽). 흥미로운 접근법인데, 논의에서 강신재의 소설이 썩 잘 분석되는 데 반해 박경리는 상대적으로 다루는 작품들도 적고(「불신시대」, 『표류도』), 작품의 핵심에 가닿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강신재와 달리, 박경리의 소설에서 갇힌 목소리는 비단 여성인물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여성주체의 내면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스티그마를 지닌 존재들의 말할 수 없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시각이다.

게 입을 다물며 왔다. 하고픈 말이야 많았지 목구멍으로 북바쳐 오르는 말이. 그 말들을 나는 모진 가시 처럼 삼켜 버렸다. 그때 나는 참말 내 자신이 믿기지 않았고, 몹씨 위태로웠다. 자칫하면 발뿌리 밑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질 것만 같았다. 만일 그때, 내가 뭐라고 지꺼렸다면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었을 것이고 나를 시기하던 사람이 승리에 어였해진 앞에서 참말로 주책 없이 울음보를 터뜨렸을 것이다.」[215]

한편, 「군식구」(현대문학, 1956.11)에서는 말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양서방과, 짖을 줄 모르는 개 도꾸가 등장한다. 고향을 떠나 중국인과 결혼한 딸의 집에 군식구로 얹혀사는 양서방은 중국인 사위나 그가 경영하는 식당의 중국인 직원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 동리에서는 중국인에게 딸을 팔았다며 그를 멸시하고 따돌린다. 자연히 말수는 적어져가고, 필요한 말을 할 때는 토막 난 중국어를 하는 양서방을 새로 이사 온 가겟집 여자는 의례 중국인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의 처지는 "생전 짖을 줄 모르는 늙고, 우둔한 도꾸"와 닮았다. 사위 진길은 짖지 못하는 무용한 도꾸 대신 날쌔고 사나운 사냥개 메리를 새로 데려온다. 양서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꾸가 처분될 것임을 예감한다.("바보 등신 같은 짐승아, 와 안 짖노!") 그리고 그것은 양서방의 닥쳐올 운명이기도 하다.

「전도(剪刀)」(현대문학, 1957.3)의 사례는 훨씬 극단적이다. 여기서는 "자기의 과거를 말거리로 삼는 외부사회"에 대해 완강한 태도로 입을 다무는 숙혜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남편이 아닌 상대와 사랑에 빠져 이혼을 했지만, 정작 우유부단하게 나오는 정부에게 실망한 숙혜는 파다한 뒷공론을 뒤로 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홀로 살아간다. 누구하고도 교제하거나 말을 섞지 않고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지만, 어느 날 직장에 숨겨온 과거가 탄로 나게 되고, 자신을 공공연히 희롱하는 직원 앞에서 한 마디도 응수하지 않은 채 회사를 그만두어 버린다. 퇴사를 만류하는 다른 직원에게도, 일을 그만두었냐며 추궁하고 눈치를 주는 하숙집 주인에게도 줄곧 침묵을 고수한다. 언제나 말하는 쪽은 상대이고, 말을 삼키는 쪽은 숙혜이다. 하숙집 사내가 강간하려 했을 때 저항하는 숙혜에게 내뱉은 말이 "소리를 내면 죽인다!"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강간에 실패한 사내는 숙혜가 말하지 못하도록 참혹하게 살해하였다.

조지혜(2017)가 박경리의 대표작 『시장과 전장』을 "미처 전해지지 못한

215) 박경리, 「계산」, 『현대문학』, 1955.8, 117쪽.

전갈"[216]이라는 측면에서 등단작 「계산」의 구조가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듯, 말할 수 없음의 주제는 그의 문학에 편만해있다. 조지혜는 그와 비슷한 종류의 상황들을 주체성에 가해진 타격으로 접근하면서, 문제적이라고 보일 만큼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고수하려는 인물과 이를 좌절시키려 드는 외부세계와의 갈등이 박경리의 문학에서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 논문은 그 같은 해석에 동의하면서, 그 근원에는 전쟁부역자 미망인이라는 난민의 낙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좀 더 구체적인 맥락을 덧붙이고자 한다.

한편, 또 다른 서사적 전략은 말할 수 없는 난민의 낙인을 다른 종류의 낙인으로 대체해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진(2015)이 '결손인물'이라는 개념으로 지적하였듯,[217] 박경리의 소설에는 온갖 스티그마(낙인)를 지닌 존재들이 자주 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력한 사회적 낙인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여성들에게 부여된 성적인 낙인이다. 그런데 이때의 성적인 낙인은, 현실에서의 작가의 상황과 같이, 국가와 가족제도 양쪽에서 이중으로 추방된 존재들—예컨대 양공주, 빨갱이의 애인이면서 성폭력의 피해자, 사생아를 낳은 여성이자 살인자 등—을 양산해내며, 그들로 하여금 뚜렷한 난민의식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첫 번째 장편 『애가』(『연가』, 민주신보, 1958)에서부터 잘 나타난다. 이른바 양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 소설은 일견 여러 갈래의 애정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힌 통속적인 로맨스 소설로 읽히는 까닭에 같은 시기 단편들에 비해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난민의 낙인과 말할 수 없음이라는 박경리 문학 특유의 주제가 사소설의 차원을 넘어 변주되는 양상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사례로 재고될 수 있다.

『애가』에서 김진수는 전쟁과 피난의 와중에 병든 홀어머니를 책임져야 했고,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중퇴하고 미군부대에 취직한다. 그 과정에서 미군 장교 제임스에게 강간당하게 되고, 그와 동거하며 불법 낙태 수술을 받기도 한 진수는 동네에서 양공주로 불린다. 전후 제임스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진수는 새롭게 만난 이민호와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관계가 깊어져감에

---

216) 조지혜,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상호주관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7, 21~22쪽.

217) 이상진이 주목한 대상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 신체의 장애, 부모의 정신병력, 혼혈 등과 그로부터 기인하는 정신적 결핍으로, 특별히 신체적인 결손과 내면적인 결손이 쌍을 이루어 나타나는 대응관계에 주목하였다. 논의된 작품들은 「해동여관의 미나」, 『나비와 엉겅퀴』, 「쌍두아」, 『토지』이다. 이상진, 「예외를 보는 시선과 더블: 박경리 소설의 결손 인물」, 『여성문학연구』3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따라 그는 자신의 과거가 탄로날까봐 불안하고 우울해한다. 과거에 관해 차마 말할 수 없는 진수는 계속해서 민호의 청혼을 거절하며 관계를 유예한다.

진수는 전쟁성폭력의 피해자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번 언급하겠지만 박경리의 문학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상대가 외국 군인이었고, 그와 동거한 전력 등으로 인해 주변에서는 다만 양공주로 말해질 뿐이다. 진수에게 부여된 양공주라는 낙인은 이전 소설들 속의 "표 야미꾼"(「계산」), "바람난 과부"(「흑흑백백」), "되놈의 사위"(「군식구」), "안나 카레니나"(「전도」) 등과 같은 낙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규정짓고, 결혼을 통해 재생산되는 '정상가족'과 '순혈' 공동체 국가로부터 고립시킨다. 그 역시 스스로를 조국에서도 안식처나 발붙일 곳이 없는 자, 성한 사람들이 사는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자라고 인식한다. 단순한 소외감을 넘어 난민의식이 투영된 대목이다.

> 전쟁이란 거대한 광풍이 두들기고, 부수고, 짓밟고 가버린 자국, 씻으려야 씻을 수 없는, **그것은 너무나 생생한 낙인이었다.**[218]

> '그렇다. 미국에라도 갈까 부다. 양공주였기 때문에 **이 조국은 나에게 안식처를 주지 못했고 지금도 민호로 인하여 진정 난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 넓고 광활한 천지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219]

> '이 고개를 넘어 얼마를 가면 거기에 미인부대가 있고, 나와 같은 여자들이 부대 부근에 산다. 그네들의 이름은 양공주, 내일이 없는 그네들, 오직 오늘 하루를 살면 그만인 그네들이 있다. **그네들은 마치 옛날, 낙인이 찍혔던 종과도 같이 슬픈 이력을 갖고 있고, 무서운 천형을 받은 문둥이와도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몸뚱어리를 갖고 있다. 그들은 도저히 성한 사람들 속에 끼어 살 수 없는 인종인 것이다. 그렇다! 나도 그들과 같이 성한 사람들이 사는 테두리 밖으로 밀려 나온 인간이 아니냐!'**
>
> 소연한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이 먼 바다에서처럼 묻히어온다.
>
> 진수는 으스스 몸을 떤다.

---

218) 박경리, 『애가』, 마로니에북스, 2013, 34쪽. 『민주신보』에 연재할 당시는 제목이 『연가』였으며, 이후 『애가』로 개제되어 『애가(박경리 문학전집9)』(지식산업사, 1980)에 실렸다고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연재본은 확인하지 못했고, 인용 시 마로니에북스 판본을 참고하였다.

219) 박경리, 『애가』, 35쪽.

'성한 사람들, 그들이 받는 햇빛을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들이 하는 숭고한 사랑도 나는 할 수 없다.** 문둥이의 떼거리가 저희끼리의 세상을 마련하듯, 양공주에게는 양공주의 세계가 있다. **한번 찍혀진 그 더러운 낙인이 사라질 리는 없다.** 어리석은 수작……**너가 무슨 연애냐!** 우스꽝스런 피에로! 피에로야, 아아, 너 진수!'[220]

주목할 점은 이전 단편들에서 제시되었던, 고립된 존재들의 상황이 지속되고 강화되면서도, 그와 달리 수동적인 피해자 이상이 되기를 갈망하는 존재가 또한 진수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전쟁은 그에게 지울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낙인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삶을 쉽게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 항상 수면제를 지니고 다니며 때때로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조차 역설적으로 그를 강해지도록 만든다.('언제든지 나는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는 것, 이 알약을 삼킬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36)

『애가』는 그와 같은 강력한 생의 의지를 진실하고 자유로운 사랑의 문제를 통해 풀어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낙인찍히고 봉쇄된 존재(난민)가 주체로 거듭난다는 박경리 문학 특유의 주제가 외부세계의 폭압과 운명에 항거하고 투쟁하는 「불신시대」(현대문학, 1957.8) 식의 잘 알려진 '강한 서사'만이 아니라,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서사', 유연하고 대중적인 멜로드라마를 통해 구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221]

피터 브룩스는 멜로드라마에서 표면상의 사건과 제스처가 은유적이라는 사실, 즉 재현된 세계는 다른 무언가의 기호로써 은유적으로 동원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보았다.[222] 브룩스가 중시했던 것은 이면의 언술될 수 없는

---

220) 박경리, 『애가』, 39~40쪽.

221) 그와 같은 상반된 속성은 기실 박경리의 첫 번째 장시 「바다와 하늘」(천일, 1954.6)에서부터 시사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바다는 정호웅(2020)의 지적처럼 하늘의 용신으로 대변되는 "부정적인 타자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부정의 정신"(「박경리의 시세계」, 『구보학보』26, 구보학회, 2020.12, 370쪽)을 표상하지만, 동시에 봄비에 젖기를 즐기고, 아이들의 장난을 좋아하는 정반대의 면모도 공존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특히 후반부에서 바다가 하늘에 패배하고 체념한 것처럼 포효를 멈추는 순간, 위무하듯 찾아오는 밤바다의 달이라는 캐릭터는 바다의 감상적인 면모를 극대화한 존재로 읽힌다. 이 논문은 그로부터 앞으로 전개되어나갈 박경리 문학의 두 줄기인 강한 서사와와 약한 서사라는 개념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본다.

222) 피터 브룩스,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이승희, 이혜령, 최승연 역, 소명출판,

‘도덕적인 비의(秘意)’였지만, 이 논문은 『애가』를 위시한 박경리의 멜로드라마의 사랑 이야기를 전쟁부역자의 미망인이라는 말할 수 없는 난민의 낙인을 변주한 주체들의 수행성을 드러내는 특유의 사랑의 문법을 취한 것으로 읽는다.

일례로, 유임하(2012)의 지적처럼 『애가』에서 진수가 입원해 민호를 만나는 전후의 병원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은유로 작동함은 분명하다.[223]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소설은 진수가 환자이고, 민호가 의사라는 다소 뻔한 설정을 통해 민호가 진수의 정신적 상흔을 치유하고 구원해주는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의 문법을 채택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이어지는 서사는 계속해서 그러한 기대를 비껴간다. 단적으로 진수의 과거가 밝혀진 뒤 둘의 사랑은 깨지고, 민호는 충격과 배신감에서 문설희와 결혼한다. 우연한 해후를 계기로 진수와 민호는 잠시 재결합하지만, 이내 설희의 비극적인 자살을 목도하며 다시 헤어진다. 그 과정에서 『애가』의 서술자는 민호의 선택이나, 둘의 결합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만의 사랑에 몰두하는 김진수의 모습에 줄곧 밀착한다.

물론 이 점은 일차적으로는 김양선(2020)의 해석처럼 “진수를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의 구현자로 구제”하고, “여성을 낭만적인 사랑 서사의 순결한 주인공으로 위치 짓는 대중문학의 관습”[224]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진수가 일반 여성과 달리 사회로부터 낙인찍힌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보다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세간에서 진수의 사랑은 양공주라는 낙인으로 인해 언제나 향락하고 농락하려는 욕망으로 쉽게 치부되어왔다. 하지만 소설이 전개되어갈수록 상대방의 오해 내지 인정과 무관해지는 진수의 독자적인 사랑은 그와 같은 예상을 넘어, 진수 같

2013, 38~39쪽.

223) 유임하, 「박경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문학적 전환: 『애가』와 『표류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4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488쪽.

224) 김양선,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 전쟁, 여성, 선정주의는 어떻게 여성문학의 전통이 되었나」, 『여성문학연구』50,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86쪽. 박경리 소설의 멜로드라마적 속성에 대한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1950년대 여성독자 및 여성작가의 부상과 문학시장, 매체의 문제와 연관 지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김양선(2020)은 박경리의 “단편소설, 본격소설 중심의 정전화의 외곽”(179쪽)에 위치하는,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암묵적으로 연구에서 배제되어온 하위 장르들, 특히 통속적이고 선정적인 멜로드라마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을 제출해오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은 낙인찍힌 존재도 누군가의 일방적인 동정과 연민의 대상만이 아니라("쓸데없는 동정은 그 여자에게 금물이야." 32),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그들이 하는 숭고한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수는 적어도 사랑을 지속하는 한에서는 낙인찍힌 존재가 아닌, 그저 누군가를 자유롭게 진실하게 사랑할 뿐인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부정되어온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능동적으로 영위해나가는 주체로 거듭나는 면모를 보인다. 이 논문은 이것이야말로 『애가』의 사랑 서사의 진짜 주제이자 박경리 문학의 사랑의 수행성이라고 본다.[225]

> 어젯밤 진수는 이 땅을 떠나버리리라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따사로운 햇볕이 비치고, 온 누리에는 싱싱한 푸르름이 깃들어 있다. 인간은 모두 인생의 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226]

> 그즈음, 미국에 간 오 박사와 진수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천지에서 **희망과, 그리고 기다림을 버리지 않고, 삶을 긍정하려는 노력의 자국**을 그 편지 속에다 나타내고 있었다.[227]

그와 같은 양상은 두 번째 장편 『재귀열』(주부생활, 1959.2~1960.4)에서도 정확히 반복된다. 여기서도 『애가』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낙인을 지닌 여성인 김난우가 등장한다. 그가 처한 상황은 진수와 유사하면서도 한층 복합적이다. 먼저 해방과 함께 그에게 부여된 반역자의 핏줄이라는 낙인을 들 수 있다. 일제시대 때 경찰이었던 그의 부친은 해방 후 친일파로 몰려 죽었다. 이후 난우는 자신 안에 "씻지 못할 반역의 피"가 흐른다고 여기게 된다. 이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애인마저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공산당원이 된 애인 민석구가 친일파 집안이라는 난우의 내력을 꺼리며 그에게 이별을 고한 것이다.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서울이 수복되자 이번에는 월북한 "빨갱이의 옛날 애인"

---

225) 이 관점에서 이 논문은 진수의 사랑을 단순히 가족제도와 윤리에 맞서는 것으로 본 김은경(2012)의 진단이 일반적인 불륜서사와 『애가』의 차이점을 소거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애가』에서 사랑의 주체는 일반 여성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로부터 배제된 존재이며, 그에게 자유롭고 낭만적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적극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김은경, 「사랑서사와 박경리 문학」, 『인문논총』6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311~312쪽.

226) 박경리, 『애가』, 36쪽.

227) 박경리, 『애가』, 279쪽.

이라는 낙인이 가해지며, 국군인 서상철이 그를 강간한다. 난우는 이 충격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어머니를 뒤이어 조산원이 된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집요하게 그를 쫓아다니는 서상철에게 강간당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와 결혼할 수 있는 "온당한 여자"가 아니라는 자의식을 지니게 된다.

김양선(2020)이 정확히 지적하였듯, 『재귀열』에서 난우에게 가해진 폭력은 "사상적인 것, 성적인 것의 이중구속"[228]이다. 여기서 난우는 스스로를 결혼을 매개로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상가족'의 외부이면서, 동시에 친일파의 핏줄, 빨갱이의 애인이라는 낙인을 부여 받은 국가의 외부라고 여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겹겹의 낙인이 새겨진 자신의 몸에 관해 그는 가족에게도, 그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병후나 하영민 그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립감을 느낀다. 실제 지명수배 된 범죄자 서상철은 자신과 난우의 처지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집요하게 상기시키며 함께 일본으로 밀항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명의 탄생을 돕는 조산원이라는 직업이 암시하듯, 난우는 누구보다 강인한 생의 의지를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그는 단 한 순간도 목숨을 끊거나, 서상철에게 순응하는 식으로 자기 삶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다. 이는 또 다른 전쟁성폭력의 피해자인 언니 송우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재귀열』 연재 직전 발표된 「어느 정오의 결정」(자유공론, 1959.1)에서 김상준의 집착에 체념하듯 결혼을 결정하는 민영의 모습과도 구분된다.

> "결코지지 않을걸요! 생명이 있는 한."[229]

> "그러나 전 반항할 테예요. 그리고 저의 생명이 있는 한 저를 꿋꿋이 지켜나가겠어요. 어느 누가 저를 강제로 지배한단 말예요?"[230]

외부세계의 폭압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난우의 의지는 서상철에 대한 저항이라는 강한 서사로도 나타나지만, 『애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영민과의 사랑이라는 약한 서사로도 제시된다. 애인의 월북, 거듭되는 성폭력 속에서 더 이상 낭만적인

228) 김양선, 위의 글, 185쪽.
229) 박경리, 『재귀열(박경리문학전집10)』, 지식산업사, 1980, 276쪽. 이 논문에서는 『재귀열』의 연재본을 확인하지 못해 인용 시 『박경리문학전집』 판본을 참고하였다.
230) 박경리, 『재귀열』, 305쪽.

사랑과 결혼이 불가능해 보였던 난우는 영민을 만나고 다시 사랑에 빠진다. 『애가』에서와 달리 『재귀열』은 둘의 결합으로 끝나지만, 박경리의 멜로드라마에서는 성공적인 결합이라는 해피엔딩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이 멜로드라마가 가족과 국민의 자격이 훼손된 자라고 여겨지는 이중의 난민 상황에 처해있는 존재들의 사랑을 문제시하고 있으며, 그 사랑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 삶을 재인식하고 새롭게 영위해나가는 주체로서의 수행의 서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점이 가장 잘 나타난 소설이 바로 세 번째 장편 『표류도』(현대문학, 1959.2~11; 현대문학사, 1959)이다. 가난한 미혼모인 강현회와 부유한 기혼 남성인 이상현과의 사랑에 관한 이 소설은 최근 몇 년간 페미니즘 문학 연구에서 꽤 관심 받아왔다. 다양한 여성 정체성의 투쟁 과정,[231] 전통적 여성성에서 이탈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포획과 탈주[232]를 서사화 했다는 점 등이 고평 받았지만, 여러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상현과의 사랑이 좌절되고, 김환규라는 제3의 남성을 택하는 결말은 통속적, 타협적이라고 비판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따라 읽어왔던 이중의 난민 여성의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달리 읽힐 수 있다.

여기서 강현회는 대학에 다닐 때 사귀어 동거하던 찬수가 전쟁 통에 죽고, 피난지에서 낳은 딸과 홀어머니, 이복동생의 생계까지 도맡게 된 여성가장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강현회를 전쟁미망인으로 취급했지만, 김은하(2019)의 지적처럼 그는 실상 "사회의 보호나 동정의 대상이 되는 '전쟁미망인'"[233]이라고 볼 수 없다. 사망한 월남민 찬수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주변에서는 다만 "퇴폐적인 야합"으로 사생아를 낳은 여자로 여겨질 뿐이며, 대졸의 인텔리이지만 교단에서 축출 당하는 등 능력에 합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생계 수단으로 마돈나라는 허름한 다방을 운영하지만, 다방 마담이라는 직업은 다시 그의 성적인 낙인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강현회의 처지는 전쟁부역자의 미망인이었던 까닭에 전쟁미망인으로서의 대우조차 받을 수 없었던 작가의 현실을 상기시킨다.

---

231) 김양선, 「전후여성 지식인의 표상과 존재방식: 박경리의 『표류도』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4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232) 김은하, 「전쟁미망인 재현의 모방과 반역: 박경리의 『표류도』를 대상으로」, 『인문학연구』47,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233) 김은하, 「젠더화된 국가 재건과 잃어버린 열정: 박경리의 『표류도』 다시 읽기」, 『비교문화연구』57,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9, 8쪽.

소설은 그러한 강현회와 신문의 저명한 논설위원인 이상현이 서로 사랑하며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상류층에 속한 지식인 기혼 남성 이상현과 가난한 미혼모이자 다방 마담 강현회의 사랑 서사가 결혼제도와 계급갈등에 기초해 전개되리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중에서도 방점은 후자에 찍힌다. 대학에 다닐 때부터 주위의 시선이나 법적 수속에 구애 받지 않고 찬수와 동거를 했던 강현회는 전자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인물로 제시된다. 정조는 마음과 같이 있는 것이라면 후회가 있을 수 없고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강현회에게 이상현과의 사랑은, 적어도 자신이 훈아의 엄마라거나, 이상현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가 훨씬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계하는 부분은 가난한 하층민 여성인 까닭에 부유하고 관대한 상류층 남성인 이상현과 대등하고 떳떳하게 연애하지 못하고, 상대의 동정과 원조를 받으며 종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인에게 값진 선물을 받고 다니는 남동생 현기처럼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상황을 그는 끔찍하게 여긴다. 이 점은 『애가』나 『재귀열』에서 사랑이 항상 주체로서의 수행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훨씬 잘 이해될 수 있다.

과연 사랑이 깊어갈수록 이상현은 강현회에게 다방을 정리할 것을 요구해온다. 기득권층에 맞서는 진보적인 정치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상현은 강현회의 직업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김환규가 주선해주는 번역 아르바이트조차 꺼린다. 강현회에게는 다방 일도, 번역 일도 절대적인 생계 수단이자 노동 현장이다. 이 문제로 둘의 갈등은 깊어져 간다. 무엇보다 강현회는 자유로운 연애를 원하지 새로운 가부장이나 물주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과거 고학생회에서 사귄 월남민 찬수와 동거한 뒤에도 어느 한 쪽이 생계를 전담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그런 강현회인 만큼 다방 일을 그만두고 가부장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기대길 원하는 이상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불륜이라는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처럼 보였던 『표류도』는 어느 순간 낭만성을 비껴가게 된다. 허윤(2009)이 지적하였듯, 강현회는 “연애에 대한 낭만적 환상이 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연애가 거래 행위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그는 하룻밤의 여행 이후 이상현이 노골적으로 자신을 독점하려 들고, 이미 소유했다는 듯이 구는 태도를 눈치 챈다. 그는 “거래의 대상, 상품이 되기를 거부”[234]한다.

그런데 『표류도』에 대한 당대 비평이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 소설에서 계급갈등이 끝까지 관철되지 않았고, 계급갈등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둘의 이별이 필연성을 확보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강사를 살해하는 "통속적 드라마의 도움"이 개입함으로써 갈등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고, 여성의 독립과 주체적인 사랑에 관한 서사가 배우자 고르기의 플롯으로 떨어졌다는 점이 비판의 요지이다.[235]

그러나 『표류도』에서 강현회와 이상현 간의 계급갈등은 애초부터 빈부격차에서 오는 생활감정 차원의 대립 못지않게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주체로서의 위기 상황으로 제시되며, 그 위기는 가부장(이 되려하는) 남성과 여성 간의 젠더권력 문제와 시종 긴밀하게 결부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맥락에서 본다면, 최강사의 일화야말로 이상현과의 갈등 상황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강현회가 이상현의 결혼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상현의 보호 및 경제력과 자신의 성을 교환하고, 그로써 이상현에게 종속되는 상황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최강사의 터무니없는 성희롱-스미스에게 강현회가 자신의 소유물이며, 조건만 맞으면 거래할 용의도 있다는 언사-에 우발적인 살인으로 대응한 것은, 비록 성희롱 차원에서였을지라도 자신이 누군가의 소유물과 거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이상현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주체로서의 위기와 종속상황에 저항하려 했던 동일한 유형의 갈등이 귀착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강현회는 수감되고 이상현과도 헤어지며, 사회로부터 낙인찍히고 배제된 자의 처지를 한층 더 분명하게 자각하게 된다. 수감 이전부터 이미 그는 "계영과 순재와 그리고 상현씨의 어엿한 부인, 그런 요조숙녀들이 손을 잡은 동그라미"의 세계로부터 고립된 처지임을 의식해왔다. 남성들의 세계에서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현회가 탄 합승 안에서 한 양공주가 공공연히 성추행을 당했던 장면을 떠올려보자. 뭇 남성들에 의해 희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양공주의 처지와 미혼모이자 다방

234) 허윤, 「한국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와 전후 가족질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2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110~111, 112쪽.

235) 강지윤, 위의 글, 2017, 36~37쪽. 비슷한 시각의 당대 비평으로는 조연현, 「윤리적 의미의 결핍과 의식의 과잉: 『태양의 계곡』과 『표류도』에 대하여」, 『현대문학』, 1960.1; 정명환, 「폐쇄된 사회의 문학」, 『사상계』, 1966.12.

마담으로서 강현회가 직면해야 했던 일상은 본질상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제 살인자, 전과자라는 낙인이 추가됨에 따라("나는 사생아를 낳은 파렴치한 여자, 살인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저주스런 죄수"), 그는 본디부터 "창살이 없고 수의가 없는 감옥"으로 여겨져 왔던 외부사회로부터 완벽히 봉쇄당한다.

강현회가 살인자로 법정에 선 장면을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관한 재판으로서 흥미롭게 접근한 강지희(2019)는 그가 "공산당에 의해 피살된 남편을 둔 희생자이자, 이후에도 정조를 지키며 가족 부양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여자"로 변호되는 대목으로부터 "1950년대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성"의 기준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236] 사실 이 장면에서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 같은 변론이 강현회의 진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찬수는 공산당에 의해 피살된 피해자이기에 앞서 남북한 체제 양쪽에 짙은 환멸과 냉소를 표했던 한 명의 에고이스트일 뿐이었으며, 강현회는 찬수가 죽은 후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소설 내내 전면화된 이상현과 강현회의 불륜은 변호사의 변론에서는 완전히 은폐된다. 바꿔 말하면, 법정 장면은 강현회로 하여금 오히려 자신이 국민이 아니라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재확인하는 "길고도 좀 지루한" 시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일상에서도, 그리고 국가로부터 봉쇄된 이중의 난민 상황 가운데서도 강현회는 삶을 끈질기게 지속해나간다. 김환규와의 결혼은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소설 속에서 김환규의 성격이나 인물로서의 비중은 이상현만큼 뚜렷하지 않기에 둘의 결혼을 통속적인 타협으로 섣불리 추단하지 않는 만큼이나, 이상현과의 결합과는 다른 형태로 이상화하는 일은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대신 이 논문은 김환규를 통해 제시되는 '표류도'의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표류도의 의미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다. 외따로 떨어진 '섬'이라는 단독자로서의 실존의 의미와, '표류'에서 연상되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명의 능동성이라는 의미가 그것이다.[237] 정확한

236) 강지희, 「1960년대 여성장편소설의 증여와 젠더 수행성 연구: 강신재와 박경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9, 43쪽.

237) 정호웅, 「두 겹의 서사: 사랑의 진실, 의지와 능동의 정신」, 박경리, 『표류도』, 마로니에북스, 2013, 299~300쪽; 임정연, 「박경리 문학의 공간 상상력과 탈근대적 사유: 『표류도』와 『녹지대』에 나타난 '다방'과 '섬'의 헤테로토피아성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6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361~362쪽; 이혜경, 「주체의 욕망과

분석이지만, 작품 속에서 표류도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는 만큼 소설 전반, 그리고 박경리의 동시대 다른 작품들과의 맥락 속에서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볼 여지도 있다.

처음 표류도는 "망망하고 비약적인 환각의 흐름 속에 휩싸여 떠내려"가는 강현회의 환상이나, 완전히 의식을 잃은 발작 상태, 그리고 "표류기에 씌어진 고절된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막연한 탈주와 도피의 충동 등과 같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이동의 의미를 수반하였다. 정처 없이 흘러간다는 표류의 본래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연스럽고, 소설 속에도 그러한 의미에서 표류도를 체현하는 존재들—평생을 떠돌아다니다 불우하게 죽은 강현회의 부친, 그 과정에서 태어나 부친의 방랑벽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현기, 그리고 전쟁 때 피난하여 다방, 종삼, 길거리, 감방, 뇌병원을 전전하다 죽음에 이른 월남민 여성 광희—의 삶이 여럿 제시된다.

그러나 소설은 후반부에 이르러 익숙한 표류의 의미를, 방민호(2003)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지적인 삶의 행로"[238]라는 역설적 의미로 전유한다. 아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김환규에게 삶은 한 자리에 붙박은 육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표류하는 섬이 되는 일을 말하며, 이때의 표류는 그저 물살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수동적인 표류가 아닌, 죽기 직전까지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표류이기를 요구 받는다.

> 「그렇죠. 섬은 한자리에 있는 섬이 아닙니다. 표류도니까요. 움직이니까요. 죽음의 직전까지 섬은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239]

> 「우리는 사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의 죽음보다 자기자신의 일이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일은 산다는 뜻이요, 사람은 움직이는 섬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현회씨, 울지만 말고 정신을 차리시요. 정말 언제까지나 이러고만 있다면 나는 혼자 떠내려가야 합니다. 아시겠어요?」[240]

이는 「불신시대」에서 진영이 혐오하였던 "바다에 떼밀려다니는 해파리"

생명의식의 변화 양상 연구: 박경리의 『표류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70, 국제어문학회, 2016, 207, 211쪽.

238) 방민호, 「한국의 1920년대산 작가와 한국전쟁」,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109쪽.

239) 박경리, 『표류도』, 현대문학사, 1959, 282쪽.

240) 박경리, 『표류도』, 295~296쪽.

로 대변되는 “다만 산다는 본능만은 가진 것, 그저 산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표류이다. 또한 「회오의 바다」(여성계, 1958.5)에서 제시되었던, 안주로 대변되는 육지에 반하는 탈주로서의 섬의 기의를 이어 받으면서도, 전작들에서 “단절된 고도(孤島)”(「전도」)로 표상되었던 섬이 지닌 취약성과 위태로운 이동의 기의를 운명과 현실에 맞서 자기변혁하고 생장하는 이동의 기의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했을 때 『표류도』의 결말에서 제시되는 김환규와 강현회의 결혼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와 같은 안정된 정체성과 관계성에 대한 거부에 가깝다. 김환규는 강현회와의 결합이 영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마다의 의지와 경로를 따라 표류하는 섬인 까닭에 지금 당장은 두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떠내려가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멀어질 수 있으며, 언젠가 하나의 섬이 멈추면 다른 하나의 섬은 외로울지라도 자기의 길을 가야 한다고 여긴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을 현실과의 타협이나 순응이라고 보고, 반대로 가정을 깨고 금기를 위반하는 사랑을 진보와 혁신으로 여기는 상투적인 이분법을 지양하면서, 둘의 결합은 끊임없이 변혁하고 생장하는 삶을 향한 의지로 제시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가』, 『재귀열』, 『표류도』로 이어지는 가족과 국가로부터 이중봉쇄된 난민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따라 읽으며 확인하였듯, 사랑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제3의 상대를 만나든, 박경리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삶의 주체가 되도록 해주는 사랑의 수행성이다.[241] 『표류도』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가장 강렬하게 구현된 소설로, 전작들에서 제시되었던 사랑의 문법을 이어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주체를 구속하고 제약하려 할 때 그것은 언제든 회수하고 중지될 수 있고, 새로운 사랑 또한 다시 시작될 수 있으며, 삶은 지속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사랑은 이성적인 삶의 의지와 분리되는 감정적인 차원으로 제시되며, 숙명은 개인의 의지로 넘어설 수 없음을 수긍하고, 실현가능한 현실적 사랑을 모색한다고 보는 해석과는 다르다.[242]

---

241) 비슷하게 정호웅도 『표류도』를 불륜의 사랑을 다룬 연애소설로서의 표면의 서사와, 삶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자신의 삶을 능동적, 주체적으로 영위해나가는 이면의 서사로 분석한 바 있다. (정호웅, 위의 글, 296쪽) 이 논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정호웅이 논의한 범박한 삶의 고통 대신, 낙인찍힌 자로서의 난민 여성의 삶의 현실과 그 사랑의 수행성에 대해 좀 더 부각하고자 했다.

242) 강지희, 위의 글, 32쪽. 유사하게 박경리 소설에서 삶과 사랑은 양자택일의 문

가족과 국가로부터 이중봉쇄된 난민 여성으로서 박경리의 삶에는 겉으로 보기에 주체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보이는 삶의 격랑 속에서도 박경리는 의지적으로 표류하기를 중단하려 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박경리의 문학을 바로 그와 같은 의지적인 표류기로 읽는 동시에, 그로부터 난민의 이동이 지닌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3.2. 탈가(脫家)의 계보를 잇는 여성의 난민 되기

『표류도』를 통해 제시된 의지적인 표류라는 역설적인 이동의 형식을 고스란히 이어 받는 또 한 편의 소설이 바로 『시장과 전장』(현암사, 1964.12)이다. "이제부터 나는 써야 할 작품이 있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의 것은 모두 습작이라 한다."[243]는 선언과 함께 발표된 이 소설은 과거에는 말할 수 없었던, 조금 늦게 도착한 박경리의 전쟁 체험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구상 작업은 「슬점(蝨占)」(여성계, 1957.1)에서 확인되듯, 1950년대에 이미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냈지만, 자유당 정권 아래서는 본격적으로 쓰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슬점」은 모두가 피난을 떠난 1.4후퇴 이후 텅 빈 서울에 홀로 남겨진 채 죽어가는 노파라는 페르소나를 통해 9.28수복 이후 사위가 전쟁부역자로 처형된 뒤 피난 갈 엄두조차 못 냈던 사정, 빨갱이의 재산이라고 함부로 차지할까봐 가족들의 피난을 도우러 전 남편이 찾아왔을 때도 결국 노파만은 서울에 남았던 사정, 극심한 죽음의 공포와 고립감, 피난 간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과 고독 속에서 매일 같이 슬점을 치는 일상을

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랑 대신 삶을 택하거나, 삶을 져버리면서까지 사랑을 좇는 모습이 제시된다고 본 박창범의 해석과도 이 논문은 시각을 달리한다. 박창범, 「대결 및 타협의 정신과 비대칭적 사랑: 박경리의 초기 장편 『애가』와 『표류도』, 『성녀와 마녀』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42,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8, 281쪽.

243) 박경리, 「창작의 주변」, 『Q씨에게』, 현암사, 1966, 276쪽. 이 수필집이 『시장과 전장』 이후 출판된 까닭에 인용한 "써야 할 작품"은 『토지』(1969~1994)로 여겨져 왔으나, 수필집에 실린 글들 중에서도 「창작의 주변」은 5~6년 전 잡지사의 청탁으로 써두었던 글을 뒤늦게 실은 것이라는 언급과, 지금까지 쓴 작품들을 회고하는 이 글에서 가장 최신작으로 『김약국의 딸들』(을유문화사, 1962)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여기서 말하는 "써야 할 작품"이자 "이 삼년을 더 기다려야 할" 작품이란 『토지』가 아닌, 『시장과 전장』(1964)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렸는데, 유사한 상황의 전사(前史)가 『시장과 전장』에서는 딸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채 훨씬 자세하게 전면화 된다.

박경리는 『시장과 전장』을 집필할 당시 극심한 불안감에서 원고를 지인의 집에 맡겨놓았으며, 이 소설이 전작 장편이 아닌 연재소설로 발표되었다면 중도에 검열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회고한 바 있다. 책이 나온 뒤 중앙정보부에서 그를 '불온작가'로 지목하면서 출판사로 신상을 조사하러 나와 가슴을 졸였다는 일화[244]는 이 소설이 상당한 용기와 증언 욕망 가운데서 쓰였음을 확인시켜준다.

여기서 남지영은 겉으로는 단란한 가정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편 하기석의 소시민적인 면모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살림을 총찰하려 들며 간섭하는 친정어머니 윤씨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아내나, 딸, 아이들의 어머니로서의 어느 역할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겉돈다. 그로 인해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고민하고 방황하는데, 그러한 남지영의 자리 찾기에 바쳐진 서사가 『시장과 전장』의 한 축을 이룬다.

> 그러나 이 행복한 가정에 **제가 차지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년 동안의 결혼생활에서 당신하고 저하고 극장에 한번밖에 간 일이 없었다는 사실과 꽃병 하나 저의 손으로 사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생활을 잃어버린 불행한 여자의 무관심이었읍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이 지극히 건실한 생활태도라 보았고 또한 저에게 강요했습니다. 손수건 한 장도 저 자신이 선택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그것은 한 가정의 주부로서는 물론 성숙한 한 사람으로서는 자격을 잃은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강행하고 **저의 위치를 되찾을 권리는 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245]

> 어머니는 언제나 너거 집에 와서 구박받는다고 했읍니다. **도대체 내 집은 어디 있읍니까?**[246]

첫 장면에서 남지영은 황해도 연안을 향해 홀로 떠난다. 삼팔선과 맞닿은 위험한 전방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속할 자리가 부재한다고 여겨져 왔던 서울의 가족들과 완벽하게 절연할 수 있다는 "무서운

244) 황호택, 위의 글, 246쪽.
245) 박경리, 『시장과 전장』, 현암사, 1964, 118쪽.
246) 박경리, 『시장과 전장』, 119쪽.

욕망"에 전율하며 그는 연안 여학교의 교사로 부임한다.

'북한삼팔도'라는 소제목 아래 무심히 펼쳐지는 전쟁 직전의 접경지대 연안의 풍경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무심히 넘길 수 없는 위태로운 난민들의 삶과, 다가올 전쟁을 짙게 암시하는 일화들이 가득 차있다. 기차에서 만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삼팔선을 넘나드는 장사치들의 소문이라든지, 일본에서 힘들게 귀환했더니 살길은 막막하고, 삼팔선에 막혀 고향으로도 가지 못한다는 난민들의 삶의 토막을 들려준다. 학교로는 매일같이 어둠을 틈타 귀순병들과 월남민들이 모여들고, 정부는 이들을 남한 체제의 선전용으로 내세우는 데만 신경을 쓴다. 삼팔선에서의 소요 사태, 개성과 백천 일대에서의 무력충돌, 엄중한 신분증 조사는 이미 접경지대에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제주도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 빨치산과 내통한다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노인들은 도민증 사진을 찍느라 진땀을 뺀다.

물론 아직까지 그와 같은 전운은 남지영에게는 구체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 가족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욕망하는 그에게 전쟁이나 납북 등의 위험은 흡사 바이칼호나 사하라 사막 등의 벽지가 지닌 낭만적인 울림처럼 인식될 뿐이며, 원경으로 비친 낯선 연안의 시장 풍경은 악곡 '페르시아의 시장'의 멜로디처럼 축제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로만 비춰질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피상적이며 현실과는 거리가 먼 관념 속의 이미지였다는 사실은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간 시장에서 남지영이 가난과 피곤, 굶주림에 찌든 사람들의 얼굴을 발견하고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에서 이내 드러난다. 남지영의 환멸은 애초에 교사 아내를 갖고 싶다는 남편 하기석의 허영이 결혼생활을 염오하는 남지영의 탈주 욕망과 맞아떨어진 결과였던 연안행이 실상 공상 속으로 도피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그 결과 남지영은 연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끊임없이 이곳이 아닌 더 먼 벽지에 가닿기를 갈망한다.

그랬던 그는 전쟁의 발발과 함께 또 한 번 떠나게 된다. 그 이동은 강인숙(1977)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지에의 귀환"[247]이다. 관념 속에만 존재했던 전쟁을 현실로 체감해나가는 과정으로, 전장이 된 연안을 벗어나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향하는 피난길에서부터 대지의 여정은 시작된다. 염상섭의 『취우』에서 정부가 한강다리를 끊고 서울시민들의 피난을 막았던 것처럼 연안에서도 헌병들이 민간인들의 피난을 막는다. 백천 쪽은 이미 북한군에 점령

247) 강인숙, 「박경리론」, 『한국대표여류문학전집』5, 을유문화사, 1977, 496쪽.

됐으며, 단 하나의 탈출구는 바닷가인데, 배는 군에서 모두 징발하고 내주지 않는다. 다행히 남지영은 군경가족으로 속여 후퇴하는 군인들의 배에 오를 수 있었고, 강화도를 거쳐 김포에 이르게 된다. 김포 비행장 부근의 공군 헌병대에서는 피난민에 대한 심사가 삼엄하다. 의심이 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이 이루어진다. 남지영은 연안에서의 대포 소리보다 훨씬 직접적인 공포를 느낀다. 이곳만은 내 나라가 아니고 이방지대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 지금까지 내 강산 내 겨레와 더불어 걸어온 것만 같은데, 이방지대, 살기를 품은 눈, 공포에 떠는 눈, 쫓고 피한다. 막막한 바닷가에서 그 성급한 헌병대위가 권총을 휘둘러도 오히려 어느 구석에는 어리광 피우는 것이 있었고 대포 소리는 산울림 같은 것, 바다 위에서도 어둠을 방황하는 죽음이 있었지만 무서움이 이렇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다.[248]

> 그들의 눈에서 의심은 사라진다. **그대신 호기심과 젊은 여자를 보는 마음**, 혼란 속에 이는 자포와 자위가 그들 눈에 넘실거린다. 그런 변화를 지영은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새로운 무서움을 불러 일으킨다.**[249]

"가족도 없는 단신의 젊은 여자, 시골 아낙네도 아니요 인텔리의 냄새가 나는 젊은 여자"(148)인 만큼 남지영은 의심을 살까 두려움에 떤다. 적법한 신분증과 경남 억양으로 헌병대와 경찰서에서의 조사를 모두 통과하고 피난민 수용소로 보내진 뒤에도, 가부장 없이 홀로 피난길에 나선 젊은 여자라는 사실은 그를 계속 위태롭게 만든다.

『시장과 전장』의 곳곳에는 다양한 집 밖의 여성들과 그들을 향한 주위의 시선들, 그들이 체감하는 위협과 공포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단신의 월남민 여성으로, 남한의 장교들과 교분을 쌓아 서울로 전근을 욕망하는 동료 교사 정혜숙을 교장은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주시한다. 또 다른 교사 김인자는 연안에 부임하던 첫날 이곳에서는 보기 드문 양장 투피스를 입은 까닭에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 헌병대로 끌려가 학교에서 신원보증을 해준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남지영도 연안에 와 혼자 지내게 된 이래 줄곧 나이 많은 여성들의 의혹의 시선, 교장, 교감과 같은 관리자를 자처하는 남성들의 감시의 시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의 노골적인 성적인 응시가 자신을

248) 박경리, 『시장과 전장』, 148쪽.
249) 박경리, 『시장과 전장』, 149쪽.

뒤쫓는 것을 느낀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남지영이 체감했던 것은 국민과 국민 아닌 존재를 구분 짓고, 비국민으로 간주되는 이들의 목숨은 언제든지 즉결처분할 수 있는 국가폭력이었으며, 더하여 가부장의 보호 없이 거리를 떠도는 여성을 향한 성폭력이었다. 남지영의 피난길에는 전쟁성폭력의 위험이 편재한다. 밤늦게 피난민 수용소로 남지영을 찾아온 헌병대원은 경찰에게 남지영을 따로 '보호'하겠다며 횡포를 부린다. 신분증만으로 남지영은 보호받는 국민이 되지 못한다. 남성작가인 염상섭의 소설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이며,[250] 박경리의 소설에서는 전쟁성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애가』, 『재귀열』 이래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그와 같은 위험과 공포는 서울 수복 후 남지영의 남편이 전쟁부역자로 수감되고,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힘에 따라 한층 심화된다. 피난민 수용소에서처럼 그를 지켜주었던 늙은 경찰 같은 존재는 이제 아무도 없다.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 언제 한청원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남지영이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은 물을 데우고 목욕을 하는 것이었다. 빨갱이의 아내라는 이유로 성폭력을 당하는 수모를 대비해서였다.

친밀했던 사람들의 외면과 기피, 집안 곳곳에 붙은 역산 딱지, 시민증이 없어 배급도, 피난도 할 수 없었던 일("하지만 우린 움직일 수 없어요, 부역가족이라구 증명을 안내주는걸요." 279), 서대문형무소로 매일 같이 남편의 옥바라지를 다니는 길에서 느꼈던 절망감, 쌀 배급을 받으러 나선 어머니가

250) 『취우』의 후속작 『새울림』, 「지평선」 연작에서 부산으로 피난한 정명신은 해군의 영문 타이피스트로 취업해 제2의 인생을 맞는다. 전쟁과 피난은 가정과 학교의 테두리에 싸여있던 그에게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의 기회이자, 유학 등의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으로 제시된다. 물론 영문 타이피스트로서 외국인 남성들과 공적, 사적으로 어울리는 과정에서 그는 '양갈보'로 낙인찍는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주변 남성들의 구애는 어디까지나 정중하고 지적이며, 성폭력과 같은 위협과 폭력이 재현되는 일은 결코 없다. 이 점은 전 남편이 월북한 빨갱이이며, 다방 마담인 강순제 역시 마찬가지이다(3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 박경리 소설에서 헤어진 애인이 빨갱이였던 여성이나(『재귀열』), 다방 마담인 여성(『표류도』)이 어떤 성적 위협에 노출되었던가를 떠올려보라). 더 거슬러 올라가 염상섭의 해방기 소설들에도 삼팔선이나, 압록강 등의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나드는 잠상군(「삼팔선」), 월남민(「재회」), 월북민(『효풍』, 『무풍대』) 여성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들이 겪는 성폭력을 다룬 경우는 전무했다는 점은 여성으로서 그와 같은 직간접적인 위협을 체감할 수밖에 없었던 박경리 문학의 문제의식과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부분이다.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총살을 당한 뒤에도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채 차갑게 언 밭에 시체를 가매장했어야 했던 일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경계 바깥으로 추방당한 난민 여성이 된 남지영의 입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위태로워진다.

> 지영을 보고 아른채 하려다가 당황하며 그냥 지나치는 남자도 있고 조소를 먹음고 빤히 쳐다보는 남자들, 뒤통수에 대고 욕지거리를 하는 치들도 있었다.[251]

> 「흐흥? 관계가 없다? 거 제법 똑똑하다. 너도 웬간히 설쳤겠구나. 지금이 어느 땐줄 알어? 인공시댄 줄 아나! 빨갱이 식구들은 홈싹 다 묻어 버려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걸 모르는가? 뭐, 죄가 없다고?」[252]

> 사택이 있는 길을 지나서 철로 근방까지 갔을 때 기차를 기다리고 서 있던 사람들은 지영을 외면한다. 외면한 사람중에 키가 후리후리 하고 감색양복을 입은 정소장도 있었다. 그들은 몹시 꺼리고 두려워하는 표정이다. (중략) 지영은 맨 나중에 그들 뒤를 따라 기차에 올랐으나 모두 그를 보기 거북해 하며 피한다. 지영은 한구석을 찾아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앉는다.[253]

> 「지영아」
> 망설이다가 괴로운듯
> 「욕을 보지나 않았나?」[254]

유엔군이 서울에 입성했을 때도 점령군의 교체와는 상관없이 외국 군인이 여성들과 아이들만 있는 집안을 들여다보고 갔다는 것, 언제든지 강간을 하러 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혹시라도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서울에 남아있었던 남지영을 끝내 얼굴에 검댕 칠을 하고 남자 복장을 입은 채로 피난하게 만들었다. 이 전쟁성폭력의 공포는 빨갱이로 낙인찍힌 여성들이 감수해야 했던 '벌레의 시간'을 다룬 또 한 명의 여성작가 박완서의 전쟁 소설에서조차 회피된 트라우마다. 이 문제는 벌거벗은 생명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들은 결코 동일하지 않으며,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

251) 박경리, 『시장과 전장』, 248쪽.
252) 박경리, 『시장과 전장』, 250쪽.
253) 박경리, 『시장과 전장』, 253쪽.
254) 박경리, 『시장과 전장』, 274쪽.

빈곤한 은유로써만 난민의 삶을 재현하는 언어가 공회전 해서는 안 된다는 버틀러의 통찰[255]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준다.

그런데 이 소설은 난민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폭력의 구체적인 현실을 재현하는 데서도 더 나아가, “상실이 곧 회복을 위한 단초가 되는 아이러니”[256]라고 방민호(2003)가 지적하였듯, 전쟁을 계기로 난민이 된 남지영이 자기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탐색 과정을 서사화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즉, 여기서 전쟁은 남지영을 난민 여성으로 추방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하나의 종이인형에 지나지 않았다”(120)고 여기게끔 만들었던 남편과 어머니가 사라지는 상황을 ‘선사’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정 내에서 잃어버린 장소를 새롭게 탐색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도 해 특별하다.

그 점에서 『시장과 전장』에서 남지영의 피난은 인형의 집을 나와 진짜 장소를 찾아 떠나는 여성이라는, 페미니즘 문학의 유구한 탈가(脫家)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전유해볼 수 있다. 해방기 문학에서 잠시 명멸했던 노라의 행방에 주목한 류진희(2018)는 해방공간에서 앞 다퉈 등장했던 다양한 노라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삼팔선 이남의 집으로 후퇴”하는 장면들에 주목하면서도, “노라는 다시 또 새로운 시대를 기다려야만 했다”는 의미있는 부기를 기입해둔 바 있다.[257] 이 논문은 류진희가 암시한 다음 시대의 노라는 한국전쟁기에 등장한 전시의 노라, 피난길의 노라이며,[258] 반공사회와 가부장제 사회에서 전쟁부역자 미망인이라는 난민 여성이 되어 말 그대로 집 밖으로 나온 박경리와 그의 자리 찾기 여정을 서사화한 『시장과 전장』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층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소설에서 피난은, 흡사 『표류도』에서 두 가지 양태의 표류의 삶이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의 집 떠남의 구조 속에서 제시된다. 첫 번째 탈가가 도피적, 염세적 성격을 띠었다면, 두 번째 탈가에 해당하는 피난은 그와 정반대인 자기 장소를 찾아 떠나는 여성주체의 의지적인 행로로서의 의미를 부여 받는 한편, 이념 갈등과 폭력, 죽음으로 얼룩진 전장의 세계에 굴복하지 않는 생의 집념을 대변하는 행로로 거듭난다.

---

255) 주디스 버틀러, 가야트리 스피박, 위의 책, 45~46쪽.
256) 방민호, 위의 책, 112쪽.
257) 류진희, 「식민지의 노라는 해방 후 어떻게 되었는가: 탈식민 노라붐과 이무영의 『3년』」, 『민족문학사연구』57, 민족문학사학회, 2018, 465, 479쪽.
258) 한국전쟁을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여권 신장의 시간으로 다시 쓴 이임하의 연구를 상기해보라. 이임하, 위의 책, 2004.

피난지 부산의 야시장의 불빛과 음악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남지영의 마지막 모습으로부터는 처음 연안의 시장을 도망치듯 스쳐 지나갔던 것과는 다른, 생의 한 가운데를 파고드는 강력한 삶의 의지가 읽힌다. 또한 남편과 어머니를 잃고, 피난 짐까지 전부 잃은 모습이지만, 첫 장면에서 접경지대인 연안으로 떠났을 때의 위태로움과는 다른 서사적 안정감이 느껴진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주부이자 교사에서 부산의 피난민 여성가장이자 전쟁부역자의 미망인으로의 변화라는 남지영의 여정의 처음과 끝이 표면상으로는 전락이나 수난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인형의 집을 나온 여성이라는 해방의 주제를 연출하는 까닭이다.

> 해가 지고 부산진의 불이 보인다. 지영은 잃은 것과 잃은 세월에의 작별보다 닥쳐오는 어둠, 사람, 도시, 전쟁이 전혀 새로운 일처럼 그의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그 숱한 길, 수많은 사람이 떼지어가는 길, 군용추럭이 수 없이 달리던 길, 한반도의 핏줄처럼 칡뿌리처럼 얽힌 그 눈물에 길, 비바람과 눈보라, 푸른 보리와 들국화의 피맺힌 길, 세계의 인종들이 밟고 간 길.
>
> (모든 것을 잃었다.)
>
> 트럭은 속도를 늦추며 장이 벌어진 길을 천천히 누비고 들어간다. 빨간 사과와 술병, 땅콩과 빵, 노점 불빛 아래 신기스럽게 그런것들이 놓여 있다. 시장의 음악은 추럭 구르는 소리에 들리지않아도 아름다운 그림처럼 풍경은 한 폭 한 폭 쓰치고 지나간다.
>
> 거대한 발굽에 짓밟힌 개미떼들, 그 발굽에서 아슬아슬하게 비어져나와 오랜 황야를 헤매어 이 도시, 사람 속으로 그들은 들어가는 것이다.[259]

이 때 남지영의 아내, 어머니, 딸로서의 사적 영역에서의 자리 찾기 문제가 공적 영역에서의 성원권 투쟁 문제와 분리될 수 없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적 공간에서 자리/장소를 지키는 문제가 공적 공간에서 자리/장소를 지키는 문제와 맞붙어 있다고 본 김현경(2015)의 통찰을 상기할 때,[260] 『시장과 전장』에서 전면화되는 남지영의 가정 내에서의 장소상실은, 시대적인 검열을 의식해 상대적으로 후경화되었지만, 작품의 후반부에서 집요하게 이어지는 전쟁부역자 미망인의 공적 영역에서의 장소상실 문제와 맞닿아 있고, 후자인 메인플롯을 대리하는 서브플롯으로 읽힐 수 있다.

백낙청(1965)은 『시장과 전장』이 "수난의 열거로만 그친 기록"일뿐 한국

259) 박경리, 『시장과 전장』, 400~401쪽.
260)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203쪽.

전쟁의 의미를 심층적, 총체적으로 그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261] 비슷하게 김외곤(1991) 역시 남지영을 전쟁으로 수난 당하는 무고한 민중의 삶을 진정으로는 대변하지 못하는 존재, 가족의 안전만을 희구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존재이자 패배적, 수동적인 존재라고 지적하였다.[262]

그러나 이 논문이 보기에 그와 같은 시각으로는 이 소설의 급진성이 별로 드러날 수 없다. "객관은 규모가 아닌 깊이의 문제이다"[263]라는 손유경(2014)의 통찰을 상기해보자. 남지영은 단순한 무고한 민중이 아니다. 바로 국가의 바깥으로 낙인찍히고 추방된 난민 여성이다. 표면(서브플롯)에서는 가정에서의 자기 자리/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는 이야기로 읽혔던 남지영의 서사는, 그 배면(메인플롯)에서 전개되는 전쟁부역자 미망인이라는 난민 여성의 공적 영역에서의 자리/장소 찾기 서사와 겹쳐 읽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요컨대, 박경리는 피난을 페미니즘 문학의 탈가의 계보를 잇는 방식으로 전유할 뿐만 아니라, 피난으로 대변되는 냉전 한반도에서의 난민 여성의 자리 찾기 문제 가운데에서 탈가의 계보를 훨씬 두텁게 만든다. 그것이 김윤식(1983)을 위시한 연구들처럼 단순히 집 나옴의 서사에만 착안해 이 소설을 "한국판 철늦은 노라"[264]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다.

한편, 이 문제는 『시장과 전장』 속 또 한 명의 난민 여성이자 탈가를 감행하는 여성인 월남민 이가화를 통해 훨씬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 그는 해방기 북한에서 공산주의자였던 애인에게 아버지와 오빠가 학살당하는 사건을 겪은 후 집을 뛰쳐나와 월남하였다. 남지영과 달리, 삼팔선을 넘는 물리적인 월경을 감행한 난민 여성인 셈이다. 가족의 학살이라는 참변과 그 가해자가 애인이라는 트라우마에 더해 단신으로 월남하고 서울에서 홀로 떠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여러 번 성폭행을 당했다. 박경리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이면서 성폭력의 피해자이다. 그 결과 이가화의 얼굴에서는 생기나 표정의 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둔하고 멍한 눈빛, 어눌한 언어, 불면증, 빈혈증, 허술한 옷차림 등으로 인해 주위에서는 그를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

261) 백낙청, 「피상적 기록에 그친 6.25 수난」, 『신동아』, 1965.4, 327쪽.
262) 김외곤, 「전후세대의 의식과 그 극복: 박경리론」,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141~142쪽.
263) 손유경, 「사후의 리얼리즘: 김향숙 소설의 "살아남은 딸"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54, 민족문학사학회, 2014, 40쪽.
264)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1945~1980』(증보판), 일지사, 1983, 220쪽.

「같이 가주시지 않겠어요?」
「댁으로 말입니까?」
「집이 아니에요」
「그럼」
「있는 곳이에요」[265]

집이 어디냐고 묻는 하기훈에게 이가화가 두 번이나 집이 아니라 "있는 곳"이 있을 뿐이라고 정정하는 대목은 상징적이다. 가족이 모두 참살되는 비극 속에서 도망친 이가화에게 진정한 의미의 집은 없다. 그가 거처하는 낡은 아파트, 다만 '18호실 색시'로 불릴 뿐인 이곳에는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조차 없다. 그는 남한 사회에서 이름도, 집도, 직업도, 어디에도 소속과 의미 있는 장소가 없는 존재이며, 어떤 신문도 보지 않는 데서 드러나듯 자신이 당도한 이 사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의 훼손된 언어, 그리고 병약한 신체는 국가폭력과 전쟁성폭력 트라우마의 흔적이다. 선행연구들은 이가화를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환상적, 낭만적인 인물로 논의해왔고, 작품의 "리얼리티를 훼손"[266]한다고까지 지적했다. 그와 같은 접근법은 그가 놓인 난민 여성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을 간과하게 만든다. 주의해 보면, 『표류도』의 광희, 『시장과 전장』의 이가화, 『파시』의 수옥 등 박경리의 소설에는 난민 여성으로서 월남민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비중으로 기입되어 있다.

한편, 『애가』의 김진수, 『재귀열』의 김난우가 그러했듯, 『시장과 전장』의 이가화 역시 무력한 피해자로만 재현되지 않으며, 트라우마적인 사건으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삶을 끈질기게 추구하고, 사랑을 꿈꾼다. 그는 이따금씩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말 죽고 싶어질까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수면제조차 사지 못한다. 나아가 거듭되는 불행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좋은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사랑에 빠진다. 그는 공산주의자에 의해 가족들을 잃었지만, 그것이 공산주의(자)를 증오하고 두려움에 떨며 이데올로그로 입사하는 계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계급적 적대, 증오 혹은 공포로 이념에 입사하고, 때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종류의 사람들과 달리 이가화에게 무엇보다 절대적인 것은 목숨과 애정이다.

---

265) 박경리, 『시장과 전장』, 30쪽.
266) 유종호, 「여류다움의 거절」,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348쪽.

「공산주의를 싫어한 한……그건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건 사람의 자유에요. 그, 그런 사상이야 말로 사람의 적이 아닙니까! 아버진, 아버진, 그리고 오빠는 아무 죄도 어, 없었어요. 고, 공산주의가 죽인 거에요! **전, 전 아무 것도 모르지만 사람을,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애정도 목숨도 무 무시할 수 있겠어요?**」[267]

따라서 하기훈이 남로당의 간부였다는 정체를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지만, 그는 서울을 떠난 하기훈을 혹여 만나게 될까 의용군에 자원하고 빨치산이 된다. 산 속으로 납치되어 온 것인지 묻는 장덕삼의 질문에 그는 도망치려면 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가화는 하기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잡힐 뻔한 위기를 피하면서까지 입산을 감행했다.

소설의 초반부에서 하기훈이 이가화의 낡은 아파트로 찾아가는 장면에서 이가화는 수의(囚衣)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된다. 삼팔선이라는 경계선을 월경해왔지만, 그가 남한사회에서 내부의 외부로 봉쇄되고 갇힌 한 명의 난민 여성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하기훈을 향한 사랑 속에서 의용군복을 새로 몸에 걸치고 빨치산이 되는 길을 택해 또 한 번 집을 나온 이가화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산 속에 갇혀 토벌대에게 쫓기고 같은 빨치산 동지들 내에서도 은밀하게 감시당하는 처지이지만, 진정으로 해방되고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빨치산들의 희망이 바래져가는 지리산의 겨울 속에서도 이가화는 사랑과 삶과 기쁨과 행복과 꽃에 대해 말한다.

북에서는 숙청당한 부르주아 계층 출신의 여성이자 월남민이라는 배반자이면서, 남에서는 빨치산이며, 거물급 공산당의 간부를 사랑하는 모순적인 정체성이 이가화 안에는 공존한다. 이 세상 사람에게 다 꽃을 주고 싶다는, 장덕삼처럼 이 세상/저 세상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이가화의 내적 논리에서 그 정체성들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는 북에서도, 남에서도, 지리산에서도 어디에도 진정으로 속하지 않는다. 그의 월남, 입산, 하산, 그 어떤 행위도 이념으로부터 추동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를 두고 변절도, 전향도 말하기 어렵다. 그런 이가화를 강지희(2019)는 “상상적 네이션의 좌표를 균열”[268]시키는 인물로, 공임순(2020)은 “전장의 적대적 분할선과 맞지 않는, 불온한 월

267) 박경리, 『시장과 전장』, 92쪽.
268) 강지희, 위의 글, 43쪽.

경의 흔적을 지닌” “무/국적 신체”[269]라고 흥미롭게 논의하였다.

이가화에 이르러 사랑의 문제는, 낙인찍히고 봉쇄당한 난민 여성이 주체로 거듭나는 차원을 넘어, 낙인과 봉쇄의 기원인 전장의 논리마저 초월하는 수행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김우종(1995)이 지적했듯 이가화는 공산주의자들을 이념적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어떤 사상도 이론도 신앙도 없으면서도 “그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초월”[270]하며, 더 나아가 극복하는 전위적인 실천력과 힘을 지녔다. 이가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하기훈의 동지가 바짝 경계하였던 모습은 그런 이가화의 역능을 암시한다. 난민이 국민국가를 지탱하는 이념과 경계를 무화하고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가화에 이르러 탈가는 이제 국민국가의 차원을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 받는다.

그와 같은 탈가의 계보는 같은 시기 연재된 『파시』(동아일보, 1964.7.13~1965.5.31; 현암사, 1965.10)에 등장하는 월남민 이수옥과 밀항자 조명화의 서사로도 이어진다. 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전장이 훌쩍 후경으로 밀려난 『파시』에서는 황해도 연안에서 서울, 부산, 지리산에 이르렀던 『시장과 전장』에 비해 소설의 공간이 전시 후방인 부산과 통영 일대로 한정지만, 전쟁이 삶에 끼치는 영향은 이념 대립과 죽음, 피난을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한 풍속적인 차원에서 탐구된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쟁이라는 지극히 불투명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사랑과 삶의 기로에 놓인 이십대 초반의 청춘들의 “정신적 방황과 고뇌”[271]이다. 『파시』에는 물리적으로는 전장과 멀리 떨어져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전쟁의 공포와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에 잠식당한 데서 오는 데카당스, 니힐리즘, 멜랑콜리,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공포와 불안감, 무기력이 청춘들을 운명 위로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그것들은 끊임없이 출렁이는 “파도 이는 바다의 배같이” 청춘들의 삶을 계속 불안하게 흔들어 놓는다. 이 점에 착안해 김예림(2011)은 『파시』를 “1950년대 인텔리 청년의 멘탈리티를 예리파게 묘파”[272]한 작품이라고 보기도 했고, 김양선(2017)은 그중에서도

269) 공임순, 「한국전쟁의 파국과 순국자에 반하는 순애자의 무/국적 신체들: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에 대한 소고」, 『한국학연구』5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324쪽.

270) 김우종, 「전쟁문학과 리얼리티: 박경리의 『시장과전장』」, 『교수아카데미총서』 8-1, 일념, 1995, 256쪽.

271) 김치수, 「비극의 미학과 개인의 한」, 위의 책, 1982, 26쪽.

272) 김예림, 「현해탄의 정동: 국가라는 ‘슬픔’의 체제와 밀항」, 『석당논총』49, 동아대

이수옥, 김학자, 조명화라는 세 여성 청춘의 행방을 중심으로 한 멜로드라마라는 관점에서 흥미롭게 분석한 바 있다.[273]

이 논문은 그와는 달리 『시장과 전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난민 여성의 의지적 행로라는 관점에서 월남민 여성 이수옥과 일본 밀항자인 조명화를 특히 중요하게 논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여성들은 전쟁 통에 불가피하게 난민이 되었거나, 자발적으로 난민 되기를 선택하는데, 어느 쪽이든 외부세계의 폭력이나 낙인에 주저앉지 않고, 자신의 삶과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의지적인 삶의 행로를 보여준다.

「혼자 내려왔나?」
「네?」」
「혼자 피난 왔느냐 말이요」
「네」
「부모는?」
「몰라요」
「함께 안 왔나?」
「피난 간다고 도시락 싸가지고 마을 사람을 따라 갔었어요……산에 갔었어요……그랬는데 그만…배타고…왔었어요. 어머니 아버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음 그래?」
「아버지 어머니는……」
수옥의 눈이 멀리 간다. 바보같이 눈이 크게 벌어진다.[274]

먼저 월남민 여성 이수옥이다. 북한에서 여학교까지 나온 그는 피난길에 가족이 해체되어 혼자 배를 타고 월남해 거제도의 피난민수용소와 부산을 거쳐 이제 통영으로 흘러들어오게 된 말 그대로 난민 여성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성폭력을 당했고, 통영에서는 대리모로 인신매매까지 당하게 된

학교 석당학술원, 2011, 334쪽.

273) 김양선, 위의 글, 2017. 이 절에서의 『파시』 분석은 김양선의 연구에 영감을 받아 기존에 발표했던 졸저, 「시장의 풍경을 통해 다시 읽는 전후소설 시론」, 『현대소설연구』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에서의 『파시』 분석의 대부분을 거의 다시 쓸 수 있었다. 김양선은 세 여성에 주목했지만, 필자는 문성재, 선애와 삼각관계를 이루는 김학자의 서사는, 이수옥과 조명화의 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으며, 무엇보다 난민이라는 관점에서 수옥과 명화가 중요하다고 보았기에 두 인물에 집중하였다.

274) 박경리, 『파시』, 현암사, 1965, 26쪽.

다.

단신의 월남민 여성이라는 점에서나, 전쟁과 피난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늘 겁에 질린 채 어눌하게 행동한다는 점에서나, 여러모로 『시장과 전장』의 이가화와 닮아있다. 가화가 해방기 북한에서 가족이 학살당한 극심한 충격을 겪으며 월남하였던 것과 달리, 『파시』에서 한국전쟁기 수옥의 월남 과정 및 북한에서의 전사는 불분명하게 처리된 대신, 월남 이후의 궤적이 훨씬 상세하게 제시된다. 피난, 수용소, 성폭력, 인신매매로 점철됐던 남한에서의 그의 삶은 난민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과 이를 묵인하고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토착민들의 카르텔을 소름끼칠 만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 「거 나 안 주겠나?」
> 「미친 소리 하지 마라」
> 조만섭씨는 한마디로 잘라 버린다.
> 「피난민 아이라면?」
> 「와? 피난민 아이면 아무라도 좋단 말이가?」
> 「그리 떠 들어 온 아이가 온당한 데 시집가겠느냐 말이다」
> 조만섭씨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275]

사토 후미카(2020)는 샤론 마커스의 '레이프 스크립트(rape script)' 개념에 착안해 전쟁성폭력의 서사에는 일종의 이야기의 '정통성'이라 할 만한 반복되는 서사적 패턴이 있다고 보았다. 전쟁성폭력 피해자인 여성들이 공동체의 고난을 의미하도록 이들을 특정한 종류의 피해자로 만드는 과정이 그 핵심으로, 당연히 이민족이나 외부 집단의 가해가 아닌, "내부집단의 가해자가 범한 강간"은 거의 이야기되지 않으며, 전쟁성폭력을 가장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위계화 구도 속에서 "일상의 허다한 성폭력"은 은폐되거나 경시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276]

사토가 말한 전쟁성폭력 서사의 정통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살펴본 박경리의 일련의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전쟁성폭력은 특별하다. 일단 박경리 소설에서 전쟁성폭력은 대개 공동체 내부의 가해로 제시된다. 『재귀열』의 김송우, 김난우는 물론, 『시장과 전장』의 이가화, 『파시』의 이수옥 등은 모

---

275) 박경리, 『파시』, 21쪽.

276) 사토 후미카, 「전쟁과 성폭력: 이야기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우에노 지즈코, 아라라기 신조, 히라이 가즈코 편,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서재길 역, 어문학사, 2020, 390~392쪽, 395쪽.

두 적이 아닌 무고한 피난민 여성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가해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난민 상황을 심화시킨다. 또한 성폭력의 문제를 전쟁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탈적 사건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일상으로 지속되는 강간, 매매춘, 연애, 결혼을 포괄하는 '성폭력 연속체'[277] 속에서 문제시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재귀열』도 그랬지만, 『파시』에서도 수옥을 성폭행한 영자의 남편이나, 서영래는 군인이 아니며, 부산과 통영은 전시이지만 시종 일상성의 공간으로 제시되는 것이다.[278]

이처럼 남한사회에서 수옥이 처하는 현실은 여느 박경리 소설들과 함께 난민여성에 대한 전쟁성폭력의 문제라는 맥락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지은(2017)이 탈북 여성의 문학적 재현 문제에 관해 살피면서 지적한 "난민 여성이 어떻게 유동하는지, 그녀들의 몸이 어떻게 자본주의 교환구조 속에 놓이게 되는지, 그 교환 체계에 대한 고찰"[279]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다. 『파시』에서 수옥은 서영래와 서울댁 사이의 비밀스러운 물건 거래 과정에서 인신매매 당한다. 이 때 그 물건들이 수옥과 비슷하게 국경을 넘어온 밀무역 상품들이라는 사실은 눈길을 끈다.

수옥을 인신매매하는 서영래는 과거 노름방을 전전하는 보잘 것 없는 신세였으나 일본과의 밀무역 사업에 뛰어든 뒤 벼락부자가 되었다. 『파시』에서 통영은 전쟁과 함께 밀무역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오히려 경비가 심한 부산을 피해 더 음성적인 밀무역 상권이 조성되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어장을 주업으로 하던 통영 사람들은 이제 배를 전부 밀무역 용도로만 돌리려 하고, 신속한 계층구조의 변화 속에서 통영은 누구나 일확천금의 달뜬

---

277) Liz Kelly,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Mary Maynard, Jalna Hanmer eds.,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Macmillan press, 1987, pp.46~60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표현으로 이 논문에서는 우에노 지즈코가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관점」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우에노 지즈코, 위의 책, 27~28쪽.

278) 『파시』에 대한 분석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각에서 『토지』 속의 성폭력 문제를 분석한 이경(2012)의 논의도 참조해볼만 하다. 그는 『토지』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외적이고 일탈적인 사건이 아닌,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이 처한 '성폭력 연속체' 개념을 통해 조명하는 시각에서 『토지』에 나타나는 성폭력을 유형화하고, 그에 대한 여성인물들의 대응을 협상과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토지』를 정통적인 레이프 스크립트를 넘어선 서사로 분석한 바 있다. 핵심 내용은 이경, 「『토지』와 겁탈의 변검술」, 『여성문학연구』27,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207~208쪽 참고.

279)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 장해성의 『두만강』과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구보학보』16, 구보학회, 2017, 520쪽.

꿈을 꾸는 곳이 되었다.

「여하튼 요지경 세상이다. 이 판에 누가 눈까리 바로 뜨고 온전히 살라 하겠노. 하룻밤에 기천만 원이 왔다갔다 하니 젊은 놈들, 여편네 할 것없이 환장이라. 인심 더럽게 돼가지. 돈독이 올라서 모두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280]

통영의 밀무역 루트로는 고급 수입 옷감이나 일본 화장품과 같은 사치품에서부터 고본점 책방 주인이 취급하는 『세계』, 『문예춘추』 등의 서적, 레코드와 같은 문화, 지식을 비롯한 온갖 것들이 이동하며, 이것들은 다시 부산의 국제시장으로 향한다.[281] 물론 이 길로는 사람—그 당사자가 조금 이후 살펴볼 밀항자 조명화이다—도 넘나든다. 현해탄을 넘은 것은 아니지만 밀수품들과 비슷하게 국경을 넘어 통영으로 흘러들어온 존재가 바로 월남민 수옥이다. 국경을 넘은 물건들이 국제시장의 상품이 된 것처럼 『파시』에서 수옥 또한 밀수품들과 맞바꾸어지는 거래를 통해 상품이 된다. 서울댁과 서영래 사이의 비밀스러운 거래인지도 모르고 단순한 심부름인줄 알고 서영래가 밀수품을 보관해두는 아지트로 간 수옥은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던 진짜 '물건'이었음을 깨닫게 된다("어, 어머니가 무, 물건." "너 영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127).

밀무역 장사를 하는 서영래로 대변되는 자본주의는 이제 국경을 넘어 온 난민 여성마저 밀수품들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교환 구조로 편입시켜 버린다. 서영래에게 성폭력을 당한 수옥이 그가 취급하는 밀수품들이 보관되는 집에 감금당하는 대목은 수옥의 상품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수옥을 서영래에게 넘기는 대가로 서울댁에게는 밀수 화장품들이 떨어졌고, 그의 남동생 문성재는 밀수 옷감 거래에 한 몫 끼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더 나아가 서영래는 수옥이 원하기만 한다면 고급 옷감들은 물론 집까지 그에게 주겠다고 제안한다. 수옥의 아름다운 신체 그리고 출산능력과 같은 여성성은 자본과 손쉽게 맞바꾸어진다. 난민 여성으로서 수옥의 유동성(liquidity)은

280) 박경리, 『파시』, 현암사, 1965, 20쪽.

281) 일례로 이호철은 해방 이후 원산에서는 일본책을 취급하는 서점이 깡그리 없어졌는데, 처음 피난 와서 본 부산 서점에는 일본어로 수입된 체호프 희곡집이 당당하게 서가에 꽂혀 있어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희한하게 여겨졌고, 월남 당시의 전 재산을 털어 그 체호프 희곡전집을 샀던 일을 인상적으로 회고한 바 있다. 이호철, 『우리네 문단골 이야기』1, 자유문고, 2018, 38쪽.

말 그대로 국경을 넘어온 이동과, 그리고 환금성을 의미하는 자본으로의 유동성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파시』의 수옥은 단순한 전쟁성폭력의 피해자이거나, 상품화되는 난민 여성으로만 재현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좀 더 눈길을 끈다. 『파시』는 수옥이 처음 조만섭의 손에 이끌려 부산에서 통영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여정은 전쟁 통의 월남 피난이 그러하였듯, 그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동이었으며, 특히 식모였던 수옥을 성폭행한 남편으로부터 떼어 놓기 위한 영자의 계책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서영래의 집으로부터의 탈출을 돕고, 개섬에서 수옥과 보금자리를 가꾸었던 학수가 징집된 뒤 배를 타고 통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마지막 장면에서 수옥의 귀환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이고 피동적인 이동 이상의 의미를 부여 받고 있다.

수옥에게 통영은 전쟁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카르텔로 얼룩진 폭력과 수모의 공간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수옥은 이제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학수의 가족들을 찾아 다시 통영으로 돌아오고, 이곳에 남기로 결심한다. 『표류도』의 광희, 『시장과 전장』의 이가화와 같이 북에서 단신 월남한 난민 여성들이 처하는 현실을 더 심화시켜 보여주면서도, 결과적으로 자살,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는, 자신과 아이의 생명 모두를 지키고, 둘에게 가장 필요한 울타리를 찾아드려는 생의 의지가 눈에 띈다(“전 살아요! 여기서 혼자 벌어서 돌아 올 때까지” 331).

『파시』가 마지막에 기입한 수옥의 통영행은, 마치 『시장과 전장』에서 이가화의 입산이 그러하였듯, 사랑과 삶의 의지적인 행로로서 훨씬 적극적으로 의미부여해줄 만하다. 물론 박경리의 다른 인물들을 생각한다면 수옥은 전쟁미망인이 될 확률이 크다.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난민 여성의 처지이므로 전쟁미망인이라는 대우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의 정착 가능성은 매우 희미하다.

그러나 『파시』는 가족 안에서도 고독했고 이해 받지 못했던 박경리의 여성들이 등장했던 지금까지의 다른 소설들과 달리, 수옥 주변에 수옥을 돌보게 된 학자, 그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여성가족들을 기입해두고 있기도 하다. 수옥을 서영래 집에서 탈출하게 한 것은 학수이지만, 이제 학수를 대신해 진짜 수옥을 돕고 연대하게 되는 것은 여성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수옥처럼 국경을 넘은 것은 아니지만, 원래 계급에서 쫓겨난 자, 위태로운 처지, 학자의 입을 빌려 말해지는 “불행한 여자들의 한패거리”(408)라는 의식이 국민과

난민의 경계를 넘어서 그들의 연대의 바탕이 되어줄 것임을 소설은 희미하게나마 시사한다.

이는 수옥이 전쟁과 자본의 비정함의 이면을 고발하는 한편, 임신을 통해 전쟁으로 훼손된 여성성과 김학수의 남성성—민족 담론—을 복원, 재건시켜주는 역할을 한다[282]고 보았던 김양선(2017)의 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해석이기도 하다. 수옥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난민여성 이가화의 후신임을 고려한다면, 수옥을 민족 담론으로 환원시키는 논의는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명화이다. 그는 만주로 간 아버지 조만섭의 귀환을 기다리다 정신병에 걸려 자살한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가족사로 인해 광기어린 나쁜 혈통 물려받은 여성이자, 그 피를 다시 재생산할 여성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낙인에 사로잡힌 존재이다. 해방되던 해 어머니가 자살한 까닭에 명화에게 해방 이후의 시간들은, 해방과 독립이라는 국민국가의 시간과 무관하게 다만 낙인과 봉쇄의 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통영에서 그는 전근대 사회의 백정, 무당의 자식보다 더 천시받고 낙인찍히며, 정상적인 결혼과 가족 꾸리기는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진다.("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이해가 많으신 분이라도, 반대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46)

그 차별과 봉쇄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존재는 애인 박응주의 부친인 박 의사이다. 그는 명화의 나쁜 혈통을 내세우며 아들의 결혼을 한사코 반대한다. 그런데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서야 밝혀지지만, 실제로 그는 명화를 남몰래 사랑해 아들을 비롯해 어느 누구와도 결합할 수 없도록 낙인찍는 존재이기도 하다. 박 의사를 통해 나타나는 폭력성과 친밀성의 은폐된 연결고리는 충격적인 반전처럼 제시되지만, 실상 명화 주변의 가장 가까운 남성들인 조만섭이나 박응주는 모두 이 양가성을 얼마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친 조만섭은 물론 딸 명화를 사랑하고 아픈 손가락으로 가엽게 여긴다. 그러나 그의 애정과 연민은 동시에 딸을 가장 슬프게 만든다. 후처 서울댁에게 스스럼없이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것과 달리, 그는 결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한 딸에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굴 수 없다. 자신을 위해 박 의사 앞에서 광대처럼 쩔쩔매고 무시당하는, 서울댁과 사사건건 갈등을 일

282) 김양선, 위의 글, 279~280쪽.

으키는 부친의 모습은 명화로 하여금 매순간 자신이 슬픈 낙인이 찍힌 존재임을 자각하게 만든다. 한편, 자신이 노력해 박 의사의 마음을 돌려 박응주와 결혼만 하면 딸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데서 드러나듯, 가장 친밀한 아버지조차 명화의 낙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박응주도 마찬가지다. 한때 그는 통영 사람들이 모두 감동할 만큼 진순한 마음으로 명화를 사랑했지만, 모든 사랑이 그렇듯 그들의 사랑 역시 자연스레 빛을 바래감에도, 그 자연스러운 이치를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둘의 비극이 자리한다. 응주는 반발적으로 명화를 배신해서는 안 되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전혀 명예롭지 않은 전쟁의 진창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결코 원할 리 없건만, 부친의 도움으로 충분히 병역을 기피할 수 있음에도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일말의 책임감, 동시에 비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더 많은 위선과 허영, 영웅심 내지 관성과 명화와의 결혼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닮았다. 그런 응주로부터 명화는 자신이 자연스럽고 평범한 사랑과 이별은 불가능한 낙인찍힌 존재임을 자각하게 될 뿐이다.

> (너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나? 분명히 그것을 원하고 있을거야. 제일 순조롭고 편한 길이거든. 귀찮고 고생스러운 것을 원할 놈이 어디 있어? 얄팍한 영웅심, 나라를 사랑하고, 이게 내 나란가? 우리 손으로 안 되는 시시한 얘기다. 하찮은 연민 따위, 사랑해서 어쩌겠다는거야. 열등감에 사로잡혀 밤낮 찔끔거리는 계집애를 내가 어쩌겠다는거야? 아픔이나 후회 같은 것 그런 것도 차차 엷어진다. 그리고 잊어버린다)[283]

박 의사가 폭력을 표면에, 친밀성을 이면에 숨기고 있다면, 조만섭과 응주는 그 반대이다. 비단 가족과 애인뿐만이 아니다. 길에서 마주친 인정 많은 김학수의 어머니는 명화를 보고 “말짱한 사람이 그 지경이 돼서, 죽었으니 니만 보면 동갑네 생각이 나는구나”(41)라고 말하며 눈물짓고, 명화를 따르는 식모는 이방인 수옥에게 명화 어머니의 죽음 이야기부터 은밀하게 꺼낸다.(“그 언니 어머니가 미쳐서 죽었다 안 카나.” 51) 고향 통영에 있는 한조명화는 낙인 그리고 친밀성과 폭력의 양가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조명화의 집 담장 안에는 짙붉은 빛깔의 석류나무가 심겨있다. “귀신이

283) 박경리, 『파시』, 240쪽.

먹는 밥"(122)이라고 말해지는 석류의 숱한 알갱이들처럼 통영 곳곳에는 모친과 명화의 전설이 흩뿌려져있다. 통영에서 그는 언젠가 내가 미칠 것이며, 이미 미친 것인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에 잠식된다. 여학교와 대학을 다니던 서울은 전선에 가로막힌 현재 그에게는 좀처럼 출구가 없어 보인다.

> 「전 엄마의 환상을 떨어 버릴 수 없어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지금 저 자신을 느끼고 있는 그 느낌조차 믿을 수 없는걸요. 이렇게 응주씨 옆에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지만 실상은 생각일 뿐, 어느 정거장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응주씨는 저의 환상이며 실상은 길가에 서 있는 나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 언젠가는 저도 모르게 엄마처럼. 무서워 견딜 수 없어요」[284]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통영에 유폐된 채 죽음을 택한 어머니와 달리, 그는 하염없이 응주의 귀환을 기다리거나 죽음을 택하는 운명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응주의 하숙으로 찾아가 하룻밤을 보냄으로써, 결혼을 해도 아이만 갖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응주가 부여한 기만적인 금기를 위반하고, 애인, 가족, 고향, 국가 등 그를 둘러싼 친밀한 일체를 떠나 일본으로의 밀항을 택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이제 자신에게 진정으로 해방의 시간을 선사하려 한다.

명화의 불법적인 밀항은 일종의 자발적인 '난민 되기'로 해석해볼 수 있다. 밀선을 타고 일본에 도착하게 될 그는 말 그대로 한 명의 난민 여성에 지나지 않겠지만, 일본에서 영원히 난민, 비국민, 이등국민일지언정 내면적으로는 그를 가장 괴롭혀왔던 오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고 탈주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다. 바로 그 해방을 위해 그는 밀항이라는 목숨을 건 도약을 감행한다. 그는 오히려 조국, 고향, 친밀한 사람들, 가족의 내부에 있었을 때 내부의 외부로 추방당하고 봉쇄되는 난민 여성이었으며, 역설적으로 진짜 난민이 됨으로써 오랜 난민의식을 극복하는 길을 택한다. 조명화의 사례는 어떤 여성들에게는 난민이 되는 길이 오히려 해방과 시민권 획득의 길이라는 흥미로운 역설을 시사한다. 여성에게 국경의 의미는 남성과 다를지 모른다.

난민 되기라는 조명화의 감행은 소설 속 다른 인물들의 면모를 떠올렸을 때 더욱 급진적이다. 중국에서 번 큰돈을 한 푼도 가지고 귀환하지 못했음

---

284) 박경리, 『파시』, 49쪽.

에도, 그 사이 자신을 기다리던 부인이 미쳐 죽고, 그로 인해 딸에게 평생 따라다닐 미치광이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혔음에도, 여전히 조만섭에게 고향 통영은 변함없는 가장 좋은 곳이다. 부인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임에도 그는 명화와는 대조적으로 부인의 자살 사건으로부터 어떤 낙인이나 질타도 받지 않은 채 서울댁을 후처로 새로 얻었고, 여전히 고향에서 오랜 벗인 동네 사람들과 예전처럼 어울리며 잘 지낼 수 있다. 그런 조만섭에게 딸의 난민 되기는 결코 이해할 수도 상상될 수도 없다.

「마 토영이 최고다.」

(중략)

「이리 좋은 데가 어디 있을라고. 퍼덕퍼덕 뛰는 생선이 사시장철 있지, 인심 좋겠다 경치 좋고 기후 좋고, 나도 한때는 상해, 북경을 휩쓸고 댕겨 봤지만 내 고향 같이 좋은 데는 없더라.」[285]

박응주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탈출구는 군인이 되어 전장에 가는 것이다. 윤죽희와 결혼해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가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도, 또 명화가 책방 주인을 통해 비밀리에 일본으로의 밀선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는 사랑하는 명화와 함께 밀항해 한 명의 난민이 되는 일, 월경이나 국가의 외부로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윤죽희도 조명화와 흥미로운 대비를 이룬다. 그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서구식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며 살아간다. 서구식 저택에서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할리우드 영화를 즐긴다. 소년처럼 짧은 머리, 티셔츠, 발가락이 보이는 샌들 같은 자유로운 패션이라든지, 박응주에게 먼저 데이트를 제안하는 대담성에서 드러나듯, 그는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상에 가까워 보이는 조명화와 대조적인 유형의 여성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조명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수적이고 갇힌 사고를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서구취향과 달리, 오빠가 미국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이 혹시라도 주변에서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황급하게 변명하는 데서 드러나듯("하, 하지만 오빠는 미국여자하고 결혼하는건 아니예요" 154),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순혈주의의 테두리에 갇혀 있으며, 전쟁으로 그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일이 없음에도, 공산당은 '우리'와 구

285) 박경리, 『파시』, 30쪽.

분되는 무섭고 싫은 '적'이라는 생각을 조금치도 의심하지 않는다.("공산당은 우리의 적 아니예요? 전 무섭고 싫어요" 396) 비슷하게 "공주 옆에 있어서는 안 될 청지기 딸"(154)처럼 자신과 확연하게 차별대우를 받는, 열등감과 적의에 휩싸인 가난뱅이 학자가 한때는 자신과 같은 계층의 여성이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어떤 낙인도, 그늘도 부여 받은 적 없는 죽희는 명화의 자발적 난민 되기와 매우 먼 거리에 배치되어 있다.

조명화의 주체적인 난민 되기는 죽음이 아닌 삶의 선택, 정신적인 상처와 사회의 낙인, 운명으로부터의 도약과 타개로 읽을 수 있다.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월경과 탈주의 상상력은 일찍이 「벽지」(현대문학, 1958.3)에서 파리로 떠남으로써 가족의 죽음, 대를 물려 내려오는 부모들의 비극적인 숙명과 굴레로부터의 탈주하려 했던 강혜인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 나를 둘러 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 부터 나는 노여지는 것이다.
> 이 곳의 하늘과 햇빛까지도 나는 버리고 간다 그리고 내 몸에 밴 체취, 그것도 여기에 버리고 갈 것을 원한다.[286]

또한 조명화의 탈가는 『시장과 전장』에서 남지영의 피난과 난민 되기가 오히려 해방의 주제를 연출했던 것을 잇는다고도 볼 수 있다. 부산으로 피난한 남지영에서 더 나아가 국민국가의 경계마저 월경해 일본으로 밀항하는 조명화의 모습은 난민의 낙인을 숨기고 국민의 자격을 획득하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 조명화의 모습은 『시장과 전장』의 이가화의 국민국가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실천을 이어받는다고도 볼 수 있다.

박경리 소설 속의 여성들의 이동인 월남, 피난, 밀항의 월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수난이자 전락이자, 소속 없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노라의 탈가와 같은 해방의 의미를 부여 받는다. 그로 인해 그들의 월경은 다른 남성작가들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월남, 피난, 밀항과는 다르게 국민국가의 논리로부터 미끄러진다. 박경리는 『파시』를 지금껏 주관과 내면으로 파고들어 갔던 전작들과 달리, 처음 그 외부로 시야를 전환시킨, 의미 있는 문학적 전환점으로 언급한 바 있다.[287] 이 논문에서는 박경리가 말한 그 '외부'를, 국민국가의 외부로까지 한층 더 확대시켜 해석해보고자 했다.

『파시』의 첫 장의 소제목은 상징적이게도 '기항자(寄港者)'였다. 기항이란

---

286) 박경리, 「벽지」, 『현대문학』, 1958.3, 130쪽.
287) 박경리, 「『파시』를 끝내고」, 『동아일보』, 1965.6.5.

배가 항해 중에 최종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을 의미한다. 난민 여성이 되어 피난지 통영에 도착한 수옥은 물론, 이제 또 한 명의 난민 여성이 되어 고향 통영을 떠나는 명화에게도 최종 목적지, 닻을 내리고 정박하게 되는 장소는 제시되지 않는다. 추방당하고 봉쇄당한 경계 바깥의 여성들, 낙인찍힌 여성들, 어디에도 안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표류하고 기항할 뿐이지만, 그 속에서 부단히 자신의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사랑과 삶자리를 탐색하는 세계가 박경리의 문학이다.

4. 무적자 난민이 상상하는 불온한 공동체 - 이호철

4.1. 북한군 포로의 낙인과 무적자로서의 월남 전후

한국전쟁기 원산철수작전 때 월남한 이호철은 전후 월남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잡지 『문학예술』이 첫 번째로 배출한 신인이다. 이 말은 그가 대한민국 작가라는 의미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 배경에는 월남민이 한국 사회에서 처해있던 불안정한 법적 소속과 지위 문제가 있다. 김귀옥(1999)에 따르면, 1960년 제정된 호적법과 1962년 개정된 호적법으로 가호적을 취적할 수 있을 때까지 월남민은 임시적으로 피난민신분증에 기류자로 기재되는 난민과도 같은 상황에 있었다.[288] 나아가 정주아(2015)는 가호적을 취적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중인 적지(敵地)에 적(籍)을 둔 주민이라는 이중적 존재 방식은 '(무)소속'의 모순적인 상태로 월남민들의 난민 상황을 지속시켰다고 본다.[289]

실제 이호철 역시 「탈향」(문학예술, 1955.7)과 「나상」(문학예술, 1956.1)을 발표하며 등단했을 때 지니고 있던 신분증은 오직 피난민증명서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받지 못한 '무적자(無籍者)'[290]의 처지였다. 1957년 취적했다지만, 그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위조된 서류를 통한 것이어서 언제든 박탈되거나 무효화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심지어 서류를 위조한 주체는 1958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죄로 사형당하는 조봉암의 진보당 산하 비밀청년회였다.[291] 이호철의 처지는 분명 월남민 내에서도 위태로운 난민이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호철의 적 없는 난민

---

288)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59~260쪽.

289) 정주아, 「정치적 난민의 공간 감각: 월남작가와 월경의 체험」, 『한국근대문학연구』31, 한국근대문학회, 2015, 46쪽.

290) 여기서 무적은, 이후 살펴보겠지만 꼭 무국적 상태에만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적 없는 상황을 포괄하는 까닭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무국적자 대신 무적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291) 이호철, 「기기묘묘한 만남들」, 『문단골 사람들』, 프리미엄북스, 1997, 233쪽. 이 회고에 따르면, 1950년대 중반 진보당 비밀청년회가 이호철에게 비밀리에 접선해 왔을 당시 그에게 현재 가장 곤란한 상황에 대해 물었고, 이호철이 '적(籍) 없음'을 들자, 불법적으로 위조된 병적계,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해주었으며, 이호철은 이 서류들을 통해 비로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적자로서 이호철이 남한사회에서 처해있던 난민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다.

상황과 그로부터 기인하는 난민의식은 비단 월남으로부터 시작된 것만도 아니었다.

> 다시 말해서, 나는 1957년 그때에 비로소 대한민국에 제대로 적이 올랐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북에서 내려와 있는 피난민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문단에 첫 데뷔했던 두 작품 「탈향」과 「나상」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쓴 작품이 아니라, 단순한 이북 피난민으로 썼던 작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 바로 이때 1957년이었으니까.** (중략) 나는 그때 엉터리로 만들어진 호적등본에 의한 생년월일을 지금도 엄연히 주민등록번호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극히 최근에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바로잡았다.[292]

이호철은 한 소설에서 월남민들을 월남 시기에 따라 세 부류로 구분해 보였다. 제1기는 1946년 초 신탁통치 찬반 문제를 두고 월남한 부류이다. 조선민주당 계열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정치적으로나 지적으로 엘리트였던 이들은 월남한 뒤에도 교수, 고급관리 등의 요직을 맡았다. “그 무렵 제1기로 월남해 간 그 사람들은 원체 우리와는 종류가 다른 사람들로 막연히 의식되었었다”고 했다. 제2기는 이미 삼팔선이 막힌 1947~1948년을 전후해 월남한 부류이다. 북한에서 체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자 뒤늦게 “돈푼깨나 있고 먹고 살만 한 사람들이 대개 밤사이에 줄행랑을 치듯이” 월남한 것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제3기는 “1.4후퇴 때 대거 월남해 온 별 볼일 없는 피난민 떼거리”들이다.[293]

이 구분에 의하면, 이호철은 가장 보잘 것 없는 제3기의 ‘별 볼일 없는 피난민 떼거리’에 해당한다. 사실 그는 제1기 내지 제2기 월남민이 될 수도 있었다. 해방기 부친이 조선민주당에 가입했으며, 북조선노동당이 출범한 뒤로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을 몰수당하고 대대로 살아오던 동네에서 추방당한 정치적 추방자 가족이었던 것이다. 이 때 월남할 수도 있었겠지만, 외가에는 북한 체제에서 요직을 맡은 인물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호철의 집안은 원산 외곽으로 이주해 북한에 계속 남았던 것으로 추정된다.[294]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0년 12월 초 중공군의 참전으로 북한

---

292) 이호철, 「기기묘묘한 만남들」, 230, 235쪽.

293) 이호철, 「세 원형 소묘」, 『실천문학』, 1983.12; 『남녘사람 북녘사람』, 민음사, 2002, 21~24쪽.

294) 이호철, 「실향의 언덕에 서서」, 강은교 외, 『나: 처음으로 털어놓은 문제작가 10

지역에서 대대적인 철수 작전이 벌어졌을 때 그는 홀로 LST를 타고 피난길에 올랐다. 12월 9일 부산항에 도착해 수정동의 피난민수용소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나온 뒤로는 부두노동, 제면소 직공, 경비원 등 온갖 일자리를 전전하며 '별 볼일 없는 피난민'의 생활을 이어나갔다.[295]

생계보다 곤란했던 것은 병역 문제였다. 당시 징집 연령은 18~35세까지였으며, 징용은 41세까지로 상당히 길었다. 일례로, 인천상륙작전 때 해군에 종군하였고, 육군 종군작가단의 부단장을 맡기도 했던 마흔 살의 월남작가 김송에게도 부산 피난 시절 징용장이 날아왔는데, 김송은 끌려가면 이른바 지게부대가 되는 것이 뻔했기에 응하지 않고 버텼으나 한밤중에 헌병에게 연행되었다고 한다. 파출소에서 밤을 새고 부산역 앞의 학교운동장에 수용되었는데, 마침 조사관이 그가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였던 게오르규의 소설 『25시』(청춘사, 1952)의 번역자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돌려보내주었다.[296] 문단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중년의 현역 작가 김송조차 이러한 상황이었으니, 스무 살의 한낱 피난민 청년에 지나지 않았던 이호철이 겪었던 고초는 훨씬 더했을 것이다.[297] 부산의 한 미군 기관의 경비원으로 취업한 동안 일시적으로 병역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해고당하자 결국 그는 무작정 서울로 도피하였다.

그런데 이 사정에 관해 이호철이 사실대로 말하기란 한동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회고마다 차이가 나는데, 첫 번째 수필집인 『작가수첩』(진문출판사, 1977)에서만 해도 "피난지 부산에는 모종 일로 더 이상 있을 형편이 못되어 그때까지 근무하던 미군부대의 출장증 한 장을 얻어내" 서울로 떠났다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하였다. 전후 서울에서 사기를 당했던 일화를 이야기할 때도 "목숨이나 다름없는 나의 병적증명서"를 맡겼다는 식으로 마치 병역을 마치고 발급받은 병적증명서가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였지만,[298] 20년이 지나 출판한 수필집 『문단골 사람들』(프리미엄북스, 1997)에 이르면, 과거에는 미처 말할 수 없었던 훨씬 자세한 사정들이 전해진다. 그

인의 자전소설』, 청람문화사, 1978, 242쪽.

295) 한수영, 「탈향, 그 신산한 역사적 삶의 도정」(인터뷰), 『실천문학』45, 실천문학사, 1997.봄호, 406쪽.

296) 김송, 「자전적 문예반세기⑦ 환도직후의 문단 이모저모」, 『신동아』, 1980.6, 373쪽.

297) 당시 상황은 『소시민』 속 병역기피자 곽씨를 통해 부분적으로 투영되었다고 보인다.

298) 이호철, 『작가수첩』, 진문출판사, 1977, 245~249쪽.

에 따르면, 징집영장을 받게 된 뒤 서울로 도망치려 했으나 도강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해고당한 미군 기관의 출장증을 위조해 미군복을 입고 기차를 탄 것을 알 수 있다.[299] 이 때 병역을 수행하고 병적계를 제출했더라면, 전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호적에 취적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이호철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김귀옥(1999)에 따르면, 병역은 이삼십 대 월남민 남성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로, 월남민들이 자진해 군에 입대했다는 통념과 달리, 소수의 엘리트를 제외한 일반 월남민들의 경우 군복무 비율이 결코 높지 않다. 전시는 물론 전쟁이 끝난 뒤로도 전방은 줄곧 준전시 상황이었던 데다, 군대에서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몸이 상하거나 죽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입대를 기피함으로써 지위상승은커녕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도 지장을 받았지만, 생명 보전과 무사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소망에서 월남민 다수가 복무를 기피하였다.[300]

그런데 이호철의 경우 그와 같은 월남민 일반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유별날 만큼 병역에 대한 기피와 공포가 극심한 편이었다. 징집영장을 받고 도망친 서울에서 그는 가짜 신분으로 위장하고 살아갔으나 언제든지 군대에 끌려가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무렵에 나는 신분증 꺼내 보이는 일에 거의 노이로제”를 앓고 있었다고 고백할 만큼 괴로워했음에도, 이호철은 한사코 입대를 피했다. 수시로 실시되는 불심검문으로부터 숨고 잡혀 들어가고, 다시 도망치는 악몽 같은 병역기피자의 생활이 되풀이되었다. 이호철처럼 일반인의 신분으로 월남했던 선우휘나 김은국 등의 자원입대 사례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 그때 내가 지니고 있던 신분증명서라곤 오직 하나, 미군기관 KRD 경비원으로 있을 때의 것뿐이었다. 그곳에서 나올 때, 나는 의도적으로 그것만은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 미군기관에서도 그런 건 자상하게 챙기지 않은 채 유야무야로 넘어가 주었던 것이다. 그 증명서도 이름은 이영길로, 1924년생, 실제 나이보다 여덟 살이나 많게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항상 전전긍긍, 병역기피자 단속이 있을 적마다 눈치껏 요리조리 피해 다녔던 것이어서, 늘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었다.**[301]

---

299) 이호철, 「황순원 선생과의 첫 대면」, 『문단골 사람들』, 105~106쪽.
300) 김귀옥, 위의 책, 277~284쪽 참조.
301) 이호철, 「기기묘묘한 만남들」, 『문단골 사람들』, 226쪽.

대학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원산고급중학교 3학년을 이수하고 문재도 풍부해 상대적으로 남한사회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던 이호철에게 병역기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302] 이를 일반적인 월남민들의 경우와 함께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바로 월남에 앞서 그가 겪었던 북한군으로서의 참전과 포로 체험이다. 이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월남 체험과 비교했을 때 제대로 논의된 적이 거의 없다. 그에 관해 작가가 직접 말하거나, 소설로 다룬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월남 못지않게 포로 체험은 그의 난민의식의 기저를 이루는 핵심적인 체험이었고, 특히 월남한 이후의 삶에 엄청난 제약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타계하기 일 년 전 진행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산고급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호철은 1950년 7월 7일 북한군에 입대하였고, 10월 초 울진 지역 전투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이미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고 국군이 북진하던 시기로, 전투에서 패하고 대열에서 낙오된 그는 남대천 지역에서 체포되어 헌병대로 넘겨져 약 한달 간 포로로 임시 수용되었으나, 다행히 포로수용소로 이송되기 이전에 청년단원인 친척에게 발견되어 원산 집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303]

지금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이호철이 그에 관해 말하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었다. 남한사회에서 적군인 북한군 출신의 포로였다는 이력은, 월남민으로서의 지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강력한,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난민의 낙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시인 김수영을 예로 들어보자. 북한군 점령기 서울에 잔류했던 그는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된 뒤 탈출하는 과정에서 유엔군의 포로가 되었다. 2년 넘도록 부산 거제리 포로수용소 등지에 수용되어 있다가 민간인 억류자로 석방된 직후 발표한 포로체험 수기 「시인이 겪은 포로생활」(해군, 1953.6)에서 그는 이 시간을 적색

302) 일례로, 북한에서는 정치적 추방자 가족 출신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김일성대학에 지원할 수조차 없었던 그는 피난 시절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원서를 냈던 일을 회고한 바 있다. 이호철, 「연상의 전광용과 동인문학상 공동수상」, 『우리네 문단골 이야기』2, 자유문고, 2018, 99쪽. 인용한 『우리네 문단골 이야기』1, 2는 작가가 사망한 뒤 유작 출판된 수필집으로 앞선 『문단골 사람들』과 내용이 상당수 겹치면서도, 전자가 1950년대 이야기를 주로 실었다면, 후자는 그 이후의 사정들도 덧붙여진다는 차이가 있다.

303) 방민호, 「이호철 선생을 만나다」, 『문학의 오늘』, 2015.봄호, 53~63쪽 참조.

포로들의 선전선동과 인민재판, 살해 등의 만행 속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투쟁했던 기록으로 담아낸 바 있다. 민간인 억류자로 석방된 신분임에도, 서은주(2011)의 지적처럼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반공주의자로서의 노골적인 사상증명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04]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안팎에서 전개된 포로들의 극단적이고 호전적인 사상증명과 인정투쟁에 대해서는 김학재(2015), 김모니카(2019) 등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자세하게 논의되었다.[305] 그에 따르면, 포로들은 석방된 뒤에도 다시금 전선으로 달려 나가 나라에 대한 충성과 사상적 진정성을 (비)자발적으로 증명해야 했다. 자유세계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해 전장의 노예가 되어야 했던 잔인한 딜레마로부터 당시 이들이 처해있던 위태로웠던 입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반공주의적인 글쓰기, 자원입대, 자해적인 혈서와 문신 등은 그 점에서 모두 동일선상에 놓인다. 김수영은 한 미발표 유고시에서 이를 "낙인보다 더 크고 검은 호소"이자, "길을 잊어버린 호소"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여보세요 내 가슴을 헤치고 보세요 여기 장 발장이 숨기고 있던 **낙인보다 더 크고 검은**
호소가 있지요
길을 잊어버린 호소예요」[306]

김수영처럼 강제로 징집당한 남한 출신의 의용군 포로들조차 끊임없이 적이라는 낙인을 의식하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원래부터 북한군 출신으로 포로가 되었던 이호철의 과거 이력이 남한사회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307] 장세진(2018)이 지적했듯, 이들은 결코 합법적인 전쟁 수행자로

304) 서은주, 「한국전쟁의 기억과 글쓰기: 거제도 포로수용소 체험을 중심으로」, 『작문연구』12, 한국작문학회, 2011, 51쪽.

305) 김학재, 『판문첨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Monica Kim, *The Interrogation Room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306) 김수영, 「조국에 돌아오신 상병포로(傷病捕虜) 동지들에게」, 1953.5.5; 『김수영 전집1 시』, 민음사, 2003, 40쪽.

307) 이와 관련해 손창섭의 단편 「생활적」(현대공론, 1954.11)에서 주인공인 북한군 포로 출신 동주가 석방 후 피난지에서도, 포로수용소 안에서 겪었던 인민재판의 트라우마와 마찬가지로, 공공연히 무시와 의심을 받고 린치를 당하는 모습으로 제시된다는 사실도 새삼 눈길을 끈다.

승인되지 않았으며, 정통성을 가진 자국 정부에 반하는 '반도(叛徒)' 내지 '폭도'로 받아들여질 뿐이었다.[308] 최인훈의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처럼 자원송환심사 때 중립국을 택한 뒤 평생을 무국적의 난민으로 살았던 드문 예이자, 이호철처럼 북한군 포로이기도 했던 주영복이 한 수기에서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로 북한에서는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뻔하고, 남한에 있는 한평생 "공산군 포로·북괴군 포로… 포로, 포로, 포로라는 딱지가 한평생 붙어"[309] 다닐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던 사실을 상기해 봐도 좋겠다.

요컨대, 이호철에게는 월남 이후 여느 포로들처럼 군대에 가는 방식 등을 통해 반공주의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함으로써 필사적으로 사회적인 갱생을 꾀하거나, 철저히 북한군 포로라는 낙인을 숨기고 존재 자체를 비가시화하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던 셈이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전방인 강원도 일대는 이호철이 포로가 되어 한 달 동안 양양, 강릉, 주문진, 간성, 고성 등 여러 헌병 분견대로 인계되고 임시 수용되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곳이다. 군인이 되어 이곳에 다시 가게 되는 상황은 이호철로서는 전쟁 트라우마의 재생일 뿐만 아니라, 행여 당시 군관계자들을 만나 숨겨온 포로의 낙인이 탄로 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즉, 그의 병역기피는 일반적인 월남민들처럼 군대에서 몸이 상하거나, 죽을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와는 차원이 다른 커버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남한사회 자체는 하나의 거대한 포로수용소라고도 말할 수 있다. 수용소 안에서 벌어졌던 사상증명의 과잉된 퍼포먼스, 반공투쟁은 수용소 바깥에서도 지속되었으며, 포로였던 이들은 석방된 뒤에도 여전히 포로의 낙인을 숨긴 채 살아가야 했다. 보이지 않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전후 수용소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호철은 필사적으로 병역을 기피하였고, 불법적인 방식을 거쳐 국적을 얻어야 했으며, 이후로도 오랜 기간 불안정한 난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1967년 결혼하기 전까지 그는 서울에서만 하숙을 27번 옮겼다.[310]

이 때 이호철이 김수영이나 주영복과 달리 공식적인 포로 적(籍)에 이름이 오르지는 않았던 특별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

---

308) 장세진, 「한국식 냉전 주체의 기원: 포로수용소의 생명정치-UN군 관리 포로수용소 서사를 중심으로」, 『숨겨진 미래』, 푸른역사, 2018, 106쪽.
309) 주영복,「조국이여, 안녕히」, 『내가 겪은 조선전쟁』2, 고려원, 1991, 397쪽.
310) 방민호, 「이호철 선생을 만나다」, 84쪽.

수복 이후 한참 북상이 이루어지는 어수선한 전방에서 포로가 되었던 그는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거쳐 수용소에 입소하기 이전에 사적인 경로를 통해 운 좋게 빨리 풀려날 수 있고, 그 덕에 월남한 뒤에도 포로의 이력을 숨기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점이 이호철의 포로 체험의 밀도가 다른 이들보다 덜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포로가 된 순간부터 누구나 호모 사케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도 없이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완전히 타인에게 이양한 존재, 어떤 부조리하고 비도덕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호모 사케르로서의 전쟁 포로 체험에 대해서는 김수영이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 **세계의 그 어느 사람보다도 비참한 사람**이 되리라는 나의 욕망과 철학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것을 만족시켜 준 것이 이 포로생활이었다고 생각한다. (중략) **나는 벌서 인간이 아니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 포로는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것** (중략) **인간 아닌 포로** 틈에 끼워서 이리로 이송되었다.[311]

당시 이호철은 김수영처럼 직접적인 형태로 포로 체험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소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서사화한 바 있다. 그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 「나상」(문학예술, 1956.1)이다. 첫 번째 추천작 「탈향」(문학예술, 1955.7)은 월남민 청년들의 부산에서의 피난살이에 관한 소설로, 이호철 문학 연구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되어왔다. 두 번째 추천작 「나상」은 그에 비해 현저히 덜 다루어졌는데, 이 소설이야말로 바로 작가의 숨겨왔던 포로 체험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삼 주목을 요한다. 여기서도 드러나듯, 월남과 포로 체험은 그의 문학세계의 중요한 두 가지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군 포로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었던 까닭에 「나상」에서 이 체험은 반대로 북한군에 의해 포획된 국군 포로들의 이야기로 제시된다. 그럼에도 당시 작가가 겪은 체험의 핵심은 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

311) 김수영, 「내가 겪은 포로 생활」, 『해군』, 1953.6; 이영준 편, 『김수영 전집2 산문(결정판)』, 민음사, 2018, 33~34쪽(원제는 「시인이 겪은 포로 생활」이지만, 전집에 수록될 때는 『해군』 편집을 거치기 전의 원제로 추정되는 제목으로 수정).

그 점에서 벌거벗은 초상이라는 뜻의 제목 '나상(裸像)'은 이호철이 숨겨온 포로의 과거를 고백하는 은유로 읽을 수 있다.

소설은 해방기 월남한 뒤, 전쟁과 함께 제각각 군에 차출되었다가 포로가 되어 우연히 만나게 된 어느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들은 북한군 경비병들에게 월남민 가족이라는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날까 서로를 아는 체도 하지 못하며, 한밤중에만 몰래 귓속말을 나눌 뿐이다. 일방적으로 말을 꺼내는 쪽은 늘 형이다. 동생은 포로가 된 순간부터 외부세계에 대한 일말의 호기심도, 기대도 버렸다. 동생만이 아니라, 포로 행렬 전체가 "막연한 침울함, 살벌함"을 넘어, 현재의 상태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고요함"에 잠겨있다. 이들은 이미 인간적인 모습을 잃어버렸으며, 아침저녁으로 두 개의 주먹밥을 배식 받고, 임시 수용소에서 잠을 자고, 행군을 하는 것 외에는 어떤 생각도, 감각도, 활동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반면, 어릴 적부터 주변의 눈치와 정세에 "둔감"해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금 모자란 축으로 치부되어왔던 형은, 모두가 절망과 공포, 비참에 휩싸여 이미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인다. 「나상」에서 형은 내내 포로답지 않게 행동한다. 평소 둔감하다고 여겨져 왔던 그의 천성을 변함없이 발휘하는 것뿐인데,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천진하고 활발하게 감응하는 그의 모습은 이전처럼 둔감하다고만은 말하기 어려운 이채를 발한다.

> **이 속에서, 형은 주위에 대한 쌔록한 관심과 놀라움과 솔직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 펄렁한 야전 잠바에 덜럭덜럭한 군화로 해서, 그러지 않아도 허술한 몰골이 더욱 허술해보였다.
>
> 「야하 저 밤나무 봐라, 굉장히 크다, 한 오백년은 묵었겠다.」
>
> 「이젠 낮이 괜 짤라졌구나이……」
>
> 「야아 저 까마귀 떼들 봐라.」
>
> 이러며 머리를 이리저리 주억거렸다. 목소리도 퍽 뚜릿뚜릿 했다. **그 모습도 웬 활발끼를 띄고 있었다.** 이러군 곁에 있는 동생을 흘끔흘끔 곁 눈질해 보았다.[312]

형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처럼 신기하고 특별한 것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잠들어 있는 존재들이다.("저거봐 저거 저거 에-이 모두

312) 이호철, 『나상』, 사상계사, 1961, 95쪽. 이 논문에서는 『문학예술』에 실린 원본 대신 소설집 『나상』(사상계사, 1961)에 재수록 된 판본을 인용하였다.

잠만 자구 있네” 104) 동생도 그중 한 사람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빠르게 파악한 끝에 이내 외부로부터 완벽히 스스로를 차단해버린 동생을 형은 자꾸 깨워 흔든다. 또한 혼자 먹기에도 모자란 주먹밥을 나누어 주고 양보하며 동생을 챙긴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교류와 친밀감을 잃지 않는 형의 모습은, 심지어 자신들을 감시하는 경비병에게도 발휘된다. 이따금 여분의 주먹밥을 더 주곤 하던 경비병이 교체될 때 형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이름을 묻기도 한다.

어릴 적부터 형을 무시하고 외면해왔던 동생의 눈에 그런 형의 모습은 차츰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포로의 상활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는 불가침의 천성으로 인해 형은 무리에서 유일하게 포로가 아닌 존재처럼 보이며, 동생은 그로부터 “어떤 위엄 같은 것조차” 느낀다. 나아가 이제는 형이 울면 같이 눈물을 흘리게도 되고, 어느 날에는 엉뚱하게도 형더러 다 같이 세수를 하자는 말을 꺼내보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동생의 세수 제안은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죽게 될지 모르는 전쟁 중의 포로들에게 한 덩이의 주먹밥도 아닌, 세수란 전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리모 레비가 말했듯,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습관들이야말로 수용소 내의 존재들을 마지막까지 인간으로 남게 해주고, 극한 상황으로부터 살아남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313] 이 장면은 사소한 해프닝 이상으로 읽힌다. 동생의 제안에서 시작해 형의 입을 거쳐 모든 포로들에게 번져나간 세수를 하겠다는 마음은, 그동안 포로로서 이들이 상실했던 인간다움에 대한 갈망이며, 그 순간적인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경비병의 집합 명령을 어기고 포로들이 다 함께 강가에 앉아 때 아닌 세수를 하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 이튿날, 행렬 속에서 형은 세수를 좀 해야겠는데, 세수를 좀 해야겠는데, 세수를 좀 해야겠는데, 이렇게 연신 혼잣 소릴 지껄여댔다.
>
> 동생은 새삼스럽게 좀 난처했다.
>
>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형은 그냥 같은 소릴 지껄여댔다.
>
> 이렇든 어느날 새벽엔 형의 이 소리가 기어히 일행 전체를 강한 진실감으로 휩쌓아버렸다.
>
> 동생이 맞 받아 불쑥,

---

313) 레비에 따르면 아우슈비츠에서 인간성을 잃게 되는 마지막 단계의 사람들을 ‘무젤만(Muselmann)’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식욕만이 남아 있는 비인간적인 존재들이다. 프리모 레비, 「익사한 자와 구조된 자」, 『이것이 인간인가』, 이현경 역, 돌베개, 2007, 131~153쪽.

「참으로 오늘은 세수들을 하구 떠납시다.」

한 것이었다.

일순간 조용했다. 다음 순간 수선스럽게 얼굴을 마주 보며들 웃었다. 끼드득거리며들 웃었다. 다시 조용했다. 누구의 얼굴을 보나 실로 세수를 좀 해야 할 얼굴들인 것이다. 후닥딱 후닥딱 놀라듯이, 세수를 하구 떠나자, 오늘은 세수를 하자……한쪽 구석에서 형은 좀 겸연쩍은듯이 멀뚱히 동생을 건너다보며 두 손으로 턱을 썩썩 문지르고 있었다. 누구나 집합장소로 나가지 않고 머뭇머뭇 거렸다. 세수를 하자 세수를 하자…….

집합이 늦다고 뛰어 들어오던 경비병들도 일행들의 이런 분위기를 직각하자, 피식피식들 웃었다. 이 꼴을 본 일행들은 한꺼번에 웃음이 터졌다. 신들이 나서, 세수를 합시다, 오늘은 세수를 합시다…….

샛하얀 가을 햇살이 온 강산에 내리 부을 무렵 일행은 긴 방축이 휘돌아간 강까에 쭈름히 앉아, 왁자지껄 하며들 세수를 하고 있었다.[314]

「나상」은 그와 같은 포로 시절의 액자 속 이야기와 끝내 다리 부상으로 무리에서 낙오된 형이 경비병에게 총살당한 뒤, 만포진 포로수용소에서의 긴 시간을 버틴 끝에 석방되어 나온 동생의 후일담에 해당하는 액자 바깥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있다. 액자 바깥의 동생은 어느 여름날 저녁 비가 쏟아지는 베란다에서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자유로운 상념에 잠겨있다. 그럼에도 처음 포로 행렬에서 형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냉연하고, 범연하고, 오연해 보이는 그의 오늘날은 과거와 크게 다를 것도 없어 보인다. 형의 주검을 외면하고 지나온 시간은, 서사에서는 지워져 있지만, 아마도 "철저한 무관심"과 불감증으로 무장한 채 오로지 생존에만 몰두해온 '둔감'했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 점에서 동생은 과거 포로이되 포로가 아니었던 형과 반대로, 포로가 아니되 여전히 포로인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 또한 그 점을 자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나는 다시 이렇게 범연한 내 고장으루 돌아왔구, 다시 내 그 오연함이란 것을 되찾아 입었다. **그런데 그전보다 좀 편편치 않다,** 뒷바쳐야 할 의지라는 것이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루선 아마 손해인지도 모르지……」[315]

---

314) 이호철, 「나상」, 101~102쪽.
315) 이호철, 「나상」, 110쪽.

선행연구에서 「나상」은 「탈향」과 비슷하게 냉엄한 현실의 논리라든지, 현실 적응의 문제[316]를 다룬 것으로, 즉 “그리움과 회한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음”에 대한 인식,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불가피한 요구”[317]를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관점으로는 결말에서 부조되는 동생의 “편편치 않다”는 심리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액자구조를 통해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는 메타적인 시점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이 소설이 전면화하는 것은, 지난 전쟁과 포로의 시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비인간적이었는지, 나아가 생존을 위해 여전히 포로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전후의 오늘은 또 얼마나 둔감하고 욕된 것인지, 늘 그렇듯 부인되고 억압된 것은 귀환한다는 진리이다.[318]

실제 부인되고 억압한 그 시간들은 훗날 귀환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상」으로부터 약 40년 뒤에서야 발표될 수 있었던 자전적 연작소설 「남녘사람 북녘사람」(문예중앙, 1996.여름)[319]이다. 이호철의 조금 늦은 포로 체험 수기이자, 전쟁 회고담처럼 읽히는 이 소설은 이 논문이 다루는 시기에서는 벗어나지만,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미 「탈향」을 발표할 당시 창작했던 것이라고 하고,[320] 선행연구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살펴보도록 한

---

316) 이호규, 「1960년대 소설의 주체 생산 연구: 이호철, 최인훈, 김승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99, 33~31쪽; 황태묵,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분단의식 변모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1, 26쪽.

317) 서세림, 「월남작가 소설 연구: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6, 120쪽.

318) 이 논문은 과거의 상실에 대한 애도가 완수되었다고 보는 오양진의 해석과는 다르다. 「나상」의 결말에서 제시되는 동생은 애도를 완수한 사람보다는 상실에 여전히 고착되어 있는 우울증자의 형상에 더 가까울뿐더러, 애도가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40년 뒤 「남녘사람 북녘사람」이라는 다시 쓰기가 가능했다고 본다. 오양진, 「6.25전쟁과 애도의 문제: 이호철의 「나상」과 황순원의 「비바리」를 대상으로」, 『한국학연구』 42,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2.

319)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서 토지개혁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혁명을 겪었던 과도기의 급격한 변모의 풍경들, 주변 사람들의 월남과 월북,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신 역시 전투에 동원되어 남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원산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사정 등에 관해 이호철이 소설로 발표한 것은 「세 원형 소묘」, 『실천문학』, 1983.12; 「남에서 온 사람들」, 『창작과비평』, 1984.9; 「칠흑 어둠 속 질주」, 『창작과비평』, 1985.7; 「변혁 속의 사람들」, 『월간경향』, 1987.9, 「남녘사람 북녁사람」, 『문예중앙』, 1996.여름호에 이르러서다. 이중 표제작인 「남녘사람 북녘사람」은 포로 체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연작들을 엮어 『남녘사람 북녁사람』, 프리미엄북스, 1996으로 펴냈고, 이후 『남녘사람 북녁사람』, 민음사, 2002를 정본으로 정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용 시 민음사 판본을 참조하였다.

320) 이호철, 『우리네 문단골 이야기』1, 58쪽.

다.

> 또한 이 연작소설은 1956년에 발표되었던 초기 단편 「나상」과도 소재 면에서 깊은 관련이 있다. 아니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작가의 똑같은 체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만, 1955~1956년 그 무렵은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불과 2년밖에 안 지난 때여서,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겪었던 그 체험을 '직접성'으로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이 있었다. **막말로 아무리 픽션이라곤 하지만, 작가 자신이 인민군에 나갔던 체험이 작품 속에 비록 암암리에일망정 그대로 드러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아직 삼엄한 전시 상황이었던 그때로서는 그건 아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었다.**[321]

허구인 「나상」에서조차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북한군 포로 체험이 전면화 된 이 소설은 전쟁 때 자신이 어떤 경위로 포로가 됐으며, 그 뒤로 약 한 달에 걸쳐 임시 수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감상, 그리고 몇몇 삽화들을 중심으로 엮어져 나간다.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사실은 자신을 비롯한 포로들이 포로 적에 오르지 않은 매우 애매한 처지였다는 점이다. 언급했듯, 그 덕에 이호철은 훗날 포로 출신이라는 과거를 숨길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처지는 김수영의 포로 체험 수기나, 장용학의 단편 「요한시집」(현대문학, 1955.7) 등에서 재현되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악명 높은 포로 생활과는 조금 다른 체험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첫 장면에서 제시되는 대학생 출신인 남한 헌병과의 대면 장면이 대표적이다. 헌병과 포로 사이의 신문(訊問)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상대가 나의 소지품 수첩을 검사하고서 처음 꺼낸 말은 뜻밖에도 사상에 관한 질문이 아닌, "너, 문학 하니?" "어떤 작갈 좋아하니?"(252)였다. 말 한 마디로 목숨이 좌우되는 살벌한 조사실에서의 신문이 아니라, 문학을 좋아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의 예사로운 대화처럼 제시되는 점이 인상적이다.

행군하는 북한군 포로들과 그들을 감시하는 남한의 헌병들이 주거니 받거니 혁명가와 유행가를 부르며, 가사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음악을 매개로 은밀하게 교감하는 장면도 흥미롭다. 그런 가운데서 집이 코앞이라는 포로의 혼잣말에 한 관대한 헌병이 흔쾌히 그를 송환시켜주는 기적 같은 요행이 일어나기도 하며, 포로들의 돈으로 헌병이 과일이니, 떡 같은 간식거리를 대

---

321) 이호철, 「작가의 말」, 『남녘사람 북녁사람』, 민음사, 2002, 347~348쪽.

신 장에서 사다주고 다 함께 나누어 먹는 조금 엉뚱한 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이 공식적인 포로 적에 오르지 못한 채 이 부대에서 저 부대로 인계되고 관리되었다는 사실은, 헌병들 개개인의 기분이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의 대우는 물론, 어떤 가혹행위나 심지어 학살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즉, 그들은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와 안전망 없이 변덕스러운 헌병들 개개인의 인정과 요행에 의지해야 하는 지극히 취약하고 무력했던 처지였다는 말이다.

소설에서도 서술되듯, 꼭 경비병들의 개인적인 악감정과 만행이 아니더라도, 서울 수복 후 한참 북진하는 시기에 포로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이들의 숙식을 꼬박꼬박 챙겨가며 정신을 쏟을 만큼의 여력이 없었던 한국 정부에게 포로들이란 골칫덩어리였다. 자연히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밖에도 위험은 편재했다. 남한 사람들은 연행되는 북한군 포로들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공공연한 모욕과 위협을 가했으며, 헌병들은 주민들의 반감을 사면서까지 포로들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데 관심이 없었다.

주지하듯, 한국전쟁은 1949년 유엔 제네바 협약에서 체결된 포로에 대한 인도적인 보호 대우가 처음으로 적용되었던 전쟁이다. 실제로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도 적고, 1950년 10월까지 실행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1950년 7월 4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북한군 포로를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대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제적십자 역시 한국전쟁에 제네바 협약이 적용되도록 압력을 가했다.[322] 소설 속에서도 제네바 협약이나 적십자사에 대해 헌병들이 언급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적에 오른 포로들의 이야기이지 어떤 기록도, 소속도 없는 소설 속 포로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로 제시된다.

> “애네들은 시방 국제적십자산가 뭣인가의 기준으로도 포로 이전의 상태다, 정식으루다 포로 적에 올라 있지 않다, 카더래. 그러면서 넌지시 내비치기를, 우리가 애네들을 몽땅 다 자유 처분을 해두 무방하다능 거드래. 딱히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만 않았다 뿐이지. 대강 눈치는 그렇드라는 거지. 아닌말루. 날씨꺼정 이렇게 찌쁘드드허겠다, 비꺼정 지척지척 내리는 이런 날씨에 이것들을 무한정 어디꺼정 끌고 갈 것이냐, 그러니 에라잇 쌍 모르겠다, 어느

322) 김학재, 위의 책, 367쪽.

적당한 외진 곳에 다다라 몽땅 즉결처분으루다 쏴팡가친들, 뒷말이 있을 턱이 없다는 거지. 그 김 대위님두 사람의 탈을 쓰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차마 그런 말까지 대놓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김 대위 저 자신과 직접 상관없이 우리들이 그러는 건 오불관언으로 눈감아주겠다는 식이더래. 분명히 그렇게 말은 안하지만 대강 그런 눈치더래."[323]

그 점에서 문학이니 노래니 귀향이니 간식이니 하며, 때 아닌 평화롭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해지던 앞서의 장면들은, 다른 한편으로 포로들 저마다 "극도로 전 오관을 최대로 가동시켜 순간순간의 사태 추이와 그에 대한 기민한 대처 방책을 각자 나름대로 강구할밖에"(276) 없는 팽팽한 긴장감과 공포에 짓눌린 시간들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감벤은 "겉보기로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공간"이지만, "정상적인 법질서가 사실상 정지되어 있고, 잔혹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이 아니라 그 시점에 임시적으로 주권자로 행세하는 경찰의 예의 바름과 윤리 감각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공간"[324]을 전부 수용소의 현존이라고 보았다. 그 점에서 본다면 아직 예외상태의 포로수용소로 보내지지는 않았지만, 적에 오르지 않은 존재로서의 소설 속 포로들(그리고 현실의 이호철)이 머무르고 거쳐 갔던 모든 공간들이란, 기실 다른 이름의 수용소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그 속에서 한 무고한 포로가 총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서술자는 그를 두고 "극히 우연한 일로 간단히 살해당했다"고 표현하였다. 이 사건은 시간상으로는 훨씬 앞서 발생했지만, 서사의 층위에서 지연되고 억압되어있다 뒤늦게 말해진다. 진술하기 어려운 외상임을 알 수 있다. 살해당한 의용군 출신의 청년은 포로 행렬에서 유일하게 '나'처럼 군복이 아닌 홑바지 저고리 차림의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고, 포로가 된 이후 내가 가장 먼저 말을 걸었던 청년으로 서술된다. 그와 같은 동일시는 나로 하여금 살해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었다는 강력한 두려움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흡사 「나상」에서 형의 주검을 외면하고 행군해야 했던 동생처럼 공포도, 적의도 드러낼 수 없었다. 오히려 나는 포로를 살해한 헌병에게 스스로도 어처구니없을 만큼의 외경과 아첨을 표하는데, 그와

323) 이호철, 「남녘사람 북녁사람」, 317쪽.
324) 조르조 아감벤, 『호모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328~329쪽.

같은 심리는 포로로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며, 상대가 얼마나 절대적인 신과 같은 권력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김수영은 인간이 아닌 “포로들에게 있어서 이들 인간들에게 대한 존경과 신망은 확실히 정상상태를 넘어서 병적인 정도에까지 이르는 수가 많았던 것이다.”[325]라는 적확한 말로 표현한 바 있다.

한편, 나에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의 위기가 목전에 닥쳐오게 된다. 고성에 도착한 뒤 이 지역의 부역자들과 함께 수용된 포로들은 짧은 신문을 거친 뒤 공터로 집결되었고, 그곳에는 일제히 이들을 향해 조준된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닥쳐온 학살의 운명 앞에서 나는 지나치게 무덤덤하게도 보이는데, 이 대목은 피로(被虜)된 이래 이리저리 인계되고 수용되며, 숱한 죽음의 위협과 무리 내 포로들의 살해 사건들을 목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자신의 죽음을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대목에서 전쟁에 차출되기 전 가장 먼저 마련했던 문학 수첩과 그 속에 간직해온 문학 동료의 사진을 버렸다는 서술도 곱씹을 만하다. “수첩이고 문학이고 최진만이고 지속적으로 간수하고 챙기고 있다는 게 도무지 가당치가 않고 주제넘게 생각”(286)되었고, 돌연 그것들이 귀찮아져 버렸다고 표면적으로는 서술되지만, 실상 지금 서술자가 처해있는 상황은 지금껏 추구해왔던 문학, 낭만, 꿈, 우정, 톨스토이, 체홉, 발자크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기록과 증언도 불허하는 극한상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행히 그 밤을 무사히 넘기고 운 좋게 포로 행렬로부터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으로 소설은 끝나지만, 이는 방민호(2017)가 지적한 포로 김수영의 시에 스며있는 전시의 강렬한 임사체험[326]과 같은 종류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이호철의 월남 이전 북한군 참전과 포로 체험은 비단 낙인찍힌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적 없는, 주권 바깥의 존재인 벌거벗은 생명이 되는 일을 체감했던 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포로 적에도 오르지 못한 포로라는 이호철의 특수한 체험은, 아렌트가 말한 일반법이 규정하지 않는 예외이자, 일반법이 규정하는 예외,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되는 편이 나은 무국적자로서의 난민[327]의 처지와 같다.

---

325) 김수영, 「내가 겪은 포로 생활」, 44~45쪽.
326) 방민호, 『서울문학기행』, arte, 2017, 238~241쪽.
327) 한나 아렌트, 「국민국가의 몰락과 인권의 종말」, 『전체주의의 기원』, 이진우, 박미애 역, 한길사, 2017, 517쪽.

실제 한국전쟁기의 포로들은, 장세진(2018)이 지적했듯 난민과 범주적으로 경계 짓기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다. 전선과 후방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전쟁이 전개되었고, 유엔군은 유동인구의 성격을 세심하게 구분하려 들지 않았으며 군인이나 비전투원의 민간인들을 무작위로 잡아들여 포로 취급을 했기 때문이다.[328] 김학재(2015)의 지적처럼 뒤섞인 포로 집단에서 정치적 난민을 따로 분리해서 그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망명권을 주는 문제는 전쟁 막바지에 대두되었던 포로 자원송환심사에서 첨예한 법적, 정치적 쟁점을 이루기도 했다.[329]

이 장에서는 그동안 이호철 문학을 설명해왔던 익숙한 월남의 틀과 거리를 두고 거의 주목받지 않았던 낙인으로서 북한군 포로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보았다. 이호철도 언급했듯, 포로 체험은 원산에서 나고 자란 그가 월남에 앞서 남한사회와 처음 대면했던, 즉 남한이 어떤 세계이며 북한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체감한 원초적인 사건—작가는 이를 “내가 처음으로 해후했던 대한민국의 원형의 모습”(295)이라고 표현하였다—이었다는 점에서 월남 체험을 선취하는 면이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논문이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던 측면은 월남 이후 이호철이 처한 난민 상황 역시 월남 이전인 포로 시절부터 지속되어오고 있었다는 사실, 즉 무적자로서의 월남 전후이다. 이호철은 단지 월남의 결과 난민이 된 것이 아니라, 월남 이전부터 무적의 난민의 상태에 있었고, 그 난민 상황과 난민의식이 월남 이후로도 지속되고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그와 같은 무적자 난민 이호철이 과연 문학을 통해 다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상상과 장소적 실천을 시도해 나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28) 장세진, 위의 책, 111쪽. 장세진의 책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오세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쟁 발발 당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오세희는 사실상 한 번도 군인으로 전투에 참여한 적이 없는 비전투원이었으나, 피난길에 운 나쁘게 포로로 잘못 분류되어 체포되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을 했다. 수용소 안에는 오세희와 같은 민간인 억류자들이 수두룩했다고 한다. 그 점에서 한국전쟁기의 포로수용소는 포로수용소이자, 피난민들이 피난생활을 하는 난민수용소이기도 했다. 자세한 수용소 체험은 오세희, 『65포로수용소』, 만인보, 2000.

329) 김학재, 위의 책, 438~445쪽.

4.2. 월남문학의 상상의 공동체와 난민의 공동체

남한에서 이호철이 난민으로서 처한 현실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논할 때 유의할 점은 그 사실에 입각해 이호철의 문학을 수동적이고 무력한,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의 발로로만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는 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호철이 강한 소속감을 표방했던 공동체이자 장소였던 월남작가 집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피난 시절 이호철은 일자리를 구한 즉시 습작에 몰두하였고, 염상섭을 비롯해 부산으로 피난 온 기성작가들을 무작정 찾아갔는데,[330] 이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존재가 문학예술사를 중심으로 한 월남작가들이었다.[331] 이후 전소영(2019)의 지적처럼 그는 언제나 자신이 월남작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의식하였으며,[332] 월남민으로서와 달리 월남작가로서는 확고한 문화적 주류의식을 지니게 되었다.[333]

물론 월남작가들은 법적인 지위 면에서나, 문학 인프라 면에서나 남한 출신 작가들에 비해 훨씬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일례로, 이호철이 등단한 『문학예술』부터가 아세아재단으로부터 종이 원조를 받기 전에는 정기 간행이 불가능했고, 결국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1957년 『사상계』와 통합할 수밖에 없었다.[334] 그러나 이호철은 이 사정도 『문학예술』의 편집진이 『사상계』로 합류하면서 월남작가 집단이 단일화되고 더 공고해진 한편, 그 결과 월남작가들의 매체인 『사상계』가 『현대문학』에 필적할 만한 범문단지로 부상하게 된 계기로 인식해 흥미롭다.[335] 이는 무적자로서 한국사회의 이방인과 비주류의 위치에 머무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호철에게도 소속과 공동체의 문제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330) 이호철, 「「오돌할멈」과 횡보」, 『문단골 사람들』, 81~85쪽.

331) 문학예술사를 창간한 오영진은 오윤선 장로의 아들이자 해방기 조선민주당 중앙위원 출신으로, 월남 후 문총 북한지부를 창립하고, 그 기관지로 『주간문학예술』과 전후 『문학예술』을 창간하는 등 남한에서 월남문화인들의 입지를 확보하고 개척하는 데 앞장섰던 존재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호철의 집안도 조선민주당과 관계된 정치적 추방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오영진의 문학예술사와 이호철의 인연은 단순하지 않다.

332) 전소영, 「월남작가의 문학 세계에 나타난 주체 형성 과정 연구: 최인훈과 이호철의 소설을 중심으로」, 2019,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54쪽.

333) 이호철, 「알맹이는 다 이북 가고(?)」, 『문단골 사람들』, 90~91쪽.

334) 원응서, 「『문학예술』」,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178~179쪽.

335) 이호철,「50년대 소설 회고」, 『산 울리는 소리』, 정우사, 1994, 40쪽.

난민은 과연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과연 이호철의 문학은 새롭게 의미부여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다. 물론 그 점이 쉽게 간취되지는 않는다. 등단작 「탈향」(문학예술, 1955.7)만 보더라도, 정호웅(1991)의 해석처럼 월남민 청년들의 화차살이로 대변되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단독자로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선언으로 읽히기 때문이다.[336] 그러나 이어지는 작품들이 「탈향」의 문제의식으로만 수렴되지 않으며, 오히려 탈향 선언을 계속해서 배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탈향」의 후일담에 해당하는 「무궤도 제2장」(문학예술, 1956.9)에서 서술자는 주인공에게 전작보다 훨씬 거리를 두고, 탈향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과장된 죄의식, 자포자기, 위악을 신랄하게 부각시킨다. 또 한 번의 탈향 선언이라 할 만한 결말에서 주인공은 "새로운 생활의(그것은 실로 예측할 수 없이 막연한 것이었으나) 발랄한 흔들림"(54)을 느끼며 집을 나선다고 서술되지만, 그것이 성급한 낙관으로 봉합된 결론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제시되는 만큼 그와 같은 서술은 실제로는 독자의 공감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

「나상(裸相)」(문학예술, 1957.6)의 서사는 더 극단적이다. 환도 후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어느새 충동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집을 장만하고 취직을 하고 계를 드는 등 그런대로 살림의 외관을 갖추며, 「무궤도 제2장」 식으로 말하자면 새 삶의 궤도에 순조롭게 오른 모습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그는 날이 갈수록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헛살고 있다는 느낌, "제 자리로 돌아가야겠다"(61)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실제로 소설의 결말은 몇 년 동안 그가 안착했다고 여겨왔던 삶의 궤도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가상이었는지를 섬뜩하게 보여준다.

그 점을 의식할 때 「탈향」에서 홀로 서기라는 해석 뒤로 물러난 공동체의 상실과 해체라는 사건을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 절에서 포로 체험을 언급하며 분석한 「나상(裸像)」에 등장하였던, 동생이 외면한 형의 죽음이라는 모티프가 「탈향」의 결말에서 제시되는 죽은 광석이와 하원이를 버리고 떠나는 나라는 모티프의 반복이라는 사실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 상실이 반복강박처럼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호철 문학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336) 정호웅, 「50년대 소설론」, 『문학사와 비평』1, 문학사와 비평학회, 1991, 55~56쪽.

필요성 시사한다. 그 점에서 우선 주목되는 작품이 「만조」[337]다. 「탈향」보다 이후에 쓰였지만 내용상으로는 「탈향」의 전사로, 이호철이 "내 작가생활은 「만조」에서 시작되었다"[338]고 언급한 작품임에도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만조」에서는 월남 이전 떠나온 세계에 해당하는, 전시 국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의 어느 마을 풍경이 제시된다. 민주선전실 간판이 도끼에 패이고, 리 사무소 간판이 내걸리고, 당으로부터 찍혀 겉돌거나 추방되었던 자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가 하면, 그동안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빨갱이들은 새돌집 창고에 갇히는 등의 격변과 희비가 엇갈리는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이렇듯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이 마을 사람들이 굳게 지키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 **우리 마을은 한 조상을 타고 내려온 한 집안끼리입니다.** 이렇게 이장은 첫 동민 전체회의가 있던 날 열기를 띄워 호소했다. 그 놈의 몹쓸 바람의 탓이지, 사람들이야 무슨 죄가 있읍니까. 잠시 동안 가두워 둘 뿐이지 한 사람이라도 희생이 되어선 안됩니다……문제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오랜 나날의 그 훌륭한 과거를 되살려 가며 화목 하게 살 수 잇겠느냐 하는 그것이지, 몇몇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쯤은 가장 사소한 차후 문제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소한 사감에 휩쓸려서 우리들의 바른 몸가짐을 허트려서는 안된다……마을 대다수 사람들이 특히 늙은이들이 감격을 하고 대찬성이었다. 혈기 왕성한 젊은 패 가운데 좀 불평이 있긴 했으나, 그들도 차츰 첫 흥분이 가라 앉아지며 이장 의견에 찬성하겠금 됐다. 국군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와도 빨갱이들을 가둔 새돌집 정미소 창고만은 가리켜 주지 않기로 말이 된 것이었다.[339]

빨갱이들을 가두고 보초를 서지만, 그것은 지난 삼 년 동안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에 진주한 국군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기 위함이며, 국군이 오더라도 절대 빨갱이들을 가둔 창고를 알려주지 말자는 약속을 주고받는 이들은, 자신들이 "한 조상을 타고 내려온 한 집안끼리"라는 인식 위에서 그 오랜 과거를 되살려내려 애쓴다. 이 같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된 국군으로 대변되는 국민국가의 통치 질서와는 정면

---

337) 처음에는 「만조기」(신문예, 1959.3)로 발표했다가 『나상』(사상계사, 1961.11)에 수록될 때 개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나상』 판본을 참고하였다.

338) 이호철, 「내 작품의 남자 주인공들」, 『(이호철의) 쓴소리』, 우리교육, 2004, 202~203쪽.

339) 이호철, 「만조」, 『나상』, 사상계사, 1961.11, 39쪽.

으로 배치되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려는 것처럼도 보인다.

비슷한 양상은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시민증에 쓰일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도 좀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나타난다. 북한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공민증이 발급되었으나, 유엔군과 국군이 이 지역을 점령함에 따라 이들은 이제 공민에서 시민이 되었고, 시민증이라는 신원증명장치를 새로 발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그런데 「만조」에서는 그와 같은 통치 질서의 교체라든지, 그에 따른 신원의 재편, 국민들의 신원을 분류하고 감시하는 국가권력 등에 대한 의식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마을 사람들에게 시민증을 발급 받기 위해 단체로 사진을 찍게 된 일은 대추나무 밑에서 남녀노소가 오랜만에 한 데 모이는 시끌벅적한 이벤트일 따름이다. 전시라는 사실조차 잠시 잊은 듯이 화려한 원색의 한복을 차려입고 나온 아낙네들, 키들거리는 웃음소리와 서로 흘긋거리는 시선들, 장차 창립할 마을 축구팀에 대한 구상으로 흥분한 젊은 패들, 노인들의 굼뜸, 여드름 난 사진사 청년의 어설픈 사진 실력과 구식 기계로 인한 지루한 기다림, 끝없는 수다와 웃음판이 이어진다.

> 「오늘 저 시민증 사진 찍는데 한사람두 빠지믄 안되오다. 이 사무소 대추나무 밑으로들 나오슈다.」
>
>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이러면 부엌 구석 같은 데선 키들키들거리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곤 했다. 일순간 광석이는 또 짜증을 부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가, 다음 순간엔 제 김에 스르르 웃어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340]

> 여덟 사람씩 짝을 지어야 했다. 짝을 짓는 것만도 퍽으나 오래 걸렸다. 늙은이는 늙은이끼리 아낙네들은 아낙네끼리 젊은 축들은 저희들끼리.
>
> 광석이는 또 야단스럽게 지껄여댔다.
>
> 「할마이예, 거, 머, 거렇게……에－이 할마이두, 거저 이렇게 가만히 보통때와 똑 같이－녜 녜, 맞았우다. 거 고렇게…가만—히…자, 자, 가만—히…어이쿠 됐우다.」
>
> 마을 아낙네들은 입을 가리고 웃었다. 노랑저고리를 입은 광석이 아내도 얼굴이 붉어지며, 그러나 역시 아낙네들 틈에서 키들키들 웃고 있었다.[341]

---

340) 이호철, 「만조」, 26쪽.
341) 이호철, 「만조」, 32~33쪽.

부역자의 가족이라고 시민증이 나오지 않아 배급을 받지 못하고 피난을 갈 수조차 없었던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속 남지영의 절규, 박완서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서사화되는 전향한 오빠를 벌레로 만들어 집어 삼킨 시민증에 대한 강박에서 드러나듯, 전쟁 중인 국가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그렇지 않는 자들, 곧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잔인하게 가른다. 그러나 이호철의 「만조」는, 막두기 총을 들고 창고에 갇힌 빨갱이들의 보초를 서던 소년 인걸과 두칠이 총을 버리고 창고로 들어가 어랑타령을 부르며 함께 어울리는 동화적인 장면에서 드러나듯, 국민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경계가 전통적인 친족 공동체와, 그에 기반을 둔 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재편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 좀 더 주목한다.

이 때 「만조」에서 제시되는 마을의 풍경이 국군의 점령과 함께 빨갱이들이 창고에 갇히고, 시민증 발급 절차나, 가축의 세납 같은 민사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데서 알 수 있듯, 무역사적이고 전(前) 정치적인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제 말기 제국의 말단 관료가 되었던 광석이 두찬에 대해 느껴왔던 묘한 부채의식, 해방기 패빼이집과 인환이네의 추방과 숙청 등 마을의 짧지 않은 굴곡진 전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만조」의 공동체는 이미 한국전쟁 이전부터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깊은 분열과 내상을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조」는 전쟁으로 대변되는 갈등과 적대의 시대 속에서 다시 한 번 근대 국민국가의 정치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한 조상의 자손이라는 전통적인 친족 공동체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편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밀물이 꽉 찬 만조의 이미지처럼 한껏 우호와 신뢰가 고조된 풍경들, 그것이 바로 이호철 문학의 출발점으로서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만조(기)'라는 제목이 시사하듯, 만조기에 이어 간조기가 오면 밀물이 빠진 뒤의 차가운 갯바닥을 뒹구는 자갈들처럼 사람들은 제각각 파편화될 터, 과연 전세가 급변하며 광석과 두찬이 황황히 LST를 타고 고향을 떠나 피난하는 것이 「만조」의 결말이다. 「탈향」은 바로 그 뒤로 이어지는 세계이다. 이호철 문학에서 월남은 그와 같은 근원적이고 윤리적인 공동체의 상실이자, 그 치명적인 훼손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로 죽어가는 광석을 어둡고 차가운 화차간에 홀로 방치해두고, 총에 맞아 죽은 형을 외면하고 행군해야 했던 「탈향」과 「나상」의 서사를 통해 드러나듯, 피난수도 부산과 포로수용소로 대변되는 생존전쟁의 현장에서 국가의 통치 질서와 정치

이념의 차이를 초월했던 친족 공동체의 유대와 윤리는 전혀 무력화되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간과해서는 안 되는 측면은 간조기가 지나면 다시 만조기가 온다는 사실이다. 「탈향」, 「나상」의 세계는 분명 간조기가 극에 달한 해수면의 최저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 황량한 세계에 만조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월남문학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공동체의 이산을 둘러싼 역설적인 테마와 결부지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살펴보면, 월남문학에는 실로 다양하면서도 서로 간에 무척이나 유사한 이산의 테마가 반복적으로 출현한다. 그런데 이 때 이산은 표면적인 헤어짐과 흩어짐으로만 해석되지 않는, 이면의 공통된 메시지를 수반해 주목된다.

그 좋은 예를 이호철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월남작가 김이석의 단편 「동면」(사상계, 1958.7~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후퇴 당시 평양에서 월남한 연극인들의 피난을 서사화한 이 소설은 예술인들의 피난살이이자, 대구가 배경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월남-갈등-죽음-이산'으로 이어지는 서사구조가 이호철의 「탈향」과 꼭 같다. 김윤식(1983; 1997)의 논의에서는 예술가들의 피난이라는 맥락에서만 주목되었지만,[342]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월남문학 특유의 이산의 테마를 경유한다면, 앞서 살핀 「탈향」이나 「만조」의 결말도 달리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뚜렷해지는 만큼 조금 길지만 충분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한다.

「동면」에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 주둔했을 때 조직된 극단이 등장한다. 이들은 북한 정권에서 일체 창작 활동을 하지 않았던 허성 영감을 단장으로 위촉해 유진 오닐의 희극 「지평선을 넘어」를 공연할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상연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후퇴 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극단 전원은 집단 월남하게 된다. 월남길에서도 이들은 서울에서 올릴 공연에 대한 기대감에 들떴고, 고향에도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서울의 사정은 급박했고,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다시 대구로 피난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대대수의 단원들은 제 살길을 찾아 흩어졌고, 겨우 여섯 명만 남게 된다. 이들은 다른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한 가장 무능한 축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언젠가 하게 될 연극을 위해

342)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1945~1980』(증보판), 일지사, 1983, 49쪽; 김윤식, 「문예지의 이념과 그 문학사적 의의」, 『발견으로서의 한국현대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420쪽.

모여 있는 것이라 자처하며 이들은 고된 피난살이를 견뎌나간다.

대구에서의 거처는 화장터의 굴뚝이 내다보이고, 새벽 5시면 인근 절간의 종소리가 잠을 깨우는,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불어 닥치는 외딴 변두리의 공장용 바라크 건물이다. 이곳에서 추위와 배고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괴로워하면서도 단원들은 "서로 서로 믿고 있는 우정과 비슷한 따뜻한 체온"에 의지하며 버텨나간다. 환자 병직을 위해 동산시장에서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부러진 사슴뿔을 구해왔던 일, 극단의 스타 격인 혜란에게 다방 일과 나이트클럽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 내기화투나 마 앞 다퉈 져주려 했던 일, 가난한 성훈과 혜란의 사랑을 지켜주려 애쓰고 응원하였던 일 등 이들은 함께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시간이자 견디기 위해서라도 함께 했어야 하는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생활의 문제는 끈질기게 이들을 옥죄여온다. 성훈은 미군부대에서 통역 일을 구하려 했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한다. 같은 월남민인 텁석부리 영감은 이들에게 왜 지게라도 질 생각을 않느냐며 타박한다. 이들 역시 피난지 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리 평양에서는 번역극을 공연할 정도의 지성인이고 예술가였더라도 체면 볼 것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동면」은 예술가들의 피난살이를 다루고 있지만 생활의 문제를 예술에 비해 결코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부두노동자들을 다룬 「탈향」에서 만큼이나 생활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이들은 "예술가란 자만심"보다는 목구멍의 빵, 불고기, 커피가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목숨을 잇고서야 문학도, 연극도 이어진다는 것을 모른 체하거나 은폐하려 들지 않는다. 「동면」은 오히려 겉으로만 고상하고 자유로운 예술가인 체 하는 단장 허성 영감이야말로 단원들의 막노동에 얹혀사는 군식구이자, 실은 뒤로 몰래 국밥을 사먹고 더러운 변소 바닥에 금비녀까지 숨겨 두고 있었던 가장 이기적인 인간으로 제시한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필수가 허성 영감의 금비녀를 훔쳐 달아나고, 필수를 찾지 못해 화가 난 허성 영감도 필수의 사진 기계를 들고 나가 돌아오지 않게 되며, 그 사이 아픈 병직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자유를 위해, 연극을 위해 월남하였지만, 비참한 피난생활 속에서 오히려 이들의 삶이 연극이 되어버렸다. 성훈과 혜란의 가슴 아픈 사랑, 허성 영감과 필수의 배신, 그리고 병직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화나 극에서만 보아왔을 뿐"인 장면들, 연극보다 더 연극 같은 삶이 피난지 대구에서 연출되었다. 그 속에서 이들은 어느새 배우이자 관객이기도 했다. 병직이 남긴 유서

에 쓰여 있던 말이 그가 「지평선을 넘어」에서 맡았던 배역 로버트의 마지막 대사였다는 사실이야말로 연극이 되어버린 이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극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는 결말로 끝난다. 미군부대의 화가가 된 경림의 권유로 성훈과 혜란은 안동의 피난학교로 떠나며, 현웅은 국악단의 조연출로, 길룡은 일선으로, 나는 처형의 제면소를 향해 제 갈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이석의 「동면」에서 제시되는 월남예술인들의 모습은 「탈향」에서 서로 갈등하고 죽고 뿔뿔이 흩어지는 월남민 청년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동면」의 월남예술가들이 그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꿈과 열망 자체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눈길을 끈다. 지금 당장은 생활의 문제가 예술을 압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들이 예술을 완전히 단념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로 싸우고 죽고 제각각 흩어졌지만 이들은 언젠가는 다시 모여 연극을 하겠다는, 요원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는다.

> 「우리가 헤어 졌다가두 다시 만나 연극을 하는 날이 있겠지, 나는 그 날이 있기를 바래.」[343]

> —저두 갈 차례가 돼서 간답니다. 저는 저 화장터의 굴뚝을 내다보며 그 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조금두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는 가벼운 몸이 되어 훨훨 아지랑이를 타고 방랑의 길을 떠날 수가 있으니까요. 산 저쪽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귀에 익은 목소리도 들리는군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첫 출발이지요. 즐겁고도 자유로운 여정의 첫출발이지요.** 기뻐해줘요. 즐거워해줘요……저를 위해서 정말……기뻐해줘요.[344]

이는 지금껏 함께 지내오던 바라크 앞을 서로 모르는 체 지나쳐버리며 저마다의 생활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동면」의 마지막 장면이 절망적인 분위기를 띠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히려 이 이산은 병직이 맡았던 연극 「지평선 넘어」의 로버트의 대사로 대변되듯, 마지막이 아닌 첫 출발, 언젠가는 다시 함께 할 연극과 떠나온 고향이라는, 지평선 너머의 세계를 향하는 "즐겁고도 자유로운 여정의 첫출발"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

343) 김이석, 「동면」, 『사상계』, 1958.8, 419쪽.
344) 김이석, 「동면」, 420, 401쪽(『사상계』의 조판 오류로 쪽수가 순서에 맞지 않음).

김이석은 월남예술가들이 피난지 대구에서 보낸 시간을 '동면'이라 이름 붙였다. 춥고 배고프고 힘든 겨울날이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꿈꾸고 있던 동면의 시간으로 재창조해낸 셈이다. 동면인 이상 봄은 올 것이고, 그와 같은 봄에의 약속과 굳은 믿음이 이들을 계속 꿈꾸게 만든다. 나아가 이들을 여정의 마지막이 아닌 출발점 위에 서있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즐겁고 자유로운 방랑자로 만든다.

헤어지지만 다시 만난다는, 불가항력적인 이산이지만 자유로운 여정의 첫 출발이기도 하다는 「동면」의 역설적인 이산의 테마는, 파편화되고 위태로운 난민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월남문학이 공유하는 이 특유의 역설적인 이산(디아스포라)과 공동체에 대한 상상은 구원의 땅에 대한 굳은 약속과 믿음으로 대변되는 바빌론 유수와 같은 기독교적인 메시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기독교도가 아닌 데다, 작가의 신분으로 월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명문이 말한 엄밀한 의미의 '월남문인'[345]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로부터 정주아(2016)가 이끌어낸 월남작가 특유의 "공통감각 내지 형제애"[346]의 강도가 덜 할지 모르는 이호철과 같은 신인 월남작가에게서조차 그와 같은 감각이 공유되고 재생산된다는 사실은 분명 흥미롭다.

이를 '월남문학의 상상의 공동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 이 논문은 이호철 문학이 한편으로는 이 월남문학의 상상의 공동체 개념에 젖줄을 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적자 난민의 상태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아감벤이 말한 "국민국가의 기초적인 범주들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하며, 또한 이를 통해 벌거벗은 생명이 국가 질서 내에서든 아니면 인권의 형태로든 더 이상 격리되고 예외화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범주"[347]로서 국민국가를 초월하는 난민의 공동체에 대한 급진적인 상상력을 키워나감으로써, 단순히 공동체의 상실과 해체의 체험이나, 국민국가로부터 배제되고 소속 박탈에 처한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만을 형상화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본다.

전소영(2020)은 「탈향」 이후 이호철 문학이 "타자를 환대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 "공감과 연대의 공간"[348]을 탐색하는 방향으

---

345) 양명문, 「월남문인」,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86쪽.
346) 정주아, 「난민의 언어적 조건과 '증인'의 시선: 월남작가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48, 상허학회, 2016, 41쪽.
347) 조르조 아감벤, 위의 책, 260쪽.

로 나아갔다고 보았다. 이호철 문학에서의 공동체에 주목한 전소영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이 논문은 그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앞서 살핀 「만조」, 그리고 이제 살피게 될 『소시민』을 훨씬 중요하게 의미부여하고자 한다.

『소시민』(세대, 1964.7~1965.8)[349]은 여러모로 「탈향」의 다시 쓰기로 접근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호철은 「탈향」을 위시한 소설들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피난수도 부산이라는 시공간과 그곳에서의 피난 체험들을 『소시민』에 이르러 다시 소환한다. 여러 변화가 감지되지만, 이 논문에서 관심을 두는 문제는 공동체의 상실과 해체 이상을 읽어내기 어려워 보였던 「탈향」으로부터 더 나아간 측면이다.

우선 표면적인 차이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탈향」에서 재현의 반경은 네 명의 월남민 청년 및 그들의 내면과 갈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서사의 배경은 마치 희곡처럼 최소한으로만 제시될 뿐이었다.[350] 대개의 사건은 화차 안팎의 한정된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또한 화차에서 살아가는 월남민 청년들 외에는 다른 존재들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이 부두노동을 하는 부둣가, 초량역, 부산진역, 부산역 일대는 온갖 피난민들로 북적였을 텐데, 소설에서 그들의 존재는 전혀 포착되고 있지 않다. 외부인으로는 "토백이 반원들"이나 광석이 화차로 초대한 반장이 두어 번 등장할 뿐이다. 외부인들을 언급할 때조차도 모든 관심과 시선은 월남민 청년들을 향하며, 외부를 향하는 시선은 차단되어 있다.

질금질금 내리는 늦 봄비가 며칠이 계속되어 남포동 선창가 일대는 엉망으

348) 전소영, 「타자와 환대, 이호철 소설의 한 원형」, 『현대소설연구』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479쪽.

349) 『소시민』 판본은 ①『세대』 연재본, ②연재 직후 동일한 내용으로 출판된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집』(신구문화사, 1965.11) 판본, ③『한국대표문학전집(이호철·박경리)』10(삼중당, 1970.11)에 실릴 때 개작된 판본(작품 말미에 '1970.3 補稿'라고 표기), ④개작된 판본을 단독 단행본으로 펴내며 작가가 결정본으로 칭한 『(개작·결정본)소시민』(강미문화사, 1979) 판본이 존재한다. 개작의 내용은 강진호(1997), 황태묵(2011)이 정리했는데, 두 논문 모두 구체적인 서지정보에 오류가 있다(강진호, 「이호철의 『소시민』 연구」, 『민족문학사연구』11, 민족문학사학회, 1997; 황태묵,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분단의식 변모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1). 이 글에서는 연재본을 그대로 따라 초판본으로서 가치가 있는 신구문화사(1965) 판본을 대상으로 삼았다.

350) 이호철이 피난 시절 「탈향」에 앞서 처음 썼던 습작이 희곡이었고, 처음으로 접촉하려 했던 기성 문인이 피난 온 극작가 유치진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흥미롭다. 이호철, 「윤영춘선생」, 『문단골 사람들』, 35~39쪽.

로 질퍽해져 있었다. 길 가생이의 가스불, 포장달구지에서 와글와글 피어오르는 연기, 똑딱선이 그득히 정박한 올망졸망한 바다를 향해 쭈그리고 앉은 사람들, 불결하게 짠 바람, 짤막한 먼 뱃고동소리, 기름이 진하게 깔린 바닷물이 뱃전에 철썩대는 소리, 거기 엇비치어지는 배의 등잔불빛…… 이 무렵의 부산 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 먹던 사람이건 이곳으로만 밀려 들면 어느새 소시민으로 타락해져 있게 마련이었는데, 더구나 아침 저녁으로 부두 노동자들이 들끓고 있는 남포동 근처는 서민의 피부를 짙게 느끼게 하였다.[351]

반면, 『소시민』에 이르면 작가의 시선은 훨씬 확장되고 밀도가 높아진다. 인용한 『소시민』의 첫 대목에서 드러나듯, 부산은 꽉 찬 질량감과 구체적인 감각 속에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육박한다. 작가는 그 속에서 완월동 제면소라는 무대를 거점 삼아 전쟁 전에도 상대적으로 내세울만한 직업이나 자본, 지식이 없었던, 즉 생활력과 배포 하나를 밑천 삼아 피난수도 부산으로 몰려든 다양한 탈향민들의 여정에 밀착한다.[352]

이곳에는 나, 고향 사람(개작본의 광석이 아저씨) 같은 월남민처럼 의지할 곳 없이 피난 온 축들도 있지만, 강영감 내외(경주), 주인 내외(경산), 정씨(경산), 김씨(삼천포), 신씨(진주), 곽씨(김해) 언국이(경산, 개작 후 양산) 등 전쟁이 직간접적인 계기가 되어 부산으로 왔으나, 언제든 마음만 먹는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남편 강영감에 대한 불만을 견디지 못해 전쟁이 터지자 딸을 데리고 경주에서 부산으로 도망 나온 매리 엄마를 떠올려보자. 부산에 당도한 그녀는 교회의 집사로 활동하는 한편, 자유시장에서 불법으로 반출된 군복과 밀수품을 취급하는 포목상을 차려 자기 힘으로 부를 일궜고, 두 번이나 남자를 바꿔 살림을 차렸다.

김씨는 또 어떠한가. 조실부모한 뒤 일찍부터 타향살이를 해온 그는 삼천포에 처자를 두고 부산으로 넘어와 두 집 살림을 차린 한편, 변화하는 정치 판도를 재빠르게 읽고 이승만 청년단의 체육부장으로 변신하였다. 김씨와 새 살림을 시작한 천안색시 역시 처음 남편과 함께 고향 천안을 떠났을 당시는 피난이었을지라도, 남편이 전사한 뒤 돌아간 고향에서는 다시 제 발

351) 이호철, 『소시민』, 신구문화사, 1965, 11쪽.

352) 김한식(2009)은 이를 '유민'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려 했다. 해당 개념이 작품 분석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지만, 『소시민』에서 피난수도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으로만 수렴되지 않는 존재들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적이다. 김한식, 「전쟁과 유민, 도시에서 살아남기: 이호철의 『소시민』 연구」, 『비평문학』34, 한국비평문학회, 2009.

로 도망쳐 부산의 바와 댄스홀을 나가게 된 것으로 제시된다.

「사흘 묵구 친정집으로 간다고 나와선 그냥 내빼 왔에유…생각하면 죽일 년이지.」[353]

이밖에도 병역 기피자인 김해 출신 곽씨, 지리산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상이군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부산으로 스며들어온 언국이, 역마살이 끼어 오래 전에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 나온 신씨, 아버지가 월북한 뒤 가출한 순천 출신의 꼬마식모 등 『소시민』의 등장인물들은 고향을 떠난 존재들이되, 전쟁의 참화를 피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전형적인 피난민들보다는 저마다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고향을 떠나 떠돌게 된 탈향민들에 더 가깝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작가의 관심은 그들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후일담을 보더라도 본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간 사람은 제면소의 주인 형 가족뿐, 대부분이 환도하는 정부를 따라 서울로 새로 이주하거나(김씨, 천안색시, 고향사람 등), 부산에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으로 제시된다.(주인 부부, 신씨)

한편, 이들에게 전쟁과 피난에 국한되지 않는, 역사적인 이동의 궤적과 내력이 부여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상과 유학생 출신으로 왕년의 좌익이자 해방기에 전향한 국민보도연맹원의 이력이 있는 강영감, 대동아전쟁 때 지원병으로 버마 전선까지 출정했던 신씨, 대구사범대 출신으로 규슈 지역으로 징용되었다가 해방기에는 남로당에 관여했던 정씨, 정씨의 수하에서 활동했던 조직 노동자 출신의 김씨, 이들을 돕다 지리산의 빨치산이 되어 공비소탕 작전 때 탈출한 언국이, 이북에서 대한청년단장을 맡았던 고향사람 등 이들은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들(천안색시, 고향사람, 곽씨, 주인 형)이면서, 이념 공동체로부터 흩어진 왕년의 이데올로그들(강영감, 정씨, 김씨, 언국이)이기도 하고, 여전히 일본 군국주의의 공동체의 환상에 고착되어 있는 이들(신씨)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소시민』은 틀에 박힌 난민이나 실향민의 재현 관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물론, 부산을 전형적인 피난지로서만 재현하는 서사적 관습에서도 빗겨나게 되었다. 『소시민』에서 탈향민이 부나방처럼 몰려든 전시의 피난수도 부산은 공통된 토대가 부재하는 무질서하고 파편화되고 혼종적인 시공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역동적인 곳이다. 그 속에서 작가는 뿌리

353) 이호철, 『소시민』, 166쪽.

뽑힘이라는 상흔보다는 전쟁이라는 난세를 기회 삼아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다지고 출세하려는 강한 욕망과 집념을 전면한다.

「하여간 두구 봐라, 어느 도(道) 놈이 이기나 해 보자. 알몸으로 나오긴 나왔다만서도 두고 보자.」[354]

'시장'과 '광장'은 그 정착과 출세의 욕망의 집결지이자 각축장이다. 전시 군수물자와 원조물자가 유입되는 블랙마켓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미국이다. 일선과 후방 부산으로 연결된 미국의 파이프를 통해 미국의 잉여 물자들은 이곳으로 흘러들어가서 미국 실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한편, 그 물자들을 둘러싸고 한 몫 잡으려는 뜨내기들의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진다.[355]

시장은 광장과도 통한다. 김학재(2009)가 지적했듯, 누가 원조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그럴 자격이 있는 충성스러운 국민을 가려내는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356]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이승만 정권의 부산정치파동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소시민』에서 부산의 광장은 일선에서 벌어지는 적과 아군의 싸움 대신, 후방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그들은 서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존재들임을 자처하며, 민주주의의 주체로 국민을 호명하고 동원한다. 이처럼 국민을 내세우는 이면에서 저마다의 이권과 욕망을 좇는 사람들의 관제 데모로 얼룩진 곳이 바로 부산의 오염된 광장이다.

이들을 조명하는 서술자의 태도는 시종 냉소적이다. 관찰자로서 나는 그들로부터 불결한 것을 느꼈다고 했다. 오히려 여기서 더 비중 있게 제시되는 것은 그들을 멀찍이서 구경하며 침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국수를 더 잘 팔리게 해주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농담에서 드러나듯, 이들은 데모대의 살벌함을 구경거리 이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정치 데모나 선거전에서의 호명을 자신들의 삶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외방 바람, 이역으로 인식하고 냉소를 보낸다.

조동일(1965), 정호웅(1993)이 『소시민』을 '몰락과 상승'의 이분법이라는

354) 이호철, 『소시민』, 180쪽.
355) 『소시민』의 시장에 주목한 논의로 강진호, 「이호철 '소시민' 연구」, 『민족문학사연구』11, 민족문학사학회, 1997, 142쪽.
356) 김학재,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구원'의 신화: 북한점령시기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창설과정과 성격」, 『사림』33, 수선사학회, 2009, 4쪽.

관점에서 접근한 이래,[357] 선행연구에서는 이 소설을 두고 주로 무엇이 어떻게 부산을 중심으로 변화하였는지, 사회적 변동, 계층의 재편, 멘탈리티의 변화 등의 시원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되었다.[358] 중요한 지적이지만, 이 관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소시민』에서 그 못지않은 비중으로 기입된, 변화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들, 즉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어져나가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삶의 양태를 향한 관심은 잘 포착될 수 없다.

박진영(2014)은 『소시민』이 재현하는 삶의 모습을 "전통적인 삶의 방식(구식)이 무너진 자리에 신식의 외양만이 추구되는 부조화의 양상, 전통과의 단절"[359]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여기서 관찰자로서의 나는 완월동 제면소를 거점 삼아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들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것, 전통적인 삶의 여러 양태를 줄곧 주시한다. 일례로, 정씨 집이나 주인 형의 집에서 내가 느꼈던 질박하고 조촐한 조선 가정의 분위기를 들 수 있다.

> 방안에서는 웬 퀴퀴한 냄새가 났다. 우르르 웃방으로 쫓겨 올라간 아이들이 문을 배시시 열고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퀴퀴한 냄새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질박한 가정이라는 것을 비로소 일깨워 주는 그런 종류였다. 완월동 집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조촐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였다.[360]

> 집안 전체에는 무엇인가 서글픈 듯한 그러나 육중한 안정감이 감돌고 있었다. 완월동 작은집 같은 되바라진 기색도 없고, 어느 시골 집을 고냥고대로 부산 거리에 옮겨다 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어떤 국면에 접어들어도 그 완강하게 때묻은 일정한 표정을 잃지 않을 농촌의 서민 집을 풍겨주었다.[361]

나는 완월동 집의 천하고 되바라진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는 정씨 집이나,

---

357) 조동일, 「사회적인 변동과 소시민의 생리: 『소시민』」, 『이호철집(현대한국문학전집8)』, 신구문화사, 1965.11; 정호웅, 「탈향, 그 출발의 소설사적 의미: 이호철의 『소시민』론」, 『문학사와 비평』2, 문학사와 비평학회, 1993.

358) 대표적으로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7-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김영찬, 「속물의 고고학: 이호철의 『소시민』 연구」, 『현대소설연구』78, 현대소설학회, 2020 외 다수.

359) 박진영, 「전쟁의 유산: 이념의 해체와 그 애도로서의 소시민화: 이호철의 『소시민』(1964)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5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91쪽.

360) 이호철, 『소시민』, 87쪽.

361) 이호철, 『소시민』, 232쪽.

주인 형 집의 전통적인 분위기라든지, 어수선한 피난살이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생활의 질서와 무게감을 예민하게 감지하며, 그와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신씨와 같은 단순한 방문객마저도—어떻게 본래의 안정감과 기질을 단박에 회복하게 되는지를 주시한다. 비슷하게 천안색시와 그 남편이 완월동 제면소의 어수선한 뒷방에서 해후할 때에도, 그들이 처해있는 현재의 기묘한 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 가정이 과거 유지하였던 육중하고 실팍한 윤곽을 체감한다. 이는 고향과 가족을 떠난 월남민 청년의 예민한 장소적 감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공동체의 삶의 지속성에 대한 관심으로도 읽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시 살펴볼만한 대목이 고향 사람의 전시 결혼식 장면이다. 피난살이의 와중에, 심지어 고향에 처자식도 있으면서 총각 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을 하는 고향 사람은 자신도 낯이 안 서는지 말로는 "휘딱휘딱 치르고 봐야지", "까짓 번드르르하게 벌여 놓을 까닭이 있니, 이런 난세판에" "대강 치르기로 했다"(230), "그냥 사람만 데려다 사는 거지"(231)와 같이 아무렇게나 내뱉으면서도, 실제로는 "구식 격식"(230)을 전연 무시하지는 못한다. 그 결과 피난수도 부산의 자유시장의 한 가운데서는 때 아닌 "어느 시골 읍거리의 결혼식 풍경"이 펼쳐진다.

> 결혼식치고는 참으로 기묘한 결혼식이었다. 점포 앞에 회색 차일이 쳐져 있었다. 행인은 어리둥절하게 서서 구경을 하기도 하고, 행인들 가운데서도 넉살이 좋은 사람은 국수 한 그릇씩을 배당받아 먹고 있었다. 술이 취한 거지떼들이 이구석 저구석에 몰려 서서 혹은 몰려 앉아서 지껄이고들 있었다. 부산 자유 시장이 아니라 어느 시골 읍거리의 결혼식 풍경 흡사하였다.
>
> (중략)
>
>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정작 식은 완전한 구식으로 진행되었다.** 식의 외곽은 브라스밴드와 카아키복이 중심이 된 신식으로 꾸며지고 **실속은 완전한 구식이었다.**[362]

군인들, 시장의 장사꾼들, 거지 떼에 조무래기들까지 몰려들어 국수를 말아먹는 "온통 잡탕" 하객에, 우스꽝스럽게도 브라스 군악대원들이 요란스러운 행진곡을 울려대고, 당사자인 사기꾼 신랑은 단신 월남해 벼락출세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오르고 감격에 겨워 금시 눈물을 흘릴 것

362) 이호철, 『소시민』, 235~236쪽.

같"은(236) 표정으로 진행되는 이 결혼식은, 물론 누가 보기에도 근본 없고 부박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잘 들여다보면 "실속은 완전한 구식"으로, "원래 충청도 양반집"의 내력을 잊지 않은 채 치러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아무리 전쟁 통에 친지들 없이 단출하게 치르는 결혼식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사람만 데려다 사는 식으로 쉽게 무시해버릴 수 없는, 끈질긴 전통의 간섭과 지속, 즉 전통적인 공동체적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거에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 쪽이 뚜렷이 드러난다.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소시민』의 곳곳에 인상적으로 기입되어있는 공동체의 전통적인 의례들을 중요하게 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결혼식은 물론 완월동 제면소에 머물게 된 이래 내가 연달아 겪었던, 제사, 초상, 굿 등이 그것으로, 이는 여러 삽화들이 느슨하게 엮어져나가는 『소시민』의 서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반복되는 요소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제사 장면이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임경순(2007)은 소설 속에서 제사가 과거의 시간이 소환되는 시공간이자, 존재감 없이 몰락하는 이데올로그들(강영감, 정씨, 주인 형 등)의 회한과 정념이 펼쳐지는 공간이라고 보았으며,[363] 안용희(2013)는 그와 달리 미래 쪽에 더 초점을 맞추어 제사가 한 시대를 정리하고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절차인 동시에, 새 시대를 맞이하고 긍정할 수 있게끔 하여 신구질서가 교체하고 화합하는 순간이라는 점에 착안해 그로부터 새로운 세대(구체적으로는 정씨 아들)의 가능성을 읽어내려 했다.[364]

이 논문은 앞서 고향 사람의 결혼식에서 드러나듯, 제사뿐만 아니라 『소시민』 속의 다양한 의례들이 전통적인 친족 공동체의 유대와 윤리가 훼손되고 파편화된 시대 속에서도 완전히 상실되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음에 대한 확인이라고 본다. 나아가 『소시민』에 재현된 공동체의 의례는, 「만조」를 통해 제시되었던 국민국가의 정치 공동체로 환원되지 않는 친족 공동체로부터도 그 규모나 성격 면에서 한층 더 확장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훨씬 중요하게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면소의 기식가로 누구에게나 무시당하고 군식구 취급을 받던 강영감이 죽은 뒤 초상을 치르는 장면을 살펴보자. 여기서 제면소의 일꾼들은 강영감

363) 임경순, 「폐쇄된 시간과 정신성으로서의 이념: 이호철의 『소시민』론」, 『겨레어문학』39, 겨레어문학회, 2007, 322쪽.
364) 안용희, 「이호철의 『소시민』에서 '제사 모티프'의 의미」, 『관악어문연구』38, 2013, 256쪽.

의 영정 사진을 꾸미고 다 함께 삼베 두건을 쓴 채 곡을 하고, 전시 임에도 정식으로 삼일장을 치른다. 잠시 동안이나마 같이 일하며 피난살이를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고향의 먼 친척이라는 주인집 식구들 외에도, 정씨를 비롯한 여러 일꾼들이 본가를 대신해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고 기려주는 것이다.

필사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다 징집된 곽씨의 전사통지서가 날아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같이 있을 때는 모두 그를 얄미워하고 얕잡아 보았지만, "체모와 도릴 도리대로 지켜야"(190) 한다며 이들은 약식으로나마 곽씨가 유일하게 남긴 유물인 사물함을 백지로 싸고 촛불을 켠 채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곡을 하며 뒤늦게 그의 초상을 치러준다. 제각각 굴러들어온 임시적인 파편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웬 오손도손하게 가족적인 따뜻한 것"(194)이 감도는 장면을 서술자는 인상적으로 기입해두고 있다.

굿판의 경우는 더 흥미롭다. 애초에는 주인아줌마의 고질적인 권태와 위장병을 달래려고 벌였던 것이지만, 죽은 강영감의 넋과, 천안색시의 남편의 넋이 전사통지서보다 먼저 도착한 것으로 말해지면서, 이 굿판은 처음의 목적을 벗어나 이들의 설움을 달래주는 의례가 된다. 꽹과리가 울고, 무녀가 복숭아 나뭇가지를 흔들며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전장에서 죽은 나도 불쌍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혼자 살아갈 너도 불쌍하다며 주워섬기는 넋두리를 들으며, 굿판의 구경꾼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눈물을 줄줄 흘린다. 피난지에서의 굿판을 통해 전쟁 통에 고향을 떠나 외롭게 떠돌고 고통 받고 스러져 간 존재들을 기리는 애도 공동체가 조성되는 것이다. 서술자는 이 공감과 눈물이야말로 후방 부산에서 유일하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터전과 밀착한 것이며 진면목을 드러내주는 것으로서 중요하게 의미부여 한다.

> 일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나도 어느새 스스로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두 볼을 흘러 내리고 있었다. 여기 이렇게 모여 서 있는 근처의 아낙네들을 참으로 우리 서민들의 진면목이라고 한다면, 전쟁은 너무나도 우리와는 관계 없는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셈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갔다. 밤마다 타오르는 부산의 사치나 밤마다 타오르는 일선의 소모나 우리네 서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외곽지대의 일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서럽게 밀려 왔다.[365]

365) 이호철, 『소시민』, 68쪽.

물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제각각의 우스꽝스러운 곡소리, 무녀의 꼭 들어맞는다고는 볼 수 없는 과잉되고 연극적인 넋두리에서 드러나듯, 그 의례는 순수한 슬픔과 공감, 연민으로만 일관하지 않는다. 죽어간 이들보다 자기네들 인생의 간난을 더 슬퍼하고, 반대로 제면소 주인 내외처럼 죽은 자들과 달리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자신들의 현재를 과시하는 태도조차 그 속에 섞여있다. 감정을 실컷 배출하고 난 뒤,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노름판을 벌이는 모습은 짐승스럽게 그려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소설 속에서의 의례 자체의 의미가 퇴색했다거나 변질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본래 전통적인 제의와 굿은 진지하고 엄숙하고 통일된 것만은 아니며, 현세기복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만조」에서 살펴보았듯, 전통적인 친족 공동체라고 해서 결코 일사분란하게 하나로 합일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훨씬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제각각의 욕망들이 충돌하고 뒤얽히는 다원성과 유연성 가운데서 강성현(2004)이 "비국민이자 난민"[366]이라고 보았던 국민보도연맹원 출신인 강영감이나, 병역 기피자 곽씨 등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영감의 초상은 그가 보도연맹원 출신으로 자살한 자라는 내력을 상기했을 때 훨씬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2장에서 살핀 국민보도연맹원 출신 염상섭이 전시에 느꼈던 공포와 불안에 비추어본다면, 『소시민』에서 강영감의 죽음은 실상 사회적인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작가는 "부산이라는 곳은 그를 송두리째 삼켜 버렸는지도"(13) 모른다고 했다. 전시 보도연맹원들을 대상으로 만연했던 예비검속과 집단적인 학살 사건을 상기한다면, 보도연맹에 소속된 이래 계속 자살을 시도해왔던 전향자 강영감이 『적화삼삭구인집』 같은 반공주의 서적의 출판과 선전 행사 등이 연일 벌어졌던 사상전의 전방 부산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소시민』이 전면화하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제의에서는 그처럼 국민국가의 경계 바깥을 위태롭고 불온하게 배회하던 강영감이나, 비겁하게 병역을 기피하다 끌려 나가 전사한 곽씨의 전혀 명예롭지 못한 죽음도, 정치 이념의 차이와 연고, 핏줄에 연연하지 않은 채 외롭게 객사하게 두지 않는다. 「탈향」에서 한 동네 출신이자 먼 친척인 광석의 죽음과 「나상」에서 친형의 죽음을 외면하던 장면과는 정반대이다.

『소시민』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강영감을 위해 모두가 전시의 피난지에

366) 강성현, 「전향에서 감시, 동원, 그리고 학살로: 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중심으로」, 『역사연구』14, 역사학연구소, 2004, 141쪽.

서도 생업을 쉬고 삼일장의 “한가한 의식”을 치르는 가운데 그를 추모한다. 오히려 그 사이 다른 제면소에 몰래 나가 일당을 버는 김씨가 매우 비도덕적인 인물로 제시된다. 『소시민』 속의 등장인물들은 강영감이 한 사람으로서의 동등한 사회적 지분이 있는 존재였음을 뒤늦게나마 인정해주며, 그 결과 강영감은 사후에야 비로소 인간적인 존엄과 자기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강영감은 죽어서 비로소 제법 인간다운 요란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28) 도처에서 이름 없는 대량의 죽음이 발생하는 전쟁의 와중, 그리고 정치이념의 다름만으로 동족살해가 자행되는 전쟁의 한 가운데서 치러지는 『소시민』 속 유장한 장례 의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만하다.

앞서 「만조」의 마을사람들이 “한 조상을 타고 내려온 한 집안”끼리라는 인식 가운데 국군으로부터 빨갱이들을 보호해주고 은닉하려 했다면, 『소시민』은 「만조」의 친족 공동체에 견주어보았을 때 훨씬 성글고 파편화된 온갖 탈향민과 난민의 혼종적인 잡거를 전면화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국가는 물론 한 집안이라는 친족의 계보를 넘어서까지 그와 같은 유대와 우호, 애도를 확장 시킬 수 있는 훨씬 유연하고 확장된 난민의 공동체의 가능성을,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지속하는 것처럼 보였던 빛바랜 전통적인 공동체의 의례 행위를 통해 시사하고 있어 흥미롭다.

권헌익(2020)은 냉전기 한국에서 친족의 영역은 국가가 봉쇄와 억제 정책을 행사하는 주된 대상으로서 정치적 개입과 통제의 중요한 표적이 되어왔으면서도, 현대 정치권력이 아무리 집요하게 통제하려 해도 그 지배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장소였다고 보았다.[367] 국가가 정치적 공동체의 건설로 동원하고자 했던 일상적인 친족 공동체들은 국가권력이 강제하는 절대적인 정치적 결합력과 동질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훨씬 다원적이고 포괄적이었으며,[368] 그에 바탕을 둔 고유하고 자율적인 윤리야말로 국가의 배제의 정치학과 대립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369] 권헌익은 이를 퇴니에스의 개념을 빌려 ‘불온한 공동체(bad Gemeinschaft)’라고 표현하였다.[370]

이 ‘불온한 공동체’ 개념은 「만조」에 잘 들어맞으며, 『소시민』의 경우에는 그 불온성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시사해준다. 특히 제목에서

367) 권헌익, 『전쟁과 가족』, 정소영 역, 창비, 2020, 117, 126쪽.
368) 권헌익, 위의 책, 99쪽.
369) 권헌익 위의 책, 101쪽.
370) 권헌익, 위의 책, 25쪽.

드러나듯, '소시민'은 일견 국민과 시민의 영역에 미달하고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편화된 존재들, 높은 수준의 정치 영역과 거리가 멀고 생존에만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바우만이 말한, 상상의 공동체가 넘쳐 나는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를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인 난민[371]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호철은 『소시민』에 이르러 바로 그들을 현대 정치사회이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정치적 삶의 영역으로 소환한다.[372] 그 자신이 남한사회에서 누구보다 고립되고 취약했던 한 명의 무적자 난민이었으면서도 근대 국민국가의 정치 공동체는 물론 혈연에 기반한 좁은 의미의 친족 공동체마저 넘어서는 불온한 공동체를 상상하고 회복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1960년대의 전후 서울로까지 이어진다.

4.3. 경제개발총력전시대 이주민의 정착의 꿈과 복수의 장소들

『소시민』의 뒤를 이어 연재된 『서울은 만원이다』(동아일보, 1966.2.8~11.26)[373]는 서사의 무대를 박정희 정권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일단락 되어가던 동시대 서울로 훌쩍 이동시킨다. "증산, 수출, 건설의 총력전"[374]을 내세우며, 한일회담 추진과 반대 데모, 김현옥 서울시장의 전후 근대화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던 이 시대에 이르

371) 지그문트 바우만, 위의 책, 78쪽.

372)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징집영장을 받은 내가 훈련소로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결말을 방민호(2015)처럼 국민의 성원권을 얻는 길, 즉 월남민이라는 이방인의 처지에서 벗어나 국가에 호명되는 주체로서의 지분을 획득하기 위한 길(185)로 해석하는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결말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둘러싼 나의 속사정이나, 징집영장을 받고 집합 장소로 향한 내가 이후 진짜 입대했는지의 행방은 불분명하게 제시되는 만큼 단정하기 어렵다. 『소시민』의 나와 무척이나 닮은 실제의 이호철이 피난지에서 징집영장을 받은 뒤 서울로 도망쳤던 사실을 떠올려 봐도 좋겠다.

373) 『서울은 만원이다』는 연재 직후 동일한 내용으로 출판된 『서울은 만원이다』(문우출판사, 1966) 판본과, 『한국문학전집46: 이호철 선집』(삼성출판사, 1972?선일문화사, 1976)에 실릴 때 개작된 판본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인용 시 연재본을 그대로 따라 초판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우출판사(1966) 판본을 대상으로 삼았다.

374) 「돌격내각 두돌맞이」, 『매일경제』, 1966.5.11.

러 사람들은 이제 피난이 아닌, '상경'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이동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정옥(2003)이 칭한 바 "경제개발총력전시대"[375]를 맞아 바야흐로 또 한 번의 대이동과 난민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전쟁기 피난의 후사로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야 상경의 문제에 대해 시론적으로 다룰 뿐이지만, 한국적 유형의 난민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때 상경은 중요한 문제이다. 김승옥 소설에 빈번하게 재현되는 지방출신 상경민 청년들이 처하게 되는 도시에서의 열악한 의식주 조건과, 삶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불안하게 떠도는 현실을 '도시 난민'으로 분석한 김은하(2017)의 논의가 확인시켜주듯, 이들은 동시대의 삶만 두고 보더라도 난민과 다를 바 없다.[376]

여기에 더해 해방기 월남민이자, 전시에는 부산 피난민이었던 『서울은 만원이다』의 남동표의 전사가 보여주듯, 상경민 가운데 다수는 이전부터 난민 상황을 지속해왔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377] 즉,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개발 정책의 부산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해온 거시적인 이동의 흐름과도 잇닿은 존재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를 위시한 상경 서사들을 한편으로는 해방공간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동의 끝자락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1960년대부터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이동의 서장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호철 문학은 상경의 문제를 단기적인 시각에서 취급하지 않음은 물론, 시골에서 서울로의 일 방향으로만 접근한 다른 상경 서사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넓은 시야를 보여줘 주목된다. 단적으

375) 이정옥은 총력전을 방불케 하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정책 속에서 주체로 호명되고 동원되는 국민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개념으로 '경제개발총력전시대'를 사용하였으며, 이 시기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동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관심 속에서 손창섭의 『부부』와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를 분석하는 데 적용하였다. 이정옥, 「경제개발총력전시대 장편소설의 섹슈얼리티 구성 방식」, 『아시아여성연구』4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3.

376) 김은하, 「이동하는 모더니티와 난민의 감각: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지방 출신 대학생의 도시 입사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6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313쪽.

377) 앞서 김은하(2017)가 주목했던 김승옥만 보더라도, 주지하다시피 오사카 출생으로 해방을 맞아 순천으로 귀환하였고, 여순사건 당시 부친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으며, 한국전쟁 때는 피난하였다가 서울대학교 입학과 함께 상경했던 오랜 난민의 삶의 이력이 있다.

로 『서울은 만원이다』에는 상경민뿐만 아니라 월남민, 서울토박이들 역시 그 못지않은 비중으로 다루어진다. 이호철 자신이 한 명의 난민으로서 긴 이동의 궤적을 그려온 만큼 그의 시선에서는 서울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그렇지 않건, 이주민이건 토박이건 이 격동의 시대로부터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민호(2018)는 그 점에 착안해 이 소설을 단순한 상경 서사로서가 아니라, 월남민, 상경민, 토박이가 뒤얽히며 서울이라는 도시의 전통적인 공간 구조, 계층, 집단 구조가 재편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읽어내기도 했다.[378]

이 때 그와 같은 서울의 변화가 낳은 산물이자, 그 변화를 이끌어낸 주체이기도 한 이동하는 존재들을 작가가 어떻게 포착하고 있는지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해 『서울은 만원이다』가 상경이라는 이동을 역사적, 사회적 산물로서 접근하면서도, 이동하는 주체들을 외부의 힘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내밀린 존재로 환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미부여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호철은 신중하고 독창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이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 중요하게 읽어내고자 하는 바다.

> 서울 사람도 못살겠다는 판인데 더 못사는 시골사람들은 떼를 지어 서울로만 몰려든다. **하긴 나라 돈의 70프로인가가 서울에 잠겨 있으니 먹다 남은 찌꺼기를 얻어걸리더라도 서울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시골 가장들은 식솔을 떠메고 올라올 배짱은 없어 시골생활에 참다못한 딸자식들, 제대하여 이맛 저맛을 알아버린 장성한 아들녀석들만이 괴나리봇짐을 들고, 혹은 헙스레한 자크 달린 백을 들고 혈혈단신 올라온다. 여기에 월남 20년에 통일만 기다리면서 뜨내기로 지낸 실향민까지 겹쳐 서울 뒷골목은 버글버글 끓는다. (중략) **「수출」「증산」「건설」의 구호도 마땅한 일자리 하나 없는 이들의 피부를 스쳐갈 뿐 전혀 이역(異域)에 가라앉아 저저끔 외떨어진 일상만을 붙안고 있다.**[379]

---

378) 방민호, 「월남민과 상경민과 토착민의 뒤얽힘: 『서울은 만원이다』는 무엇을 그렸나」, 방민호 외,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소설 속 1950~60년대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8, 135~162쪽 참조. 당시 서울의 물질적, 지리적, 공간적 변화가 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반영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또 다른 논의로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8.

379) 이호철, 「작가의 말: 이호철 작 『서울은 만원이다』 이일영 화」, 『동아일보』, 1966.1.26.

우선, 이들의 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의 문제로부터 논의를 풀어나가 보자. 「작가의 말」에서 드러나듯, 서울의 이른바 '무작정 상경민'은 전후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 도시화가 낳은 부산물이다. 쉽게 말해 근대화 정책에서 소외된 시골로부터 근대화의 수혜와 부가 집중된 도시로 몰려든 존재가 그들이다. 소설 속에서 5.16 혁명 직후인 1961년경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상경한 것으로 제시되는 길녀, 기상현, 미경의 고향은 각각 통영, 이리, 마산으로, 이들의 고향은 모두 농업, 어업 등과 같은 1차 산업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제시된다. 전쟁 때 큰 오빠가 죽고, 뒤이어 군에서 둘째 오빠마저 죽게 되며, 완전히 주저앉은 길녀의 집안이 보여주듯, 농촌은 1960년대 중반까지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학교에서 문학소녀 소리도 듣고, 꿈과 재주가 많았던 길녀였지만, 졸업 후 통영에는 일자리가 없을 뿐더러, 결혼할 만한 경제력이 있는 남성도 없으니 당장 집에 쌀이 떨어져도 가족들이 다 같이 눈물을 짜는 방법 말고는 별 도리가 없다.

박정희 정권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제2항은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가소득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인데, 이 항목은 실제로는 완전히 실패에 그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의 귀농 정책이다. 귀농 정책은 농촌 인구의 도시 이탈을 막고 농촌경제를 재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었던 한편, 김아람(2017)의 연구가 확인시켜주듯, 전후 월남민이나 피난민과 같은 난민에 대한 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380] 조금 과장해 말하자면, 당시의 귀농 정책은 무작정 상경의 정반대인 '무작정 귀농' 수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은 만원이다』에서도 혁명 직후 상경한 기상현이 처음 서울에서 본 풍경이 다름 아닌 귀농민 환송대회의 열기였는데, 서술자는 그 결과를 기상현이 하숙 든 금호동 월남민촌의 옆집 노인의 사연을 통해 들려준다. 지나치듯 제시되는 이 노인의 에피소드를 들여다보면, 그는 북한에서 제법 잘 살다가 전쟁 통에 부랴사랴 월남 피난하였고, 전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귀농했으나, 결과적으로 서울에 지니고 있던 집 한 채만 몽땅 날리고 그 사달에 가족마저 모두 해체된 것을 알 수 있다. "가난 통에 여편네가 실성하고

380) 김아람, 「한국의 난민 발생과 농촌 정착사업(1945~1960년대)」,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7.

귀농 바람에 두 딸이 도망"간 뒤 홀로 서울로 돌아와 이제는 완전히 백치가 되어버린 이 기구한 사연의 노인은, 『소시민』 속 강영감의 후신이라고 할 만한, 이른바 경제개발총력전 시대가 낳은 난민의 초상이다.

"가도가도 시굴이야 죽어라 죽어라지"[381]

상황이 이렇다보니 더더욱 대다수의 농촌 인구는 기를 쓰고 상경하려 들지만, 와봤자 크게 다를 것도 없다. 서울에 도착한 농촌 출신들이 흘러가는 곳이란 "깎아 지른 듯한 빌딩 후면"(5)을 바라보는 뒷골목, 도심 속에서도 시골 항구나 읍 거리를 연상시키는 지저분하고 낙후된 슬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상경민들을 "도시와 시골의 이분법을 서울 안에 재생산"한 "서울 내부에 있는 또 다른 외부"[382]라고 본 구재진(2013)의 지적은 정확하다.

이들을 계층적으로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권영민(1994)이 지적하였듯, "사회학적 계층 개념으로 규정하기 힘든 사회적 부동 세력"[383]인 이들은 "기울어진 지배 계급"(139)이라고 보기에도 거창하고, "고등 실업자"(11)라고 보기에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졌던 적이 없다. 길녀는 여학교를 졸업한 뒤, 기상현은 갓 제대한 후 상경하였으며, 남동표는 17살에 서울로 월남한 이래 줄곧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생활하였다. 기술도 학식도 인맥도 없는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방인의 이동성을 잘 대변하는 직업, 기실 들여다보면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못하고, 고정된 임금과 노동시간이 있지도 않은 직업—매춘부, 브로커, 외판원, 사기꾼, 밀무역, 날품팔이, 식모, 사주쟁이 등—이다.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도시 생활을 한지 어언 반 십 년으로, 시골사람도 아니고 도시인도 아닌 상태다. 서울에서는 주변으로만 겉돌지만, 고향에 가서도 이곳은 이미 자신들이 속한 곳이 아니라고 느낀다. 막연하게나마 서울에 자리를 잡고 싶어 하면서도, 서로 간에 만나면 늘 인사처럼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고향에선 편지 있드나?"(17) "고향에다가는 편지나 하능가?"(49)인 데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여전히 시시콜콜한 사연의 편지들과 간헐적으로 보내는 약간의 돈줄 따위로 시골과 연결되어 있다.

---

381)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79쪽

382) 구재진,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연구: 저개발의 하위계층과 동정」, 『외국문학연구』5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3, 36쪽.

383) 권영민, 「닫힘과 열림의 변증법」, 『서울은 만원이다, 보고드리옵니다(한국문학대표작선집18)』, 문학사상사, 1994, 470쪽.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혁명이나, 한일협정, 경제개발정책, 도시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 코앞의 이익에 정신이 팔려 불온한 인쇄물을 운반하다 감옥에 가고, 정체도 모른 채 도주 중인 좌익 운동가랑 일 년씩 동거를 하는가 하면,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때려잡는 기관원을 손님으로 맞이하기도 한다.

요컨대, 이들은 계층적, 공간적, 정치적으로 이러저러한 규정과 정체화로부터 미끄러지고 끼어있는 존재들이다. 또한 이들은 해방, 분단,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의 경제개발총력전시대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탄생한 현대 한국의 유동층이면서, 방민호(2017)가 지적했듯, 1960년대 한국사회가 불가피하게 산출한 경제적, 법적, 가족제도의 잉여들이기도 하다.[384] 파편화되고 끊임없이 유동하는 위치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위태로운지, 자신을 이와 같은 삶의 조건으로 내몬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어려울뿐더러, 그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고, 변혁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치적으로 각성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 있다.

게다가 이들이 살아가는 현재는 공동의 재난 상황이자, 맞서 싸워야 할 뚜렷한 적이 있었던 지난 전쟁의 시대와는 다르다. 이제는 다 함께 잘 살아보고 총력을 기울이자는 개발시대, 근대 국가로 도약하는 성장의 시대이다. 점점 더 화려하고 풍요로워지고 거대화되고, 고층화되는 이 도시 속에서 거대자본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이들에게 그 실체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로부터 “몇 겹 몇 십 겹”(23)의 층으로 떨어진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은커녕 착취당하는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눈에 보이는 서로가 적이 되어 물고 뜯을 수밖에 없다. 최영자(2011)가 추적했듯, 이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을 둘러싼 돈이 가치를 증식하지 않고, 계속 인물들 사이를 이동하고 소비되기만 한다는 사실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385]

> 이리하여 돈을 향하여 총동원된 삼백칠십만은 예외없이 저저끔 서로 적이 된다. 네가 벌면 내가 못 벌고, 내가 벌면 네가 못 벌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라는 법은 없다. 돈을 가운데 두고 서로 멱살을 잡듯이 사생결단으로 대어든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 아니라, 네가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산다는 식이다.[386]

---

384) 방민호, 『서울문학기행』, arte, 2017, 320~322쪽.
385) 최영자,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를 통해 본 ‘돈’의 행방 찾기와 의미」, 『어문논집』46, 중앙어문학회, 2011, 368~370쪽.
386)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22쪽.

이처럼 당장 앞으로의 살 걱정, 시골에 보내줄 돈 걱정에만 정신을 쏟느라 거시적인 구조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며, 서울에 뿌리내리고 스위트홈을 일구겠다는 일신상의 안위, 세속적이고 현실안주적인 정착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주인공들은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에 맞서는 투쟁과 변혁의 주체와는 거리가 먼 소시민으로 비춰질 따름이다.

그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는 소설 속 길녀로 대변되는 등장인물들을 크게 두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하나는 1960년대 "자본주의 근대화의 희생물"[387] 내지 "근대화의 낙오자"[388]라고 보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로 정착의 욕망만 있을 뿐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성찰적 자의식은 없는 존재들로서, 즉 "스스로를 완전히 소멸 시키고 권력의 언어를 이해하고 순응"한 채 "자기보존을 위한 체제보존, 근대화의 물결에 몸을 싣는 존재"[389]로 해석하거나, 더 나아가 이 작품 자체가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의 성공에 대한 기대"[390]로 작품이 마무리되며, "서울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도시 개발을 통해 장차 서울이 좀 더 살만한 곳이 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의 전조"[391]가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와 달리 이 소설을 이전 시대의 난민 상황을 이어 받는 등장인물들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끼인 위치, 그리고 그 속에서도 시도되는 정착에 대한 장소적 실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읽을 수 있다고 본다. 먼저, 끼인 위치의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다. 앞서 이들의 끼인 위치가 자신들의 상황을 각성하기 어렵고 연대를 차단하도록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국가의 근대화 기획, 수단화로 쉽게 회수되지 않는 전략적인 사이성의 위치로 재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감정들을 훨씬 긍정적으로 재접근해볼 수 있다.

우선 이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구재진(2013)의 논의로부터 시작해보자. 그는 이 소설에서 경제개발기의 생존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 고통

387) 조명기, 「『서울은 만원이다』 연구」, 『문창어문논집』37, 문창어문학회, 2000, 402쪽.
388) 이정옥, 앞의 글, 257쪽.
389) 강애경, 「1960년대, 근대화를 경유하는 변곡점: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102~107쪽, 106쪽.
390) 구재진, 앞의 글, 44쪽
391) 김문정,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서울의 변화와 서울 사람의 탄생」,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7, 60쪽.

받는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동정, 연민이라는 감정이 “서로의 악행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마비시켜서 부도덕한 행위를 용인하게 만들고, 자기가 한 행위에 책임을 지는 윤리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나아가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일반화하며, 이것이 이 소설이 도달하는 집단적인 ‘우리 의식’의 기반이라고 보았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명확한 계급적 기반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 의식을 기초로 막연하게 상상된 것이므로 “미달”된, “주관적인 동시에 수동적”인 의식이라고 비판한다.[392]

하지만 이 소설에서 동정이 과연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감정인가 따져볼 만하다. 구재진뿐만 아니라 ‘정’은 선행연구에서 여러 번 주목했던 감정이다. 강애경(2011)은 이 소설에 제시되는 인정이 “60년대 서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탈각시켜야만 하는 정서”이며, 실제 그들은 “전근대적 가치관으로부터 영영 이별을 고한 것”[393]이라고 보았으며, 이동근(2015) 역시 “이들에게도 인정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물질적 가치”에의 추구가 더 두드러진다고 보았다.[394]

> 「치사한 것이 정이니라. 정만 들었다 카면 이 서울바닥에선 계집 신세 조오지는 날이다. 정신 바아짝 차려야재. 크은일 나지, 크은일 나」[395]

물론 소설 속 1960년대의 서울에는 피부비뇨기과 의사들이나, 서민금융의 미스터 박처럼 돈과 상사의 인정 앞에선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든 능히 할 수 있는 악독스러운 축들도 있지만, 작가의 시선은 분명 그렇지 않은 쪽, 여전히 정에 얽매어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이 머물고 있다. 매춘을 하는 익명의 상대방 남동표에게 이름을 묻고, 인간 대 인간으로의 교류를 기대하는 길녀, 남자들에게 정 주지 말라고 짐짓 선배처럼 큰소리치지만 늘 상대에게 먼저 정이 들어버려 골탕 먹는 미경이 대표적이다. 길녀에게 일편단심인 기상현, 명색이 사기꾼이면서 얼굴이 두껍지 못해 치밀한 고등사기꾼은 되지 못하는 물러빠진 남동표, 고지식한 책임의식을 지닌 법학도 등 그들이 보여주는 과잉된 눈물, 뜬금없고 과도한 감정들, 지루할 정도로 시시

392) 구재진, 앞의 글, 38~41쪽.
393) 강애경, 앞의 글, 92, 106쪽.
394) 이동근,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에 나타난 근대화와 작가의식 연구」, 『동서인문학』49,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몇쪽.
395)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12쪽.

콜콜하게 이어지는 편지들은 『서울은 만원이다』의 뚜렷한 특징이면서 동시에 「나상」과 『소시민』 이래 지속하는 이호철 소설 전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이른바 '정'이라는 정동은 현실의 조건과 부조리, 모순을 은폐시킴으로써 이들을 순응시키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대화 경제개발 시대에서 이들이 기계화, 사물화, 수단화되는 것을 막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길녀이다. 길녀는 성노동자의 클리셰를 벗어나는 인물로서 퇴폐적이거나 허영에 달뜬 여성이 아님은 물론, 무력한 피해자로서만 제시되지도 않는다. 이호철은 양쪽의 전형에 모두 거리를 두고 길녀를 형상화한다. 길녀는 피부비뇨기 의사들과 같은 축 앞에서는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순응을 하는 표정을 위장"(262)하지만, 속으로는 이들을 가장 모멸하고 무시한다.[396]

개발주의 시대의 국가는 공창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욕망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여성의 성을 도구화, 대상화한다. 그리고 상품처럼 이들의 위생을 관리하며 세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서울은 만원이다』에서는 그와 같은 국가적, 도시적인 신체로, 근대적인 기계로 규율화 되고 매끄럽게 전환되지 않는 몸에 더 관심을 보인다. 매춘 여성의 규정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길녀는 성을 판매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며, 남성을 구매자로만 대하지도 않는다. "뒤 끝이 너무도 깨끗하고 장사속처럼 야박"(12)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버니 나쁘달 수는 없지만 "허망한 생각"이 앞서는 것이다. 길녀가 보여주는 그와 같은 동정, 연민, 눈물은 구재진이 말한 것처럼 서로의 악행을 가리고, 윤리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 윤리의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윤리적이고 인간적이고자 하는 의지로 읽힌다.

> 심지어는 안국동에서 잠시 같이 산 일이 있던 그 늙은 꼰데 생각이 나서 또 울고, 은행 간부의 딸 자식을 낳아주고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하루하루 히히덕거리기만 하다가 종로로 흘러가서도 여전히 히히덕거리기만 하는 미경이가 불쌍해져서 울고, 그 다음은 여수 있는 오빠 생각 나서 울고, 돈 팔만원 도둑 맞은 기 상현이가 불상해서, 어린 때 고향 떠나서 혼자 고생해 오는 남 동표가 불쌍해서 울었다.

---

396) 이와 관련해 곽홍연(2017)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고 추구하려는 길녀의 의지는 정신성의 타락의 위기 속에서도 진정성을 추구하려는 인간들에 대한 희망이 된다고 보았다. 곽홍연, 「이호철 소설의 공간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7, 69~72쪽.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울 때는 세상 슬픔을 온통 혼자 도맡을 수 있을 만큼 아량이 넓어지고 이해성도 많아진다.[397]

그렇다고 이정옥(2003)처럼 길녀를 "무구한 인간성과 본원적인 순결성의 상징적인 인물"[398]이라고 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한 논리에서 이정옥은 길녀를 무구한 희생물이자, 개발논리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신체로 지극히 무력하고 수동적으로만 바라본다. 늙은 월남민과의 선 자리에 염치없이 동생까지 달고 나가 불고기를 한껏 얻어먹고 오는가 하면, 피부 비뇨기과 의사들의 거금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훔쳐버리는 길녀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사회적인 계급과 계층의식에 기초하지 않고 동정과 연민 등의 정동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과 상상은 "일시적이고 우연적이고 불확정적"[399]일지언정 수동적인 피해자 의식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버틀러에 의하면 슬픔은 자율성을 지닌 자아라는 환상에 도전하고 '나'라는 주체를 우리 모두로 만들어준다.[400] 인간은 자신의 상처를 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상처를 상상함으로써 타인과 소통할 수 있으며, 쫓겨난 자들의 몸이 드러내는 고통은 우리 몸의 물리적인 취약성과 함께 그 취약성에 대한 책임감을 상기시킨다.[401]

그로부터 비롯되는 공동체 의식은 파편화, 개별화되어가는 도시의 삶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무산계급이나 노동자처럼 명확한 계층적 의식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다.[402] 그러나 바로 그러한 파편화되고 유동하는 이주자, 난민의 조건 속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상상한다는 것이 길녀가 지닌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동체 의식은 타자를 배제하고 축출하여 파시즘화하는 우리와는 거리가 멀며, 타자를 가해자로만 조명하는 피해자 의식과도 거리가 멀다.

길녀를 비롯한 이들의 끼인 위치의 신체는 근대/전근대, 지배/피지배의

397)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151쪽.
398) 이정옥, 위의 글, 254쪽.
399) 구재진, 위의 글, 42쪽.
400)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양효실 역, 경성대출판부, 2008, 37쪽.
401) 양창아, 『한나 아렌트, 쫓겨난 자들의 정치』, 이학사, 2019, 376쪽.
402) 황석영의 부랑 노무자를 다룬 「객지」(1971)에 대한 유승환(2016)의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그와 같은 상황 속의 이주자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가는 1970년대 문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유승환, 「황석영 문학의 언어와 양식」,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6, 113~137쪽.

이항대립을 넘어서거나 미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주도 근대화의 수단성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고, 그것들과 거리를 두고 전근대적인 가치들을 지속하고 체현할 수 있다. 호미 바바를 참조하자면, 사이성은 직접적인 저항과 투쟁은 아니지만, 끼인 '위치'이자 틈새로서, 권력의 시선과 담론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전략적인 유동과 미끄러짐으로 재고될 수 있다.[403] 소설의 결말에서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길녀의 모습은 결코 순응하거나 뿌리 뽑히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으로 제시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측면은 이호철 소설에서 나타나는 정착에의 꿈과 지향을 상투적인 현실 안주나 현실 순응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정착에의 의지, '서울 드림'("서울도 알고 보면 개판이지만 어떻든 죽든 살든 서울서 비벼보고 싶다." 315)은 일견 무비판적으로도 비춰지지만, 이를 곧바로 신분상승, 입신출세, 비윤리적인 생존의식, 현실안주로 치환할 수는 없다. 현실의 부조리, 모순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또한 한일회담 같은 국제정치를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살아남겠다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세태에 편승하는 악한은 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의식이 있다. 또한 아래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들의 태도는 피부비뇨기과 의사들과 같은 월남민 엘리트들이 정착을 우습게 여기고, 되는대로 임시적으로 돈을 벌고 사려는 태도와도 구분된다.

> 「이왕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마찬가지인 바에야 요즘 한국 세상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인 바에야, 골치 썩을 일도 없고 혼자 사는 게 좋지」
>
> 이북에서 도망 나온 경험이 있어선가 이렇게 임시로라도 안정을 한다는 것을 타기하고 그건 것을 비웃고는 하였다.[404]

김학균(2013)은 남동표가 하숙집을 전전하고, 길녀와 살림을 거부하는 모습을 근대적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거부로 보고, 길녀가 기상현과 살림을 차리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것을 여성을 사적 공간에 가두는 근대적

---

403) 김학균도 호미 바바의 사이성 개념을 통해 길녀가 서울과 시골 중간에 끼어있음을 설명하지만, 말 그대로 끼어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적할 뿐이지 이 '사이', 혹은 '끼어있음'이라는 위치의 차이가 어떻게 전략적 지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김학균, 「『서울은 만원이다』에 나타난 도시의 '서발턴'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41, 한국현대문학회, 2013, 353쪽.

404)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261쪽,

가족 제도의 거부로 보는 등 여러 각도에서 이 소설의 사회비판적인 성격, 저항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려 했다.[405]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부각하려 한 점은 중요하지만, 이들이 서사 내에서 계속 가족을 꾸리거나 정착하려 했다는 점을 쉽게 간과해서도 안 된다.

그들이 거쳐 가는 허다한 방과 복수의 장소들은 정착을 향한 실천의 의미를 지닌다. "머니머니 캐도 서울선 방 하나만 얻으면 사능 기다."(6)라는 미경의 말처럼 사람들은 방 하나를 잡으면 그런대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들은 잡지에서 오려낸 배우 사진과 그림들을 벽에 붙이고 커튼을 달고 가재도구들을 장만하고 간소한 살림살이를 갖춘다. 밖에서 돌아오면, 발을 씻고 양말을 빨고 라디오를 듣고 상을 차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고향 생각에 젖어들기도 한다. 물론 대대로 묵어온 다옥동 서울토박이들에게 이들의 삶은 하찮은 날림으로 보이겠지만, 따지고 보면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토박이 법학도의 집이 얼마나 쉽게 뿌리 뽑히는지, 충청도 출신의 복실 엄마가 그 틈으로 얼마나 실속 있고 약삭빠르게 자리 잡는지에서도 잘 드러나듯 말이다.

그렇다고 정착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주자들 역시 계속해서 정착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이들의 서울살이는 고되고 불안하지만, 마냥 위태롭게만 제시되지 않는다. 기상현의 소박한 스위트홈에 대한 낭만, 허랑한 남동표라도 의지하고 살림을 차리고 싶어 하는 길녀 등 이들은 서울에서 제대로 잘 살아볼 날을 끈질기게 욕망한다.

권영민의 지적처럼 "뿌리뽑힌 자들이 결코 뿌리내리지 못하는 모순의 상황만이 노정"되어 필연적으로 "허무주의"를 그린다거나,[406] 오생근의 지적처럼 "뿌리내리지 못하는 '부평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의 절실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다분히 그러한 생활을 현상 유지하듯이 즐기는 것처럼" 그려지며 그 기저에는 "하층민들의 삶이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체념적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는 방식은 둘 다 재고될 필요가 있다.[407] 이들이 허무주의에만 잠식되는 것이 아니듯, 부평초의 생활을 유희하듯 즐기며 영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소설에서 정착에 대한 희망, 언젠가는 정착하게 되리라는 삶의 중대한 과제를 쉽게 생각하거나 의문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

405) 김학균, 앞의 글, 356~357쪽.
406) 권영민, 앞의 글, 471쪽
407) 오생근, 『현실의 논리와 비평』, 문학과지성사, 1994, 42쪽.

삶은 유동하고 불안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도 않는다. 이들이 안정감 있게 정착하는 날은 물론 요원할 것이다. 마지막에서 사라지는 길녀의 모습은 이들의 정착의 과제가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그 이동이 무의미하거나 허무주의적이지는 않으며, 이동하는 삶 속에서 이들이 무력하고 수동적인 파편처럼 뒹굴기만 했던 것도 아니다. 일례로, 미경 같은 여성도 결국 종삼으로 흘러들어가 허망하게 죽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존재감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경이 남긴 삼만 원이 차곡차곡 모인 예금통장, 그리고 미경이 생모인줄조차 모른다지만 필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경이 낳은 아이 또한 그가 이 땅에 내린 가느다란 뿌리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정착의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작가의 시선이 오로지 비판적, 비관적, 냉소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작가는 이들이 거쳐 가는 허다한 방들, 그 주변의 풍경들과 저마다의 삶의 모습들을 도식적, 상투적으로 재단하거나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따라가며 묘사한다. 처음과 끝만 보면 이들은 불안하게 떠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동의 과정에서 이들이 거쳐 가는 복수의 장소들, 그곳에서 만나는 인연들, 맺는 관계들은 중요하다.

신현준(2013)은 이주자들을 본국과 거주지의 이항대립을 통해서만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는 다부지 현장 연구(multisited field work)의 관점을 중요하게 소개한 바 있다. 이는 이동하는 주체들이 여러 부지들(sites)에 체류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즉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는 하나의 장소만이 아니라 여러 부지들이 개입한다는 데 착안해 이동하는 주체들이 거쳐 가는 다양한 부지들에 주목하는 연구 방법이다.[408] 유선영(2013)이 말한 복수적 장소성의 지점들(multiple locale of place-ness)도 같은 맥락에 있다.[409] 바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서울은 만원이다』에서 인물들이 거쳐 가는 여러 하숙방과 거리들을 정착의 노력과 정체성에 개입하는 복수의 장소들로 의미화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한 번도 주의 깊게 다루어지지 않은 작은 소품 「먼지 속 서정」으로 이 장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서울 시내 곳

408) 신현준, 『귀환 혹은 순환』, 성공회대학교 편, 그린비, 2013, 44~45쪽.
409) 유선영, 「식민지민 디아스포라의 불가능한 장소성」, 『사회와역사』98, 한국사회사학회, 2013, 199쪽.

곳을 쏘다니는 버스들, 그리고 그 버스에 위태롭게 매달려 밥벌이를 하는 차장 광석이와 순발이의 이야기이다.[410] 광석이는 어떻게 태어난 지도 모르는 고아이고, 순발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죽고 계모와 이복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차장이 되었다. 이들은 피난지 부산에서 위태로운 화차살이를 했던 「탈향」 속 월남민 청년들—실제 인물의 이름도 「탈향」과 같이 광석이다—과도 닮아있다.

소설은 정신없이 승객을 안내하던 차장이 광석이와 순발이가 타지 않은 것도 모르고 버스가 출발한 것에서 시작한다. 갑자기 찾아온 "어쩐지 호젓하고 쓸쓸한 기분"(162)에 광석이는 기분 좀 내겠다며 순발이를 끌고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 중국집 이층에 방을 잡고 환한 불빛 아래 상을 마주하고 보니 매일 보는 사이인데도 서로가 달리 보이고 쑥스러운 기분이 든다. 어색해진 분위기 가운데 대뜸 광석이는 장차 안마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느니, 순발이와 결혼을 하고 싶다느니 하는 속 얘기를 꺼내고, 순발이도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쩌다 버스차장이 됐는지 등 집안 이야기를 하게 된다.

> 「난 말이야, 하루 중에서 젤 좋은 때가 어떤 땐 줄 아니? 종점에 닿아서 잠시 한가할 때 있지 않니? 바께쯔에다 물을 떠다가 뻐스 바닥을 축이구 창문을 닦구 할 대 있지 않니? 그런 때가 젤 좋아 얘, 그런 때 넌 늘 창문 밖에 머리를 내밀구 노랠 하잖니? <사랑해선 안될 사람을> 어쩌구 할 때 말이다. 그런 때……정말 내가 이상한 소설 다 하는 구나」[411]

순발이는 하루 중 제일 좋은 때로 다음 운행을 준비하는 버스 바닥과 창문을 닦는 순간, 종일 이들을 따라다니는 온갖 잡음, 속도, 사람들, 밥벌이의 괴로움이 잠깐 멈추고 노래를 부르고 잠시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그 순간을 꼽는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조금 있으면 다시 도시의 소음 속으로 들어갈 버스조차도 순간적으로 장소가 될 수 있다. 마치 소란스러운 도시 한 귀퉁이 뭇사람들이 거쳐 간 낡은 중국집의 이층 방이, 맨발로 나란히 앉아 엉뚱스럽게도 내밀한 속 이야기를 꺼내고 같이 울어주고 미래에 대한 공상에 잠기며 감미로운 서정에 젖는 장소가 되는 것처럼. 그러다 갑자기 내리는 거

410) 처음에 발표될 땐 「중간동물」(사상계, 1959.12)이었다가 『나상』(사상계사, 1961)에 수록될 때 개제.
411) 「먼지속 서정」, 『나상』, 사상계사, 1961, 171쪽.

센 빗소리를 들으며 둘은 퍼뜩 버스를 놓쳤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둘 다 쫄딱 젖은 채로 버스 종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소설의 결말이다. 순간적으로 중국집에서의 시간들은 사라지며, 그 장소 또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소설은 서울의 고아로서, 차장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안일하게 낭만화하거나, 동화적으로 얼버무리지 않는다. 이 소설은 삶의 위태로움과 무게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삶 가운데 잠깐씩 꿈꾸는 정착의 꿈을 쉽게 흩어져버리게 놔두지 않으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단정 짓거나, 부주의하게 치부하지도 않는다. 이 소설은 그들이 매달린 정신없는 버스조차도, 시끄러운 서울의 길거리조차도, 어느 낡아빠진 중국집조차도 순간적으로 장소가 된다는 것에 대해 말한다.

월남민으로서 이호철의 삶도 결국 「먼지 속 서정」의 광석이나 순발이, 『서울은 만원이다』의 남동표, 기상현, 길녀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호철은 한국사회의 월남민들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 결과적으로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1957년 얻은 위조국적을 1990년대에 들어서야 제대로 정정할 수 있었지만, 법적, 제도적인 차원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난민으로서 존재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호철의 삶과 문학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난민의 위태로움과 불안정함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의 삶과 문학에는 결혼 전 이호철이 거쳐 간 27개의 하숙방들, 결혼하고 불광동에 이르기까지의 장소들, 그리고 월남작가 집단, 그를 이루고 있던 모든 인간관계들과 공동체가 녹아있다. 난민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희미하게 지속되었던 정착의 꿈, 복수의 장소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미 이렇게 돌아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방이 바로 고향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아암,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하구말구. 돌아가야 하구말구”[412] 생각하는 그 양쪽의 사이에서 계속 엮여 나갔던 이호철의 문학이야말로 우리에게 난민의 꿈과 난민의 장소, 난민의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412) 이호철, 「탈각」, 『사상계』, 1959.2

5. 결론

이 논문은 한국전쟁 기간의 피난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의 작가들이 처해있던 난민 상황과 난민의식의 특성을 구명하고, 그와 교섭하는 과정 및 그로부터 초월하려 시도했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문학적 실천이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양상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이라는 두 번의 전쟁과 탈식민 신생 국민국가 만들기 과정을 거치며 한반도 안팎에서 발생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난민 상황을 국제법상의 난민의 정의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맥락에서 구분되는 '한국적 유형의 난민'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전쟁 기간의 피난 과정에서 출현한 난민에 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때 중점을 두었던 측면은 '누가' 난민인가에 관한 문제보다 난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역사에서 주변화된 존재들을 포착하고, 그들의 문학적 재현 및 활동을 재평가하도록 이끌며, 궁극적으로 한국문학사를 근대적인 국민국가와 문학 만들기가 아닌 다른 서사로 기술하게 해주는가의 문제였다. 또한 그들을 박해받고 추방당한 존재로서만 접근하기보다 전쟁의 폭력, 체제의 억압, 이념 갈등을 넘어 그동안 암흑기로 말해져 왔던 전시와 전후에 문학의 가치, 자율성, 자유와 평화에 대한 지향을 추구하고 수호해나간 전위적인 주체로 재발견하는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이 논문은 선행연구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먼저, '뿌리 뽑힘'이라는 범박한 개념으로 포괄되어왔던 난민 체험들을 미시적으로 재구하고, 그로부터 형성된 난민의식을 '낙인찍힌 자로서의 난민의식,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의식'이라는 정교한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뿌리에서 경로로 논점을 전환하였다. 난민을 양산한 구조의 강제와 폭력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행위자의 수행성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낙인찍힌 자로서의 난민의식을 살피는 한편, '난민의 낙인'의 현현과 그것을 은폐하려는 커버링의 전략이 경합하는 장으로 텍스트를 접근하였다. 둘째,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을 살피는 한편, 장소를 되찾고, 창출하고, 또는 탈주하려 시도했던 장소적 실천의 장으로 텍스트를 접근하였다. 셋째,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의식을 살피는 한편, 벌거벗은

생명을 탄생시킨 국민국가와는 다른 정치 공동체를 모색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장으로 텍스트를 접근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시기를 전시나 전쟁 직후에 한정하지 않고, 1960년대 중반 무렵까지 확장시켰다. 물론 논의의 핵심에는 한국전쟁기 피난 체험이 자리하지만, 그에 따른 난민의식을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지속적인 현상으로 접근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삶과 의식, 문학에 끼친 심층적인 영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구체적으로 선정한 연구 대상은 염상섭, 박경리, 이호철이다. 이들은 전쟁 난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난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무엇보다 난민의식과 특별한 교섭 양상을 보여주는 문학적 실천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언급한 세 가지 난민의식은 대개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이들이 처한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그 교집합의 배합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2장에서는 전쟁 이전부터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낙인과 함께 사회적 입지가 제한되었던 염상섭이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피난하지 않은 이른바 '반역문화인'으로 또 한 번 낙인찍히며 군문에 자원하게 된 사정에 주목하였다. 그의 해군 장교로의 극적인 변신을 난민의 낙인을 은폐하고 국민의 징표를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으로 접근하면서, 이 논문은 그 이면에서 지속되는－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이후 만주에서 귀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어져온－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염상섭의 난민의식을 부각하였다. 국가를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되면서까지 국민이라는 경계 안으로 소속되려 애쓴 노력과, 그럼에도 여전히 호명되지 않는 잉여가 공존하는 염상섭의 모순적인 상태를 이 논문은 '(비)국민 되기'로 표현해보았다.

그 같은 상황에서 창작된 염상섭 문학은 국민과 난민을 양산하는 냉전의 경계선이 무화되는, 즉 아군/적군, 국민/비국민, 반공/빨갱이 등과 같은 경계짓기가 불명확해지는 '냉전의 회색지대'로서 일상이라는 친밀성의 영역을 전면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논문은 염상섭이 친밀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쟁'의 양상을 재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냉전이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시금 이 영역을 제시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나아가 친밀성이라는 기제가 반공주의의 '적'이라든지, 인도주의적 구원 신화의 '우리' 같은 이데올로기의 호명으로부터 개인들을 이탈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탐색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전후 염상섭 문학을 그의 해방기 문학에서부터 이어져온 탈냉전의 상상력의 지속으로 의미부

여 하였다.

3장에서는 '전쟁부역자 미망인'으로서 박경리가 처해있던 이중의 난민 상황에 주목하였다. 국가보안법과 연좌제가 상존해온 반공 사회, 그리고 '정상가족' 바깥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 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는 전쟁부역자의 유가족이라는 국가의 외부, 그리고 미망인이자 재혼과 이혼의 이력이 있는 여성이라는 가족 제도의 외부로 봉쇄되었다. 염상섭 문학이 전쟁으로부터 개인들을 수호해주는 요새로서 발견했던 친밀성의 영역조차 박경리에게는 또 하나의 봉쇄에 지나지 않았다. 국경 안에서도,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내부의 외부로 봉쇄되는 난민 여성의 존재를 박경리의 사례는 일깨워준다. 그로부터 기인한 낙인찍힌 자로서의 박경리의 난민의식과 현실을 이 논문은 '이중봉쇄된 난민 여성'이라는 말로 표현해보았다.

그 같은 상황에서 창작된 박경리 문학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양쪽에서 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다양한 난민 상황을 재현하면서도, 다시 그 여성이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양상을 사랑의 서사를 통해 제시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박경리 문학 특유의 이 사랑의 문법을 이 논문은 '사랑의 수행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비슷하게 박경리는 겉으로는 위태롭고 수동적으로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난민 여성의 이동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지적 표류'로 전환하고자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피난, 월남, 밀항과 같은 여성의 난민 상황을 초래하는 불가항력적인 이동은 페미니즘 문학에서의 유구한 '탈가'의 계보를 잇는 방식으로 거듭난다. 이 논문은 이를 여성의 '난민 되기'라는 해방과 탈주의 의미를 부여 받는 수행으로 접근해보았다. 그럼으로써 가장 봉쇄되고 고립된 자였지만,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표류하는 가장 전위적인 문제의식을 박경리의 문학으로부터 이끌어냈다.

4장에서는 월남민이자, '북한군 포로' 출신이라는 낙인을 숨겨야 했던 이호철의 난민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 때 낙인찍힌 자로서 못지않게 전시에는 포로 적에 등록되지 못했던 포로, 전후에는 위조국적을 지닌 월남민이라는 '무적자'로서 남한사회에서 이호철이 처해있던 특수한 상황을 부각하였다. 즉, 일반적인 월남작가들과 달리 이호철은 단지 월남의 결과 난민이 된 것만이 아니라, 월남 이전인 포로 시절부터 적 없는 난민의 처지에 있었고, 그것이 월남 이후로도 지속되고 심화되었던 측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하게 된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에 대해 논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어떤 의미 있는 장소도 갖지 못한 무적자 난민의 삶을 살아갔던 이호철은,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가장

다원적이고 급진적인 공동체의 상상력과 장소 만들기의 실천을 전개해나가 흥미롭다. 이 점은 정착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탈주하고 표류하려는 지향성을 보여주었던 박경리 문학과 대조를 이룬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은 이호철 문학의 특성이 한편으로는 월남작가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월남문학의 상상의 공동체' 개념에 근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적자 난민의 상태에 있었기에 꿈꿀 수 있었던 국민국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친족 공동체마저 초월하는 '난민의 공동체'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불온한 공동체' 개념을 빌려 설명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공동체의 상상력이 '경제개발총력전시대'로 말해지는 전후 서울의 상경 이주민들에게까지 관철되는 양상 및 이들의 정착의 꿈,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복수의 장소들을 소중하게 의미부여하려 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은 난민의식 못지않게 전시와 전후에 문학의 가치, 자율성, 자유와 평화에 대한 지향이 어떤 방식으로 추구되고 수호되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자 했다. 그와 같은 문학적 사유를 재조명하고, 현재화하는 작업이야말로 휴전 체제와 분단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는 오늘날 전후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작가들을 그와 같은 창조적인 행위자로 재발견하고, 가장 위태로운 난민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가장 전위적인 문제의식을 탐구해나간 존재였으며, 전후 한국문학이야말로 풍요로운 예술의 장이었음을 말하였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경향신문』, 『국제신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부산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산신문』.

『문예』, 『문화세계』, 『문학과예술』, 『사상계』, 『사조』, 『삼천리』, 『새벽』, 『세대』, 『신동아』, 『신생공론』, 『신천지』, 『실천문학』, 『예술원보』, 『전선문학』, 『주간국제』, 『한국평론』, 『해군』, 『현대공론』, 『현대문학』, 『협동』, 『희망』.

강신재, 『사랑의 아픔과 진실』(수필집), 육민사, 1966.
강은교 외, 『나: 처음으로 털어놓은 문제작가 10인의 자전소설』, 청람문화사, 1978.
강진호 편,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99.
김광주, 『지구의 비극: 부산으로 가는 길』, 수도문화사, 1951.
김수영, 이영준 편, 『김수영 전집1, 2(결정판)』, 민음사, 2018.
박경리, 『박경리 장편소설』, 마로니에북스, 2013.
_____, 『원주통신』, 지식산업사, 1985.
_____, 『박경리문학전집』, 지식산업사, 1980.
_____, 『Q씨에게』, 현암사, 1966.
_____, 『기다리는 불안』, 현암사, 1966.
_____, 『파시』, 현암사, 1965.
_____, 『시장과 전장』, 현암사, 1964.
_____, 『표류도』, 현대문학사, 1959.
백 철, 『속 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6.
손소희, 『한국문단인간사』, 행림출판사, 1980.
염상섭, 『취우, 새울림, 지평선』, 글누림, 2018.
_____, 한기형, 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3, 소명출판, 2014.
_____, 『삼팔선』, 금룡도서, 1948.
이호철, 『우리네 문단골 이야기』1, 2, 자유문고, 2018.

_____, 『(이호철의) 쓴소리』, 우리교육, 2004.
_____, 『남녘사람 북녁사람』, 민음사, 2002.
_____, 『문단골 사람들』, 프리미엄북스, 1997.
_____, 『서울은 만원이다, 보고드리옵니다』, 문학사상사, 1994.
_____, 『산 울리는 소리』, 정우사, 1994.
이호철 외, 『33인의 자서전: 오늘의 한국문학 33인선 별권』, 양우당, 1987.
이호철, 『작가수첩』, 진문출판사, 1977.
_____, 『서울은 만원이다』, 문우출판사, 1966.
_____, 『소시민』, 신구문화사, 1965.
_____, 『나상』, 사상계사, 1961.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문단측면 회고록』, 현대문학사, 1968.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2, 고려원, 1991.
최인훈, 『최인훈 전집』, 문학과지성사, 2009~2010.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한국여류문학인회, 『한국대표여류문학전집』5, 을유문화사, 1977.
한말숙, 「6.25 전쟁 체험과 문단 데뷔 시절」(구술채록 제2차),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2005.10.6.

2. 단행본

1) 국내논저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동춘, 『전쟁과 사회』(개정판), 돌베개, 2006.
김윤식, 『문학사의 라이벌 의식』3, 그린비, 2017.
_____,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론』, 한샘, 1988.

_____,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_____, 『한국현대문학사: 1945~1980』(증보판), 일지사, 1983.
김종균, 『염상섭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김태우, 『폭격』, 창비, 2013.
김학재, 『판문점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김학재 외, 『전장과 사람들: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 선인, 2010.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박명림,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나남, 2011.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돌베개, 2010.
방민호 외,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소설 속 1950~60년대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8.
방민호, 「해방 후 8년 문학사에 관하여」,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 예옥, 2018.
_____, 『서울문학기행』, arte, 2017.
_____, 『한국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성공회대학교 편, 『귀환 혹은 순환』, 그린비, 2013.
신지원, 송영훈, 박가영, 신예진,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2012-02)』, IOM이민정책연구원, 2012.
양창아, 『한나 아렌트, 쫓겨난 자들의 정치』, 이학사, 2019.
오생근, 『현실의 논리와 비평』, 문학과지성사, 1994.
오세희, 『65포로수용소』, 만인보, 2000.
유종호,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이봉일, 『1950년대 분단소설 연구』, 월인, 2001,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장세진, 『숨겨진 미래: 탈냉전 상상의 계보(1945~1972)』, 푸른역사, 2018.
_____, 『상상된 아메리카』, 푸른역사, 2012.
조경희, 『언제나 새길을 밝고 힘차게: 조경희 자서전』, 정음사, 1975.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한국현대문학연구회 편,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2) 국외논저 및 번역서

Kwon, Heonik, 『전쟁과 가족』, 정소영 역, 창비, 2020.
_____,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이한중 역, 민음사, 2013.
柄谷行人, 『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맑스』, 이신철 역, 도서출판b, 2013.
上野 千鶴子, 蘭信三, 平井和子 편,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서재길 역, 어문학사, 2020.
Adey, Peter, 『모빌리티 이론』, 최일만 역, 앨피, 2019.
Agamben, Giorgio, 『호모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Arendt, Hannah, 『전체주의의 기원』, 이진우, 박미애 역, 한길사, 2017.
Bauman, Zygmunt, 『모두스 비벤디: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한상석 역, 후마니타스, 2010.
Brooks, Peter,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이승희, 이혜령, 최승연 역, 소명출판, 2013.
Butler, Judith and Spivak, Gayatri C.,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주해연 역, 웅진, 2008.
Butler, Judith,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양효실 역, 경성대출판부, 2008.
Gatrell, Peter, *The Making of the Modern Refuge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Goffman, Erving, 『스티그마』, 윤선길, 정기현 역, 한신대학교출판부, 2009.
Hughes, Theodore,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자유의 경계선』,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3.
Kim, Monica, *The Interrogation Room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Klein, Christina, *Cold War Orientalism: 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1945-196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Levi, Primo,『이것이 인간인가』, 이현경 역, 돌베개, 2007.
McClennen, Sophia A. and Moore, Alexandra Schultheis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Literature and Human Rights*, Routledge, 2015.
Procter, James,『지금 스튜어트 홀』, 손유경 역, 앨피, 2006.
Sebald, Winfried Georg,『이민자들』, 이재영 역, 창비, 2019.
Stonebridge, Lyndsey, *Placeless People: Writings, Rights, and Refuge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3. 논문 및 기타자료

1) 국내논문 및 기타자료

강성현,「전향에서 감시, 동원, 그리고 학살로: 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중심으로」,『역사연구』14, 역사학연구소, 2004.
강애경,「1960년대, 근대화를 경유하는 변곡점: 이호철의『서울은 만원이다』를 중심으로」,『한국문학이론과 비평』5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강지윤,「원한과 내면: 탈식민 주체와 젠더 역학의 불안들」,『상허학보』50, 상허학회, 2017.
강지희,「1960년대 여성장편소설의 증여와 젠더 수행성 연구: 강신재와 박경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9.
강진호,「이호철 '소시민' 연구」,『민족문학사연구』11, 민족문학사학회, 1997.
공임순,「한국전쟁의 파국과 순국자에 반하는 순애자의 무/국적 신체들: 박경리의『시장과 전장』에 대한 소고」,『한국학연구』5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곽홍연,「이호철 소설의 공간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7.
구재진,「이호철의『서울은 만원이다』연구: 저개발의 하위계층과 동정」,『외국문학연구』5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3.
권명아,「한국전쟁과 주체성의 서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김남석,「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난민의식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3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김문수, 「한국전쟁기 소설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논문, 1997.
김문정,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서울의 변화와 서울 사람의 탄생」,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7.
김민수, 「제국을 넘나든 새벽바람, 『효풍』의 미학과 주체의 포이에시스」, 『상허학보』59, 상허학회, 2020.
김민지, 「최인훈 소설의 대화 형식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9.
김승환, 「염상섭론: 상승하는 부르주아와 육이오」, 『한국학보』74, 일지사, 1994.
김아람, 「한국의 난민 발생과 농촌 정착사업(1945~1960년대)」,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7.
_____, 「한국전쟁기 난민정착사업의 실시와 구호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9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김양선,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 전쟁, 여성, 선정주의는 어떻게 여성문학의 전통이 되었나」, 『여성문학연구』50,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_____, 「향토 멜로드라마와 여성의 위치성: 박경리의 『파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_____, 「전후여성 지식인의 표상과 존재방식: 박경리의 『표류도』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45, 2009.
_____, 「염상섭의 『취우』론: 욕망의 한시성과 텍스트의 탈이념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강어문』14-1, 서강어문학회, 1998.
김영경, 「염상섭 후기소설 연구: 해방 이후 민족공동체의 서사적 상상」,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19.
_____, 「적치하 '서울'의 소설적 형상화: 염상섭의 『취우』 연구」, 『어문연구』4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김영미, 「한국전쟁과 마을 연구」, 『중앙사론』33, 한국중앙사학회, 2011.
_____, 「일제시기~한국전쟁기 주민 동원·통제 연구: 서울지역 정(町)·동회 조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5.
김영찬, 「속물의 고고학: 이호철의 『소시민』 연구」, 『현대소설연구』78, 현대소설학회, 2020.
김예림, 「현해탄의 정동: 국가라는 '슬픔'의 체제와 밀항」, 『석당논총』49, 동

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_____,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29, 상허학회, 2010.
김우종, 「전쟁문학과 리얼리티: 박경리의 『시장과전장』」, 『교수아카데미총서』8-1, 일념, 1995.
김윤식, 「우리 근대문학사의 연속성에 대하여: 『취우』와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1, 한국현대문학회, 1991.
김은경, 「사랑서사와 박경리 문학」, 『인문논총』6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김은하, 「젠더화된 국가 재건과 잃어버린 열정: 박경리의 『표류도』 다시 읽기」, 『비교문화연구』57,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9.
_____, 「이동하는 모더니티와 난민의 감각: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지방 출신 대학생의 도시 입사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6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_____, 「전쟁미망인 재현의 모방과 반역: 박경리의 『표류도』를 대상으로」, 『인문학연구』47,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김재용, 「정부수립 직후 극우반공주의가 남긴 상처, 냉전적 반공주의와 남한 문학인의 고뇌」, 『역사비평』37, 역사비평사, 1996.
김종욱,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 『외국문학연구』5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_____, 「한국전쟁과 여성의 존재 양상: 염상섭의 『미망인』과 「화관」 연작」, 『한국근대문학연구』9, 한국근대문학회, 2004.
_____, 「식민지 체험과 식민주의 의식의 극복: 허준의 「잔등」 연구」, 『현대소설연구』22, 현대소설학회, 2004.
_____, 「염상섭의 『취우』에 나타나는 일상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김학균, 「『서울은 만원이다』에 나타난 도시의 '서발턴'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41, 한국현대문학회, 2013.
김한식, 「전쟁과 유민, 도시에서 살아남기: 이호철의 『소시민』 연구」, 『비평문학』34, 한국비평문학회, 2009.
김학재, 「한국전쟁기 대통령 긴급명령과 예외상태의 법제화: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의 형성과 적용」, 『사회와 역사』91, 한국사회

사학회, 2011.
_____,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구원'의 신화: 북한점령시기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창설과정과 성격」, 『사림』33, 수선사학회, 2009.
김희경,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가면 쓰기'의 서사 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6.
나보령, 「피난지 문단을 호명하는 한 가지 방식: 김동리의 「밀다원시대」에 나타난 장소의 정치」, 『한국현대문학연구』54, 한국현대문학회, 2018.
_____,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과 아메리카니즘」, 『인문논총』74-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_____, 「시장의 풍경에 주목해 다시 읽는 전후소설 시론: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시장의 의미 연구」, 『현대소설연구』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남상권, 「전후 피난지 체험소설 연구」, 『상허학보』8, 상허학회, 2002.
류진희, 「식민지의 노라는 해방 후 어떻게 되었는가: 탈식민 노라붐과 이무영의 『3년』」, 『민족문학사연구』57, 민족문학사학회, 2018.
박상희, 「난민과 탈북민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 시민권의 변용과 학장」,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9.
박진영, 「전쟁의 유산: 이념의 해체와 그 애도로서의 소시민화: 이호철의 『소시민』(1964)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5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박창범, 「대결 및 타협의 정신과 비대칭적 사랑: 박경리의 초기 장편 『애가』와 『표류도』, 『성녀와 마녀』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42,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8.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 연구의 방법」, 『춘원연구학보』, 춘원연구학회, 2017.
_____, 「월남문학의 세 유형: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7-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_____, 「이호철 선생을 만나다」, 『문학의 오늘』, 2015.봄호.
배경렬, 「한국전쟁 이후 염상섭 소설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32,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배하은, 「전시의 서사, 전후의 윤리」, 『한국현대문학연구』45, 한국현대문학회, 2015.

_____,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적 현실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2.
서세림, 「월남작가 소설 연구: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6.
서은주, 「한국전쟁의 기억과 글쓰기: 거제도 포로수용소 체험을 중심으로」, 『작문연구』12, 한국작문학회, 2011.
손유경, 「사후의 리얼리즘: 김향숙 소설의 "살아남은 딸"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54, 민족문학사학회, 2014.
손주희, 「한국 체류 난민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박사논문, 2018.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8.
송호근, 「삶에의 연민, 한의 미학」(인터뷰), 『작가세계』, 1994.8.
신영덕, 「전쟁기 염상섭의 해군 체험과 문학활동」, 『한국학보』18-2, 일지사, 1992.
신지영, 「'난민'과 '인민' 사이: 梁七星· 梁川七星· Komarudin· 史尼育唔· 中村輝夫· 李光輝」, 『상허학보』48, 상허학회, 2016.
신지원, 「'이주-비호의 연계성' 담론과 난민보호 위기에 관한 정책적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15-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신형기, 「6.25와 이야기 경험: 전쟁 수기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31, 상허학회, 2011.
안서현, 「작가들의 전쟁 체험 수기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28, 한국근대문학회, 2013.
안용희, 「이호철의 『소시민』에서 '제사' 모티프의 의미」, 『관악어문연구』3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3.
오양진, 「6.25전쟁과 애도의 문제: 이호철의 「나상」과 황순원의 「비바리」를 대상으로」, 『한국학연구』42,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2.
오태영, 「패전과 해방, 미귀환자의 반이동의 정치성」, 『현대소설연구』72, 현대소설학회, 2018.
유선영, 「식민지민 디아스포라의 불가능한 장소성」, 『사회와역사』98, 한국사회사학회, 2013.
유승환, 「황석영 문학의 언어와 양식」,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6.

_____, 「잔류파와 도강파의 논리, 그리고 고백의 문제」, 『제1차 전국학술발표대회 '해방 70주년, 해방 후 8년을 재조명한다'』(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유임하, 「박경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문학적 전환: 『애가』와 『표류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4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_____,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공포」, 『현대소설연구』2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유학영, 「1950년대 한국소설 연구: 전쟁체험과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87.
이　경, 「『토지』와 겁탈의 변검술」, 『여성문학연구』27,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이동근,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에 나타난 근대화와 작가의식 연구」, 『동서인문학』49,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이상진, 「예외를 보는 시선과 더블: 박경리 소설의 결손 인물」, 『여성문학연구』3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이민영, 「전시의 서울과 피난의 (불)가능성」, 『현대소설연구』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_____, 「1945~1953년 한국소설과 민족담론의 탈식민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5.
이봉범, 「냉전 금제와 프로파간다: 반란, 전향, 부역 의제의 제도화와 내부냉전」, 『대동문화연구』10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_____,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전반기(1952.8~1956.3)의 매체전략과 문학의 관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 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론」, 『역사문제연구』35, 역사문제연구소, 2016.
이은자, 「월남작가 작품에 나타난 반공이데올로기 수용과 비판양상」, 『현대소설연구』1, 한국현대소설학회, 1994.
이임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사림』36, 수선사학회, 2010.
_____,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의 인구조사와 통제」, 『사림』33, 수선사학회, 2009.
이정옥, 「경제개발총력전시대 장편소설의 섹슈얼리티 구성 방식」, 『아시아여

성연구』4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3.
이종호, 「해방기 염상섭과 『경향신문』」, 『구보학보』21, 구보학회, 2019.
_____,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 장해성의 『두만강』과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구보학보』16, 구보학회, 2017.
이철호, 「반복과 예외, 혹은 불가능한 공동체: 『취우』(1953)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8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이혜경, 「주체의 욕망과 생명의식의 변화 양상 연구: 박경리의 『표류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70, 국제어문학회, 2016.
이호규, 「1960년대 소설의 주체 생산 연구: 이호철, 최인훈, 김승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99.
임경순, 「폐쇄된 시간과 정신성으로서의 이념: 이호철의 『소시민』론」, 『겨레어문학』39, 겨레어문학회, 2007.
임미진, 「해방직후 귀환 서사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젠더」, 『현대소설연구』69,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임정연, 「박경리 문학의 공간 상상력과 탈근대적 사유: 『표류도』와 『녹지대』에 나타난 '다방'과 '섬'의 헤테로토피아성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6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장문석, 「최인훈 문학과 '아시아'라는 사상」,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8.
전소영, 「타자와 환대, 이호철 소설의 한 원형」, 『현대소설연구』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_____, 「월남작가의 문학 세계에 나타난 주체 형성 과정 연구: 최인훈과 이호철의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9.
정인섭, 「한국에서의 난민 수용 실행」, 『서울국제법연구』16-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9.
정주아, 「난민의 언어적 조건과 '증인'의 시선: 월남작가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48, 상허학회, 2016.
_____, 「정치적 난민의 공간 감각: 월남작가와 월경의 체험」, 『한국근대문학연구』31, 한국근대문학회, 2015.
정호웅, 「박경리의 시세계」, 『구보학보』26, 구보학회, 2020.
_____, 「탈향, 그 출발의 소설사적 의미: 이호철의 『소시민』론」, 『문학사와

비평』2, 문학사와 비평학회, 1993.
_____, 「50년대 소설론」, 『문학사와 비평』1, 문학사와 비평학회, 1991.
조명기, 「『서울은 만원이다』 연구」, 『문창어문논집』37, 문창어문학회, 2000.
조지혜,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상호주관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7.
차미령, 「한국 전쟁과 신원 증명 장치의 기원: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주권의 문제」, 『구보학보』18, 구보학회, 2018.
_____,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정치성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0.
차철욱, 「한국전쟁기 임시(피란)수도 부산의 재현과 의미」, 『항도부산』3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최영자,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를 통해 본 '돈'의 행방 찾기와 의미」, 『어문논집』46, 중앙어문학회, 2011.
최일남, 「『토지』의 박경리 씨, 한을 알 때 인간은 눈을 뜬다」(인터뷰), 『신동아』, 1982.10.
한수영, 「탈향, 그 신산한 역사적 삶의 도정」(인터뷰),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1997.봄호.
_____, 「월남작가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반공이데올로기와 1950년대 현실인식」, 『역사비평』21, 역사비평사, 1993.
허 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5.
_____, 「한국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와 전후 가족질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2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황태묵,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분단의식 변모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1.
황호택, 「국민문학 '토지' 작가 박경리, 행복했다면 문학을 껴안지 않았다」(인터뷰), 『신동아』, 2005.1.

2) 국외논문

Bakara, Hadji, "Introduction: Refugee Literatures," *Journal of Narrative*

Theory, vol.50, no.3, Fall 2020.

de Wit, Jerôme, "Writing under wartime conditions: North and South Korean writers during the Korean war(1950-1953)," PhD dissertation, Leiden University, 2015.

Lo, Aline, "Manifested Destinies: Refugee Narratives in Contemporary American Literatur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13.

Lo, Aline, "Fanciful Flights: Reimagining Refugee Narratives of Escape in Kao Kalia Yang's The Latehomecomer: A Hmong Family Memoir," *Auto/Biography Studies*, vol.32, no.3, August 2017.

Malkki, Liisa H., "Speechless Emissaries: Refugees, Humanitarianism, and Dehistoricization," *Cultural Anthropology*, vol.11, no.3, August, 1996.

Yuh, Ji-Yeon, "Moved by War: Migration, Diaspora, and the Korean War,"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vol.8, no.3, October 2005.

Abstract

Refugee Consciousness in Postwar Korean Literature
- Yom Sang-seop, Pak Kyongni, Lee Ho-cheol -

Na Boryeo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focus on the refugee experience during the Korean War, this thesis examines the situation of displacement faced by Korean writ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fugee consciousness they formed as a result, and explores the representation in postwar literature of the active and creative literary practices these writers employed to negotiate and transcend this situation.

I suggest that, while the various and repeated situations of displacement that aros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midst the consecutive Asia-Pacific and Korean Wars and the creation of the newborn postcolonial nation-state do meet the definition of 'refugee' under international law in some aspect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ncept for the distinct regional and historical context of 'Korean refugees,' and I follow this with a discussion of the specific case of refugees who fled the conflict of the Korean War.

Here I place the emphasis not on who is defined as a refugee, but on how the concept of refugee helps to capture experiences marginalized by established history centered on nation-states, leads to a reevaluation of their literary representation and activity, and ultimately encourages

construction of a narrative of Korean literary history that differs from the story of creating a modern nation state and national literature. Moreover I do not approach these authors only as cast-out objects of persecution, but instead rediscover in them active subjects who stood at the advanced forefront of overcoming the violence, oppressive regimes, and ideological conflict of the wartime and postwar periods, to pursue literary value, autonomy, freedom, and peace during a period often referred to as a 'time of darkness.'

This approach breaks from the previous research in three aspects. First, by reconstructing the more minute variations in diverse refugee experiences which have previously been subsumed in the overly broad concept of 'uprootedness,' I specify more detailed concepts of 'refugee consciousness' as 'stigmatization', 'placelessness', or 'bare life.'

Next, by asking about the movement of refugees after they are uprooted, I shift the discussion from 'roots' to 'routes.' This is to illuminate the agency exhibited by refugees, rather than reducing them to structural violence and coercion which produced them. First, while examining the refugee consciousness of 'those marked by stigma,' I approach the text as a field on which the 'refugee stigma' contends with covering strategies which attempt to conceal it. Second, while investigating the refugee consciousness of 'those without place,' I approach the texts as a form of spatial practice attempting to recover, create, or flee from a place. Third, in relation to the refugee consciousness of 'bare life,' I approach texts as a field of new political imagination searching for a political community different from the nation state, which birthed this condition of bare life.

Finally, this thesis does not limit the period of research to wartime or the immediate postwar period, but expands it into the mid-1960s. Of course, the experience of displacement during the Korean War is central to the discussion, but by approaching the resulting refugee consciousness not as temporary and exceptional but as a continuos, long-term phenomenon, it becomes possible to discuss its profound effect on Korean life, consciousness, and literature.

This thesis focuses on the work of Yom Sang-seop, Pak Kyongni, and Lee Ho-cheol. These authors demand attention because they occupy a particular position as not only war refugees but also political refugees, and moreover, their literary practice reveals special negotiations of refugee consciousness. The three kinds of refugee consciousness discussed above typically appear in combination, but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proportion of their intersection differs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faced by each author.

In chapter two, I discuss the situation under which Yom Sang-seop, who was twice branded by stigma—first as a part of the National Bodo League, which limited his social position, and then as a so-called 'traitor intellectual' when he remained in Seoul while it was occupied by the North Korean military—came to volunteer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I approach his dramatic transformation into a naval officer as a type of camouflage attempting to cover his stigma and obtain the mark of citizen. On the other side of this camouflage, I emphasize his refugee consciousness of bare life that persists from its origin in his return from Manchuria following the liberation. This thesis attempts to capture Yom's contradictory status—struggling to belong within the boundary of 'citizen' as a soldier carrying out war for the state, while continuing to contain an excess uninterpellated by this process—in the phrase 'becoming (non-)citizen.'

The literature Yom created in this situation is a 'Cold War gray zone' in which Cold War boundaries—allied forces/enemy forces, citizens/non-citizens, anti-communists/reds—grow indistinct, foregrounding the realm of intimacy that is daily life. Here I focus on the way in which Yom, despite depicting the 'small wars' waged within familiar daily life, also presents this realm as an impregnable fortress which the cold war cannot completely reconstitute. Further, I explore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s mechanism into a strategy to lead individuals to deviate from ideological interpellations like the 'enemy' of anti-communism or the 'ally' of the myth of 'humanitarian relief.' Ultimately Yom's postwar literature is significant for its contribution to a

post-Cold War imagination arising from his liberation-period literature.

In Chapter 3 I discuss the situation in which Pak Kyongni found herself doubly sealed-off as a 'war traitor widow.' In an anticommunist society, under the dual policie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system of guilt-by-association, and in a patriarchical society where the subjection of women outside a 'legitimate family' to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was taken for granted, Pak was sealed out of the state as the surviving family of a 'war traitor,' and out of the institution of the family as a widow with a record of divorce and remarriage. Even the realm of intimacy, in which Yom's works had discovered a fortress to protect the individual from war, was merely another space closed off to Pak. Pak's example alerts us to the 'outside within' which shut out refugee women even inside the national borders and within the family unit. This thesis attempts to express the refugee consciousness of Pak Kyongni, marked by these circumstance with a stigma, through the phrase 'doubly sealed-off refugee woman.'

Compo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Pak's literature depicts the various situations of displacement encountered by women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and is characterized by portrayals of women reemerging as the subject of their own lives through a narrative of love. Here I explain Pak's unique grammar of love through the concept of 'performativity of love.' Similarly, Pak attempts to convert the refugee woman's movement, which seems like a passive and precarious drifting, into an active—and imbued with agency—'intentional drift.' In that process, the irresistible force of movement that impels the refugee woman to flee conflict, cross south (*weolnam*), stow away, and so on, is reinterpreted as continuing the ancient genealogy of 'leaving home' in feminist literature. I approach this as a 'refugee becoming,' an act of taking on the significations of 'liberation' and 'flight(fleeing)'. In this way, from out of the most shut-off and isolated position, the furthest advanced, endlessly drifting and nowhere complacent problematizion of the situation can be drawn from Pak's literature.

In Chapter 4, I focus on the refugee circumstances of Lee Ho-cheol,

who had to conceal the stigma of being a member of the North Korean army taken as a prisoner of war before ultimately being among those who crossed south. Even beyond the mark of these stigma, I emphasize his specific circumstances as a POW not registered in the wartime POW list, and as an 'undocumented' person who crossed south and took on a counterfeit nationality to live in South Korean society. In other words, unlike other crossed-south authors (*weolnam jakga*) who became refugees as a result of crossing south, Lee became an undocumented refugee as a POW, before he had officially crossed south, and that status was only continued and intensified after he eventually crossed south. Here I focus my discussion on this process and the resulting formation of his refugee consciousness as one of 'those without a place.'

Despite living as an undocumented refugee who belonged nowhere in reality and who had access to no place which held significance, Lee is interesting because he nevertheless developed a literary practice of place-creation and imagination of pluralistic and radical community. This contrasts with Pak Kyongni's literature of refusing to settle, continuously fleeing and drifting. Lee's literature is based on the concept of an 'imaginary community of crossed-south literature (*weolnam munhak*)' shared by authors who crossed south, as well as on the 'community of refugees' transcending the nation state which he dreamed of as a result of his status as an undocumented refugee. Here I illuminate these aspects of his literature and borrow the concept of the '*bad Gemeinschaft*' to help explain them. I also examine how this imagination of community extended even to the migrants who moved to postwar Seoul during the so-called 'era of total war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assign special value to the dream of settling shared by these migrants, and to the multiple places they created.

This thesis engages in the above discussion not only to examine refugee consciousness, but also to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how an orientation toward literary value, autonomy, freedom, and peace was pursued and defended during wartime and the postwar period. The ability to re-illuminate and modernize this kind of literary thought is an

essential significance of research on postwar Korean Literature under today's continued system of armistice and division. This thesis rediscovers the creativity and agency of these Korean authors, who sought the furthest advanced consciousness of issues despite residing in the most precarious position of 'refugee,' and illuminates refugee literature as one of Korean literature's richest fields.

Keywords: Korean War, Fleeing Conflict, Cold War, Refugee Literature, Postwar Literature, War Traitor, War Widow, Prisoner of War, Anti-communism, Refugee Women, Liberation, Repatriation, Crossing South, Migration, Migrant, Refugee Capital Busan, Nation State.

Student Number: 2013-30841